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학위논문

한국어 ‘것’ 구성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孫　煜

한국어 ‘것’ 구성 연구

지도교수 문 숙 영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손 욱

손욱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전영철	(인)
부 위 원 장	장윤희	(인)
위 원	임동훈	(인)
위 원	박진호	(인)
위 원	문숙영	(인)

<한국어 초록>

한국어 ‘것’ 구성 연구

孫 煜(손 욱)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단어 중에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인 ‘것’이 포함된 여러 구성을 최대한 망라한 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 구성에 쓰이는 ‘것’이나 ‘것’ 구성 전체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것’의 제 분포와 용법을 살펴보았다. 먼저 ‘것’의 다양한 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대용어, 접어, 기능명사 등의 술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고, 의존명사의 명사성을 고려하여 명사성이 남아 있는 ‘것’만 의존명사 ‘것’으로 본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문어나 구어에서의 ‘것’의 여러 실현형을 정리하고 실현형들의 출현 환경과 ‘것’의 출현 환경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거’, ‘게’, ‘걸’ 등의 실현형은 일반적으로 ‘것’과 출현 환경이 거의 같으며, ‘아닌 게 아니라’를 비롯한 일부 굳어진 표현에서는 특정한 실현형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나아가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이 가지는 여러 통사·의미적 특징을 확인하였고, 이 특징들을 토대로 기준을 추가해 가면서 ‘것’의 여러 용법을 추출하고 분류하였다. ‘것’과 결합하는 선·후행 요소의 특징과 ‘것’ 구성의 통사·의미적 기능에 따라 ‘것’의 용법을 크게 절 구성에 쓰이는 ‘것’,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 구문화 및 어휘화 ‘것’ 구성으로 나누었다.

제3장에서는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기능을 살펴보았고 각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위상을 논의하였다. ‘것’이 명사 보절 뒤에 나타날 때는 보절 명사의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이와 대치될 수 있는 보절 일반 명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때 ‘것’이 어휘적 기능을 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내핵관계절 안에 있는 핵어 명사와 공지시되고 어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내핵관계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빈자리를 채워주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명사절의 ‘것’은 의미가 많이 추상화되어 명사성을 거의 상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의 ‘것은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 ‘-ㄴ/ㄹ’

과 결합해 명사화소 ‘-음’과 ‘-기’에 준하는 문법적 요소가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명제가 필요한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논의하였다. 분열문 구성의 ‘것’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 외에 다른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로 대치하기 어렵고 명사성을 거의 상실하기 때문에 어휘적 기능을 가지지 않음을 살펴보았고, 이때의 ‘것’은 분열된 성분인 ‘x’를 대신하여 쓰이고, 비분열된 성분으로 구성된 관형사절이 ‘이다’의 주어가 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제4장에서는 어미 및 어미 상당 구성으로 쓰이는 ‘것’ 구성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다루었다. 어미 및 어미 상당 구성으로 쓰이는 ‘것’ 구성을 출현하는 위치와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의 ‘것’ 구성, 연결어미 상당의 ‘것’ 구성, 선어말어미 상당의 ‘것’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종결어미 ‘것’ 구성에서는 ‘-ㄹ게’, ‘-ㄴ/ㄹ걸’, ‘-ㄹ 것’을 검토하였고, ‘-ㄹ 것’을 탈종속화의 한 예로 보는 이유도 밝혔다. 또한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쓰인 ‘것’ 구성으로 ‘-ㄴ 것이’, ‘-ㄴ/ㄹ 것을’, ‘-다는 것이/것을’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후행 서술어의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없으며, 연결하는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 간에 특정한 의미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선어말어미 상당 구성으로 쓰이는 ‘것’ 구성으로는 ‘-ㄹ 것이-’와 ‘-ㄴ/ㄹ 것 같-’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추측’의 의미를 가진 ‘-ㄹ 것이-’와 ‘-ㄹ 것 같-’ 간에 존재하는 화용적 차이도 밝히었다.

제5장에서는 구문화되거나 어휘화된 ‘것’ 구성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다루었다. 구문화된 ‘것’ 구성으로는 ‘-ㄴ 것이다’, ‘-ㄴ 거 있지’, ‘관형사형 어미 + 게 어디 있어/어디야/뭐야’, ‘-ㄹ 것 없다’ 등 아직 어미나 어미 상당 구성으로 보기 어렵지만 특정적인 의미 기능을 가지는 구성을 살펴보았고, 어휘화된 ‘것’ 구성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게 아니라’, ‘N-할 것 없이’ 등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관용적 표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미진한 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것’ 구성, 의존명사, 명사 보절, 내핵관계절, 명사절, 분열문, 어미, 어미 상당 구성, 구문화된 구성, 어휘화된 구성

학번: 2019-39370

차 례

1. 서론 ····· 1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

1.2. ‘것’에 대한 연구 경향과 선행 연구 ····· 4

1.3. 논의의 구성 ····· 12

2. ‘것’의 제 분포와 용법 ····· 14

2.1. ‘것’의 범주 ····· 14

2.2. ‘것’의 실현형과 분포 ····· 23

2.3. ‘것’ 용법의 분류 ····· 28

2.3.1. 기존 기술 검토 ····· 28

2.3.2.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 ····· 35

2.3.3. ‘것’의 용법과 분류 기준 ····· 41

3.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특징과 위상 ····· 47

3.1.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 ····· 47

3.1.1. 명사 보절의 개념 ····· 47

3.1.2. 통사적 특징 ····· 53

3.1.3. 의미적 기능 ····· 57

3.2.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 60

3.2.1. 내핵관계절의 개념 ····· 60

3.2.2. 통사적 특징 ····· 70

3.2.3. 의미적 기능 ····· 76

3.3. 명사절의 ‘것’ ····· 81

3.3.1. 명사절의 종류 ····· 81

3.3.2. 통사적 특징 ····· 87
3.3.3. 의미적 기능 ····· 93
3.4. 분열문 구성의 ‘것’ ····· 100
3.4.1. 분열문의 개념 ····· 100
3.4.2. 통사적 특징 ····· 107
3.4.3. 의미적 기능 ····· 111
3.4.4. 준분열문 구성 ····· 115

4.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 ····· 122
4.1. 종결어미의 ‘것’ 구성 ····· 122
4.1.1. ‘-ㄹ게’ ····· 122
4.1.2. ‘-ㄴ/ㄹ걸’ ····· 133
4.1.3. ‘-ㄹ 것’ ····· 158
4.2. 연결어미 상당의 ‘것’ 구성 ····· 164
4.2.1. ‘-ㄴ 것이’ ····· 167
4.2.2. ‘-ㄴ/ㄹ 것을’ ····· 172
4.2.3. ‘-다는 것이/것을’ ····· 179
4.3. 선어말어미 상당의 ‘것’ 구성 ····· 186
4.3.1. ‘-ㄹ 것이-’ ····· 186
4.3.2. ‘-ㄴ/ㄹ 것 같-’ ····· 197

5.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 ····· 208
5.1. ‘-ㄴ 것이다’ ····· 208
5.2. ‘-ㄴ 거 있다’ ····· 231
5.3. ‘관형사형 어미 + 게 어디 있어/어디야/뭐야’ ····· 235
5.4. ‘-ㄹ 것 없다’ ····· 244
5.5. 어휘화된 ‘것’ 구성 ····· 246

6. 결론 ····· 263

참고문헌 ····· 270
<中文摘要> ····· 290

1. 서론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것’은 한국어 단어 중에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이고,[1]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다. ‘것’은 다양한 구성에 나타나므로 이들을 한 데 모아 ‘것’ 용법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것’ 구성은 ‘것’이 포함된 구성을 말한다. 본고는 ‘것’이 다양한 구성에 쓰이는 여러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것’이 어떤 구성에 쓰이는지와 각 구성에 쓰이는 ‘것’ 혹은 ‘것’ 구성 전체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기능이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것’은 의존명사의 대표적인 예로서 선·후행 요소와 결합할 때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때의 ‘것’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물 등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아래 (1)은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의 예이다.

(1) 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일이지 엄마 것은 아니다.
나. 이불을 새 것으로 갈아주었다.
다. 경비실에 온 것을 가져왔다.

(1)의 ‘것’은 각각 ‘일’, ‘이불’, ‘물건’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것’ 앞에 명사, 관형사, 관형사절 등이 올 수 있고, ‘것’ 뒤에 다양한 조사가 올 수 있다. 또한 (1다)의 경우, ‘것’은 관형사절 안에 비어 있는 성분과 공지시 관계를 이루고 관형사절의 주어가 될 수 있다.

(1)처럼 명사, 관형사, 관형사절 등 다양한 수식어 뒤에 쓰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주로 절 구성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때의 ‘것’은 (1다)의 ‘것’과 다소 다르다. (2)

1) 국립국어원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보고서>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208&etc_seq=63)

는 주로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예이다.

(2) 가. 경비실에 택배가 온 것을 가져왔다.
나. 경비실에 택배가 오는 것을 보았다.
다. 경비실에 택배가 온 것을 알았다.
라. 경비실에 택배를 놓은 것은 이틀 전부터이다.

(2가)의 '것'은 내핵관계절 구성에 쓰이는 '것'인데, 이때의 '것'은 '택배'를 가리키고 '것'과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성분이 관형사절 안에 출현한다. (2나)의 '것'은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인데, 이때의 '것'은 '장면'을 비롯한 명사로 대치할 수 있지만 선행하는 관형사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또한 (2다)는 명사절의 예인데, 이때의 '것'은 이미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명사화소 '-음'에 준하는 하나의 문법적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선행하는 관형사절에도 들어갈 수 없다. 이때의 '것'은 '사실'을 비롯한 명사로 환언할 수 있으나 (2나)의 '것'과 달리 명사화소 '-음'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 나아가 (2라)의 '것'은 분열문 구성의 '것'인데 일반 명사나 명사화소 '-음'으로 대치하기 어렵다. 이때의 '것'은 분열된 성분 'x'를 대신하여 쓰이고 비분열된 성분으로 구성된 관형사절이 '이다'의 주어가 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2가)~(2다)의 예문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에 나타나는 '것'의 특성은 조금씩 다르다. 이는 '것'이 절 구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선·후행 요소와 결합해 하나의 구성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많다.

(3) 가. 떠날 때 차라리 울지 말걸.
나. 내일 집에 갈게요.
다.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을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라. 2번을 누른다는 게 1번을 눌렀다.
마. 이 글을 읽으면 아내는 아마 웃을 것이다.
바. 은지와의 약속에 늦을 것 같다.

(4) 가. 구급차 타고 올 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딱 선생님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죠?

나. 하필 여기서 만날 게 뭐야.

다. 깜짝 놀라 방 쪽을 쳐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집 안에 온통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라. 5세기 이전에 모랫바람에 묻힌 실크로드 왕국 누란(樓蘭)은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소설의 소재로 빈도 높게 선호되었던 환상의 도시다.

(3)은 어미나 어미 상당 구성으로 쓰인 '것' 구성의 예이고 (4)는 구문화된 '것' 구성과 어휘화된 '것' 구성의 예이다. 전자는 특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어미적 기능도 동반하는 '것' 구성이고, 후자는 특정한 의미 기능을 지니지만 어미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것' 구성이다. (3)과 (4)의 '것'은 (2)의 '것'과 달리 선행하는 수식어뿐 아니라 후행하는 조사나 서술어까지 고정되어 있다. 이때의 '것'은 특정 요소와만 결합하고 이를 포함한 구성 전체가 특정 의미만 나타내기 때문에 (1)이나 (2)에 나타난 '것'의 기능들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다양한 구성에 쓰이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것'의 용법을 최대한 망라하여 이들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첫째, '것'은 명사나 관형사 등 뒤에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관형사절 뒤에도 쓰일 수 있다. 또한 '것'이 쓰인 절 구성에 따라 '것'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기능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것'이 쓰인 절 구성의 종류를 밝히고 각 종류의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기능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둘째, '것'이 이에 선행하는 수식어뿐 아니라 후행하는 조사나 서술어까지 고정되어 형성된 '것' 구성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이 구성들은 '것'이 포함되지만 '것'의 일반적인 용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성들은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것'과 관련된 연구에 포함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ㄹ 것이-'를 비롯한 구성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많이 검토되었으나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쓰인 '-ㄴ/ㄹ 것을'이나 구문화된 구성인 '-ㄴ 거 있지' 등은 아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고

는 주로 이러한 '것' 구성의 주된 기능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고 각 구성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도 검토할 것이다.

본고는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 문어 말뭉치 및 구어 말뭉치, '모두의 말뭉치'의 문어 말뭉치 및 구어 말뭉치, 그리고 드라마 대본 등을 포함한 준구어 말뭉치에서 발췌한 예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말뭉치들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되 이 말뭉치들에서 찾지 못하는 일부 예는 인터넷에서 찾은 예, 필자가 드라마 등에서 수집한 예 등을 사용하였다.

1.2. '것'에 대한 연구 경향과 선행 연구

한국어 '것'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매우 길다. 선구적인 논의로는 주시경(1910), 최현배(1937) 등이 있다. 이 논의들에서는 모두 '것'이 홀로 쓰이지 못하는 특성에 주목하였다. 그 이후로 '것'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어에서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의존명사로 꼽히며 '의존명사'라는 범주 안에서 주로 검토되었다. 고영근(1970), 이주행(1986), 류현미(1989), 임동훈(1991), 손춘섭(1992), 안효경(1999/2001), 이정희(2005), 한지수(2022) 등의 연구는 의존명사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의존명사 체계의 여러 통사·의미적 특징을 밝히는 연구들인데,[2] 연구 대상에 모두 의존명사 '것'이 포함되어 있다.[3] 이 논의들은 '것'을 주로 '사물'을 가리키는 의존명사로 보았고, 다른 의존명사에 비해 '것'의 통사적인 제약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하자면 '것' 앞에 올 수 있는 수식어나 '것' 뒤에 오는 조사나 서술어 등에 있어 제약이 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임동훈(1991), 안효경(1999/2001), 이정희(2005) 등에서는 선·후행 요소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의 형식을 검토할 뿐 아니라, '-ㄹ 것이다'를

2) 모든 논의에서 '의존명사'라는 술어가 쓰이는 것은 아니다. 고영근(1970)을 비롯한 연구에서는 '형식명사'라는 술어가 쓰이고, 이주행(1986)을 비롯한 연구에서는 '불완전명사'라는 술어가 쓰인다. 이 술어들에 대한 논의는 2.1.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3) 고영근(1970), 이주행(1986), 임동훈(1991)에서는 여러 의존명사의 통사적 특징을 위주로 검토하였고 의존명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비롯한 ‘것’이 포함된 구성도 언급하였다.

한편, 한국어의 ‘것’을 ‘의존명사’라는 범주가 아닌 다른 범주와 관련지어 처리한 논의도 확인된다. 양명희(1998)에서는 ‘것’을 대용어의 일종으로 보았고, 이영제(2013)에서는 ‘것’을 기능명사로 간주하였다. 또한 채희락(2007), 정원돈(2017), Chae(2020) 등에서는 ‘것’을 비롯한 일정한 부류의 단어들이 ‘접사’보다 독립성이 더 강하지만 ‘일반 단어’보다 의존성이 더 강하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것’을 ‘접사’와 ‘일반 단어’의 중간에 있는 ‘접어’의 일종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는 여러 이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것’의 여러 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2.1.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것’을 하나의 범주 안에서 다루는 연구가 있을 뿐 아니라 ‘것’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간주하여 전반적인 ‘것’의 쓰임을 다루는 논의도 있다. 정호완(1983), 최규일(1993), 손춘섭(1997), 김종복 외(2008가), Yoon(2012) 등에서는 ‘것’이 가지는 여러 통사·의미적 기능을 검토하였다. 정호완(1983)에서는 ‘것’이 ‘사실과 사물’을 가리키는 기능, ‘추정과 확인’을 하는 기능, 그리고 ‘명령과 요구’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고, 최규일(1993)에서는 ‘것’이 서술/확인하는 기능, 강조/확인하는 기능, 대용하는 기능, 지시하는 기능, 명령/요청을 끝맺게 하는 기능, 그리고 명사구 (보문) 구성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종복 외(2008가)에서는 ‘것’이 포함된 여러 구문을 지시사 뒤에 오는 ‘것’, 보절에 쓰인 ‘것’, 명령의 ‘것’, 부사 기능의 ‘것’ 등 16개 용법으로 나눴고 각각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들을 보면 통사적 측면의 분류도 있고 의미적인 측면의 분류도 있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굳어진 표현이 된 ‘것’ 구성의 의미를 ‘것’의 의미로 볼 것인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것’ 자체의 용법과 굳어진 표현으로 쓰인 ‘것’ 구성 용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문제가 된다.

‘것’은 여러 용법을 가지는데, ‘것’의 용법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논의보다 ‘것’의 개별적인 용법을 다루는 논의가 더 많다. 또한 다른 범주를 검토하면서 ‘것’의 일부 기능을 밝힌 것도 있다. 다음으로 ‘것’의 개별적인 용법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해 보겠다.

①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과 명사절의 ‘것’

‘것’은 관형사절 뒤에 많이 쓰인다. 일부 관형사절 뒤에 쓰인 ‘것’은 관형사절 내에 들어가 어떤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하고 관형사절 내에 있는 성분과 공지시 관계도 이루지 못한다. 이때의 ‘것’의 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임홍빈(1974), 홍종선(1985), 남기심(1991), 이필영(1998), 안명철(1999), 이홍식(1999) 등에서는 이때의 ‘것’은 ‘일’이나 ‘사실’을 비롯한 명사와 대치할 수 있고, 앞에 오는 관형사절이 ‘것’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것’을 일종의 보절 명사로 보았다. 반면에 정주리(1994/2004), 김종복·김태호(2009), Yoon(2012) 등에서는 이때의 ‘것’이 이미 어휘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것’을 ‘것’ 앞에 오는 절이 주절 서술어의 논항이 되게 하는 문법적 역할을 하며, ‘것’ 동사 보절의 보절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행하는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것’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의 ‘것’이 보절 명사인지 보절자인지 단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왕문용·민현식(1993), 남기심(2001), 문숙영(2017) 등에서는 ‘것’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도 포함되는 ‘-ㄴ/ㄹ 것’ 전체가 명사형 어미인 ‘-기’나 ‘-음’처럼 명사절을 구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문숙영(2017)에서는 명제가 필요한 자리에 쓰이는 ‘-ㄴ/ㄹ 것’만 명사화소로 보았다. 이 논의에서는 명사절의 ‘것’은 다른 환경에 출현하는 ‘것’과 명사성이 다르다는 점, 보절 명사와 서로 대치하기 어렵다는 점, 대치 가능한 경우라도 서로 의미·화용적 측면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통해 ‘것’ 명사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것’은 앞에 오는 관형사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데 관형사절 안의 한 성분과 공지시 관계를 이룰 때도 있다. 이때의 관형사절을 흔히 내핵관계절이라고 부른다. 한국어 내핵관계절에 대해서는 Jhang(1994), Kim(2004), Lee(2006) 등의 영어 논문에서 많이 언급되었고, 문숙영(2012)를 시작으로 하여 국내에서도 내핵관계절에 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어에서 내핵관계절을 구성하는 데 ‘것’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Jhang(1994), Chung & Kim(2003), 한진희·홍성심(2013), 조수근(2016), 연재훈·박종

원(2021) 등의 연구에서는 ‘것’ 앞에 올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 ‘것’이 지시사의 수식을 받는지 여부 등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과 관련된 여러 통사적인 특징을 밝힌 바 있지만, 서로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Jhang(1994), Chung & Kim(2003), 이정훈(2020) 등에서는 ‘것’이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Lee(2006), 한진희·홍성심(2013) 등에서는 ‘것’이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 의견이 갈린다. Jhang(1994), Jo(2003), 한진희·홍성심(2013), 경소력(2018) 등에서는 내핵관계절의 ‘것’이 문법적 기능만 담당하고 어휘적 기능을 거의 가지지 않기 때문에 ‘것’을 보절자나 명사화소로 보았다. 반면에 Kim(2004), Lee(2006) 등에서는 ‘것’과 대응할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것’이 보절자나 명사화소가 아닌 대명사라고 하였다. 특히 Kim(2004)에서는 내핵관계절의 ‘것’은 한국어의 전형적인 명사화소인 ‘-음’과 ‘-기’나 보절자 ‘-고’나 ‘-도록’과 통사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통해 내핵관계절의 ‘것’이 보절자나 명사화소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Yoon(2005, 2012), 이정훈(2020) 등에서는 내핵관계절의 ‘것’이 영어의 ‘it’이나 ‘there’처럼 ‘허사’라고 하였다. 이 견해도 ‘것’이 어휘적인 의미를 결여하고 문법적인 의미만 가진다는 본다.

③ 분열문 구성의 ‘것’

분열문의 범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임홍규(1986), Jhang(1994), 남길임(2006), 최윤지(2008), Kim, Bender & Bond(2013), 최윤지(2016)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것’이 포함된 구성인 ‘-ㄴ 것은 ~이다’가 한국어의 분열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Kim & Sells(2007, 2013)에서는 이 형식이 진정한 분열문이 아니라 계사 구문이라고 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한국어의 소위 ‘것’ 분열문은 영어의 분열문과 차이가 존재하고, 비분열된 절과 분열된 성분 간에 존재하는 정보구조 관계를 계사 ‘이다’의 의미만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분열문이 아니다.

분열문 구성의 ‘것’의 위상에 대해서는 연구들 간에 견해차가 보인다. 홍용철(2015)에서는 ‘것’ 분열 구문이 ‘-ㄴ N(일반 명사)는 ~이다’와 같은 관계절 분열 구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것’이 (대)명사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위혜경(2016)에서는 ‘것’이 현실 세계에 있는 개체가 아닌 언어 표현으로 존재하는 개체를 지시하는 기

능을 가지고 이때의 ‘것’을 ‘담화지시체’라고 하였다. 홍용철(2015)과 위혜경(2016)에서 분열문 구성의 ‘것’을 가리키는 명칭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것’이 아직 지시적 기능, 즉 어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이다.

반면에 Kang(2006), 박소영(2014), 박명관(2019), 김석진(2020) 등에서는 분열문 구성의 ‘것’을 보절자나 명사화소로 보았고 ‘것’을 형식명사/도식명사(김영희 2000, 연재훈·박종원 2021), 허사(Yoon 2012, 이정훈 2020), 빈 NP 채우기(최기용 2011)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 논의들에서 사용하는 술어가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분열문 구성의 ‘것’이 어휘적 기능을 가지지 않고 이미 문법적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④ 종결어미의 ‘것’ 구성

먼저 ‘-ㄹ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한길(1991, 2004), 박재연(1998), 박숙영(2006), 윤은경(2006) 등에서는 ‘-ㄹ게’의 통사적 특징으로 1인칭 주어만 허용한다는 것, 앞에 동사만 올 수 있다는 것 등을 밝혔고, 이의 구체적인 의미도 검토하였다. 거의 모든 논의에서는 ‘-ㄹ게’가 ‘약속’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제가 갔다 올게요’를 비롯한 문장에서의 ‘-ㄹ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한다. 한길(1991), 박숙영(2006)에서는 그 의미를 ‘약속’과 달리 ‘알림’으로 보았지만, 오승은(2018나)에서는 이를 ‘기대 미래’로, 전휘(2022)에서는 ‘베풂’으로 보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ㄹ게’ 앞에 2인칭 주어가 오기도 하는데, 이때의 ‘-ㄹ게’는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 이때 일반적으로 ‘-ㄹ게요’나 ‘-ㄹ실게요’라는 형식으로 쓰인다. 박재연(2013), 박미은(2016), 정연주(2019)에서는 ‘-ㄹ실게요’를 ‘-ㄹ게요’와 존대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았고, 안주호(2017)에서는 ‘-ㄹ실게요’가 ‘-ㄹ실 것이에요’에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재연(2013)에서는 ‘-ㄹ게요’의 이런 용법이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의 의미를 가진 ‘-ㄹ게’로부터 행위주를 전환하여 변한 것이라고 하였고, 동일 영역에서 인접한 의미 성분 간에 나타나는 환유라고 하였다. 반면에 정연주(2019)에서는 ‘-ㄹ게’가 ‘화자가 앞으로 할 행위를 청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으로부터 ‘청자도 같이 이 행위를 하는 것을 요청하는 기능’의 과정을 거쳐 ‘청자에게 단독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능'으로 변하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ㄴ/ㄹ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겠다. '-ㄴ걸'과 '-ㄹ걸' 모두 관형사형 어미와 '것을'의 축약형인 '걸'이 융합된 종결어미인데 '-ㄴ걸'에 비해 '-ㄹ걸'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길(1991, 2004), 박재연(1998), 이금희(2013), 정효문(2013), 김병건(2015), 김연경(2022) 등에서는 '-ㄴ걸'과 '-ㄹ걸'을 모두 다루었고, 강현화(2008), 최동주(2009), 이민(2012), 권영은(2020가, 2020나), 이소영(2022) 등에서는 '-ㄹ걸'만 검토하였다.[4] '-ㄴ걸'만을 단독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거의 없다.

'-ㄴ/ㄹ걸'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이들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인다. 한길(1991, 2004)에서는 '-ㄴ걸'의 의미 기능을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확인 서술'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금희(2013), 정효문(2013), 김연경(2022) 등에서는 '반박'이나 '감탄' 등도 '-ㄴ걸'의 의미로 보았다. 이때 '반박'이나 '감탄' 등의 의미가 '-ㄴ걸'의 기본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문맥적인 의미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재연(2006), 최동주(2009), 권영은(2020가, 2020나), 김연경(2022), 이소영(2022) 등에서는 '-ㄹ걸'이 '추측'과 '후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민(2012)와 이금희(2013)에서는 각각 '타박'과 '의견 강조'도 '-ㄹ걸'의 의미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ㄹ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 '추측'이 인식 양태에 속한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일치를 보이지만, '후회'가 어떤 양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임동훈(2008), 손혜옥(2016)에서는 '후회'의 의미가 사실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식 양태라고 보았으나 권영은(2020가), 김연경(2022) 등에서는 '후회'의 '-ㄹ걸'이 관여하는 것이 명제가 아닌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사건 양태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채훈(2009), 김병건(2015), 도재학(2019) 등에서는 감정 양태를 인정하고 '후회'의 의미를 가진 '-ㄹ걸'을 감정 양태의 표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ㄹ 것'이 있다. 김태호·김종복(2010)에서는 '-ㄹ 것'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명령 용법을 가진 '-ㄹ 것'이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점, 시제 표현과 결합할 수 없는 점 등의 통사적 특징을 밝힌 바가 있다. '-ㄹ

4) 강현화(2008)에서 '-ㄹ걸'을 논의하면서 '-ㄴ걸'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ㄹ걸'이다.

것’만 검토한 논의는 많지 않지만 양인석(1976), 박금자(1987), 고성환(2003), 이지수(2016) 등 명령문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ㄹ 것’의 명령 용법도 다루었다.

⑤ 연결어미 상당의 ‘것’ 구성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쓰이는 ‘것’ 구성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현희(2012), 이지영(2017), 정혜선(2017)에서는 통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ㄴ 것을’이나 ‘-ㄹ 것을’이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지은(2021)에서는 전면적으로 ‘것’ 구성의 연결어미적인 기능을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ㄴ 것이’는 증거성과 관련되는지와 상관없이 ‘이유’를 표시할 수 있고, ‘양보’나 ‘상세화’라는 의미도 가진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ㄴ 것을’이 증거성과 관련없는 ‘이유’도 표시할 수 있고, ‘양보’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준희(2021)에서는 ‘-다는 것이/것을’이 연결어미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고, 이는 “의도와 더불어 의도치 않는 사태의 비실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다는 것이/것을’의 ‘-다는’을 ‘-다고 하는’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과 앞에 동사만 올 수 있다는 것 등 여러 통사적인 특징도 밝혔다.

⑥ 선어말어미 상당의 ‘것’ 구성

선어말어미 상당 구성으로 쓰인 ‘-ㄹ 것이-’와 ‘-ㄴ/ㄹ 것 같-’은 선어말어미 ‘-겠-’처럼 양태적 의미를 가진다. 이 때문에 손혜옥(2016), 오승은(2018가), 명정희(2021) 등 양태 체계를 다루는 논의에서 이 구성들을 언급한 바가 있다. 또한 많은 개별 연구에서도 이 구성들을 다루었다.

먼저 ‘-ㄹ 것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서정수(1978), 고창운(1991), 손혜옥(2016), 오승은(2018가) 등에서는 ‘-ㄹ 것이-’가 양태 표현으로서 ‘추측’의 의미와 ‘의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박재연(2018)에서는 ‘-ㄹ 것이-’가 양태적인 의미 이외에 ‘예정’이라는 상적 의미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ㄹ 것이-’가 ‘추측’이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명주(2008), 박진호(2011나), 정경미(2016), 다키치(2016) 등에서는 추론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출처를 고찰하였다. 한명주(2008)에서는 ‘-ㄹ 것이-’ 앞에 오는 내용을 직접적 정보와 간접적 정보를 통해 추론할 수 있지만, ‘내재적

정보’를 통해서는 추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정경미(2016), 다카치(2016)에서는 ‘내재적 정보’도 ‘-ㄹ 것이-’의 추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명주(2008)에서는 ‘시각’으로 얻은 직접적 정보를 통해 추론할 때 ‘-ㄹ 것이-’가 쓰일 수 있다고 하였지만, 박진호(2011나)에서는 ‘시각’을 비롯한 감각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로 추론할 때 ‘-ㄹ 것이-’가 쓰이면 어색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ㄴ/ㄹ 것 같-’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겠다. 우선 ‘-ㄴ/ㄹ 것 같-’의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문병열(2007), 명정희(2021)에서는 ‘것’을 보절 명사로 보았지만 Yoon(2006), 김선혜(2019, 2021)에서는 ‘것’이나 ‘-ㄴ/ㄹ 것’ 전체를 보절자로 보았다. 또한 박주영(1999), 시정곤·김건희(2009)에서는 ‘것’이 양태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ㄴ/ㄹ 것 같-’은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한규(2001), 박선현(2009), 김해연(2011), 하운하(2019) 등에서는 ‘추측’이란 의미에서 기인한 ‘-ㄴ/ㄹ 것 같-’의 화용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논의들에 따르면 ‘-ㄴ/ㄹ 것 같-’을 일종의 완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의 체면 위험도를 줄이거나 화자의 공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⑦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

구문화된 ‘것’ 구성 중에는 ‘-ㄴ 것이다’에 관한 연구가 많다. 신선경(1993), 양태영(2005) 등에서는 동일성 관계를 표시한 ‘NP1은 NP2이다’ 구문에 쓰인 ‘-ㄴ 것이다’와 이미 굳어진 표현으로 형성된 ‘-ㄴ 것이다’의 통사적 특징을 밝혔고, 후자는 전자가 문법화 혹은 재구조화를 겪은 결과라고 하였다. 의미적 특징에 있어 신선경(1993), 김종복 외(2008가) 등에서는 ‘-ㄴ 것이다’가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고, 안효경(2001), 장미라(2009) 등에서는 ‘-ㄴ 것이다’가 ‘단정’이나 ‘강조’의 의미 외에 ‘당위’라는 의미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ㄴ 것이다’가 문어와 구어에 쓰일 때의 다양한 용법에 대해서도 연구되어 왔다. 박소영(2001), 정상철(2016) 등에서는 문어에 쓰인 ‘-ㄴ 것이다’가 ‘이유 제시’, ‘환언’, ‘부연 설명’ 등 여러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고, 조민영(2017), 개맹(2019), 조윤행(2021) 등에서는 구어에 쓰인 ‘-ㄴ 것이다’가 ‘의외’, ‘설명’, ‘제안’ 등의 여러 용법을 가진다는 것을 밝히었다.

최근에는 일부 어휘화된 ‘것’ 구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진호(2019가), 이후인

(2022), 후박문·박진호(2022)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가 화자의 기대나 예상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표지 중의 하나라고 보았고, 이의 여러 맥락적 패턴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윤지(2019)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가 일종의 준분열문 구성이라고 하였고, 선행하는 내용이 화자의 기대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것’ 자체 및 ‘것’이 포함된 구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그간 한국어 ‘것’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것’의 용법을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루는 논의는 많지 않았다. 가령, 선행 연구들을 살피면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경우, 각 용법에 따른 ‘것’의 통합 관계, 명사성 정도, 그리고 의미적 기능에 대해 견해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는 ‘것’ 구성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세부 항목들에 다양한 견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것’의 다양한 용법들을 일관된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각 용법에 쓰이는 ‘것’이나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는 ‘것’ 구성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것’의 용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것’과 관련된 논의를 몇 가지 살펴볼 것이다. 2.1.에서는 의존명사, 접어 등 여러 범주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본고에서 ‘것’을 지칭할 때 채택하는 술어를 밝힌다. 2.2.에서는 의존명사 ‘것’이 문어나 구어에 출현할 때 어떠한 실현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정리하고 각 실현형과 ‘것’의 출현 환경을 비교한다. 2.3.에서는 먼저 사전과 선행 연구에서 ‘것’의 용법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이 가지는 여러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본 후 이와 비교하여 기준을 추가해 가면서 3장~5장에서 다룰 ‘것’의 용법을 추출하고 분류한다.

제3장에서는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기능을 검토하여 각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위상을 밝힌다. 3.1.~3.4.에서는 각각 먼저 명사 보절, 내핵관계절, 명사절, 분열문의 개념이나 종류를 살펴본 후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과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명사절의 ‘것’, 분열문 구성의 ‘것’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기능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논의한다. 4.1.에서는 ‘-ㄹ게’, ‘-ㄴ/ㄹ걸’을 비롯한 종결어미로 쓰이는 ‘것’ 구성을 살펴보고, 4.2.에서는 ‘-ㄴ/ㄹ 것을’이나 ‘-다는 것이/것을’을 비롯한 연결어미 상당의 ‘것’ 구성을 살펴본다. 또한 4.3.에서는 ‘-ㄹ 것이-’나 ‘-ㄴ/ㄹ 것 같-’과 같은 선어말어미처럼 쓰인 ‘것’ 구성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논의한다. 5.1.~5.4.에서는 각각 ‘-ㄴ 것이다’, ‘-ㄴ 거 있다’, ‘관형사형 어미 + 게 어디 있어/어디야/뭐야’, ‘-ㄹ 것 없다’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5.5.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와 같이 일부 어휘화된 ‘것’ 구성의 여러 특징을 살펴본다.

제6장은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부족한 점을 밝히며 마무리한다.

2. ‘것’의 제 분포와 용법

이 장에서는 주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것’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검토하고, 전형적인 의존명사로 쓰인 ‘것’의 특징과 비교하여 3장~5장에서 다룰 ‘것’의 용법을 추출한다. 2.1.에서는 의존명사, 대용어 등 선행 연구에서 ‘것’을 지칭하는 술어를 살펴보고 본고에서 채택하는 술어를 밝힌다. 2.2.에서는 문어와 구어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여러 형식을 정리한다. 2.3.에서는 사전 기술과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이 가지는 여러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준을 추가해 가면서 ‘것’의 다른 용법을 추출하고 분류한다.

2.1. ‘것’의 범주

‘것’은 일반적으로 의존명사라는 범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대용어, 접어, 기능명사 등 다른 범주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것’을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로 보더라도 용법에 따라 의존명사 ‘것’과 의존명사로 보기 어려운 ‘것’을 구별하는 논의도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본고에서 ‘것’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의존명사라는 술어를 채택하는 이유와 대용어, 접어, 기능명사 등의 술어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후,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을 의존명사 ‘것’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것’을 포함하여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명사 분류는 연구자들에 따라 ‘불완전명사’(최현배 1937/1975, 송영주 1985 등), ‘형식명사’(고영근 1970, 임동훈 1991 등), ‘의존명사’(류현미 1989, 안효경 2001 등) 등으로 불리었다. ‘불완전명사’와 ‘의존명사’는 ‘것’과 같은 명사들이 독립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에 중점을 둔 명칭이고, ‘형식명사’는 이들이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에 중점을 둔 명칭이다. 즉 전자는 형태·통사적인 특징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의미 기능적인 특징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명칭들을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러나 홀로 쓰이지 못

하는 명사들을 부를 때, 특히 '것'을 칭할 때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형식명사'라는 술어를 살펴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존명사'는 이러한 명사들의 통사적 의존성을 중요시하는 술어이고, '형식명사'는 이러한 명사들의 의미적 추상성을 중요시하는 술어이다. 그러나 이선웅(2004: 254)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나 '자(者)'와 같은 명사는 통사적으로는 의존적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사람'과 거의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추상성을 가진다고 하기가 어렵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문맥을 통해 '것'이 지시하는 사물이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이때의 '것'은 통사적 의존성을 가진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일반 명사와 거의 차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것'의 의미는 문맥을 통해 결정되며 완전히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형식명사'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으로는 '불완전명사'라는 술어를 살펴보겠다. '불완전명사'라는 것은 '것'처럼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명사를 가리킬 수 있지만, 정경재(2008)에서는 '따름'을 비롯하여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하는 일련의 명사들을 '불완전명사'라고 하였다. 그 중에는 일부 의존명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것'처럼 조사와 결합할 때 제약을 받지 않는 의존명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명사는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와 같이 불완전 계열을 칭하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혼란을 피하고자 '불완전명사'라는 술어는 채택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부류로 묶이는 명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통사적 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의존명사'라는 술어를 취한다. 류현미(1989), 안효경(2001) 등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것과 '격조사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존명사의 주요한 통사적 특징이다. 아래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것'도 이러한 특징에 부합한다.

(1) 가. 나의 시대는 나의 시대이고 다음 시대는 {나의 것, *것}이 아니다.
나. 그동안 중지되었던 모든 분야에서 {헌 것, *것}을 허물고 새로 태어나는 우리들의 올림픽을 준비하여야겠다.

다. {언니 것, *것}들과 {내 것, *것}을 사 오셨는데 주름 치마와 웃옷인데 부르뎅 아동복 상가에서 샀는데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라. 저희 집에서 얼마든지 {좋은 것, *것}으로 구해 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1)은 '것'의 통사적 특징을 보여주는 예이다. '것'은 선행 성분 없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선행 성분이 있어야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것'은 다양한 선행 요소와 다양한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다양한 선·후행 요소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의존명사의 대표적인 예로서 많은 연구에서 검토되어 왔다.[1)]

한편, '것'은 '의존명사'라는 범주와 관련지어 검토된 경우가 많았으나 '것'을 다른 범주와 관련지어 처리한 논의도 확인된다.[2)] 양명희(1998)에서는 '것'을 대용어의 일종으로 다루었고, 채희락(2007), 정원돈(2017) 등에서는 '것'을 접어의 일종으로 다루었다. 또한 이영제(2013)에서는 '기능명사'라는 부류를 설정하여 '것'도 기능명사의 한 예라고 하였다. 이러한 술어들은 '것'만을 가리키기 위한 술어는 아니며, 각 술어가 지칭하는 범주에 서로 성질이 다른 항목이 들어가기도 한다. 일례로 '대용어'의 경우, 대명사나 의존명사를 비롯한 대용 체언이 포함될 뿐 아니라 '하다'를 비롯한 대용 용언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 술어들이 '것'의 용법을 설명할 때 과연 유용한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3)]

① 대용어

양명희(1998: 33)에서는 '대용어'를 "어떤 관습적 상황에서 일정한 부류의 언어 형식이나 내용을 추상적으로 대신하는 언어 형식"으로 규정하였고, 대용어의 주된 기능은 '조응'과 '화시'라고 하였다.[4)] 또한 그에 따르면 대용어의 특성 중의 하나는 일반

1)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에 대한 검토는 2.3.2.에 이루어질 것이다.
2) 다른 범주와 대비할 때 불가피하게 '의존명사'라는 술어를 쓰게 된다. 이때의 "의존명사 '것'"이라는 술어는 '것'의 용법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술어이다. 뒤에서 '의존명사'라는 술어가 모든 용법에 쓰이는 '것'을 모두 지칭할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것이다. 본고의 입장을 미리 밝히자면 본고는 모든 용법에 쓰인 '것'을 모두 '의존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본고는 '것'이 이 범주들에 속하지 않거나 이러한 술어들로 '것'을 지칭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고의 체계 안에 이러한 술어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양명희(1998)에 따르면 '조응'은 '선행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이고, '화시'는 '그 상황

어휘보다 의미가 추상화되는 것이다.

양명희(1998)에서는 '것'을 비롯한 의존명사는 대용성을 기본 기능으로 삼는 부류는 아니지만, 조응성이 있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것'도 대용성을 가진다고 하였다.[5] 아래 예를 보자.

(2) 가. 내 가방은 엄지의 것과 똑같다.
나. 여기 여러 색의 장미꽃이 있다. 나는 그 중에 붉은 것이 가장 좋다.
(이상 양명희 1998: 103)

(3) 가. 매일 매일 출근한다는 것이 정말 싫다.
나. 혜성이가 야구공을 던지는 것을 보았니?
(이상 양명희 1998: 103)

(2)는 '것'이 선행 문맥에서 출현하는 단어인 '가방'이나 '장미꽃'의 대용어가 되는 예이고, (3)은 '것'이 문장의 의미나 상황에 따라 '사실'이나 '모습'을 대용하는 예이다. 위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것'은 조응하는 대용어를 찾을 수 있고,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이러한 '것'은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인데, 조응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

(4) 가.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나.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여자야.

(4)의 '것'은 지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대용하는지 지적하기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이때의 '것'은 영어의 'thing'처럼 쓰이고 지시적인 기능만 있고 조응적인 기능(본고의 '대용적인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이때의 '것'은 화시성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대용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용어로 쓰이는 '것'은

에서 언급된 개체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5) 양명희(1998: 10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것'은 대명사나 지시사처럼 화시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지시 기능을 가진 '것' 중의 일부일 뿐 지시 기능을 가진 '것'의 전체를 가리키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대용어'라는 술어로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

② 접어

'접어'는 음운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숙주어(host)에 의지하는 단어 형식이다(Spencer & Luís 2012: 1). 영어에서 전형적인 접어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s"이다. 아래 예를 보자.

(5) 가. Pat's a linguist.
나. The woman standing next to you's a linguist.
(Spencer & Luís 2012: 1)

(5)에서의 "'s"는 'is'의 축약 형식인데, 'is'처럼 음운론적으로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Spencer & Luís(2012: 1)에 따르면 'Pat is a linguist'와 같은 경우, 'Pat'과 'is' 사이에 휴지나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지만 'Pat's'에는 휴지나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때 "'s"를 독립적인 단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때의 "'s"는 일반적인 접사처럼 단어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나)처럼 구와 결합할 수도 있다. 이때 "'s"는 독립적인 단어도, 접사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다.

채희락(2007), 김양진(2008), 정원돈(2017), Chae(2020), 김선혜(2021나) 등에서는 한국어에도 영어의 "'s"와 같이 '접어'로 볼 수 있는 부류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논의들에서는 의존명사도 접어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그중에서 정원돈(2017: 91-2), Chae(2020: 121)에서는 의존명사 '것'을 접어로 보는 이유를 언급하였다.[6][7] 이 논의

6) 김양진(2008), 김선혜(2021나) 등에서는 의존명사가 접어의 일종이라는 것만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의존명사 '것'을 접어로 보지 않는 논의도 있다. 박재희(2018)에서는 의존명사 '것'을 접어로 보지 않았고, 일반적 단어로 보았다. 박재희(2018: 232-3)에서는 '먹던 것'과 같은 경우, '것'은 '음식/밥/죽'을 비롯한 일반 명사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명사와 일반명사는 계열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박재희(2018)에서는 이러한 의존명사를 일반명사와 같이 단어로 분류하였다.

들에서는 ‘것’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숙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것’이 어간이나 어근에 붙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것’을 접사가 아닌 접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접어’라는 술어를 채택하는 것이 ‘것’의 다양한 용법을 설명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자.

(6) 가. 경비실에 온 것을 가져왔다.
나. 경비실에 태백이 온 것을 가져왔다.
다. 경비실에 태백이 오는 것을 보았다.
라. 경비실에 태백이 온 것을 알았다.

(6)에서의 ‘것’은 어근이나 어간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하는 관형사절과 결합한다. 즉 숙주어가 없으면 독립적으로 쓸 수 없다. 정원돈(2017), Chae(2020)의 논의에 따르면 (6)의 ‘것’은 모두 ‘접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것’은 (6)처럼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각 용법에 쓰인 ‘것’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것’을 모두 ‘접어’라고 칭한다면 ‘것’의 차이를 드러내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것’을 접어로 처리하는 논의는 접사도 독립적인 단어도 아닌 ‘것’과 같은 요소들을 ‘형태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것’을 접어로 처리하는 문제는 형태적인 특징과 관련된 것일 뿐, ‘것’이 가진 여러 용법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설명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것’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중점에 두기 때문에 ‘접어’라는 술어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기능명사

이영제(2013)에서는 ‘것’을 ‘기능명사’의 일종으로 보았다. ‘기능명사’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체언으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보충 성분을 요구하는 명사(이영제 2013: 52)”이다. 이영제(2013)에 따르면 ‘것’은 실체를 가리키는지 여부에 따라 ‘것[+실체]’와 ‘것[-실체]’로 나눌 수 있고,[8] 그중에서 비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실체]’이 ‘문법적

기능명사'에 속한다.[9] 이럴 때 '것[-실체]'는 분포가 제한되고 비실질적인 의미 내용을 지시한다.

다음으로 기능명사로서의 '것[-실체]'의 예를 살펴보겠다. 이영제(2013)에서는 기능명사를 명항성 기능명사, 제한성 기능명사, 서술성 기능명사, 양태성 기능명사로 분류하였는데, '것[-실체]'는 이중 '명항성 기능명사'와 '양태성 기능명사'로 볼 수 있다.[10] 아래 예를 보자.

(7) 가. 영희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 *사실, *일}이다.
나. 여론은 이번 일을 경찰의 잘못이라고 볼 {것, *사실, *일}이다.
(이상 이영제 2013: 123)
다. 엄마, 떡볶이 어제 내가 먹은 거 어디서 샀어요? (이영제 2013: 168)

(7가)와 (7나)는 양태성 기능명사인 '것'의 예이고, (7다)는 명항성 기능명사인 '것'의 예이다. (7)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양태성 기능명사인 '것'은 주로 '-ㄴ 것이다'나 '-ㄹ 것이다'에서 출현한 '것'이고, 명항성 기능명사인 '것'은 내핵관계절의 '것'이다. 이영제(2013: 123)에 따르면 (7가)와 (7나)의 경우, '것'은 [-실체]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

---

8) 이영제(2013: 169 각주 19)에서는 '것'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과 비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전자는 실체적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후자는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 (가)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의 예이고, (나)는 '비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의 예이다.

예: 가. 내 것, 못된 것
나.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 이영제 2013: 169 각주 19)

9) 이영제(2013)에서는 '기능명사'를 '문법적 기능명사'와 '어휘적 기능명사'로 나누었고, 각각 아래와 같은 정의를 내리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것[-실체]', '듯', '때문' 등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끝', '마찬가지', '탓' 등이다.
(1) 문법적 기능명사: "보충 성분이나 후행 성분과 함께 문법적 기능단위를 이루면서 이들의 문법적 차원에서의 실현을 돕는 요소" (이영제 2013: 52)
(2) 어휘적 기능명사: "보충 성분과 함께 어휘적 기능단위를 이루면서 분포와 기능이 제한되는 요소" (이영제 2013: 52)

10) 명항성 기능명사는 문장에서 논항이 되는 기능명사이고, 양태성 기능명사는 양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명사이다(이영제 2013: 145-9).

에, [+실체]의 의미를 가진 ‘사실’이나 ‘일’과 대치되기 어렵다. 또한 (7다)의 경우, 이때의 ‘거(것)’은 ‘떡볶이’와 공지시 관계를 이루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은 비실질적 의미를 지닌다(이영제 2013: 168). 또한 이영제(2013: 168-9)에서는 ‘것’의 어휘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것’이 주로 추상적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비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것’에 대한 논의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명항성 기능명사’로 쓰인 ‘것’부터 보겠다. 이영제(2013: 168-9)에서는 명항성 기능명사로 쓰인 ‘것’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추상적 대상을 지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의 의미는 비교적 추상적이지만, 지시하는 개체는 분명하다. 즉 이때의 ‘것’은 선행하는 ‘떡볶이’와 공지시 관계를 이루고, 실질적인 대상을 지시한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7다)와 같은 용법이 쓰인 ‘것’은 다른 명사로 대치할 수 없지만, 지시사의 한정을 받을 수 있고 복수화할 수 있다.[11] 그러나 이영제(2013: 114)에서는 기능명사로 쓰인 ‘것’은 지시사로 한정할 수 없고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명항성 기능명사로 본 ‘것’은 이영제(2013)에서 제시한 기능명사 ‘것’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12]

다음으로 양태성 기능명사로 쓰인 ‘것’을 살펴보겠다. 앞에 언급하였듯이 이영제(2013)에서 제시한 양태성 기능명사로 쓰인 ‘것’은 주로 ‘-ㄹ 것이다’나 ‘-ㄴ 것이다’ 구성에 쓰이는 ‘것’이다. ‘-ㄹ 것이다’나 ‘-ㄴ 것이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진 것으로 ‘것’ 뒤에 주격/대격 조사나 보조사 ‘은’을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영제(2013: 114)에서는 기능명사로서의 ‘것’이 주격/대격 조사나 보조사 ‘은’과 결합할 수 있다고

11) 예컨대 ‘엄마, 떡볶이 어제 내가 먹은 그거 어디서 샀어요?’와 같은 문장이 정상적인 문장이다. 이에 대해 3.2.2.에서 상술할 것이다.

12) 이영제(2013: 114)에서 제시한 기능명사 ‘것[-실체]’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예: 가. 지시사로 한정될 수 없다.
나. 주격/대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다. 보조사(마다)와 결합할 수 없다.
라. 보조사(은/는 등)과 결합할 수 있다.
마.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없다.
바. 속격조사 ‘의’와 결합할 수 없다.
사. ‘모든’, ‘온갖’ 등을 통해 수량화가 불가능하다.
아. 병렬 구문이 형성할 수 없다.

하였다. 그렇다면 이때의 '것'도 이영제(2013: 114)에서 제시한 기능명사 '것'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영제(2013)에서 제시한 '기능명사'의 정의에 따르면 '것'은 '기능명사'로 볼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영제(2013)에서 명항성 기능명사나 양태성 기능명사로 보는 '것'은 이 논의에서 제시한 기능명사 '것'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용법으로 쓰인 '것'이 기능명사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기능명사'라는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요컨대 '것'을 위와 같은 술어들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한국어 문법 체계 전체를 논의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별 항목을 논의할 때, 특히 '것'의 구체적인 용법에 대해 논의할 때 이러한 술어들을 채택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술어들을 활용하여 '것'의 용법들을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것'은 선행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존명사의 기본적인 특징에 부합한다. 따라서 종래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것'을 의존명사로 칭하였다. 그러나 '것'은 사물이나 개념을 지시하는 용법 외에 여러 다른 용법으로도 쓰인다. 그렇다면 다양한 용법에 쓰이는 '것'을 모두 '의존명사'라는 명칭으로 지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것'이 어떤 용법으로 쓰이든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것'의 용법에 따라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견해도 있다.[13] 예컨대 문숙영(2017)에서는 지시사의 수식 가능성과 복수화 가능성을 통해 '것'의 명사성을 검토하였고, 전형적인 의존명사로 쓰인 '것'과 달리 이미 하나의 명사화소로 형성된 '-ㄴ/ㄹ 것'도 있다고 하였다. 이때의 '-ㄴ/ㄹ 것'은 전형적인 의존명사로 쓰인 '것'과 명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정훈(2020)에서는 내핵관계절과 분열문에 쓰인 '것'은 의존명사로 쓰인 '것'과는 달리 사물뿐 아니라 사람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명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훈(2020)에서는 이러한 '것'을 '명사성 허사'로 명명하였다.

여러 용법에 쓰인 '것'을 모두 의존명사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의존명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의존명사는 선행어를 필수적으로

13) 용법에 따른 '것'의 성질은 후술할 것이다.

요구하는 명사(남기심 외 2019: 48)라고 정의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용법에 쓰이는 '것'을 의존명사라고 명명할 수 있다.

한편 민현식(1999: 83)에서는 '의존명사'라는 용어는 '의존성'과 '명사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의존성은 통사·의미적으로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고, 명사성은 명사처럼 격조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사성은 격조사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다른 특징도 가진다. Dixon(2010: 39)에서는 명사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 분류라고 하였고, 이영제(2013: 48)에서는 지시성이 명사의 어휘적인 특징이라고 하였다. 만약 '것'의 지시적 기능까지 고려한다면 명사화소로서의 '것'은 이미 지시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의존명사'라고 하기가 어렵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숙영(2017)에서는 지시성을 가진 '것'과 명사화소로서의 '것'의 명사성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이때의 '것'을 '의존명사'라고 할 수 없다.

본고는 '것'의 용법을 최대한 상세하게 분류하고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여러 용법에 쓰인 '것'의 문법적 특징과 명사성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모든 용법의 '것'을 의존명사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사성을 정도적인 것으로 파악할 것이며, 일부 명사성이 남아 있는 '것'만을 의존명사 '것'이라고 칭한다.

2.2. '것'의 실현형과 분포

문어에서는 '것'이 '것'이라는 형태로만 실현될 수 있으나 구어에서는 출현 환경에 따라 '거'를 비롯한 여러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구어에 나타나는 '것'과 문어에 나타나는 '것' 각각의 실현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출현 환경을 살펴볼 것이다.

'것'은 구어에서 자주 '거'로 나타나며, 조사와 결합하여 '게', '건', '걸'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나타난다.[14] 먼저 아래 (8)을 통해 '것'의 여러 실현형을 살펴보자.

14) 여기서 제시한 실현형들을 '것'의 이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주상대(1996)에서는 '거'와 '꺼'를 '것'의 이형태로 보았고, 진염평(2013)에서는 '거'와 '걸'을 '것'의 이형태로 보았다. 반면에 이은섭(2015)에서는 '거', '게', '걸'이 각각 '것'과 상보적 분포 관계를 이루지

(8) '것'의 여러 실현형:
가. '것'의 종성 'ㅅ' 탈락: 거
나. '것'의 종성 'ㅅ' 탈락하는 동시에 초성 경음화: 꺼[15]
다. '것'과 주격 조사 '이'의 결합: 게
라. '것'과 목적격 조사 '을'의 결합: 걸
마. '것'과 보조사 '은'의 결합: 건
바. '것'과 부사격 조사 '으로'의 결합: 걸(로)

(8)의 실현형들은 구어에서 쓰이는 실현형이다. (8나)는 주로 구어에서만 사용되지만, (8다)~(8바)의 실현형은 문어에서도 종종 쓰인다.[16]

다음으로 앞에서 제시한 '것'의 여러 실현형의 출현 환경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꺼'는 구어에서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나 주체의 소유물을 표시하는 '것'일 때 나타나는 것이다(주상대 1996: 484-93, 하정인 2013: 41-3). 아래 예를 보자.

(9) 가. 내가 고민 오래 했으니까 자넨 더 고민 할 꺼 없네.
나. 니 말대로 웃으니까 좀 살 꺼 같다.
(10) 가. 뭐? 설마... 내 꺼까지 판 거야? 돌려주랬잖아!

못한다는 점을 들어서 이들을 '것'의 이형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송철의(1993: 34), 명정희(2014: 48 각주 45), 오규환(2018)에서는 '거'를 '것'의 쌍형어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실현형들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보다 이들의 출현 환경이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만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15) 주상대(1996: 482)에서는 단순히 '것'의 초성이 경음화되는 '껏'도 있다고 하였다. '껏'이 나타나는 환경은 '꺼'와 같지만 '꺼'와 비교할 때 출현 빈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껏'을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아래는 '껏'의 용례이다. (가)는 어떤 사람이나 주체의 소유물을 표현하는 '껏'이고, (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출현하는 '껏'이다.

예: 가. 저희 껏 까지 떠오실려면 너무 힘드실 텐데...
나. 보고 싶어 하실 껏 같아서요.

16) 김은숙(2005, 2006)에서는 90년대 이후의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것이', '것은', '것을'과 '게', '건', '걸'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김은숙(2006)에 따르면 '게', '건', '걸'은 문어체로 쓰임이 확대되었다.

나. 기부 들어오는 분유들 많잖아. 그게 한 회사 제품이 아니라 이 회사 꺼, 저 회사 꺼 섞여 있잖아.

(9)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것'이 경음화된 예이고, (10)은 '것'이 소유물의 의미일 때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예이다. 전자는 일반적인 경음화 규칙 중의 하나이고,[17] 후자는 주로 '것'에 한하여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이다. 후자의 경우, 주상대(1996: 485), 하정인(2013: 42)에서는 이때의 경음화가 속격조사 '의'의 생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때의 '꺼'는 경음화된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고,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9라)의 '걸'과 (9마)의 '건'은 각각 '것을/거를'과 '것은/거는'이 축약된 것이다. 이때 '걸'과 '건'의 출현 환경은 '것을/거를' 혹은 '것은/거는'이 나타나는 환경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은 '걸'의 예이고 (12)는 '건'의 예이다.

(11) 가. 이 모든 {걸, 것을, 거를} 400만 원에 즐길 수 있어!
나. 이번 참에 니가 더 낫다는 {걸, 것을, 거를} 보여드려.
(12) 가. 영업이면 사람 상대하는 일인데, 그 {건, 것은, 거는} 내가 잘하지
나. 그래도 많이 티 나는 {건, 것은, 거는} 아니야.

마지막으로 '거, '게', '걸(로)'의 출현 환경을 살펴보자. '거, '게', '걸(로)'의 출현 환경에 대해서는 이은섭(2015: 255-63), 배주채(2017: 317-8) 등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이은섭(2015: 263)에서 '거/게/걸'에 선·후행하는 요소들을 제시한 것이다.

17) 이진호(2014: 179-80)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체언이 올 때, 첫 음절의 초성이 경음화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예외 없는 음운 현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관형어와 체언의 긴밀도와 관련이 있다. 이진호(2014: 180)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긴밀도가 높을수록 경음화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의존명사가 올 때 경음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

<표 1> 이은섭(2015: 263)에서 제시한 '거/게/걸'의 선·후행 통합 관계

	성분	거	게	걸		성분	거	게	걸
선행	관형사절	○	○	○	후행	격조사	○	×	△ '걸로'
	관형사	○	○	○					
	속격 조사구	○	○	○		보조사	○	×	×
	명사/대명사	○	○	○		∅	×	×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거/게/걸(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오는 선행 요소에 제약이 거의 없다. 후행 요소의 경우, '거/게/걸(로)'는 모두 종결 기능이 없고,[18] '거'만 제약 없이 격조사나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게'는 이미 주격 조사 '이'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걸'은 부사격 조사 '로'와만 통합될 수 있다.

배주채(2017: 317)에서는 '것'과 '거'는 후행하는 조사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19] 그러나 진염평(2013: 74)에 따르면 구어에서 '것' 뒤에 속격 조사가 올 때 '것'을 '거'로 쓸 수 없다. 아래 예를 살펴보겠다. [ ]에는 실제 발음을 제시하였다.

(13) 가. 그것은 아마도 세상 모든 {것의, *거의, [거에]} 이름이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여한 이미지 그 자체이기 때문일 겁니다.
나. 5년 이상 산다는 {것의, *거의, [거에]} 의미는 완치가 되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13)에서 볼 수 있듯이 '것' 뒤에 소격 조사 '의'가 오는 경우, 표기상 '거의'가 수용되지 않을 뿐,[20] 실제 구어에서는 [거에]로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연스럽다.

---

18) 이은섭(2015: 262-3)에서는 종결어미로 쓰이는 '-ㄹ게'의 '게'는 주격 조사 '이'가 포함되는 '게'가 아니기 때문에 '-ㄹ게'의 '게'는 의존명사로 보지 않았다고 하였고, '-ㄹ걸'의 '걸'도 종결어미의 일부가 형성되기에 의존명사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은섭(2015)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거/걸/게'가 종결부에 나타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19) 배주채(2017: 317)에서 제시하는 '것' 및 '거'와 결합하는 조사의 예는 아래와 같다.

/것/: 것이, 것으로, 것에, 것만, 것조차, 것은, 것을
/거/: 거가, 거로, 거에, 거만, 거조차, 거는/건, 거를/걸

한편 ‘게’와 ‘걸(로)’은 매우 제한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들의 출현 환경은 ‘것이’나 ‘것으로’의 출현 환경과 동일하다. 아래 (14)와 (15)를 보자.

(14) 가. 니가 원하는 {게, 것이} 진짜 이거야?
나. 결혼이라는 {게, 것이} 한번 정하면 쉽게 물릴 수도 없는 거니까...
(15) 가. 밥 먹자. 사과하는 의미로 비싼 {걸로, 것으로} 살게.
나. 못 들은 {걸로, 것으로} 하겠네.

(14)는 ‘게’가 쓰인 예이고 (15)는 ‘걸(로)’이 쓰인 예이다. 이 예들을 통해 ‘게’나 ‘걸로’는 ‘것이’나 ‘것으로’와 서로 대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굳어진 표현이나 구문에서는 ‘것’과 ‘거’, ‘것이’와 ‘게’를 서로 대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아래 예를 보자.

(16) 가. 아닌 {게, ?*것이} 아니라
나. 순간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거, ?것} 있죠?

(16가)는 ‘것’과 ‘것이’가 서로 대치되지 못하는 예이고, (16나)는 ‘거’를 ‘것’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예이다. (16가)의 경우, ‘아닌 게 아니라’가 이미 하나의 관용표현이 형성되어 ‘게’를 ‘것이’로 복원하기 어렵다. 또한 (16나)의 경우, ‘-ㄴ 거 있지’는 주로 구어에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것’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이상으로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실현형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경우에는 이들 실현형을 ‘것’으로 대치할 수 있지만 일부 굳어진 표현의 경우에는 대치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것’을 위에 정리된 ‘거’ 등의 실현형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되, ‘아닌 게 아니라’의 경우와 같이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실현형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한다.

---

20) 드라마나 영화 대본으로 구성한 준구어 말뭉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거’와 속격조사 ‘의’의 결합 형식인 ‘거의’는 발견되지 않지만, ‘거’와 다른 조사의 결합 형식인 ‘거가’, ‘거를’ 등은 많이 발견된다.

2.3. ‘것’ 용법의 분류

‘것’은 다른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용법도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절에 쓰이면서 여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것’은 문법화 과정을 거쳐 어미나 어미 상당 구성의 일부로 쓰이기도 하고, 구문화된 표현이나 어휘화된 표현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것’이 어떤 용법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2.3.1.에서는 한국어 사전의 뜻풀이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것’ 용법을 분류할 때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고, 2.3.2.에서는 전형적인 의존명사로 쓰인 ‘것’의 여러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2.3.3.에서는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과 비교하여 앞으로 본고에서 검토할 ‘것’의 용법과 분류 기준을 밝힌다.

2.3.1. 기존 기술 검토

먼저 한국어 사전에서 제시한 ‘것’의 뜻풀이를 살펴보겠다. <표 2>는 한국어 사전에서 ‘것’의 뜻풀이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정리한 것이다. 이때 ‘것’의 뜻풀이는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하되,[21] 다른 한국어 사전을 참고하여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에서 제시하지 않는 뜻풀이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에서는 여러 뜻풀이로 나누어 제시된 항목이 다른 한국어 사전에서는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때 사전들에서 제시한 뜻풀이와 예문을 통해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하나로 묶는다면 해당 사전에서 제시한 뜻풀이도 괄호 안에 같이 제시하였다.

21) 정리의 편의를 위해 뜻풀이 순서는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에서 제시한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표 2> 한국어 사전에서 ‘것’의 뜻풀이[22)]

	‘것’의 뜻풀이	『연세』	『고려대』	『표준』
[1]	(구체적이지 않은) 사물, 현상, 사실	○	○	○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2]	[명사구 또는 명사절을 만드는 데 써서] 짓. 일. 상태.	○	○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일정한 일이나 사건, 사실을 나타내는 말.)	
[3]	[주로 '-다는 것'의 꼴로, '알다, 생각하다, 느끼다, 듣다, 말하다' 등의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만드는 데 써서] 사실.	○		
[4]	[동사 '보다, 발견하다, 목격하다' 등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만드는 데 써서] 현상. 사실	○		
[5]	[주로 '-는 것'의 꼴로, 명사구, 명사절을 만드는 데 써서] 방법. 길.	○		
[6]	(어떤 상황에 있을 때를 나타내는) 상황.	○		
[7]	[주로 '-ㄹ/을 것'의 꼴로 써서]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내어, 앞으로 할) 생각. 작정.	○		
[8]	(앞에서 말한 바를 가리키는) 사물. 현상. 사실	○	○	-
[9]	(얕잡아 이르는 말) 놈. 년. 녀석.	○	○	○
[10]	[주로 '-은 것'의 꼴로, 때를 나타내는 말 앞에 써서] 시간. 때.	○	○	-
[11]	[주로 '-ㄴ/는 것이다'의 꼴로 써서] 확신을 나타낸다.	○	○	○
[12]	[주로 '-다는 것이다'의 꼴로 써서] 사실의 설명 또는 남의 말을 인용함을 나타낸다.	○	-	-
[13]	[주로 '-ㄹ/을 것'의 꼴로 써서] (추측하기에) 형편. 예상.	○	○	○
[14]	[주로 '-ㄹ/을 것'의 꼴로 써서]	○	○	○

22) <표 2>에서 정리한 한국어 사전은『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이하『연세』),『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하『고려대』),『표준국어대사전』(이하『표준』)이다.

	(명령이나 부탁을 나타내어, 해야 하는, 따라야 할) 일.			
[15]	[주로 '-ㄹ/을 것'의 꼴로 써서] (지나간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어) 일. 짓. 사실.	○	-	-
[16]	(주로 사람이나 무리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의 뒤에 쓰여) 그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말.	-	○	○
[17]	(주로 '-라는'의 뒤에 쓰여) 그 대상을 지정하여 말함을 나타내는 말.	-	○	-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사전에서 제시한 '것'의 뜻풀이는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존재한다. 『연세』에서는 '것'의 뜻풀이를 총 15가지로 제시하고, '것'이 나타나는 환경(예컨대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오는 동사 등)에 따라 의미를 구별한다. 반면에 『표준』에서는 '것'의 뜻풀이를 총 6가지로 제시하고, '-ㄴ/는 것이다'와 같이 몇 가지 굳어진 표현 이외에는 '것'의 출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것'의 의미에 따라 뜻풀이를 구분하였다. 또한 '것'의 뜻풀이 중의 하나인 '사람이나 무리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연세』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고려대』와 『표준』에서는 모두 제시하였다.[23] 나아가 '-다는 것이다'의 용법이나 '-ㄹ/을 것'이 가진 '지나간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다'는 용법은 『연세』에서는 제시하지만 『고려대』와 『표준』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것'의 의미 기능과 용법은 아직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것'의 의미 기능, '것'의 용법, 그리고 출현 환경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것'의 용법을 살펴보겠다. 선행 연구에서 '것'의 용

23) 『연세』에서 이와 같은 용법이 드러난 예문이 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 이 은도끼는 내 도끼니까 네게 줄 수 없고, 또 이 쇠도끼는 네 것이 아니라니까 줄 수가 없구나.

그러나 이 예문은 '(앞에서 말한 바를 가리키는) 사물, 현상, 사실'이라는 뜻풀이에서 제시된 예문이다. 『연세』에서는 '것'의 뜻풀이로 '사람이나 무리의 소유물'을 지시하는 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법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정호완(1983), 최규일(1993), 손춘섭(1997), 안효경(2001), 김종복 외(2008가), Yoon(2012) 등이 있다. 각 연구에서 제시한 '것'의 용법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분류 기준도 매우 상이하다. 대부분 연구에서는 '것'의 통사·의미적 기능에 따라 '것'의 용법을 나누었다. 또한 김종복 외(2008가)에서는 '것'의 출현 환경을 고려해서 '것'의 용법을 분류하였고, Yoon(2012)에서는 '것'이 어휘적인 의미를 실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것'의 용법을 분류하였다.

먼저 '것'의 의미 기능에 따른 '것'의 용법을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것'의 의미 기능을 '것'의 용법과 동일시한다. 아래 <표 3>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통사·의미적 기능에 따른 '것'의 용법이다.

<표 3>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통사·의미적 기능에 따른 '것'의 용법

	'것'의 용법
정호완(1983)	(1) 사실과 사물 (2) 추정과 확인 (3) 명령과 요구
최규일(1993)	(1) 서술, 설명하는 기능 (2) 강조, 확인하는 기능 (3) 대용하는 기능 (4) 지시하는 기능 (5) 명령, 요청을 끝맺게 하는 기능 (6) 명사구 (보문) 구성의 기능
손춘섭(1997)	(1) 명사나 명사구를 대용하는 기능 (2) 분열문 기능 (3) 보절자 기능 (4) 'ㄹ 것'을 가진 '추측'의 의미와 '강한 요구'의 의미
안효경(2001)	(1) 대용적 기능 (2) 보문을 구성하는 기능(완형보문, 불구보문) (3) 발화 내용을 부각시켜 주는 기능 (양태 용법)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구에서 제시한 '것'의 의미 기능이 다르다. 또한 '-ㄹ 것이-', '-ㄹ 것' 등 양태 표현이나 종결어미처럼 쓰인 구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것'의 의미 기능으로 보았다. 그러나 '추측'이라는 양태적인 의미나 '강한 요구'라는 명령 화행의 의미는 모두 '것' 구성 전체의 의미이지, '것'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특정 구성에 벗어나면 '것'이 단독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김종복 외(2008가)의 분류 기준과 분류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먼저 '것'의 선행 요소가 용언성(±verbal)을 가지느냐에 따라 '것' 구문을 용언

(+verbal) 표현과 비용언(-verbal) 표현으로 나눴고, 용언 표현에서는 '것'과 결합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가에 따라, 즉 결합된 문장이 공백(gap)을 존재 여부에 따라 양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용언 표현도 아니고 비용언 표현도 아닌 관용적 표현이란 부류도 설정하였다. 김종복 외(2008가)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와 해당하는 예문은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된다.

<표 4> 김종복 외(2008가)에서 제시한 '것'구문의 분류 체계와 예문

비용언 표현	[1]지시사		이것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2]명사		원래 수철이 형 꺼였으니까 주인 찾은 건가?
	[3]NP(Poss)		서양의 것은 단절감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관이다.
용언 표현	완전한 문장	[4]보문	[나는 이처럼 간단히 살인을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5]동격	[11억 원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_i$도 [의혹거리]$_i$다.
		[6]미래, 추측	[유통 수단으로서의 CD는 없어질] 것이다.
		[7] 사건강조	그때마다 어머니는 사정을 하고 여태까지 꼭 다섯 달을 미뤄 온 것이다.
		[8]후회, 제안의 '것'	[연예인이나 될] 걸.
		[9]명령의 '것'	[여리고성 앞에서는 소리내지 말] 것.
		[10] 것 같다	그러나 [산다는 것이 뜻대로만은 되어지지는 않는]$_s$ 것 같다.
		[11]인용의 '것'	[아직까지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답변이다.
		[12]내재관계절	[월급$_i$ 몇 푼 받은]$_s$ 것$_i$으로는 옷 값도 못된다.
	불완전한 문장	[13]관계절	[__ 살아 있는] 건 기르지 마.
		[14]분열문	[__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프로 입단대회를 통관한] 건 [동생 성진이 뿐]이다.
관용적	[15]부사 기능의 '것'		말도 안 되는 것이, 나를 그 정도로 취급하느냐

표현		말이야.
	[16]숙어	놀부로 말할 것 같으면, 보잘 것 없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김종복 외(2008가)에서 '것'의 용법을 총 16가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용언 표현 부분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다. '동격'이나 '보문'은 '것'의 문법적인 기능을 주목해서 하는 분류이고, '미래, 추측'이나 '사건강조'는 '것'이 특정 구문에 나타난 의미에 주목해서 하는 분류이다. 또한 같은 예문인데 두 가지 용법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1억 원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도 의혹거리다'라는 예문은 [5]동격이란 용법에 속하면서도 [11]인용의 '것'이란 용법에도 속할 수 있다. 김종복 외(2008가: 15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용의 '것' 구문은 후행 명사구와 의미적 동격관계를 지니고, 동격의 '것' 구문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부류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15]는 부사적 기능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사적 기능은 '것'의 기능이 아니고, '것'이 포함된 전체 구성의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Yoon(2012)에서 제시한 '것'의 분류를 살펴보겠다. Yoon(2012)에서는 '것'의 어휘적인 의미가 상실되는지 여부에 따라 '것'의 용법을 분류하였다. 아래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 Yoon(2012)에서 제시한 '것'의 용법

'것'의 의미	'것'의 성질	'것'의 용법	예문
어휘적 의미만	명사(noun)	명사/대명사	이것이 우리 집의 가보이다.
		대명사	이 신발은 너무 작아요. 더 큰 것을 주세요.
		역의사분열문 (inverted pseudo-cleft)	이 책이 어제 내가 읽은 것이다.
어휘적 의미 부분 상실	명사적 허사 (expletive	내핵관계절	돌이가 컴퓨터가 고장난 것을 고쳤다.
		비교 구문	돌이가 순이가 키가 큰 것보다 (더)

	noun)		크다.
		의사분열문 (pseudo-cleft)	돌이가 이 공원에서 만난 것은 순이다.
어휘적 의미 완전 상실	보절자 (comple-mentizer)	사실 동사의 보어	순이는 돌이가 죽은 것을 알았다.
		지각 동사의 보어	그는 아들이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다른 동사의 보어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것' 분열문 (kes cleft)	드디어 몽룡이 돌아온 것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Yoon(2012)에서는 '것'의 용법을 총 10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분열문과 관련된 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분열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Yoon(2012)에서 제시한 '것' 분열문은 한국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강조'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굳어진 표현 '-ㄴ 것이다'로 논의해 온 것이다. Yoon(2012: 569)에서는 이때의 '것-분열문'은 하나의 성분이 아닌 전체 문장을 초점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윤지(2008: 103-6)에서는 문장 초점을 요구하는 질문에 답할 때 '-ㄴ 것이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문장 초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24)]

Yoon(2012)에서는 비교 구문에 대해 상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이때 비교 구문에 대한 설명은 Jhang(1994)에서 인용한 것이다. Jhang(1994: 145)에서는 '돌이가 순이가 키가 큰 것보다 (더) 크다'와 비슷한 예들을 내핵비교절(internally-headed comparative clauses)이라고 하였고, 내핵관계절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돌이가 순이가 키가 큰 것보다 (더) 크다'에서의 '것'은 '순이'를 지시하는 것보다는 '(키가 큰)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때의 '것'을 보절 명사로 볼 가능성이 있고, 이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과 같은 성격인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상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것'의 용법과 그 분류 기준을 살펴보았다. 선

24) 최윤지(2008: 106)에서 문장 초점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ㄴ 것이다'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 Q: 무슨 일이야?
A: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야! (최윤지 2008: 106)

행 연구에서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 기능과 ‘것’이 포함된 구성의 의미 기능을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것’의 용법 분류에 대한 일관된 분류 기준이 확립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내세워 ‘것’의 다양한 용법을 다시 분류하고 이들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2.3.3.에서 살펴볼 것이다.

2.3.2.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

‘것’은 의존명사의 대표로서 의존적이라는 것 외에 일반 명사와 차이가 거의 없고, 다른 의존명사보다 받는 제약이 적다. 또한 ‘것’은 용법에 따라 보여주는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도 다르다. 따라서 이들과 비교하기 위해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의 특징을 밝힐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은 뒤에서 검토할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이나 어미 및 어미 상당 구성에 쓰이는 ‘것’, 혹은 구문화 및 어휘화된 구성에 쓰이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쓰는 술어이고, 다른 구성에 쓰이는 ‘것’이 모두 의존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예컨대 보절 명사로 쓰이는 ‘것’도 명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존명사 ‘것’으로 볼 수 있다.

‘것’의 다양한 용법을 분류하기에 앞서 전형적인 의존명사로 쓰인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 항에서는 다른 구성에 쓰이는 ‘것’과 대조되는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의 여러 특징을 검토할 것이고, ‘것’의 다른 용법을 도출하고 분류하는 데 참조할 만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2.3.2.1. 문법적 특징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이 가지는 선행 요소 제약과 후행 요소 제약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손춘섭(1992), 우형식(1995), 이정희(2005), 허정인(2013) 등이 있다.

먼저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에 선행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겠다. 아래 예

를 보자.

(17) 가. 아까 것도 괜찮았는데.
나. 피해자 주변인들을 상대로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뭐든 빨리 싫증 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데 익숙하죠.
라. 우리 인희가 한 번도 안 입은 걸 김비서가 왜 입어?
마. 우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17)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의존명사 '것'에는 명사와 관형사, 속격 조사 '의', 관형사절이 모두 선행할 수 있다. 또한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에 제약이 없다.[25] 즉 현실을 뜻하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비현실을 뜻하는 관형사형 어미 '-ㄹ'이 모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에 후행하는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아래 (18)은 '것' 뒤에 올 수 있는 조사를 검토한 예이고,[26] (19)는 '것' 뒤에 올 수 있는

25) 구본관 외(2015: 265) 등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은', '-는', '-던', '-을'로 나누었는데, 문숙영(2009: 277)에서는 '-는', '-던'을 시제 어미 '-느-'나 양태 어미 '-더-'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으로 본다. 본고는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할 뿐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는다. 단, '-ㄴ'은 '-느-'나 '-더-'와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임동훈(2008: 241), 문숙영(2009: 264-275) 등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를 현실인 '-ㄴ'과 비현실인 '-ㄹ' 두 종류로 나눠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상황에 따라 '-는'이나 '-던'도 같이 검토할 것이다.

26) '것'에 후행하는 조사 제약을 검토할 때 주로 '것' 뒤에 붙일 수 있는 격조사의 종류를 살펴볼 것이다. 보조사는 격조사를 대신할 수 있고 격조사와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주로 특정한 의미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법적인 성질은 격조사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격조사는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속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로 나눌 수 있다(남기심 외 2019). '것'은 호칭어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호격 조사를 붙이지 못한다. 그리고 보격 조사는 보어를 표시해 주는 조사인데 보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보격 조사는 아니다'나 '되다' 앞에 오는 주어가 아닌 필수성분을 표시해 주는 '이/가'를 말하고, 유현경(2018나, 2019) 등에서는 심리형용사, 감각 형용사 등 비대격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성분을 표시해 주는 '이/가'를 말한다. 그러나 이정택(2012) 등에서 보어의 범위가 필수어 부사어까지 확대되어 이때 보격 조사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보어가 존재하는지, 보어의 범위가 무엇인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격 조사를 검토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보어가 취하는 서술어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보격 조사를 따로 검토하지 않겠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가 아닌 계사로 보기 때문에 '것'과 '이다'의 결합 양상은 후행하는 서술어 종류를 검토할 때 다룰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주로 검토할 조사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속격 조사, 그리고 부사격 조사이다.

서술어를 검토한 예이다.

(18) 가.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모든 것이 엇갈리는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나. 나는 지난해 '12·15'회담에서 지자제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다. 인간의 누되는 과거에 습득한 것의 극히 일부밖에 기억해 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라.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19) 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여론을 고려해서 합니다.
나. 비싸고 귀한 식물이나 꽃을 고르기보다는 잘 자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18)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은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속격 조사, 그리고 부사격 조사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27] 또한 (19)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은 서술어에 제약이 없고 동사, 형용사, 그리고 계사가 모두 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의 명사성을 살펴보겠다. '것'의 명사성에 대해서는 주로 지시사 '그'와의 결합 가능성이나 복수화표지 '-들'과 결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Jhang 1994, Lee 2006, 한진희·홍성심 2013, 문숙영 2017, 이정훈 2020 등).[28] 일반적으로 지시사 '그'나 복수화표지 '-들'과 결합할 수 있다면

27) '것' 뒤에 모든 부사격 조사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것' 뒤에 여격조사 '-에게'와 같은 조사가 올 수 없다. 이는 '것'의 의미에 따른 제약일 뿐이고, 여기서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28) 선행 연구에서는 지시사 '그'의 삽입 및 복수 표지 '-들'과의 결합 가능성보다는 명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통사적인 기준을 통해 명사성을 검토한다(정희정 2000, 홍재성 2001, 호정은 2008, 이선웅 2014, 유영영 2016 등 참고).

예: 가. 격조사와 결합 가능성
나. 관형어의 수식 가능성
다. '이다'와 결합 가능성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통해 용법에 따른 '것'의 명사성을 검토하기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절 구성에 쓰이는 '것'도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과 마찬가지로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관형어

이때의 ‘것’은 명사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아래 예를 보자.

(20) 가. 은성은 여기저기 냄새나는 양말 같은 {것, 그것}을 뒤져서 쇼핑봉투에 담고 있다.
나. 장 본 {것, 것들}을 들고 무심히 들어왔다.

(20가)는 ‘것’ 앞에 지시사 ‘그’가 오는 예이고, (20나)는 ‘것’ 뒤에 복수 표지 ‘-들’을 붙는 예이다. (2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것’은 일반 명사처럼 복수화도 가능하고 지시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다.[29]

2.3.2.2. 의미적 특징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것’의 뜻풀이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등재되어 있다. 안효경(1999: 75)에서는 ‘것’은 사람이나 장소 이외에는 다른 대상을 가리킬 때 제약이 거의 없다고 하였고, 남기심 외(2019: 48)에서는 ‘것’은 ‘물건’을 대용(代用)하는 기능으로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성질 이외에 자립 명사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이 가리킬 수 있는 명사는 매우 다양한데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 가. 어머, 이 와이셔츠는 제 {것, 와이셔츠}이 아니네요.
나. 여행에 필요한 {것, 물건}을 의자 받침대에 늘어놓고 아주 조직적이고 깔끔하게 정리 중이다.
다. 여쭤볼 {것, 일, 내용}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것, 일, 사실}을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

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열문 구성에 쓰인 ‘것’ 이외에 다른 절 구성에 쓰인 ‘것’에도 ‘이다’가 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시된 명사성 검토 기준에 따라 용법에 따른 ‘것’의 명사성을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시사 ‘그’의 삽입 및 복수 표지 ‘-들’과 결합 가능성을 ‘것’의 명사성을 검토할 때 쓰이는 기준으로 삼았다.

29) 만약 ‘것’이 지시하는 명사가 일반적으로 복수화되지 못하는 명사라면 ‘것’ 뒤에 ‘-들’이 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것’이 지시하는 명사의 특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것’의 명사성이 약하다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합니다.

(21가)의 ‘것’은 매우 구체적인 물건인 와이셔츠를 가리키고, (21나)의 ‘것’은 여행에 필요한 옷, 화장품 등을 아우르고 총칭적 의미를 표현하는 ‘물건’을 가리킨다. 그리고 (21다)와 (21라)의 경우, ‘것’은 추상명사 ‘일’이나 ‘내용’, ‘사실’ 등을 가리킬 수 있다. (21)에서 보았듯이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을 여러 명사로 대치할 수 있고 대치될 수 있는 명사는 주로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이 다른 명사를 대신하여 쓰는 용법은 연구에 따라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다. 손춘섭(1992, 1997)과 같이 ‘대용’이라고 하는 논의도 있고, 이정희(2005)와 같이 ‘지시’라고 하는 논의도 있다. 대부분 연구에서는 ‘대용’과 ‘지시’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데, 최규일(1993)에서는 ‘대용’과 ‘지시’를 구별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22) 가. 네 시계는 내 것보다 좋다.
나. 식물의 분류법은 다윈의 것을 따른다.
(23) 가. 기뻐서 노래 부르고 슬퍼서 우는 것은 감정의 자유다.
나. 어른이 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은 이러 이러하다.)

(이상 최규일 1993: 77-8)

최규일(1993: 77-8)에서는 (22)의 ‘것’과 (23)의 ‘것’이 각각 ‘대용’의 기능과 ‘지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22)의 경우 ‘것’은 각각 ‘시계’와 ‘분류법’을 대용한다. 최규일(1993: 77)에 따르면 대용은 앞에 오는 단어나 문장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대신하여 쓰이는 표현이다. 또한 (23)의 경우, (23가)의 ‘것’은 ‘기뻐서 노래 부르고 슬퍼서 우는’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고 (23나)의 ‘것’은 뒤에 올 내용을 미리 예시(豫示)하는 지시의 기능을 가진다(최규일 1993: 78). 다시 말해 이때 ‘대용’의 ‘것’은 명사를 대신하여 쓰는 것이고, ‘지시’의 ‘것’은 어떤 문장의 내용을 대신하여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용’과 ‘지시’의 일반적인 구분이 아니다. 연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지연(2008), 김광희(2011)에서는 ‘대용’은 ‘언어 형식이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지시'는 '가리켜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대용'은 문맥이나 화맥(話脈)에 있는 어떤 언어 표현을 대신하여 쓰는 것이고, '지시'는 어떤 현실 세계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나 추상적 관념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언어 표현과 언어 표현 간의 관계이고, 후자는 언어 표현과 현실 세계나 상상 세계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대용'과 '지시'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 표현은 '대용' 기능과 '지시'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도 마찬가지로 '대용'과 '지시'의 기능을 모두 가질 때가 많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것'이 여러 명사로 대치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것'의 대용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것'으로 대용되는 그 언어 표현이 지시하는 실체나 개념은 '것'의 지시물이 되기도 된다. 윤용선(1989: 288)에서는 '것'은 고정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선행 명사구의 의미를 가지고 대용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선행 명사구가 없어도 '것'이 여전히 대용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남기심(1991: 82)에 따르면 '것'이 대용될 수 있는 것은 문장 안에 언급하는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문장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것'으로 대용될 수 있는 것은 문맥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문맥에 나타나지 않아도 문맥을 통해 상정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 인희가 한 번도 안 입은 걸 김비서가 왜 입어'와 같은 문장에서 문맥에 '옷'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때의 '것'이 '옷'을 지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30]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가. 케이의 시선 안에서는 아무 이상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다.

30) 손춘섭(1997: 57)에서 이와 같은 관점을 언급한 바가 있다. 단 손춘섭(1997: 57)에서 검토한 예문 중에는 '어른에게는 공손해야 하는 것이다'와 같이 굳어진 형식으로 쓰인 '-ㄴ 것이다'의 예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것'으로 대치되는 명사를 찾을 수 없다. 후술하겠지만 이때 '-ㄴ 것이다'의 '것'은 대용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ㄴ 것이다'의 '것'은 어휘적인 기능을 거의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대응하는 명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24)의 예문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명사를 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의 ‘것’은 영어의 ‘thing’처럼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은 통사적으로는 선·후행 요소와 결합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시사 ‘그’나 복수화표지 ‘-들’과 결합이 가능하다. 의미적으로는 ‘것’이 지시의 기능을 가지고, 그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것’이 대용의 기능도 가진다. 아래 (25)에서는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의 구체적인 특징을 제시한다. 2.3.3.에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과 다른 용법에 쓰인 ‘것’을 구별한다.

(25)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의 특징
- 가. ‘것’에 선행할 수 있는 수식어: 명사, 속격 조사 ‘의’, 관형사, 관형사절(관형사형 어미 ‘-ㄴ’과 ‘-ㄹ’ 모두 가능)
- 나. ‘것’에 후행할 수 있는 조사: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속격 조사, 부사격 조사
- 다. ‘것’에 후행할 수 있는 서술어: 동사, 형용사, 계사
- 라. 지시사 ‘그’와 결합 가능
- 마. 복수화표지 ‘-들’과 결합 가능
- 바. ‘것’이 지시의 기능을 가지고, 그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것’이 대용의 기능도 가진다.

2.3.3. ‘것’의 용법과 분류 기준

이 항에서는 ‘것’의 용법을 최대한 망라하고 2.3.2.에서 제시한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의 특징과 비교하여 본고에서 검토할 ‘것’의 여러 용법을 분류한다. 단, 이 항에서는 ‘것’의 여러 용법을 분류하는 것만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만 언급하고, 여러 용법에 쓰인 ‘것’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3장~5장에서 다룰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은 앞에 명사, 관형사형 어미 ‘의’, 관형사, 관형사절이 모두 올 수 있다. 그런데 구성에 따라 선행 요소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 (26)은 ‘것’ 앞에 관형사절만 오는 경우이다.

(26) 가. 중학교 동창인 듯한 여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추천서 보낸 거 통과됐다.
다. 그날 나는, 선생께서 ‘지구의 환경 문제’로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라. 일본에 각막방사선 절개방식을 이용한 근시 교정 수술이 도입된 것은 10년전이다.

(26)에서의 ‘것’ 앞에는 관형사절만 올 수 있다. 그리고 절 구성에 따라 또 다시 하위 분류를 나눌 수 있다. (26가)~(26라)에 출현하는 ‘것’은 각각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명사절의 ‘것’, 분열문 구성의 ‘것’이다.

먼저 (26가)의 경우, ‘것’은 선행하는 관형사절 안에 있는 성분과 공지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또한 이때 ‘것’은 ‘장면’이나 ‘모습’을 비롯한 명사로 대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필수 보충어와 같이 나타나야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의미적인 필수 보충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절이다. 이러한 절을 일반적으로 명사 보절이라고 하고, 이때의 ‘것’은 보절 명사로서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다. 이에 관한 내용은 3.1.에서 다룰 것이다.

(26나)의 경우, ‘것’은 선행하는 관형사절에 들어가서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하지만 관형사절 안에 있는 명사인 ‘추천서’와 공지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때 핵어 명사가 관계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절을 내핵관계절이라고 하고 이때의 ‘것’은 내핵관계절 구성에 쓰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3.2.에서 살펴볼 것이다.

(26다)의 ‘-ㄴ 것’이는 명제 논항이 필요한 자리에 오고, 명사형 어미 ‘-음’으로 대치될 수 있다. 이때의 ‘것’은 의미가 많이 추상화되어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하나의 명사화소로 쓰인다. 명사화소 ‘-ㄴ/ㄹ 것’이 쓰이는 절을 명사절로 취급하고 이에 관한 논의는 3.3.에서 다룰 것이다.

(26라)는 ‘10년전 일본에 각막방사선 절개방식을 이용한 근시 교정 수술이 도입되었

다'와 같은 명제 의미를 가진다. 이때 '10년전'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이다'의 보어가 된다. 나머지 부분인 'x 일본에 각막방사선 절개방식을 이용한 근시 교정 수술이 도입되었다'는 열린 명제가 되고, 이때 '것'은 열린 명제에서의 'x'를 대신하여 쓰인다. 이러한 구성은 분열문이라고 하고, 이러한 분열문 구성에 쓰이는 '것'에 대한 내용은 3.4.에서 살펴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것'은 여러 절 구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은 후행하는 요소에 큰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반면 일부 용법에 쓰이는 '것'은 이에 선행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조사나 서술어도 고정적이다. 이때의 '것'은 선·후행 요소와 결합해 하나의 굳어진 표현을 형성된다.

이 구성들을 먼저 어미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아래 (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는 어미적 기능을 가진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이고, 또 하나는 어미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이다.

(27) 가.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
-ㄹ게, -ㄴ/ㄹ걸, -ㄹ 것, -ㄴ 것이, -ㄴ/ㄹ 것을, -다는 것이/것을, -ㄹ 것이-, -ㄴ/ㄹ 것 같-
나.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
-ㄴ 것이다, -ㄴ 거 있다, 관형사형 어미 + 게 어디 있어/어디야/뭐야, -ㄹ 것 없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게 아니라, N-할 것 없이

(27가)에서는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을 제시하였고, (27나)에서는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27)에서 제시한 모든 '것' 구성은 관형사형 어미만 선행하고, '것' 뒤에 오는 조사나 서술어도 고정되어 있다.[31]

(27가)에서 제시한 '것' 구성들은 문장에서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또 다시 구별될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31) '-ㄹ 것'처럼 뒤에 아무 성분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28) 가. 지금 해 드릴게요.
나. 개인이 룸에 없을걸요.
다. 신경 쓴 티 내지 말 것.

(29) 가. 자꾸 웃는 것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나.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을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다. 못 오겠다는 걸 내가 데리고 온 거야.

(30) 가. 이 글을 읽으면 아내는 아마 웃을 것이다.
나. 은지와의 약속에 늦을 것 같다.

위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28)에서의 '것' 구성은 문장 종결 기능을 하고, (29)에서의 '것' 구성은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30)에서의 '것' 구성은 선어말어미 '-겠-'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종결어미 '-다' 이외에 다른 종결어미와 결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어말어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나아가 (28)의 '것' 구성들은 한국어 사전에 이미 하나의 종결어미로 등재되어 있거나 뜻풀이에서 '문장을 끝맺는 말'로 기술된 것들이다. (29)와 (30)의 '것' 구성들은 아직 사전에 어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의 어미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이 가지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연결어미 상당 구성과 선어말어미 상당 구성으로 나누었다.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은 4장에서 다룰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종결어미 '-ㄹ게'와 '-ㄴ/ㄹ걸'이다. 표면적으로는 이 어미들에 '것'의 형태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들은 각각 '-ㄹ 것이-'와 '-ㄴ/ㄹ 것을'로부터 문법화를 거쳐 형성된 것이다.[32] 본고는 의존명사 '것'의 용법을 최대한 망라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성과정에서 의존명사 '것'이 관여한 것도 같이 다루고자 한다.

또한 (27나)에서 제시한 '것' 구성들은 관형사형 어미 앞에 오는 서술어가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문화된 '것' 구성과 어휘화된 '것'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32) '-ㄴ/ㄹ걸'과 '-ㄹ게'의 형성 과정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종결어미를 다루는 소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1) 가. 그런 도움들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 순간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거 있죠?
다.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는 게 어디야.
라. 하나도 겁날 것 없어.

(32) 가. 해외 나들이, 좋죠. 저도 아닌 게 아니라 한번 일해보고 싶은 곳이었죠.
나. 무겸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 다른 게 아니라 국세청 있단 형님한테 하나만 부탁 좀 하자.
라. 손님 종업원 할 것 없이 모두들 아정을 보고 있다.

(31)은 구문화된 '것' 구성의 예이고, (32)는 어휘화된 '것' 구성의 예이다. 구문화된 '것' 구성의 경우 '것' 앞에 선행하는 서술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휘화된 '것' 구성의 경우 '것' 앞에 선행하는 서술어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어휘화된 구성'이라는 것은 형태적으로는 하나의 단어로 보기 어렵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어휘처럼 행동하는 것을 칭하는 개념이다. 또한 '아닌 게 아니라'를 비롯한 관용적 구성들은 의존명사 '것'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5장에서 다룰 것이다.

이상으로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의 특징을 살피고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의 예를 살펴보았다. 또한 '것'의 용법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본고에서 다룰 '것'의 용법을 분류하였다. 아래 <표 6>에서는 분류된 '것'의 용법을 제시한다. 3장~5장에서 각각 절 구성에 쓰이는 것,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을 검토할 것이다.

<표 6> 의존명사 '것' 용법의 분류

<table>
<tr><td rowspan="6">'것'의 용법</td><td colspan="2">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td><td>[1] 지시 기능을 가진 '것'</td></tr>
<tr><td rowspan="4">절 구성에 쓰이는 '것'</td><td rowspan="4"></td><td>[2]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td></tr>
<tr><td>[3]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td></tr>
<tr><td>[4] 명사절의 '것'</td></tr>
<tr><td>[5] 분열문 구성의 '것'</td></tr>
<tr><td></td><td>종결어미의 '것'</td><td>[6] -ㄹ게</td></tr>
</table>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	구성	[7] -ㄴ/ㄹ걸
			[8] -ㄹ 것
		연결어미 상당의 ‘것’ 구성	[9] -ㄴ 것이
			[10] -ㄴ/ㄹ 것을
			[11] -다는 것이/것을
		선어말어미 상당의 ‘것’ 구성	[12] -ㄹ 것이-
			[13] -ㄴ/ㄹ 것 같-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	구문화된 ‘것’ 구성	[14] -ㄴ 것이다
			[15] -ㄴ 거 있다
			[16] -ㄴ/ㄹ 게 어디 있어 -ㄴ 게 어디야 -ㄹ 게 뭐야
			[17] -ㄹ 것 없다
		어휘화된 ‘것’ 구성	[18] 아닌 게 아니라
			[19] 그도 그럴 것이
			[20] 다른 게 아니라
			[21] N-할 것 없이

3.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특징과 위상

'것'은 다양한 절 구성에 쓰일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기능을 검토하고 각각의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위상을 밝힐 것이다. 3.1.~3.4.에서는 각각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명사절의 '것', 그리고 분열문 구성의 '것'을 검토한다. 먼저 해당하는 절의 개념이나 범위를 살펴본 후에 이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기능을 기술할 것이다.

3.1.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

3.1.1. 명사 보절의 개념

한국어에서 '보절'에 관한 연구는 생성문법이론을 도입한 이후 시작한 것이다. '보절'은 일반적으로 '명사 보절'과 '동사 보절'로 나눌 수 있다. '명사 보절'은 핵어 명사의 보충어가 되는 절이고, '동사 보절'은 동사의 필수 논항이 되는 절이다. 이 절에서는 '명사 보절'만 살펴볼 것이다.[1)]

Quirk *et al.*(1985: 1231-2)에서는 동사/형용사의 보어와 비교하면서 명사의 보어(noun complementation)를 제시하였고, 그중에서 '절'로 된 명사의 보어도 포함되어 있었다. Noonan(2007: 14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사 보절'은 때때로 '동격절(appositive clause)'로 간주되었고, 보절을 취하는 술어(complement-taking predicate, CTP)가 명사인 것 외에는 다른 보절과 차이가 없다. '명사 보절'은 일반적으로 '관계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핵어 명사가 절에서 문장 성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개념이 구분된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가)는 '명사 보절'의 예이고, (1나)는 '관계절'의 예이다.

1) 동사 보절은 명사절과 관련이 있으므로 3.3.에서 언급할 것이다.

(1) 가. the fact that it is raining
나. the fact that scientists discussed

(이상 de Cuba 2017: 1)

(1가)는 명사 보절의 예이고, (1나)는 관계절의 예이다. (1)에서 볼 수 있듯이 (1가)의 경우 명사 'fact'는 후행하는 절의 어떠한 성분이 되지 않지만, (1나)의 경우, 명사 'fact'는 후행하는 절에서 동사 'discuss'의 목적어가 된다.

한국어에서도 이와 같이 구분될 수 있는 절이 존재한다. 아래 (2가)는 관계절의 예이고, (2나)는 명사 보절의 예이다.

(2) 가. 네가 조사해 놓은 자료나 알고 있는 사실 같은 걸 깨끗하게 좀 적어줄 수 없겠어?
나. 방금 제기되었던 문제의 내용은 아직 단 한 번도 접수해보지 못했다는 사실도 중요시해야 될 거예요.

(2가)의 경우, '사실'은 앞에 오는 관형사절의 술어인 '알다'의 목적어가 되고, 관형사절의 공백과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 이때 선행하는 관형사절은 '사실'이란 명사의 외연을 좁혀 주는 역할을 한다. (2나)의 경우, '사실'은 관형사절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하고 관형사절 안에 어떤 성분과도 공지시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이때 선행하는 관형사절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관계절과 비교할 때 명사 보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보절 명사가 선행하는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절 명사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자는 명사 보절의 통사적인 특징이고, 후자는 명사 보절의 의미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한국어 논의에서 이러한 명사 보절을 '내용절'이나 '동격절'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논의에 따라 명사 보절을 내용절이나 동격절과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내용절이나 동격절을 명사 보절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로 인해 각 연구에서 설정한 명사 보절의 범위도 다소 상이하다. 먼저 아래 예를 통해 살펴보자.

(3) 가. 그는 택배가 온 사실을 알았다.
나.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표 7>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예문에 따른 명사 보절/내용절/동격절의 판별

	(3가)			(3나)		
	명사 보절	내용절	동격절	명사 보절	내용절	동격절
감범모(1983)	○	○	-	○	×	-
우형식(1987가)	○	-	○	○	-	○
이홍식(1990)	○	○	○	○	×	×
민재기(1991)	○	○	-	○	×	-
이홍식(1999)	○	○	-	×	×	-
김지은(2002)	○	○	○	×	×	×
김진웅(2002)	○	-	○	○	-	○

<표 7>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실'에 선행하는 관형사절을 명사 보절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논의에 따라 이를 '내용절'이나 '동격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소리'를 비롯한 명사 앞에 오는 관형사절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우형식(1987가), 김진웅(2002)에서는 '명사 보절'과 '동격절'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3나)도 동격절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이홍식(1990)에서는 '명사 보절'을 '동격절'과 '비동격절'로 나누어 '내용절'만을 '동격절'로 보고 (3나)와 같은 예를 명사 보절이지만 동격절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강범모(1983), 이홍식(1990), 민재기(1991)에서는 (3나)를 명사 보절의 예로 보았는데, 선행하는 관형사절을 '소리'의 내용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내용절'로 보지 않았다. 반면에 이홍식(1999: 375-6), 김지은(2002)에서는 '명사 보절'을 '내용절'이나 '동격절'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3나)처럼 후행하는 명사의 내용을 가리키지 않는 관형사절은 아예 명사 보절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차는 '명사 보절', '내용절', '동격절' 각각을 정의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명사 보절'은 '동격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격절'이라는 술어는 영어를 비롯한 인도유럽어에 쓰이는 술어인데, 영어에서는 '비가 내리는 소리'와 같은 구성을 절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동격절'로

이를 지칭하기 어렵다. 또한 '내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 글, 그림, 연출 따위의 모든 표현 매체 속에 들어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로 전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비가 내리다'를 '소리'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2]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3나)와 같은 문장은 '내용절'이나 '동격절'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꼭 '내용절'이거 '동격절'이어야 '명사 보절'로 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본고는 꼭 '내용절'이거나 '동격절'이어야 '명사 보절'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Payne(2010: 1)에서는 완전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핵어 명사 외에 다른 성분도 필요로 하는 명사 부류가 존재하는데, 이때 의미를 완전하게 해 주는 성분을 명사 보어라고 하였다.[3] 그에 따르면 영어에서 'sound'나 'smell'과 같은 명사도 명사 보어를 취할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가. the sound of rain on the roof (Payne 2010: 9)
(비가 지붕에 내리는 소리)
나. the smell of alder wood burning (구글 검색)
(오리나무가 타는 냄새)

(4)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에서는 '소리'나 '냄새'를 비롯한 명사의 의미를 보충할 때 'of' 구성을 쓰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관형사절을 쓴다. 즉 한국어에서는 '소리'나 '냄새' 등의 명사 보어가 절로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이때 (4)는 동격절처럼 관형사절에 어떠한 공백(gap)도 없고, 핵어 명사가 앞에 오는 관형사절의 성분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한국어에서 (4)와 같은 예도 명사 보절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 '내용'의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다.
3) Payne(2010: 1)에서 '명사 보어'와 '수식어'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가. 의미적으로 보어를 허용하는 것
완전한 생각 = 핵어 명사 + 보어
나. 의미적으로 보어를 허용하지 않는 것
① 완전한 생각 = 핵어 명사
② 풍부하게 된(enriched) 완전한 생각 = 핵어 명사 + 수식어
(이상 Payne 2010: 1)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명사 보절'은 동격절뿐만 아니라 (4)와 같은 예도 포함한다. 즉 명사 보절은 핵어 명사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핵어 명사가 해당 절에서 어떤 문장 성분에도 대응되지 않는 절이다.

명사 보절의 특징 중의 하나는 생략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서정목(1993: 423), 김지은(2002: 160), 김진웅(2002: 1)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절 명사 앞에 오는 절이 삭제되면 문장이 불완전해진다. 아래 예를 보자.

(5) 가. 하늘에 {내가 좋아하는, ∅} 양탈구름이 가득하다.
나. 어떤 구름은 {하품하는, ∅} 하마 모양이다.

(이상 김지은 2002: 160)

(6) 가. {가끔씩 하마가 물속으로 숨어버리는, *∅} 일도 있다.
나. {하루 종일 하늘만 보고 있으면 좋겠다는, *∅} 생각을 한다.

(이상 김지은 2002: 160)

(5)는 관계절의 예이고, (6)은 명사 보절의 예이다. (5)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관계절의 경우에는 핵어 명사 앞에서 생략될 수 있지만, (6)에서처럼 명사 보절의 경우는 이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해지므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반면에 이홍식(1999: 372-3)에서는 관형사절의 출현 필수성으로 관계절과 명사 보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명사 보절을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의존명사의 경우는 항상 보충어 성분을 요구한다. 먼저 아래 예를 보자.

(7) 가. 나는 철수가 도둑질을 한 사실을 안다.
나. 나는 사실을 안다.

(이상 이홍식 1999: 373)

이홍식(1999: 373)에 따르면 '철수가 도둑질을 한다'라는 명사 보절을 생략한 (7나)는 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 보절이 필수적인 분포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7나)는 통사적으로는 비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문맥이 주어지지 않거나 화·청자 간에 공유하는 지식이 없으면 의미적으로는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명사 보절의 필수성은 통사적 필수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의미적 필수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의존명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의존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선행하는 보충어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4] 이홍식(1999: 373)에서는 의존명사 앞에 관계절도 올 수 있고 명사 보절도 올 수 있는데, 관계절이든 명사 보절이든 모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출현의 필수성으로 관계절과 명사 보절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존명사는 원래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통사적 특징을 지니는 부류로, 일반적인 명사가 의미적으로 보충어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는 명사 보절의 필수성을 주로 의미적 필수성의 차원에서 다룬다. 이러한 의미적 필수성은 후행하는 명사와 관련된다. 만약 후행하는 명사가 의미적으로 필수 보충어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 관형사절은 명사 보절로 볼 수 없다. 이는 의존명사 앞에 오는 절이 명사 보절인지를 판단할 때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아래 예를 보자.

(8) 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경상과 역관을 제외한 자가 인삼을 소지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검색하라.

(8가)에서는 의존명사 '자'가 선행하는 관형사절의 주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관형사절을 관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나)에서는 의존명사 '자'가 선행하는 관형사절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라는 의존명사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기 때문에 명사 보절을 취하지 않는 명사 부류이다. 이 때문에 (8나)의 경우 '자'에 선행하는 관형사절을 명사 보절이라고 하기 어렵다.[5]

4) 임동훈(1990: 96)에서 이를 언급한 바가 있다.

의존명사가 가진 의존성 때문에 절이 선행할 때 통사적 필수성만으로 이 절이 관계 절인지 명사 보절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명사 보절이 핵어 명사의 필수 보충어라는 성질을 고려하면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절이 명사 보절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절 명사로서의 '것'을 살펴보겠다. 남기심(1973: 25), 이익섭·임홍빈(1983: 208), 강범모(1983: 62-3)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것'이 명사 보절을 취할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9) 가. 철수가 학교 가는 {것, 장면}을 보았다.
나. 정부까지 나서서 자식이 부모 찾는 {것, 일}을 막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다. 그때가 더 순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는 {것이, 속도가} 빠르다.
라. 잠에서 깬 김유신은 그제서야 어머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 사실}을 알았다.

(9)의 '것'은 선행하는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한다. 또한 이때 '것'이 지시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체가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것'의 의미는 '장면'이나 '일', '속도', '사실' 등 보절 명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절은 '것'의 의미를 보충해 준다. 이때의 '것'은 보절 명사라고 볼 수 있다.[6]

3.1.2. 통사적 특징

일반 보절 명사는 일반적으로 보절 명사 자체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할 때 제약을 가진다(이익섭·임홍빈 1983: 280). 또한 같은 보절 명사

5) 본고는 (8나)에서 '자'가 선행하는 관형사절이 본고에서 말하는 명사 보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절이 어떤 유형에 속하지를 판단하는 것은 본고의 관심사가 아니므로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

6) 단, (9라)의 경우, '명사 보절 +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것' 명사절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라고 해도 후행하는 서술어의 어휘적 성격에 따라 보절 명사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달라진다. 아래 예를 보자.

(10) 가. 그곳에 {찾아간, 찾아갈} 일
나. 당선된 사람이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한, 못할} 상황
다. 물가가 {*호전된, 호전될} 가능성
라. 기사를 {읽은, *읽을} 기억

(11) 가. 그곳에 {찾아간, *찾아갈} 일을 후회하였다.
나. 그곳에 {*찾아간, 찾아갈} 일을 계획하였다.

(10)은 보절 명사와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을 확인하는 예이고, (11)은 후행하는 서술어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을 확인하는 예이다. (10)에서 볼 수 있듯이 '일'이나 '상황'과 같은 경우 보절 명사의 의미 자체가 관형사형 어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가능성'이나 '기억'을 비롯한 보절 명사는 자체의 의미 때문에 특정한 관형사형 어미와만 결합할 수 있다. 또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선택에 제약이 없는 보절 명사 '일'의 경우, 후행하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ㄴ'이나 '-ㄹ' 중 하나만 올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명사 보절을 수식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맥을 통해 대당할 만한 보절 명사를 추론하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는 후행 서술어와 관련이 있다.

(12) 가. 할아버지께 {혼난, 혼날} 것을 생각하니 설움이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나. 나는 반대로 농촌주택이 모두 석유보일러 난방으로 {개조된, 개조될} 것이 걱정된다.

(13) 가. 중학교 동창인 듯한 여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부를} 것을 보았다.
나. 황 사장과 성길은 날이 어두워지면 농장으로 숨어들어 {갈, *간} 것을 계획하고 승용차에 올라탔다.

(12)는 보절 명사 '것'이 관형사형 어미의 선택 제약을 받지 않는 예이고, (13)은 보절 명사 '것'이 관형사형 어미의 선택 제약을 받는 예이다. (12가)의 경우 생각하는 일은

이미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12나)의 '걱정되다'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13가)에서는 발생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사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오기 어렵다. 반면에 (13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그 일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일반적으로 '계획하다' 앞에 '현실'의 의미를 가지는 '-ㄴ'이 오기 어렵다.[7] 어떤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수 있는지는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으로는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에 후행하는 격조사와 서술어에 제약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4)는 '것' 뒤에 붙일 수 있는 격조사를 살펴보는 예이고, (15)는 '것' 뒤에 올 수 있는 서술어를 살펴보는 예이다.

(14) 가. 저 멀리 수평선상에 아득히 주름살 같은 파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나. 그들은 대문을 가로 막고 서서 형기네가 나가는 것을 막았다.
다. 앞으로 잘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 비리는 모조리 세금으로 쳐버리겠다는 것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 많은 대학에서 우수한 학업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는 도구로써 논술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5) 가. 그들은 대문을 가로 막고 서서 형기네가 나가는 것을 막았다.
나. 몸보다 동전을 날리는 것이 빠르다.
다. 그 제일 첫 번째 온 사건은 동학군들이 김개주의 지휘를 받아 평사리를 휩쓸고 간 것이다.

---

7) '계획하다' 앞에 '현실'의 서법적 의미를 가지는 '-ㄴ'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 예를 보자.

예: 그들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교통 기관의 연결을 표 위에서 짜내는 재미에 이끌려 끊임없이 온 나라를 여행하며 {돌아다니는, *돌아다닌} 것을 계획한다.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것' 앞에 오는 것은 과거 실현을 뜻하는 '-ㄴ'이 아니라 비과거시제 어미 '-느-'와 결합해 비과거 현실의 의미를 가진 '-는'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온 나라를 여행하며 돌아디니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일로 이해될 수 있기에 '계획하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14)와 (15)에서 볼 수 있듯이 '것'이 명사 보절에 쓰일 때 후행하는 조사나 서술어에는 제약이 없다. 이때의 '것'은 여전히 일반 명사와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절 명사로 쓰인 '것'의 명사성 정도를 살펴보겠다. 문숙영(2017: 5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절 명사 '것'은 지시사 '그'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들'을 통해 복수화할 수도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 가. 다만 어머니 손에 매달려 동네 모서리를 돌아서던 {것만은, 그것만은} 기억에 남아 있다. (문숙영 2017: 41)
나. 통칭 「백의 민족」이라고 할 만큼 흰 옷을 좋아했다는 {것, 그것}은 언제부터 비롯한 것인가?

(17) 가. 아무튼 이렇게 하나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말장난으로만 능청스럽게 변호하는 {것, 것들}을 보고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나. TV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 것들}을 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8)]

(16)은 보절 명사 '것' 앞에 지시사 '그'가 결합하는 예이고, (17)은 보절 명사 '것'이 복수표지 '-들'과 결합하는 예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에서는 '것' 뒤에 복수표지 '-들'을 붙이기가 어렵다.

(18) 가. 나는 철수가 어제 학교에 간 {것, *것들, 사실, *사실들}을 안다.
나.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열광적으로 방언을 외우고 알아듣기 어려운 기도를 하는 {것, ?것들, 장면, 장면들}을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뇌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18가)의 '것'은 명사 보절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명사절에 쓰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명사절에 쓰인 '것'이 복수화되지 못하는데(문숙영 2017), 여기서 '것'을 보절 명사로 봐도 복수화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학교에 간다

8) 이 예문은 문숙영(2017: 50)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문숙영(2017: 50)에서는 'TV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고, 만약 '것'을 보절 명사로 본다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는 것은 단 한번이고 여러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에서는 '것' 뒤에 '-들'을 붙이기가 어렵다. (18나)의 경우, 보절 명사 '것'이 쓰이면 열광적으로 방언을 외우고 알아듣기 어려운 기도를 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것'을 복수화하면 문장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9] 반면에 보절 명사 '장면'이 쓰이면 하나하나씩 분리될 수 있는 화면을 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복수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명사 보절로 쓰인 '것'은 복수화될 수 있지만,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보다 더 적절한 문맥이 필요하다.

3.1.3. 의미적 기능

이 절에서는 보절 명사인 '것'의 의미적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보절 명사로 쓰인 '것'은 일반적으로 이를 대치할 수 있는 명사를 찾을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19) 가. 정부까지 나서서 자식이 부모 찾는 {것, 일}을 막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 잠에게 깬 김유신은 그제서야 어머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 사실}을 알았다.
다. 저 멀리 수평선상에 아득히 주름살 같은 파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장면}이 보인다.
라. 철수는 공연을 열려던 {것, 계획}을 변경하였다.
(정주리 1994/2004: 287, '계획'은 필자 추가)

(19)에서 볼 수 있듯이 '것'과 다른 명사로 대치될 수 있다. 그러나 (19가)와 (19나)와 같은 예는 '것'을 '일'이나 '사실'로 바꾸더라도 큰 의미 차이가 없으나, (19다)와 (19라)와 같은 경우 '것'을 '장면'이나 '계획'으로 바꾸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것'이 쓰

9) 만약 선행 문맥에서 여러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것들'도 허용된다. 위에 (17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자가 어떤 사람이 뉘우치는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 일일이 변호하는 여러 장면을 볼 때 '것' 뒤에 복수 표지 '-들'을 붙인 경우로,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일 때는 ‘관형사절 + 것’ 구성 전체가 표현하는 내용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보절 명사가 쓰일 때는 보절 명사가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를 더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19다)의 경우, ‘것’을 쓰면 보이는 것은 파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장면’을 쓰는 경우에는 보이는 것은 파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어느 순간이라는 의미가 강해진다. 다시 말해 ‘것’이 쓰이면 동태적인 화면이 보이는 것이고, ‘장면’이 쓰이면 정태적인 화면이 보이는 것이다. 이때 ‘것’은 일반적인 보절 명사에 비해 어휘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것’을 ‘일’이나 ‘사실’과 같은 몇몇 보절 명사와 대치해도 의미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은 ‘일’이나 ‘사실’과 같은 명사들의 의미는 ‘장면’이나 ‘계획’보다 추상적이고 범주화되었기 때문이다.[10)]

이때는 ‘것’을 대당할 만한 보절 명사를 찾을 수 있고, ‘것’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보이는 장면 등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적 기능과 지시적 기능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때의 ‘것’은 명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보절 명사로 쓰인 ‘것’이 명사성을 유지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시사 ‘그’나 복수 표시 ‘-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건희(2021)에서는 ‘보다’를 비롯한 지각 동사 앞에 오는 ‘관형사절 + 것’ 구성도 명사화된 절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절 명사화의 수단으로서의 ‘관형사절 + 것’ 구성은 개체 명사화, 행위 명사화, 명제 명사화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체 명사화, 사태 명사화, 명제 명사화는 각각 Kim(2009)에서 언급하였던 ‘관형사절 + 것’ 구성의 세 가지 유형, 즉 내핵관계절, 인지구문(Perception construction),[11)] 사실구문(Factive construction)과 대응한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20) 가. 존은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잡았다.
나. 존은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

---

10) 문숙영(2017: 46)에서 ‘사실’은 “명제의 의미를 범주화하는 대표적인 술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11) Kim(2009: 345 각주 1)에서는 이러한 인지 구문에 속하는 동사에는 주로 ‘보다’, ‘듣다’, ‘느끼다’ 등이 있다고 하였다.

다. 존은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알았다.

(이상 김건희 2021: 162)

김건희(2021: 162)에 따르면 (20 가)~(20 다)는 각각 개체 명사화, 행위 명사화, 명제 명사화의 예이다. 그러나 본고는 (20 다)처럼 명제를 표현하는 '것' 절은 명사화된 절로 보지만,[12] (20 가)나 (20 나)에 쓰이는 '관형사절 + 것' 구성까지 명사화된 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 나)에서의 '것'은 아직 명사성이 남아 있고 이와 대응할 만한 보절 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것'의 의미가 완전히 추상화되고 문법화되지는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20 가)처럼 내핵관계절과 결합한 '것'은 관계절 안에 있는 성분과 공지시 관계를 이루고 어휘적 기능이 남아 있기에 때문에 문법요소로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20 가)와 (20 나)를 각각 내핵관계절 구문과 명사 보절 구문으로 보고, 명사절이라는 범주에서 검토하지 않는다.

또한 '명사 보절 + 것' 구성은 '것' 명사절, 또는 내핵관계절 구성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대해 문숙영(2017: 67-8)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아래 예를 보자.

(21) 가. 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나. 나는 바깥에 눈이 내려서 쌓이고 있는 것을 몰랐다.

(21가)는 내핵관계절과 명사 보절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예이고, (21나)는 명사 보절과 명사절 모두 해석 가능한 예이다. (21가)의 '것'은 보절 명사 '일'로 해석될 수 있고, 핵어 명사 '특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는 명사 보절로 볼 수 있고 후자는 내핵관계절로 볼 수 있다. 또한 (21나)의 경우, '나는 바깥에 눈이 내려서 쌓이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로 해석되면 관형사절이 명사 보절이고 '나는 바깥에 눈이 내

12) 본고는 (20다)를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라고 본다. 즉 '존은 도둑이 도망감을 알았다'로 해석될 수도 있고, '존은 도둑이 도망가는 사실을 알았다'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 '것' 절 전체는 명사절로,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 '것'에 선행하는 절은 명사 보절로 볼 수 있다.

려서 쌓이고 있음을 몰랐다'로 해석되면 '것' 절 전체가 명사절이다.

또한 문숙영(2017: 67-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서술어라도 '손톱을 깎던 것을 멈추고'의 경우 '손톱을 깎던 행위를 멈추었다'로만 해석할 수 있으나 '숙제 하던 것을 멈추었다'는 '숙제 하던 행위를 멈추었다'와 '하던 숙제를 멈추었다'로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것'이 포함된 절 구성은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고, 후행하는 동사만으로는 '것'이 포함된 절 구성이 무엇인지를 단정하기가 어렵다.

3.2.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3.2.1. 내핵관계절의 개념

3.1.1.에서 명사 보절을 설명할 때 이와 구별되는 관계절에 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관계절은 기술된 상황에서 명사구의 지시물을 명시함으로써 명사구의 지시물을 한정하는 일종의 내포절이다(Andrews 2007: 206). 그리고 관계절의 핵어 명사가 관계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관계절을 외핵관계절과 내핵관계절로 나눌 수 있다. 외핵관계절은 핵어 명사가 관계절 밖에 있는 관계절이고 내핵관계절은 핵어 명사가 관계절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절이다.

(22) 가. Navajo어

ashkii łéechąą'í yitztał-ęę nahał'in

[boy dog 3:perf:3:kick-REL] imp:3:barks

the dog that the boy kicked is barking

(Culy 1990: 21)

나. the dog [that the boy kicked] is barking

(22가)는 내핵관계절을 가진 언어인 Navajo어의 예이고, (22나)는 영어로 된 외핵관계절의 예이다. (22)에서 볼 수 있듯이 (22가)처럼 핵어 명사 'dog'가 관계절의 내부에

있는 것을 내핵관계절이라고 하고, (22나)처럼 핵어 명사 'dog'가 관계절의 외부에 있는 것을 외핵관계절이라고 한다.

한국어에도 이처럼 두 종류의 관계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논의에서 언급하였다(Jhang 1994, Chung & Kim 2003, Kim 2004 등).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가. 8시에 세탁소에 가서 [$\varnothing_i$ 맡긴] 와이셔츠$_i$를 찾아왔어요.
나. 8시에 세탁소에 가서 [와이셔츠$_i$ 맡긴] 것$_i$을 찾아왔어요.

(23가)는 외핵관계절의 예이고, (23나)는 내핵관계절의 예이다. (23가)의 핵어 명사인 '와이셔츠'는 관계절의 외부에 있고, 관계절 안에 있는 공백(gap)과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 또한 (23나)의 핵어 명사인 '와이셔츠'는 관계절 내부에 있고, 관계절 외에 있는 '것'과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23나)를 내핵관계절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견해차를 보인다. Jhang(1994), Kim(2004), Lee(2006) 조수근(2014, 2016), 이정훈(2020) 등 대부분 연구에서 한국어에 내핵관계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나, Chung(1996/1999), 문숙영(2017), 박형진(2019) 등을 비롯한 연구에서는 한국어에 내핵관계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내핵관계절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어에 내핵관계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의 통사·의미적 특징 등을 검토하였는데 (23나)와 같은 문장을 내핵관계절로 보는 이유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지은(2020: 171)에서는 Dixon(2010: 314-8)에서 제시한 내핵관계절의 특징을 내핵관계절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이용해, 한국어에 내핵관계절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래는 이지은(2020: 171)에서 제시한 내핵관계절의 특징이다.

(24) 내핵관계절의 특징(Dixon 2010: 314-8 참고)
가. 주절과 종속절이 공유 논항을 가짐.
나. 종속절이 공유 논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유 논항의 외연을 좁히거나 이미 외연이 확정된 공유 논항에 추가적인 배경적 정보를 더함.

다. 공유 논항이 종속절 안에 축소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함.

(이상 이지은 2020: 171)

이지은(2020: 171)에 따르면 (24가)와 (24나)는 관계절이 모두 가지는 특징이고 (24다)는 내핵관계절에만 적용되는 특징이다. 그러나 (24다)가 내핵관계절에만 적용되는 특징인지는 의문스럽다. Dixon(2010: 318)에 따르면 이러한 축소되지 않은 형태(the fullest statement)가 외핵관계절에 쓰일 수도 있고 내핵관계절에 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내핵관계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Dixon(2010: 314)에서 제시한 전형적인 관계절 구성의 특징은 총 4개인데 이지은(2020: 171)에서 두 개만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내핵관계절은 관계절의 특징 중 일부에만 부합하는지, 만약 일부에만 부합한다면 이를 내핵관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 의문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와이셔츠 맡긴 것을 찾아왔다'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어 Dixon(2010: 314)에서 제시한 전형적인 관계절 구성의 특징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그런데 '와이셔츠 맡긴 것을 찾아왔다'와 같은 문장을 내핵관계절 구성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존재한다. Chung(1996/1999)에서는 내핵관계절을 공지각동사(null perception verb)의 보절로 분석하였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25) 가. 존이 [사과가 접시 위에 있는 것]을 보고 pro 먹었다.
나. e[존이 집에 없는 것]을 (모르고) 전화하였다.

(이상 Chung1996/1999: 7-8)

Chung(1996/1999: 7-8)은 '내핵관계절 + 것' 구성 뒤에는 '보다'나 '모르다'와 같은, 표면에 나오지 않는 감각동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특히 (25나)의 경우, '전화하다'가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동사인데 (25나)가 정문인 이유는 (공)감각동사가 격을 할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5나)는 정문이 아닌 비문일 가능성도 있다.[13] 그리고

13) Choi(2014: 142)에서는 (25나)를 수정한 예문인 '메리가 존이 집에 없는 것을 전화했다'를 정문으로 판단하였는데 Choi(2014: 142 각주5)에서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은 이 예문을 비문이라고 했음을 밝히었다. Choi(2014: 142 각주5)에서는 '것을' 뒤에 비교적 긴 휴지가 놓이면 이를 정문으로

Choi(2014: 142-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핵관계절 + 것' 구성을 '모르다'의 보절로 보면 '것'을 '사실'로 대체할 수 있는데, (23나)의 '것'은 '사실'로 대치할 수 없다. 또한 Chung & Kim(2003: 49-51)에서 설명했듯이 만약 '내핵관계절 + 것' 뒤에 '잡히다'나 '사라지다'를 비롯한 자동사가 오면 이러한 감각동사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다. 그에 따르면 이때 동사 '잡히다'나 '사라지다'의 경우 내핵관계절이 주격을 할당하는데 이 내핵관계절을 '보다'와 같은 감각 동사들의 보어(complement)로 보면 목적어를 할당해야 한다.[14] 즉 주절의 동사가 자동사라면 '모르다'나 '보다'와 같은 목적어를 요구하는 감각동사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내핵관계절은 감각 동사가 생략되는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석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또한 문숙영(2017), 박형진(2019)에서는 소위 내핵관계절 구성은 진정한 내핵관계절이 아니고 화용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문숙영(2017: 67-70)에서는 같은 주절 동사인데도 앞에 오는 절이 내핵관계절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있기에 이러한 내핵관계절의 해석은 화용론의 산물이라고 하였고, 내핵관계절로 해석되는 구문을 사실 명사 보절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26) 가. 나는 숙제 하던 것을 멈추었다.
나. 곽 씨는 손톱을 깎던 것을 멈추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 되어 말했다.
(이상 문숙영 2017: 67)
다. 오늘 신문 온 것 가지고 와. (문숙영 2017: 69-70 각주 42)

문숙영(2017: 67-8)에 따르면 (26가)의 '숙제 하던'은 명사 보절로 해석될 수도 있고 내핵관계절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26나)의 '손톱을 깎던'은 명사 보절로 해석될 뿐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내핵관계절의 문법성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관해서는 Lee(2021), 이지은(2021) 등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14) Chung & Kim(2003: 49-50)에서 제시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예: 가. [톰이 달리는 것]이 메리에 의해서 잡혔다.
나. [사과가 쟁반 위에 있던 것]이 사라졌다.

다. 또한 (24다)는 일반적으로 내핵관계절로 간주하는 예인데, 문숙영(2017: 69-70 각주 42)에서는 (24다)도 명사 보절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이때의 '신문'은 특정적이지 않은 '신문'이고 '오늘 신문 온 것'이 특정적인 신문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늘 신문 온'을 명사 보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6다)를 명사 보절로 볼 것인가, 내핵관계절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명사 보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어에서 관계절이 아닌 관형사절을 모두 명사 보절로 보면 (26다)도 명사 보절로 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 본고처럼 명사 보절을 '핵어 명사의 의미를 보충하는 관형사절'로 한정한다면 (26다)를 명사 보절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의존명사 '것'은 독립적으로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없고, 다른 성분과 같이 있어야만 완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것' 앞에 오는, 공백이 없는 절을 모두 명사 보절로 봐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것'이 대치할 수 있는 명사의 성질까지 고려하면 '것' 앞에 오는, 공백이 없는 절을 모두 명사 보절로 보지는 않을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것'이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것' 앞에 오는 성분은 의미적으로 수식어 성분인지 보충어 성분인지를 구분하고자 한다. 박진호(1994: 5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것'이 사물을 가리킬 때는 의미 표상 속에 빈자리가 없지만, '것'이 사건이나 상태를 가리킬 때는 사건이나 상태의 내용을 표현하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빈자리가 존재한다. 이때 의미 표상 속에 빈자리가 없는 '것' 앞에 오는 절을 수식어로 보고, 빈자리가 있는 '것' 앞에 오는 절을 보충어로 본다. 본고에서는 후자만 명사 보절로 본다.

그러나 '오늘 신문 온 것 가지고 와(문숙영 2017: 69-70 각주 42).'라는 예문에서 '것'은 '신문'을 지시한다. 이때 '신문'을 지시하는 '것'은 의미 표상 속에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앞에 오는 관형사절을 '것'의 보충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늘 신문 온 것 가지고 와'에 출현하는 관형사절을 명사 보절로 보지 않고 내핵관계절로 본다.[15)]

15) 여기서는 '오늘 신문 온 것 가지고 와'를 비롯한 문장을 완전히 명사 보절로 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명사 보절의 범위를 넓히면 문숙영(2017: 69-70)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문장과 같은 예는 충분히 명사 보절로 볼 여지가 있다. 단, 의미상의 필수적인 보충어라는 개념을 드러낸 명사 보절의 경우에만 이 문장과 같은 예문을 명사 보절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박형진(2019)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한국어에 내핵관계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27) 가. 일명 내핵관계절 구성에서 핵어 명사가 주절과 관형사절의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semantic participant)로 해석되지 못한다.[16)]
나.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은 다른 언어의 전형적인 내핵관계절과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27가)부터 살펴보자. 박형진(2019: 95)는 우선 핵어 명사가 관형사절 사태와 주절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모두 될 수 있는 예를 제시하였고, 한국어에 내핵관계절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러한 관계절의 관계화 방책을 "관계절 내부의 명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명사 유지와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것'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형진(2019: 95-8)에 따르면 이렇게 도출되는 한국어 내핵관계절의 관계화 방책은 내핵관계절만을 위한 방책이 아니라고 하였고, 일부 경우에는 비슷한 구성인데도 관형사절 내부에 있는 명사가 주절과 관형사절 사태 모두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28) 가. [제가 과제를 인터넷에 올린] 거를 다시 읽어 봤어요.
나. [아기가 과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를 엄마가 다시 주웠다.
(이상 박형진 2019: 95)

(29) 가. [제가 과제를 인터넷에 올린] 거를 선생님은 아직 몰라요.

16) 박형진(2016: 79)에서는 '의미론적 참여자'가 "핵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구성 요소"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때 의미론적 참여자는 문법적 논항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집에서 밥을 먹었다(박형진 2016: 79)'라는 문장에 나오는 명사인 '밥'과 '집'을 관계화하면 아래와 같다.

예: 가. [집에서 e_i 먹은] 밥$_i$
나. [e_i 밥을 먹은] 집$_i$

박형진(2016: 79-80)에 따르면 '밥'과 '집'은 모두 핵어인 '먹-'이 표상하는 사태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론적 참여자로 간주할 수 있다. (가)의 핵어 명사인 '밥'은 '먹-'의 목적어로서 문법적 논항이자 의미론적 참여자이다. 이와 반대로 (나)의 핵어 명사인 '집'은 '먹-'의 문법적 논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론적 참여자일 뿐이다. 따라서 박형진(2016)은 핵어 명사가 관형사절 내부에 존재하는 공백(gap)과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관형사절을 관계절로 본다.

나. [아기가 과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를 엄마가 봤어.
다. [창 밖 풍경을 그린] 것이 예쁘다.
라. [소뼈 끓인] 거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어.

(이상 박형진 2019: 95-6)

(28)은 관형사절 내부의 명사가 주절의 사태와 관형사절의 사태 모두에 의미론적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예이고, (29)는 그렇지 않은 예이다. 박형진(2019: 59)에 따르면 (28)의 경우 핵어 명사인 '과제'나 '과자'는 '것'과 공지시 관계를 이루고 이들이 주절과 관계절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된다. 그러나 (29)의 경우, 관형사절 내부에 있는 명사가 '것'과 공지시 관계를 이룰 수 없다. (29가)와 (29나)의 '것'은 각각 '사실'과 '장면' 정도로 해석되고, (29다)와 (29라)의 '것'은 각각 '그림'과 '물' 정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때 관형사절 내부에 있는 명사가 주절의 사태와 관형사절의 사태에 모두 의미론적 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관형사절 내부에 있는 명사가 주절과 관형사절 사태 모두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해당 관형사절은 관계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 '관형사절 + 것' 구성에서의 관형사절은 모두 관계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2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형사절 내부에 있는 명사가 주절과 관형사절 사태 모두의 의미론적 참여자가 되는 예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내핵관계절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예를 통해 내핵관계절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내핵관계절만을 위한 관계화 방책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핵관계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Culy(1990: 26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Digueño, Navajo, Quechua 등 많은 내핵관계절이 있는 언어에서 내핵관계절과 같은 형식은 인지동사의 보절이나 사실성 동사의 보절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일례로 Navajo어에서 내핵관계절의 형식과 동사 보절의 형식은 같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0) 가. ashkii ałhosh-ígíí ałhą́ą́'
boy imp:3:sleep-REL imp:3:snore
"The boy who is sleeping is snoring"

나. łééchąą'í nishxash-ígíí yínii'
dog 2:perf:3:bite-NOM perf:1:hear
"I heard about the dog biting you" OR
"I heard about the fact that the dog bit you"

(이상 Culy 1990: 129)

(30가)는 내핵관계절의 예이고, (30나)는 동사 보절의 예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ígíí'는 내핵관계절에 쓰일 수도 있고 동사 보절에 쓰일 수도 있다. 만약 내핵관계절만을 위한 관계화 방책이 존재해야 내핵관계절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30가)도 내핵관계절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내핵관계절이 존재하는 언어의 범위가 더 줄어들 것이다.

다음으로 (27나)를 살펴보겠다. 박형진(2019: 98-105)에서는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이 다른 언어의 전형적인 내핵관계절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17] 외핵관계절과의 기능 분담 정도가 범언어적인 경향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18] 내핵관계절로 해석된 구성들을 내핵관계절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본고는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이 다른 언어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내핵관계절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범언어적인 경향과 다르다는 것이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언어 간에 차이는 늘 존재하며,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하는 것이더라도 모든 언어에서 해당 양상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Song(2001: 214)에서는 일반적으로 내핵관계절 안에 있는 핵어 명사에 관계절의 핵어 명사인 것을 표시하는 표지가 없다고 하였고, Bambara어가 그중에서의 예외라고 하였다. Bambara어에서 'min'이란 표지로 내핵관계절 안에 있는 핵어 명사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이 전형적인 내핵관계절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도 한국어의 이러한 구문을 내핵관계

17) 일례로 박형진(2019: 98-101)에 따르면 전형적인 내핵관계절은 핵어 명사가 관계절 안에만 실현되고 주절에는 이와 관련된 요소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관계절 안에 핵어 명사가 존재할 뿐 아니라 핵어 명사와 공지시하는 요소 '것'이 주절에서도 실현된다고 하였다.

18) 박형진(2019: 103-4)에서는 범언어적으로 한 언어가 두 개이상의 관계화를 가진다면 관계화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관계화 위치가 더 명시화된 관계화 방책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은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관계화하기 쉬운 주어와 목적어에만 허용된다고 하였다.

절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에 내핵관계절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내핵관계절도 관계절의 일종으로서 관계절의 전형적인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Dixon(2010: 314)에서는 관계절의 전형적인 특징을 제시한 바가 있다. 아래는 Dixon(2010: 314)에서 제시한 관계절 구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31) Dixon(2010: 314)에서 제시한 전형적인 관계절 구성의 특징
가. 관계절 구성은 주절과 관계절을 포함하고 하나의 단일한 억양구를 가진 문장이 형성된다.
나. 주절과 관계절이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한다.
다. 관계절은 주절에 있는 공유 논항(common argument)의 수식어 되고, 공유 논항을 한정하는 역할이나 공유 논항에 관한 배경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다.
라. 관계절은 절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진다. 즉 관계절에서 서술어와 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요 논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에서 내핵관계절로 볼 만한 예는 전형적인 관계절 구성의 특징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겠다.

(32) 가. 부엌에서 과일 깎은 것 들고 나왔어.
나. 철수는 영희가 나가는 것을 잡았다.

(32)에서 볼 수 있듯이 (32가)는 관계절인 '과일을 깎다'와 주절인 '부엌에서 과일을 들고 나왔다'로, (32나)는 관계절인 '영희가 나간다'와 주절인 '철수는 영희를 잡았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때 관계절과 주절이 다른 억양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예컨대 내핵관계절에 의문 억양이 쓰이고 주절에 진술 억양이 쓰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32가)와 (32나)에서 관계절과 주절이 각각 '과일'과 '영희'라는 논항을 공유하고,[19] '과일 깎은'이나 '영희가 나가는'은 절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진다. 나아가

19) Kim(2004: 5-6), 이지은(2020: 171-2), 연재훈·박종원(2021: 134) 등에서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을 언급한 바가 있다.

(32가)의 내핵관계절이 ‘과일’을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32나)의 내핵관계절이 배경 정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들은 전형적인 관계절의 특징에 부합하므로 관계절로 볼 만하고, 핵어 명사가 관계절 안에 위치하는 것이 내핵관계절의 기본적인 정의와 부합하기 때문에 내핵관계절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어에서 내핵관계절의 핵어 명사와 ‘것’이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엄격한 공지시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 Song(2021)에서는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을 아래와 같은 세 종류로 나누었다. 아래 예를 통해 한국어 내핵관계절의 공지시 관계를 살펴보겠다.

(33) 가. 유형1 Identification: 내가 쪽지 보낸 거 받았어?
나. 유형2 Predication: 시험지 남은 거 한 장 주세요.
다. 유형3 Change of Status: 존은 메리가 날생선을 익힌 것을 먹었다.
(이상 Song 2021)

Song(2021)에 따르면 유형1의 경우 ‘쪽지’와 ‘것’이 공지시관계를 이루는데, 유형2의 경우 ‘것’이 핵어 명사의 부분 집합을 의미한다. 이때 유형2의 ‘것’은 핵어 명사와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고 하기보다는 핵어 명사가 지시하는 그 범주에 있는 어느 개체와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 또한 유형3의 경우, ‘것’은 내핵관계절 서술어에 의해 형성된 핵어 명사의 결과물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때 ‘날생선’이 ‘날생선을 익힌 것’과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날생선이든 날생선을 익힌 것, 즉 익힌 생선이든 모두 ‘생선’이라는 상위어에 속한다. 이때 상위 개념의 범위에서 핵어 명사와 ‘것’이 공지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게 ‘관형사절 + 것’ 구성이 표상하는 결과물은 관형사절 안에 출현하는 명사를 표현하는 것과 완전 다를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34) 가. 창 밖 풍경을 그린 것이 예쁘다.
나. 소뼈 끓인 거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어.
(이상 박형진 2019: 96)

(34)에서 ‘창 밖 풍경을 그린 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림’이고, ‘소뼈 끓인 것’은 ‘소뼈’가 아니라 ‘국물’이다. 이때 ‘풍경’과 ‘그림’ 혹은 ‘소뼈’과 ‘국물’을 상위언어적 표현으로도 묶을 수 없다. 이때 ‘그림’이나 ‘국물’이 ‘창 밖 풍경을 그린 결과물’과 ‘소뼈를 끓인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지시 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내핵관계절 구성이라고 하기 어렵다.[20]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내핵관계절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때의 ‘것’의 위상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 (34)에서 볼 수 있듯이 (34가)의 ‘것’과 (34나)의 ‘것’은 각각 ‘그림’과 ‘국물’ 정도로 대치할 수 있다. 이러한 명사들은 자신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필수 보충어를 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본고의 보절 명사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것’을 ‘그림’이나 ‘국물’로 이해한다면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절은 ‘것’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것’을 전형적인 의존명사 ‘것’으로 볼 수 있다.[21]

요컨대, 본고는 한국어에도 내핵관계절로 처리할 만한 것이 존재한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고 ‘것’과 공지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명사가 존재하는 관형사절을 내핵관계절로 처리한다.

3.2.2. 통사적 특징

먼저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에 선행할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Chung & Kim(2003: 44)에서는 외핵관계절과 달리 내핵관계절인 경우,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것’ 앞에 올 수 없다고 하였다.[22] 그러나 말뭉치에서 관형사형 어미

---

20) 이와 반대로 Song(2021: 105)에서는 (34나)를 비롯한 문장도 내핵관계절로 보았다.

21) 이러한 현상은 ‘관형사절 + 것’ 구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명사에도 나타날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 가. 먹은 그릇은 깨끗이 닦아라. (Song 1991: 218)
나. 손 씻을 필요가 없는 음식으로 먹읍시다. (연재훈 2012: 441)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릇’이나 ‘음식’이 앞에 오는 관형사절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형사절들을 전형적인 관계절로 볼 수 없지만, 이들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ㄹ’이 ‘것’ 앞에 출현하는 예가 발견된다. 아래 예를 보자.

(35) 가. 부엌에 죽 끓인 거 있어
나. 수현이한테 빚 갚을 거 있다면서요?

(35)에서 볼 수 있듯이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 ‘-ㄹ’과도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Chung & Kim(2003: 44)에서 제시한 것과 달리 관형사형 어미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오는 예를 제시했을 뿐, 관형사형 어미 ‘-ㄹ’이 오는 예를 다룬 경우는 많지 않았다. 내핵관계절에서 ‘-ㄹ’이 쓰일 때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36) 가. 손님 오셨는데 반찬 좀 먹을 거 있어요?
나. 오빠! 그거 우리 언니가 책 팔 거 아니거든요.
다. 돈 받을 거 다 받아 가면서 하는 건데 (조수근 2016: 93)
라. 나 내일 숙제 낼 거 두고 왔어. (인터넷 검색)
(37) 가. 과제 {하신, *하실} 거 피드백을 드렸어요.
나. 심실에 구멍 {있던, *있을} 거 막아 줬다.

(36)에서 볼 수 있듯이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올 때 주절의 시제는 주로 비과거인데 (36라)와 같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수도 있다. 이는

22) Chung & Kim(2003: 44)에서 제시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예: 톰은 [사과가 쟁반 위에 있는/*을] 것을 먹었다.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 ‘-ㄹ’이 쓰일 때 비문이 된 이유는 주절 사건의 시간과 내핵관계절 사건의 시간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ㄹ’이 쓰이면 ‘톰이 사과를 먹었다’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사과가 쟁반 위에 있다’는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톰이 사과를 먹을 때 그 사과는 아직 쟁반 위에 없다. 그렇다면 톰이 그 사과를 먹을 수 없다. 따라서 이때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이는 ‘것’ 앞에 오는 관행사형 어미 ‘-ㄹ’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내핵관계절 사건과 주절 사건 간에 있는 시간 관계로 결정한다. (36라)의 경우, 집에 둔 숙제는 아직 내지 않는 숙제여야 하고, 만약 숙제를 이미 냈다면 집에 두고 갈 수 없다. 이는 상식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37)도 마찬가지로 아직 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없고, 심실에 아직 생기지 않은 구멍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관형사형 어미가 선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내핵관계절이 나타나는 사건과 주절이 나타나는 사건 사이의 시간 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는 외핵관계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실 과제 피드백을 드렸다'나 '*심실에 있을 구멍을 막아줬다'의 경우 주절 사건과 내포절 사건의 시간이 충돌하기 때문에 모두 비문이다.

다음으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뒤에 어떤 조사가 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아래 예를 보자.

(38) 가. 소식을 들은 <u>것이</u> 있느냐?
나. 8시에 세탁소에 가서 와이셔츠 맡긴 <u>것을</u> 찾아왔어요.
다. 나는 네가 옷감을 준 <u>것으로</u> 옷을 만들었어. (문숙영 2012: 46 각주 22)
라. *물이 존이 전장을 고친 <u>것에서</u> 떨어진다. (Jhang 1994: 22)
마. *꽃이 피어 있는 <u>것의</u> 색깔이 예쁘다.

(3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뒤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올 수 있다. 이지은(2020: 178)에서는 내핵관계절은 주어, 목적어, 사격어의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38다)와 (38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사격 조사 일부만 내핵관계절에 후행할 수 있다. Jhang(1994: 22-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핵관계절은 출발점이나 간접 목적어 등의 자리에 나타날 수 없다. 또한 (37마)에서 볼 수 있듯이 속격 조사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뒤에 오기 어렵다.[23][24]

---

23) Chung(1996/1999: 6), 김용하(2013: 89) 등에서도 이러한 제약을 언급한 바가 있다.

24) 내핵관계절은 속격 조사와 결합하기 어렵지만, 수식어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래 예를 보자.

예: 가. 내가 영상에 MRI 의뢰한 거 결과 나왔다고 방금 문자가 왔네.
나. 어제 과제 하신 거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위에 (가)는 '의뢰한 MRI의 결과', (나)는 '어제 하신 과제에 대한 피드백' 정도의 의미로 이해될

다음으로 내핵관계절 구성에 쓰인 ‘것’ 뒤에 어떤 서술어가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39) 가. 경비실에 택배 온 거 받아 올게요.
나. 엑스레이 찍은 것도 괜찮나요?
다. *내가 가져온 물건은 컴퓨터가 고장난 것이다.
라. 도둑이 보석을 훔친 것이 가짜이다. (Jhang 1994: 11)

(39)에서 볼 수 있듯이 내핵관계절 구성에 쓰인 ‘것’ 뒤에 올 수 있는 서술어는 주로 동사와 형용사이다. 연재훈·박종원(2021: 138-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절 술어는 상태 술어일 수도 있다.[25] 또한 (39다)와 (39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사 ‘이다’는 ‘것’ 뒤에 오기 어렵지만 내핵관계절은 보어가 아닌 주어일 때 계사 ‘이다’가 허용된다.[26]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것’과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핵어 명사가 대당할 만한 문장 성분이다. 문숙영(2012: 46), 조수근(2014: 184) 등에서 언급한 내핵관계절은 핵어 명사가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에 나타나고, 간접 목적어나 사격, 소유주 등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가. 마침 수술 취소된 게 하나 있어요.

수 있다. 이때 내핵관계절 뒤에 속격 조사를 붙이지 못하지만, 내핵관계절이 수식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5) Kim(2002: 554-5)에서는 아래 예문을 제시하고 개체 층위 술어가 주절 서술어의 자리에 나타날 수 없다고 하였다.

예: 가. *강아지가 밖에 나가는 것을 사랑한다.
나. 강가지가 밖에 나가는 것을 때렸다.

(가)는 주절 서술어가 개체 층위 술어인 경우이고 (나)는 주절 서술어가 장면 층위 술어인 경우이다. ‘강아지가 밖에 나가는 것’이 내핵관계절로 이해될 때 (가)는 비문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맥주를 마신 것이 아주 비쌌다(연재훈·박종원 2021: 138)’라는 예문에서 ‘비싸다’도 개체 층위 술어인데도 이 문장은 정문이기 때문에 ‘주절 서술어가 장면 층위 서술어여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제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6) Yeom(2020: 957 각주 13)에서 ‘계사’ 앞에 내핵관계절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한 바가 있다.

나. 일단 외부 축하 영상 받기로 한 건 다 왔는데요.
다.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준 것을 봤다.
라. *철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크다. (조근수 2014: 184)

마지막으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이 지시사 '그'와의 결합 가능성 및 복수 표지 '-들'과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이 지시사 '그'나 복수표지 '-들'과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논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지시사의 수식 가능성을 보겠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견해를 아래 (41)과 같이 제시한다.

(41) 가. '것'이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
Jhang(1994: 41), Chung & Kim(2003: 46), 이정훈(2020: 52) 등
나. '것'이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
Lee(2006: 104-5), 한진희·홍성심(2013: 358) 등

(41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것' 앞에 지시사가 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을 문법적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41나)와 같이 '것' 앞에 지시사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 Lee(2006)에서는 '것'을 대명사로 보았고, 한진희·홍성심(2013)에서는 '것'을 보절자로 보았지만 명사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27] 다시 말해 '것'이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것'의 명사성과 관련이 있다. 그럼 아래 (42)를 통해 내핵관계절의 '것'이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42) 가. 순이는 영수가 뛰는 {것, *그것}을 잡았다. (연재훈·박종원 2021: 143)
나. 오늘 배달 온 {것, 그것} 가져다 줘. (문숙영 2017: 39 각주 6)

많은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27) 내핵관계절의 '것'의 위상은 후술할 것이다.

‘것’과 달리 사물을 지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도 지시할 수 있다.[28] (42가)의 경우, ‘것’은 ‘영수’, 즉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때 ‘것’ 앞에 지시사를 삽입하면 해당 문장은 비문이 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만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2나)의 경우, ‘것’이 사물인 ‘배달’을 지시할 때 ‘그’와 결합해도 이 문장은 비문이 아니다.[29] 또한 연재훈·박종원(2021: 143)에서는 ‘[[내가 쪽지를 보낸] 그 것]을 받았니’와 같은 예를 제시하였고,[30] 일부 문맥에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앞에 ‘그’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때의 ‘쪽지’는 ‘그 것’과 비슷한 자격을 갖고 동격 명사와 같은 해석을 받는다.

요약하자면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이 사람을 지시할 때는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나 사물을 지시할 때는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이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Yoon(2005: 389), 한진희·홍성심 (2013: 353) 등에서는 ‘것’과 ‘-들’이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31] Yoon(2012: 565), 연재훈·박종원(2021: 142) 등에서는 ‘것’과 ‘-들’이 결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43) 가. 논문 쓴 것들 좀 가져와 봐.
나. *경찰은 도둑들이 도망가는 것들을 잡았다.

(43)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논문’과 같은 사물을 지시할 때 복수화할 수 있지만,[32] ‘도둑’과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를 지시할 때는 복수화하

28) 내핵관계절의 ‘것’이 지시할 수 있는 명사에 대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29) 이정훈(2020: 52)에서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것’ 앞에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 예문을 비문이 아니라고 본다.

예: 존은 컴퓨터가 고장난 {것, *그것}을 고쳤다. (이정훈 2020: 52)

30) 연재훈·박종원(2021: 132 각주4)에서 설명하였듯이 여기서 ‘그’와 ‘것’을 띄어 쓰는 이유는 형태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연재훈·박종원(2021)의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은 연재훈·박종원(2021)의 표기법을 따랐다.
31) 한진희·홍성심 (2013: 535 각주5)에서는 ‘것’이 보절자이지만 ‘-들’이 명사와 결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절자와도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것’을 보절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것’ 뒤에 ‘-들’이 올 수 있는 이유는 ‘것’이 아직 명사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 못한다. 따라서 내핵관계절 구성에서 '것' 뒤에 '들'이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것'과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명사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3.2.3. 의미적 기능

본격적으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의 의미적 기능을 검토하는 것을 앞두고 먼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것'의 위상을 살펴보겠다.

(44) 가. '것'을 보절자나 명사화소로 보는 견해:
Jhang(1994), Jo(2003), 한진희·홍성심(2013), 경소력(2018) 등
나. '것'을 명사나 대명사로 보는 견해:
Kim(1996), Chung&Kim(2003)[33], Kim(2004), Lee(2006) 등
다. '것'을 허사(expletive/pleonastic)로 보는 견해:
Yoon(2005, 2012)[34], 이정훈(2020) 등

(44)에서 언급한 논의들은 거의 모두 생성문법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다. (44가)는 '것'을 문법요소인 보절자나 명사화소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것'이 주로 문법적 기능을 하고 어휘적 기능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Jhang(1994: 36), 한진희·홍성심(2013: 353) 등에서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을 '사람'이나 '물건'과 같은 명사로 대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것'이 NP로 보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핵어 N이 될 수 없다

32) 그러나 일부 명사는 그 자체를 복수화하기 어렵다. 예컨대 '마늘 깐 것'은 되는데 '마늘 깐 것들'은 어색하다. 이는 '마늘'이 일반적으로 복수 표지 '-들'을 취하지 않는 무정명사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33) Chung & Kim(2003: 46)에서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이 일종의 접어(clitic)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어'라는 것은 접사도 아니고 독립적인 단어도 아닌 의존형태소들의 형태론적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것'의 의미적 기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34) Yoon(2005: 389-92)에서는 내핵관계절의 '것'을 '허사'로 간주하는데 뒤에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이유로 '것'이 대명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Yoon(2012: 565-6)에서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뒤에 '-들'이 결합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것'이 허사(expletive)라고 하였다. 이러한 충돌된 견해를 통해 '것'은 대명사적 성질을 가지더라도 대용적 기능만 수행하는 대명사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Yoon(2005, 2012)의 견해는 (42나)와 같은 견해를 보이지 않는다.

고 하였다. 이 때문에 '것'을 어휘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문법적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경찰은 도둑이 도망하는 것을 잡았다'나 '넌 논문 쓴 거 프린트해'와 같은 문장에서는 '것' 앞에 오는 관형사절은 이미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것'의 자리에 '사람'이나 '물건' 등 명사가 오면 비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명사들은 자체로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보충어를 취할 수 있는 보절 명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것'을 다른 명사나 대명사로 대치하기는 어렵지만, 이때 '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내핵관계절과 결합한 '것'이 문법적 기능만 하는 문법요소인 보절자나 명사화소로 보기 어렵다.[35)]

(44나)는 '것'을 명사나 대명사로 보는 경우이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이유는 주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이 다른 명사로 대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04: 188-190, Lee 2006: 104-6). 아래 예를 보자.

(45) 가. 존은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잡았다.
가′. 존은 도둑이 도망가는 사건의 행위자를 잡았다.
(이상 Kim 2004: 188)
나. 마리는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잡았다.
나′. 마리는 도둑이 도망가는 현장을 잡았다. (Lee 2006: 105)

(45)에서 보았듯이 비슷한 문장인데 Kim(2004: 188)에서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을 '사건의 행위자'로 환언할 수 있다고 보았고, Lee(2006: 105)에서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을 '현장'으로 환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Kim(2004: 189)에서는 '것'이 다양한 단어로 환언될 수 있으므로 명사보다 대명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

35) Kim(2004)에서는 한국어에서의 전형적인 명사화소 '-음'과 '-기' 및 보절자 '-고'와 '-도록'과 비교할 때, '것'의 통사적 특징들은 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것'을 보절자나 명사화소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것'은 한국어의 전형적인 명사화소나 보절자와 다르기 때문에 '것'을 명사화소나 보절자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문숙영(201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ㄴ/ㄹ 것'을 일종의 명사화소로 볼 수 있고, '-ㄴ/ㄹ 것'이 사용되는 명사절은 보절 방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을 명사화소의 일부로 보지 않지만, Kim(2004)에서 제시한 이유로 '것'이 명사화소나 보절자라는 주장을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 본고에서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을 완전한 문법요소인 명사화소나 보절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에 아직 어휘적인 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명사'는 어떤 언어 표현을 대용하는 기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명사와 대용된 언어 표현을 서로 바꿔도 문장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전형적인 대명사인 '그'의 경우, 만약 '그'가 '철수'를 대용한다고 하면 '그는 밥을 먹었다'와 '철수는 밥을 먹었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두 정상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45가')나 (45나')에서 볼 수 있듯이 '것'을 '사건의 행위자'나 '현장'으로 환언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또한 Lee(2006: 105)처럼 '것'을 '현장'으로 환언할 수 있다고 보면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절을 내핵관계절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일반적으로 개체를 가리키는데, '것'이 '현장'으로 이해된다면 이 관형사절은 내핵관계절이 아닌 명사 보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명사성이 남아 있더라도 일반적인 명사나 대명사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다.

(44다)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을 허사로 보는 경우이다. Yoon(2005, 2012)에서는 '것'을 영어의 'it'이나 'there'처럼 허사(expletive)로 보고, 이를 내핵관계절 구성의 핵어 명사로 사용한다.[36] 이정훈(2020)에서는 '것'을 명사성 허사(pleonastic)로 보고,[37] 'it'이나 'there'와 같이 독자적인 의미적 특징이 결여되었다고 하였다. Yoon(2012: 565)와 이정훈(2020: 52)에서는 각각 허사가 복수화되지 못한다는 특징과 수식을 받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도 그렇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것'이 지시하는 명사가 사람이 아닐 때 '것'은 '그'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이 허가의 특징과 다르다고 할 수 있고, '것'이 허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단순한 문법적 요소

---

36) Yoon(2005: 388)에서 제시한 영어의 허사인 'it'이나 'there'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 가. There is a man in the room.
나. It is obvious that the world is round.

37) 명사성 허사 '것'은 "명사라는 통사 범주 정보는 지니지만 의미는 결여하며, 의미적 속성은 문맥을 통해 적절한 성분과 동지표됨으로써 결정되는 바, 그 의미적 속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술어의 의미 선택 속성, 분열문의 등가성, 성분 지휘 및 국부성 등이 작용한다(이정훈 2020: 45)".

도 아니고 단순한 어휘적 요소도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다음으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이 가진 의미적 기능을 살펴보겠다.

먼저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의 어휘적 기능을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것'이 내핵관계절 안에 있는 핵어 명사와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 즉 핵어 명사와 '것'은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는 뜻이다. 아래 예를 보자.

(46) 가. 넌 논문 쓴 걸 프린트해. ['것' --> 논문]
나. 철수는 영희가 나가는 것을 잡았다. ['것' --> 영희]

(46가)에서의 '것'은 '논문'을 지시하고 (46나)에서의 '것'은 '영희'를 지시한다. 이때 '논문'이나 '영희'와 같은 명사가 직접적으로 '것'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여기의 '것'은 내핵관계절 안에 있는 '논문'이나 '영희'와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지시성을 가진다는 것을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이 아직 어휘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것'이 지시할 수 있는 대상, 즉 내핵관계절의 핵어 명사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다. 문숙영(2012: 48), 조수근(2016: 86)에 따르면 내핵관계절의 핵어는 일반적으로 구체 명사일 때 가능하고 추상 명사일 때는 불가능하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7) 가. 철수는 영희가 나가는 것을 잡았다.
나. 우리 피 준비된 거 있으면 빨리 주세요.
다. ?그는 나의 사연이 안타까운 것을 들어 주었다. (문숙영 2012: 48)

(47가)는 내핵관계절의 핵어가 사람 명사일 때의 예이고, (47나)는 내핵관계절의 핵어가 구체적인 사물일 때의 예이다. 그리고 (47다)는 내핵관계절의 핵어가 추상 명사일 때의 예이다. (47)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것'은 사람이나 구체물을 지시할 수 있으나 추상적인 개념을 지시하기는 어렵다.[38]

한편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문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먼저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과 달리 사물뿐 아니라 사람도 제약 없이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것’을 다른 어떤 구체적인 명사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과 다르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것’이 지시하는 명사가 사람 명사인지 여부에 따라 지시사 ‘그’의 수식 가능성과 복수화 가능성이 다르다. ‘것’이 사람 명사를 지시할 때 ‘그’의 수식도 받지 못하고, 복수화하지도 못한다. 이는 ‘것’의 의미가 더 추상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Kim(1996), Kim(2004), Kim(2007) 등의 논의에서는 일반적인 외핵관계절과 달리 내핵관계절을 부가절이 아닌 성분절이라고 보았다.[39] 한국에서는 피수식어 없이 관형사형 어미로만 끝나는 형태를 문장에 쓰기 어렵다. 예컨대 ‘경찰은 [도둑이 도망하는] ∅을 잡았다’라는 형태의 문장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아니다. 이때 ‘것’은 앞선 문장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빈자리에 들어가 내핵관계절이 성분절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때의 ‘것’은 내핵관계절 안에 있는 핵어 명사와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내핵관계절이 주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빈자

38) 이지은(2020: 180)에서는 내핵관계절과 주절의 공유 논항, 즉 핵어 명사로 구체 명사와 추상 명사가 모두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는 이지은(2020: 180)에서 가져온 일부 예이다.

예: 가. 2006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민들을 대표해서 소송 건 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나. 뭐 인터뷰 그 전에 한 것을 보면 좀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이지은(2020: 180)에서는 위의 예들이 구체 명사의 예인지 추상 명사의 예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이나 ‘인터뷰’를 추상 명사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소송’이나 ‘인터뷰’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들을 지시하는 지시물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소송’이나 ‘인터뷰’는 구체물을 지시하는 명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내핵관계절의 핵어가 추상 명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추상 명사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연’과 같은 경우, 이는 “일의 앞뒤 사정과 까닭(『표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도 아니고 그가 지시하는 지시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명사만 추상 명사로 본다면 핵어가 추상 명사일 때는 내핵관계절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9) 김용하(2013), Choi(2014) 등 연구에서는 내핵관계절을 일종의 부가절로 간주하고, 도입한 공대명사인 *pro*의 수식어가 된다고 보았다. 아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때 공대명사 *pro*가 내핵관계절 ‘도둑이 도망가는 것’의 수식을 받고 있다.

예: 경찰이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pro* 잡았다. (김용하 2013: 96)

리를 채워주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3. 명사절의 '것'

3.3.1. 명사절의 종류

명사절은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범언어적인 연구를 봤을 때 명사절에 관한 연구보다는 명사화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Yap, Grunow-Hårsta & Wrona(2011: 3-9)에서 제시한 명사화의 유형 중의 하나는 절 명사화(Clausal Nominalizations)이고,[40] 이의 결과물은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Genetti(2011: 165)에 의하면 절 명사화는 하나의 절이 명사화되어 명사구처럼 쓰이지만, 핵어는 여전히 동사이다. 문숙영(2017: 62)에서는 한국어의 명사절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오래전부터 명사절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가장 전형적인 명사절인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을 많이 언급해 왔다. 명사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사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 명사절도 마찬가지다. 아래 예를 보자.

(48) 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 차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릴 때부터 그 부분이 내 약점으로 지적됨을 알고 있다.
다. 공동으로 쓰는 발걸레가 재감염의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

40) Yap, Grunow-Hårsta & Wrona(2011: 3-9)에서는 명사화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개체 명사화(participant nominalization) & 사건 명사화(event nominalization)
나. 어휘 명사화(lexical nominalization) & 절 명사화(clausal nominalization)
다. 내포되는 명사화(embedded nominalization) & 내포되지 않는 명사화(non-embedded nominalization)

(49) 가.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 아래서는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나. 남은 진실들이 마지막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대검이 엄정한 수사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다. 다음주 수요일 오후 세 시에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48)은 '-음' 명사절의 예이고, (49)는 '-기' 명사절의 예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뿐 아니라 부사어 자리에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익섭·임홍빈(1983: 29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명사절은 유정물이나 어떠한 종류의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나 사실 혹은 명제 등을 표현한다.

한국어의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배타적이라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음'은 '기정적', '개별적', '구체적' 등의 의미적 특성을 표현하고, '-기'는 '미정적', '일반적', '개념적' 등의 의미적 특성을 표현한다.[41] 또한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음' 명사절과 '-기' 명사절이 취하는 서술어도 서로 다르다. 우형식(1987나: 129-131, 135-8), 왕문용·민현식(1993: 214-6), 채유영(2015) 등에서는 '-음' 명사절은 주로 '알다'를 비롯한 인지동사, '분명하다'를 비롯한 평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 함께 쓰이고, '-기' 명사절은 '즐겁다'를 비롯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나 '바라다'를 비롯한 소망을 표현하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살펴보겠다.

(50) 가. 신라 시대 이래 주조된 종들의 종명에는 두 가지 글을 다 쓰고 {있음을, *있기를} 알 수 있다.
나. 읍으로 가는 길목에서 인기척이 전혀 {없음이, *없기를} 분명했다.
(51) 가. 이 사건에 관한 장차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됨이} 바란다.
나. 일반인들은 현실과 드라마를 {동일시하기를, *동일시함을} 좋아한다.

(50)은 명사화소 '-음'이 쓰이는 예이고 (51)은 명사화소 '-기'가 쓰이는 예이다. (50)과 (51)에서 볼 수 있듯이 '-음'과 '-기'는 독립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41) 우형식(1987나: 152-5), 왕문용·민현식(1993: 214), 정주리(2006: 296-7) 등을 참고하였다.

는 서로 환언하여 쓸 수 없다.

한편, 명사화소 '-음'이나 '-기'가 나타나는 자리에 '-ㄴ/ㄹ 것'도 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왕문용·민현식(1993: 216-7), 남기심(2001: 216-21), 문숙영(2017) 등에서는 '-ㄴ/ㄹ 것'도 일종의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요소로 보았다. 왕문용·민현식(1993: 216-7)에 따르면 '-음'은 '-ㄴ 것'과, '-기'는 '-는 것', '-ㄹ 것'과 서로 대치할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52) 가. 신문, 법조문, 석박사논문, 백과사전 등의 정보전달적 텍스트는 위 척도에서 아래쪽에 {위치함, 위치하는 것,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동일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성경의 홍수와 동일한 사건에 {근거함, 근거하는 것,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
다. 박안기의 일본 여행을 통해 우리는 그가 일본의 당대 최고 학자에게 천문학을 가르쳐 {주었음, 준 것, *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라. 우리는 동일한 힘을 갖고 있다면 당신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임, 행동할 것}을 알고 있다.

(53) 가. 이 사건에 관한 장차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될 것을, 되는 것을} 바란다.
나. 일반인들은 현실과 드라마를 {동일시하기를, 동일시하는 것을, *동일시할 것} 좋아한다.
다. 순이에게 책을 {주기를, ?주는 것을, 줄 것을} 약속했다. (김흥수 1993: 102)

(52)는 '-음'이 '-ㄴ/ㄹ 것'과 환언되는 예이고, (53)은 '-기'가 '-ㄴ/ㄹ 것'과 환언되는 예이다. (52)에서 볼 수 있듯이 '-음'은 일반적으로 '-ㄴ 것'과 '-는 것'과 환언할 수 있고, '-음' 앞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있으면 '-ㄴ 것'과만 대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음' 앞에 미래의 의미를 뜻한 '-ㄹ 것이다'가 올 때 '-ㄹ 것임'은 '-을 것'과 환언될 수 있다. 또한 (53)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술어에 따라 '-기'는 '-는 것'이나 '-ㄹ 것'과 모두 대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는 것'과 '-ㄹ 것' 중 하나와만 대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음'이나 '-기'를 '-ㄴ 것'이나 '-ㄹ 것'으로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의 '-ㄴ/ㄹ 것'은 거의 '-음'이나 '-기'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ㄴ/ㄹ 것'이 쓰이는 모든 자리에서 '-음'이나 '-기'와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 예를 보자.

(54) 가. 짜릿한 전율이 재현될 것이, *재현되기가, *재현됨이} 두렵다.
(문숙영 2017: 54, '재현됨이'는 필자 추가)
나. 이 서점이 환불보증을 결정한 배경에는 최근 신간서, 특히 문예서적의 판매부진이 {작용한 것으로, *적용함으로, *적용했음으로, *적용하기로, *적용했기로} 보인다.

(54가)는 '-ㄹ 것'이 '-기'와 환언될 수 없는 예이고, (54나)는 '-ㄴ 것'이 '-음'과 환언될 수 없는 예이다. 문숙영(2017: 52-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예를 통해 '-ㄴ/ㄹ 것'은 단순히 '-음'이나 '-기'를 대치하는 표현이 아니고 독립적인 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숙영(2017)이 '것' 절을 명사절의 일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한 '-ㄴ/ㄹ 것'은 '-음'이나 '-기'와 같이 다양한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ㄴ/ㄹ 것'도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자리에 사용될 수 있다.

(55) 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 차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릴 때부터 그 부분이 내 약점으로 {지적됨, 지적된 것}을 알고 있다.
다. 공동으로 쓰는 발걸레가 재감염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56) 가.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 아래서는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가, 도모하는 것이} 어렵다.
나. 남은 진실들이 마지막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대검이 엄정한 수사로 {마무리하기를, 마무리할 것을} 바란다.
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세 시에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만날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문용·민현식(1993: 216-7), 남기심(2001: 216-21), 문숙영(2017)에서는 '것' 명사절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왕문용·민현식(1993), 남기심(2001)과 달리 문숙영(2017)에서는 명제를 요구하는 자리에 쓰이는 '것' 절을 명사절로 보았다. 아래 예를 보자.

(57) 가. 나는 철수가 학교 {가는 것, 가는 장면, ??감}을 보았다.
나. 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하는 일을, ??보호하기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58) 가. 형은 그때서야 비로소 꽃이 {바뀐 것, 바뀐 사실, 바뀜}을 알게 되었다.
나. 그들 얼굴을 {보는 것이, 보는 일이, 보기를} 싫어진다.

(57)에서는 '-ㄴ/ㄹ 것'이 출현하는 위치에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가 나타나기 어려우나 (58)에서는 '-ㄴ/ㄹ 것'이 출현하는 위치에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가 나타날 수 있다. 왕문용·민현식(1993), 남기심(2001)에서는 (57)과 (58)을 모두 '것' 명사절의 예로 보는 반면, 문숙영(2017)에서는 (58)만을 명사절의 예로 보았고 (57)은 명사절의 예로 보지 않았다. (57)에서의 '보다'나 '돕다'는 명제 논항을 취할 수 있는 서술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57)에서 볼 있듯이 '보다' 앞에 오는 '것'을 '장면'으로 대치할 수 있고, '돕다' 앞에 오는 '것'을 '일'로 대치할 수 있다. 이때 '것'이 지니는 어휘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이를 보절 명사로 볼 만하다.

한편, (58)의 '것'도 '사실'이나 '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제 논항을 요구하는 서술어 앞에 오는 '것'을 보절 명사로,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절을 명사 보절로 볼 수 없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42] 본고는 (58)의 '것'이 명사 보절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 '것' 절은 명사 보절과 명사절 두 가지 해석을 가진다. 예컨대 '형은 그때서야 비로소 꽃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다'로 해석되면 명사 보절이고, '형은 그때서야 비로소 꽃이 바뀜을 알게 되었다'로 해석되

42) 선행 연구에서도 (58)의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3.3.3.에서 다룰 것이다.

면 명사절이다. 즉 (58)의 '것'은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해 이 전체를 명사화소로 볼 수도 있고, '것'과 이에 선행하는 관형사절을 각각 보절 명사와 명사 보절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명사 보절 + 것' 구성과 '것' 명사절을 겸할 때도 많으므로 이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명제를 표현하는 '것' 절의 '것'이 언제나 이와 대응할 수 있는 보절 명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것'의 의미가 추상화되어 대치할 만한 보절 명사를 찾지 못할 때도 있다.

(59) 가. 현우는 입을 다물면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버린 것, 버린 행동, 버린 일, 버림}을 후회했다.

나. 그는 일찍부터 음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것, *않은 일, *않은 행동, 않음}을 후회했다.

(이상 문숙영 2017: 48, '-음'은 필자 추가)

다. 떠나지 말 {것을, ??행동을, ??결정을, 기를} 권했다.

(김흥수 1993: 98, '-기'는 필자 추가)

(59가)와 (59나)의 주절 서술어는 '후회하다'로 동일한데, (59가)의 '것'을 '행동'이나 '일'과 같은 보절 명사로 대치할 수 있으나 (59나)의 '것'과 대치할 만한 보절 명사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때 '것' 절을 '-음' 명사절로 대치할 수 있다. 문숙영(2017: 4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9나)의 '것' 절은 명제 내용을 표시할 뿐 그 명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다. 이때의 '것'은 의미가 거의 비어 있고, 이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해 '-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또한 (59다)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것' 절과 '-기' 명사절은 서로 대치할 수 있는데, '것'과 대응할 수 있는 보절 명사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음'이나 '-기'에 준하는 문법 요소로 발달한 '것'이 쓰인 '것' 절을 명사절에 한정하고, 이러한 '것' 절이 명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3.3.2. 통사적 특징

먼저 명사절에 쓰이는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를 살펴보겠다. 3.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절 명사로 쓰이는 '것'은 후행하는 용언에 따라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가 달라질 수 있다. 명사절의 '것'도 마찬가지로 명제 논항 자리에 올 때 대개 후행하는 서술어에 따라 앞에 올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를 결정한다. 아래 (60)과 (61)을 보자.

(60) 가. 철수가 학교 {간, 가는, 갈} 것을 알고 있다.
나. 파티는 새벽까지 {계속될, 계속되는, 계속된} 것이 분명하다.

(61) 가. 나는 지금 하버드 법학대학원에 {다닌, 다니는, *다닐} 것을 후회한다.
나. 재미를 통해서 유익한 것을 {얻을, 얻는, *얻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60)은 명사절의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에 제약이 없는 예이고, (61)은 명사절의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에 제약이 있는 예이다. (60)의 경우 아는 내용이나 분명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현재나 미래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61)의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용은 후회하는 내용이 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관형사형 어미 '-ㄴ'과 관형사형 어미 '-ㄹ'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ㄹ 것' 앞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도 올 수 있다.[43] 문숙영(2017: 7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 '것' 절은 과거의 사태를 표현한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2) 가. 그런 추세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다소의 유통이 {가능할 것, 가능했을 것}으

43) 그러나 모든 '-ㄹ 것' 명사절 앞에 모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숙영(2017: 77-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다, 여기다, 생각되다' 등 일부 동사 앞에는 '-었을 것'이라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바라다, 희망하다, 원하다, 기대하다' 앞에는 '-었을 것'이 포함된 예를 찾을 수 없다.

로 보인다.

나. 최제우가 득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 기울였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다는 것' 절에 관한 것이다. 왕문용·민현식(1993: 216-7), 남기심(2001: 216-21), 김종복 외(2008가: 147-8) 등에서 '것' 명사절(혹은 '것' 보절)을 검토할 때 '것' 절 앞에 '-ㄴ/ㄹ'이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는'이란 형식도 올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남기심(2001: 218)에서는 '-다는 것'을 '다고 하는 것'의 줄임말로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는 '-다는 것'을 '-다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문장이 어색해진다.[44] 아래 예를 보자.

(63) 가. 우리는 사범계 지원생의 면접이 {무용하다는 것, ?무용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나는 내가 결코 미칠 리가 {없다는 것,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

다. 政府의 입장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을 통해 볼 수 있듯이 (63가)와 (63나)의 경우 '-다는 것'을 '-다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문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데, (63다)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런데 (63다)에서는 '-다는 것'을 '-다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미묘한 의미 차이가 생긴다. '-다는 것'이 쓰일 때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이고, '-다고 하는 것'이 쓰일 때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이다. 그러나 행위는 일반적으로 '주장하다'나 '생각하다'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는 것'을 '-다고 하는 것'으로 대

44) 김선효(2004: 169)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 '사건'이나 '상황'의 의미가 나타난 '것'에 있어 '-다는 것'과 '-다고 하는 것'을 서로 환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것' 절 뒤에 서술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것'은 보절 명사의 '것'인지, 혹은 명사화소로서의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예: 가. 지금 결코 다희가 명랑하지 않다는 것을.
나. ??지금 결코 다희가 명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상 김선효 2004: 169)

치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김선효(2004: 16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는'에 비해 '-다고 하는'의 전달성이 보다 강하다. '하다'가 가지고 있는 전달성으로 인해 '-다고 하는 것'이 명제 내용을 주로 요구하는 서술어 앞에 사용될 때 문장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왕문용·민현식(1993: 216-7), 남기심(2001: 219-20) 등에서는 '것' 절을 검토할 때 후행 서술어에 따라 '-다는 것' 절을 허용할 수 있는 서술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서술어도 있다고 하였다.[45] 김종복 외(2008가: 147-8), 김종복·김태호(2009: 183-4) 등에서는 후행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이를 사실성(factivity) 술어와 비사실성(nonfactivity) 술어로 나누었고, 서술어의 사실성을 통해 '-다는 것' 절과 '-는 것' 절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래 예문을 보자.

(64) 가. 멀리서 사람이 지나가도 벌떡 일어서서 {짓는 것, *짓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나온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상 김종복·김태호 2009: 183)

김종복·김태호(2009: 183)에 따르면 (64가)는 비사실성 술어의 예이고, (64나)는 사실성 술어의 예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사실성을 가진 서술어 앞에 '-다는 것'은 올 수 있으나 비사실성 술어 앞에 '-다는 것'은 올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보다' 앞에 오는 '것' 절을 '것' 명사절로 보지 않는다. '것' 명사절은 어떤 명제를 표현하는데, 명제는 추상적인 것이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것' 절을 명사절로 볼 만한 문장 중에는 이러한 구분이 있을까? 먼저 사실성 술어와 비사실성 술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김천학(2020: 186)에 따르면 사실성 술어와 비사실성 술어의 구분은 Kiparsky & Kiparsky(1970)에서 시작한다.

---

45) 그러나 왕문용·민현식(1993: 216-7), 남기심(2001: 219-20)에서 제시한, '-는 것'이 '-다는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예는 주로 명제 논항을 취하지 못하는 동사들의 예이다. 즉 이때의 '것'은 명사절에 쓰인 '것'은 아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나는 그가 {떠나는 것, *떠난다는 것}을 보았다. (왕문용·민현식 1993: 217)
나. 나는 동상애 숙제를 {하는 것, *한다는 것}을 도왔다. (남기심 2001: 219)

Kiparsky & Kiparsky(1970: 147-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성 술어와 비사실성 술어의 의미적 차이는 보절의 명제가 참인 것을 전제하는지 여부에 있다. 아래 예를 보자.

(65) 가. I regret that it is raining. (factive)
나. I suppose that it is raining. (non-factive)

(65가)는 사실성 술어 'regret'이 쓰인 예이고, (65나)는 비사실성 술어 'suppose'가 쓰인 예이다. (65가)의 경우, 'it is raining'이라는 명제가 참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에 (65나)의 경우, 화자가 자신이 단언(assert)하는 명제인 'it is raining'이 참인 것을 믿고 있는데, 이는 꼭 참인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 즉 사실성 술어는 논항 자리에 오는 절로 표현된 명제가 언제든지 참인 것을 전제하나, 비사실성 술어가 쓰인 경우 논항 자리에 오는 절로 표현된 명제의 진리치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다는 것' 절을 취하는 서술어와 '-는 것' 절을 취하는 서술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6) 가. 오랜 세월에 걸쳐 백제시대의 성터가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
나. 일본당국의 대변인들이 폭격은 착오였으며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믿다'나 '주장하다'는 전형적인 비사실성 술어인데, 김종복·김태호(2009: 183)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앞에 '-다는 것' 절이 올 수 없다. 그러나 (6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믿다'나 '주장하다' 앞에 '-다는 것' 절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서술어가 사실성 술어인지 비사실성 술어인지는 '-다는 것'이 쓰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일 수 없다.

그러면 '-다는 것' 절과 '-는 것' 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겠다.

(67) 가. 전국의 수많은 학교 실험실에서 이런 진풍경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나. 어머니가 날 {사랑하고 있는 것,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68) 가.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것, *일한다는 것}을 바란다.
나. 나는 사람을 두루 많이 {사귀는 것, *사귄다는 것}을 좋아한다.

(67)은 '-다는 것' 절과 '-는 것' 절이 서로 잘 대치되는 예이고, (68)은 둘이 서로 대치되기 어려운 예이다. '것' 명사절 중에 (67)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는 것'과 '-는 것'을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68)에서 보았듯이 '바라다'나 '좋아하다'와 같은 일부 서술어는 '-는 것' 절과만 결합할 수 있다. 이는 개별적인 서술어의 어휘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명사절의 '것' 뒤에 올 수 있는 조사와 서술어를 살펴보겠다. 우선 아래 (69)는 '것' 뒤에 올 수 있는 조사를 살펴보는 예이다.

(69) 가. 현대건설의 부도위기 이후 건설실업자수는 <u>급증할 것이</u> 확실하다.
나. 인천공항의 많은 분들이 최선을 <u>다하고 계신 것을</u> 안다.
다. 그 후 이 책임법이 刑法에 <u>채용된 것으로</u> 짐작된다.

(69)를 통해 '것' 명사절은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것' 명사절 뒤에 속격 조사 '-의'가 오기 어렵다. 명제는 어떤 내용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명사의 수식어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서 명사절의 '것' 뒤에 올 수 있는 서술어를 살펴보겠다. 아래 예를 보자.

(70) 가. 이미 한달 전부터 환율이 오를 것을 예상하였다.
나. 이젠 아내와 세 아들이 있으니 이들을 두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
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그것을 협상의 자세로 말했다는 것이다.

(71) 가. 당신이 기자들을 몰고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데?
나. 우리가 어제 맥주를 마신 것이 아주 비쌌다. (연재훈·박종원 2021: 138)

(70)은 ‘것’ 명사절의 예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동사, 형용사, 그리고 계사 앞에 모두 ‘것’ 절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서술어 앞에 올 수 있는 ‘것’ 절은 모두 명사절이 아니다. (7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다’나 ‘비싸다’는 명제 논항을 취할 수 있는 술어가 아니기 때문에,[46] 앞에 오는 ‘것’ 절은 명사절로 볼 수 없다. 앞에서 이미 검토하였듯이 (71가)는 명사 보절이고 (71나)는 내핵관계절이다.

마지막으로 명사절의 ‘것’의 명사성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문숙영(2017)에서는 명사절에 쓰인 ‘것’의 명사성을 검토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이때의 ‘것’은 지시사 ‘그’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연재훈·박종원(2021)에서는 ‘것’의 명사성을 검토할 때 이러한 용법의 ‘것’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지만, 지시사 ‘그’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명사절에 쓰인 ‘것’이 지시사 ‘그’나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

(72) 가. 이렇게 말해 준다고 해서 곧 정직한 글, 순진한 삶의 글을 쓰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다.
나. 파티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을 {것, ??그것}이 분명했다.
다. 나는 [내가 공부를 안 한] 그것을 후회한다. (연재훈·박종원 2021: 133)
라. ??나는 [순이가 수학을 전공한] 황당한 것을 어제 알았다.
(연재훈·박종원 2021: 133)

(72가)와 (72나)에서 볼 수 있듯이 명사절에 쓰인 ‘것’ 앞에 ‘그’가 오기 어렵다. 반면에 연재훈·박종원(2021: 133)에서는 (72다)를 제시하고 명사절의 ‘것’ 앞에 지시사 ‘그’가 올 수 있다고 하였다.[47] 그러나 문숙영(2017: 4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것’과 대응할 수 있는 보절 명사를 찾을 수 있을 때는 ‘그’를 삽입해도 문장이 상대적으로 자

46) 명제 논항을 취할 수 있는 서술어에 관해서는 정주리(1994/2004), 방성원(200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7) 연재훈·박종원(2021: 133)에서는 (72다)가 정상적인 문장이라고 하였지만, 본고는 이 문장의 정확성에 관해 의문이 든다. 구어에서 ‘나는 내가 공부를 안 한 그걸 후회해’와 같은 문장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문어에서는 (72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구어에서 이러한 문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때의 ‘그’는 지시적인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구어에서 여러 단어를 이어서 말하는 방식일 뿐이다.

연스러운데 ‘것’과 대응할 수 있는 보절 명사를 찾기 어려울 때는 ‘그’를 삽입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72다)와 같은 경우, 이는 ‘나는 내가 공부를 안 한 일을 후회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것’과 대응하는 보절 명사가 존재하므로 ‘그’의 삽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72가)와 (72나)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를 삽입하기 어려운 예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과 대응되는 명사가 존재하는 예를 통해 명사절의 ‘것’이 지시사 ‘그’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72라)를 통해 명사절에 쓰이는 ‘것’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도 명사절 ‘것’의 명사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사절에 쓰이는 ‘것’이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73) 가.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벽화를 {그리는 것을, *그리는 것들을, 그리는 작업들을} 좋아했다. (문숙영 2017: 42)
나. 인천공항의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계신 것들}을 안다.

(7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사절에 쓰이는 ‘것’은 복수화되지 못한다. 문숙영(2017: 42-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절 명사를 통해 복수화하지 않으면 사태를 복수화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명사절에 쓰이는 ‘것’은 지시사 ‘그’나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복수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사성을 거의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3.3.3. 의미적 기능

본고는 앞에서 ‘-ㄴ/ㄹ 것’을 ‘-음’이나 ‘-기’에 준하는 문법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것’이나 ‘-ㄴ/ㄹ 것’ 전체의 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다. 이 항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견해를 검토하면서 명사절에 쓰인 ‘것’의 의미적 기능을 살펴보겠다.

이익섭·임홍빈(1983), 이홍식(1999) 등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절 명사로 보고 있었

다. 또한 이러한 '것'을 보절자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아래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것' 혹은 '-ㄴ/ㄹ 것' 전체가 가지는 의미적 기능에 관한 견해이다.

(74) 가. '것'을 보절 명사로 보는 관점: 남기심(1973: 25-9), 임홍빈(1974: 98), 이익섭·임홍빈(1983: 288-9), 홍종선(1985: 121-3), 안명철(1989: 69), 남기심(1991: 79-83), 이필영(1998가: 492), 안명철(1999: 341-2), 이홍식(1999: 368) 등

나. '것'을 보절자로 보는 관점: 정주리(1994/2004: 53-54), 김종복·김태호(2009: 181-5), Yoon(2012: 562) 등

다. '-ㄴ/ㄹ 것' 전체를 명사화소로 보는 관점: 왕문용·민현식(1993: 216-7), 남기심 (2001: 216-221), 문숙영 (2017) 등[48)]

위에서 제시한 '것'에 대한 견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것'을 보절 명사와 같은 어휘적 요소로 보는 것이고, 하나는 '것'이나 '-ㄴ/ㄹ 것' 전체를 보절자나 명사화소와 같은 문법적 요소로 보는 것이다. 아래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각 견해를 지지할 때 뒷받침이 될 만한 근거이다.

(75) '것'을 어휘적 요소로 보는 근거

가. '것'은 전형적인 의존명사로 쓰인 '것'과 같이 선행하는 내용을 대용하는 기능이나 지시 기능을 한다. (남기심 1973: 27, 임홍빈 1974: 98, 남기심 1991: 79-83)

나. '줄', '바' 등 다른 의존명사도 있는데 이들이 아직 명사로 취급하고 의존명사 '것'만 보절자로 보는 것은 모순이 생긴다. (남기심 1973: 28)

다. '-음'이나 '-기'는 '것'과 달리 어휘적인 요소가 아니고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ㄴ/ㄹ'이 오지 않는다. (이익섭·임홍빈 1983: 288)

라. '-음' 명사절이나 '-기' 명사절이 '것' 절과 서로 대치하지 못할 때도 있고, 대

48) 왕문용·민현식(1993: 216-7), 남기심 (2001: 216-21)에서 제시한 명사절의 예를 보면 '보다(시각)'나 '돕다'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 절도 명사절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보다(시각)'나 '돕다' 앞에 오는 논항은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들은 '것' 명사절로 보기 어렵다.

치해도 의미 차이가 생기는 때도 있다. (이익섭·임홍빈 1983: 289, 임홍빈 1974: 97-8)

(76) '것'을 문법적 요소로 보는 근거[49)]

가. 어떤 구체적인 사물도 지시하지 않고, '사실'과 같은 명사와 같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남기심 2001: 222)

나. '것'의 의미가 추상화되고 보절 명사로 대치되지 못할 때도 있다. (방성원 2001: 22-3, 문숙영 2017: 48)

다. '-음'이나 '-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왕문용·민현식1993: 216-7, 남기심 2001: 222-3, 정주리 1994/2004: 53-4, 방성원 2001: 22-3, 문숙영 2017)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것'을 어휘적 요소로 보는 견해와 '것'을 문법적 요소로 보는 견해 간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77) 가. '것'은 대용이나 지시의 기능을 가진 보절 명사로 볼 수 있는가.

나. '것'(혹은 '-ㄴ/ㄹ 것')은 '-음'이나 '-기'와 다른가.

다. '것'을 문법적 요소로 취급하면 다른 의존명사와 충돌이 되는가.

먼저 (77가)부터 살펴보자. 임홍빈(1974: 98)에서는 '-음'이나 '-기'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사(事)나 물(物)을 가리키고 대용적 기능을 가진 의존명사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남기심(1991: 79-83)에서는 '것'이 문맥적 상황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78) 가. 9개 백화점 중 6~7개 백화점에서 한우에 수입 쇠고기를 섞어 팔아 {온 것을, 온 사실을, 옴을} 확인했다

나. 모든 사람이 세금 {내는 것을, 내는 일을, 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49) 여기서는 '것'의 위상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보절자'와 비슷한 기능으로 본다는 논의도 일부 포함된다.

(78)은 ‘-음’이나 ‘-기’가 사용되는 자리에 ‘-ㄴ/ㄹ 것’이 올 수 있는 예이다. 이때 (78가)의 ‘것’은 ‘사실’로, (78나)의 ‘것’은 ‘일’로 대치할 수 있다. ‘것’을 명사 보절로 보는 논의는 일반적으로 (78)과 같은 예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이나 ‘-기’가 사용되는 자리에 쓰이는 ‘것’이 모두 대치할 수 있는 명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를 아래와 같이 다시 제시한다.

(79) 가. 그는 일찍부터 음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것, *않은 일, *않은 행동, 않음}을 후회했다. (문숙영 2017: 48, ‘-음’은 필자 추가)

나. 떠나지 말 {것을, ??행동을, ??결정을, 기를} 권했다. (김흥수 1993: 98, ‘-기’는 필자 추가)

(79)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의 ‘것’에 해당할 만한 명사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자리에 ‘-음’이나 ‘-기’가 출현할 수 있으므로 왕문용·민현식(1993), 남기심(2001), 정주리(1994/2004) 등에서는 ‘-음’이나 ‘-기’와 비슷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혹은 ‘-ㄴ/ㄹ 것’)을 어휘적 요소가 아닌 문법적 요소라고 보았다. 반면에 남기심(1991: 85)에서는 이때의 ‘것’은 앞에 오는 관형사절의 내용을 지시하고 ‘사실’이나 ‘일’과 같이 내용절을 이끄는 보절 명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것’은 ‘사실’이나 ‘일’과 달리 문맥에 의존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의미를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79)처럼 문맥이 주어지더라도 ‘것’이 지시할 수 있는 명사를 여전히 찾을 수 없을 때는 ‘것’의 의미가 거의 비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것’을 보절 명사로 보려면 앞에 오는 명사 보절은 ‘것’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것’의 의미가 거의 비어 있다면 ‘명사 보절 + 것’ 구성의 의미는 명사 보절 자체의 의미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때의 ‘것’은 굳이 보절 명사로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것’이 꼭 의존명사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으면 이때의 ‘것’(혹은 ‘-ㄴ/ㄹ 것’)을 문법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3.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절 명사로 쓰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시사 ‘그’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있다. 즉 이때의 ‘것’은 명사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명사절의 ‘것’은 지시사 ‘그’나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절

명사처럼 명사성을 유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 보절 명사로 쓰이는 '것'과 명사절의 '것'은 같다고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ㄴ/ㄹ 것'과 '-음', '-기'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겠다. '것' 혹은 '-ㄴ/ㄹ 것'을 문법적 요소로 보는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것' 혹은 '-ㄴ/ㄹ 것'을 '-음'이나 '-기'로 대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것'을 어휘적 요소로 보는 논의에서는 '-ㄴ/ㄹ 것'을 '-음'이나 '-기'로 대치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ㄴ/ㄹ 것'과 '-음', '-기'는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ㄴ/ㄹ 것'이 항상 '-음'이나 '-기'로 대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ㄴ/ㄹ 것'이 '-음'이나 '-기'와 서로 대치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ㄴ/ㄹ 것'의 분포가 '-음'이나 '-기'의 분포와 다르다는 것만 증명할 뿐, '-ㄴ/ㄹ 것'이 '-음'이나 '-기'와 다르다는 근거로 쓸 수는 없다.

또한 이런 이유로 '것'을 어휘적 요소로 볼 수도 없다. 이때의 '것' 명사성을 거의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예를 보자.

(80) 가. 최종결재 과정에서 행정조치 내용이 {바뀐 것으로, *바뀜으로, *바뀌었기로, *바뀐 사실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나. 저걸 내다가 팔면 당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이, *모름이, *몰랐기가, *몰랐던 일이} 아니다.
가. 최종결재 과정에서 행정조치 내용이 바뀐 {것으로, *그것으로, *것들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나. 저걸 내다가 팔면 당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이, *그것이, *것들이} 아니다.

(80)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의 '-ㄴ/ㄹ 것'은 '-음'이나 '-기'로 대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것'이 보절 명사로도 대치될 수 없다. 또한 '것'이 지시사 '그'와 결합할 수도 없고, 복수 표지 '-들'을 통해 복수화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것'은 이미 명사성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것'은 어휘적 요소보다 문법적 요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것’만을 문법적 요소로 보고 ‘줄’을 비롯한 다른 의존명사를 어휘적 요소로 보는 시각이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유현경(2018가: 48-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줄’, ‘리’, ‘바’ 등의 의존명사는 ‘것’보다 의미가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다. 즉 이들은 ‘것’과 같이 의미가 추상화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래 예를 보자.

(81) 가. 내 이래봬도 총 쏠 줄 안다 말이야.
나. 다른 산모들과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82) 가. 철수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나. 그대로 지냈을 리가 있나요?
(83) 가. 어느 후보로부터도 새로운 대외정책이라고 제목을 붙일만한 얘기를 들어 본 바가 없다.
나. 그저 혼자서 생각하는 바를 기록해두어 스스로 검토해 보려는 뜻으로 적고 있습니다.

(81)은 의존명사 ‘줄’의 예인데, 이때의 ‘줄’은 주로 ‘방법’이나 ‘사실’을 비롯한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82)와 (83)에서 볼 수 있듯이 의존명사 ‘리’는 주로 ‘까닭’이나 ‘이유’의 뜻을 나타내고, 의존명사 ‘바’는 주로 ‘사실’이나 ‘내용’의 뜻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존명사들은 문맥에 따라 표현하는 의미가 다르지만,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것’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을 때도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의존명사가 사용될 때는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서술어도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것’과 차이를 보인다. ‘줄’ 뒤에는 일반적으로 ‘알다’와 ‘모르다’가 사용되고, ‘리’ 뒤에는 일반적으로 ‘있다’나 ‘없다’가 사용된다. 또한 한지수(2022: 64)에서는 ‘바’ 앞에는 ‘것’과 달리 주로 ‘생각하다’를 비롯한 인지 동사나 ‘말하다’, ‘듣다’류의 동사가 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술어 제약도 의존명사의 의미 해석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의존명사와 ‘것’은 격조사와 같이 결합할 수 있다는 점, 앞에 관형사절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의존명

사들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므로 '것'처럼 완전히 추상화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특정 용법에서의 '것'을 문법적 요소인 '것'으로 보고 의존명사인 '바', '줄', '리' 등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것'을 어휘적 요소로 보는 견해와 문법적 요소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았다. '것'의 의미가 많이 추상화되어 대용할 만한 보절 명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 '-ㄴ/ㄹ 것'이 독립적인 분포를 가진다는 점 등을 통해 '것'이 보절 명사처럼 쓰이는 용법 이외에 '-음'이나 '-기'에 준하는 문법적 요소로 쓰이는 용법도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것'을 문법적 요소로 볼 때 보절자로 보는 견해도 있고 것을 명사화소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것' 절을 동사 보절로 보는 것이고, 후자는 '것' 절을 명사절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는 대립되는 견해가 아니다. '것' 절을 동사 보절로 볼 때는 '것' 절이 문장에서 서술어의 필수 논항으로 기능한다는 문법적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고, '것' 절을 명사절을 볼 때는 '것' 절의 품사적 특성을 명시하는 것이다. 두 종류의 절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양립이 가능하다. 명제 논항을 취하는 동사 앞에 오는 '것' 절은 동사 보절이면서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것' 절이 명제를 표시할 때 꼭 필수 논항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84) 가. 특히 조윤 부장 판사는 작고한 부친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나. 비전의 공유는 조직 전체에 걸쳐 목표, 가치, 사명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리더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84)에서는 '것' 절이 명제를 표시하지만 '표시하다'나 '중요하다'의 필수 논항은 아니다. Dixon(2006: 4)에서는 동사의 핵심 논항으로 된 절을 보절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 절은 동사 보절로 간주하기 어렵고, '것'을 보절자로 보기도 어렵다. 문숙영(2017: 5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것' 명사절이 논항 자리에 쓰일 때 '것' 절은

동사 보절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것' 절을 지칭할 때 동사 보절보다 명사절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명사절에 쓰이는 '것'은 지시사 '그'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복수 표지 '-들'로 복수화하기 어려우므로 명사성이 거의 상실된 '것'이다. 또한 '-ㄴ/ㄹ 것'으로 표시된 절은 격 표지와 붙을 수 있어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행동하고, 주어나 목적어 혹은 부사어 등의 다양한 자리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것'은 어휘적 기능이 거의 유지되지 않고, 관형사형 어미 '-ㄴ/ㄹ'과 결합해 문법적 기능, 즉 명사화소 '-음'이나 '-기'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3.4. 분열문 구성의 '것'

3.4.1. 분열문의 개념

Lambrecht(2001: 467)에서는 분열문을 일종의 복문구조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분열문은 계사가 중심 서술어인 주절에 관계절이나 유사 관계절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고, 여기서 관계화된 논항은 계사의 보어 논항과 동지표한다. 또한 주절과 관계절은 논리적으로 단순히 명제를 표현하고, 이 명제는 단문으로 표현해도 문장의 진리치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의미·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열문은 하나의 특수한 통사 패턴으로서 구조적으로 담화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절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범언어적으로 매우 일반적인 초점 표시 전략으로 쓰인다(Hartmann & Veenstra 2013: 1-2).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분열문은 일반적으로 화제와 초점을 뚜렷하게 표현해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Weinert & Miller(1996), Lambrecht(2001) 등 많은 연구에서 제시한 영어의 세 가지 분열문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85가)는 전형적인 분열문이라고 하고, (85나)와 (85다)는 의사분열문이라고 한다.

(85) 가. It's <u>that side</u> you should be on. (IT 분열문)

나. What you want to do is curve round than wood. (WH 분열문)
다. That's what I've done. (REVERSE WH 분열문)
(이상 Weinert & Miller 1996: 174)

(8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하나의 명제를 표시하고, 분열된 성분인 'that side', 'curve round than wood', 'that'는 관계절 안의 논항이 된다. 또한 여기서 분열된 성분은 초점을 표현하고, 관계절 내용은 화제를 표현한다.

한국어의 분열문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중에는 '것'이 포함된 구성도 존재한다.[50] 아래 예를 보자.

(86) 가. 우선 해외에 팔기 쉬운 것은 주식이다.
나. 내가 송여진을 만난 것은 그 과외공부 그룹에서이다.

(86)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관형사절이 포함된 복문 구성이고, 관계화된 성분인 '주식'과 '그 과외공부 그룹에서'는 계사의 보어가 된다. 또한 (86가)와 (86나)는 각각 '우선 해외에 주식을 팔기 쉽다'와 '내가 그 과외공부 그룹에서 송여진을 만났다'라는 단문으로 바꿀 수 있고, 단순한 명제를 표시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분열문의 문법적 특징에 부합한다. 또한 '해외에 무엇을 팔기 쉬우냐'와 '네가 어디에서 송여진을 만났느냐'와 같은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주식'과 '그 과외공부 그룹에서'는 초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화제이다. 임규홍(1986), 남길임(2006), 최윤지(2008) 등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문장은 분열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Kim & Sells(2007, 2013)에서는 한국어에서 (86)과 같은 예는 진정한 분열문이 아니며 이를 일종의 계사 구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계사의 의미를 서술(predicational), 동등(equational), 상술(specificational)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NP1과 NP2가 지시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계사 구문이 '서술'

50) 임규홍(1986), 박철우(2008) 등에서는 '-(으)ㄴ N(실질명사)-은 ~이다'도 분열문이라고 주장하였고, 김석진(2020)에서는 '철수가 영희를 만나기는 만났다'의 '-기는'도 일종의 분열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것'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들은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인 분열문인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겠다.

의 기능을 수행할 때 NP1과 NP2는 각각 지시적 성격과 비지시적 성격을 갖고, '동등'의 기능을 수행할 때 NP1과 NP2는 모두 지시적이다. 그리고 '상술'의 기능을 수행할 때 NP1은 비지시적이나 NP2는 지시적이다.[51] 아래는 Kim & Sells(2013)에서 제시한 '것' 구성과 관련된 예이다.

(87) 가. 존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가짜이다. (Kim & Sells 2013: 110)
나. 존이 산 것은 이 책이다. (Kim & Sells 2013: 113)
다. 존이 결혼한 것은 미나이다. (Kim & Sells 2013: 116)

Kim & Sells(2013)에 따르면 위의 예문은 각각 '서술', '동등', '상술'의 계사 구문이다. (87가)의 경우 '존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지시적 성격을 갖고, '가짜'는 비지시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87나)의 '존이 산 것'과 '이 책'은 모두 지시적 성격을 갖는 반면에, (87다)의 '존이 결혼한 것'은 비지시적 성격을 갖고 '미나'는 지시적 성격을 갖는다. Kim & Sells(2013)에서는 이때의 '것'은 명사 성분이라고 하였고, '것' 구성과 분열된 성분 간에 존재하는 정보구조 관계는 계사 '이다'의 의미, 즉 서술, 동등, 상술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87)의 예문을 분열문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87)에서 제시한 것과 달리 분열된 자리에 오는 성분이 항상 명사(구)인 것은 아니다. 한국어의 분열문에서는 부사어구나 절도 분열된 성분이 될 수 있다.

(88) 가. 내가 송여진을 만난 것은 그 과외공부 그룹에서이다.
나. 참된 지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런 이해를 성취하는 그 조치

51) Kim & Sells(2013: 107-9)에서 제시한 계사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예문은 아래 표와 같다.

계사의 의미	NP1	NP2	영어의 예	한국어의 예
서술	지시적	비지시적	The hat is big.	이 모자는 가짜이다.
동등	지시적	지시적	Cicero is Tully.	철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상술	비지시적	지시적	Who I met was Otto Preminger.	내가 만난 사람은 철수이다.

에 의해서이다.

(88가)는 분열된 성분이 부사어구인 예이고, (88나)는 분열된 성분이 절인 예이다. 그러나 부사어구나 절은 지시적인지 여부를 따지기가 어렵다. Kim & Sells(2013: 126-8)에서는 (88가)를 비롯한 문장을 상술 구문으로 해석하였고, 분열된 성분은 지시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분열된 성분 중의 일부인 '그 과외공부 그룹'은 지시적 성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열된 성분 전체인 '그 과외공부 그룹에서'는 지시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88나)에서 분열된 성분이 절이기 때문에 이는 지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88)과 같은 예문은 Kim & Sells(2013)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ㄴ 것은/이 ~이다' 외에 다른 '것' 구성도 분열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Jhang(1994: 51-2), Kim, Bender & Bond(2013: 517-8) 등에서는 한국어에서 '것'이 포함된 분열문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는 Jhang(1994: 51-2)에서 제시한 분류이다.

(89) 가. 의사분열문: 내가 어제 읽은 것은 책이다.
나. 도치된 의사분열문: 이 책은 내가 어제 읽은 것이다.
다. 것-분열문: 이 책을 내가 어제 읽은 것이다.

(이상 Jhang 1994: 51-2)

Jhang(1994: 52)에 따르면 (89가)와 (89나)는 각각 영어의 wh-분열문(의사분열문) 및 도치된 wh-분열문(도치된 의사분열문)과 대응되고, (89다)는 영어의 it-분열문과 대응된다.

(89가)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89나)를 분열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최윤지(2008), 김종복 외(2008가)에서는 이를 분열문의 일종으로 보았는데, 최윤지(2016)에서는 견해를 달리 하였다.

'이 책은 내가 어제 읽은 것이다'는 '내가 어제 이 책을 읽었다'와 같은 단일 명제를 표시하고, '내가 어제 읽은 것'과 '이 책'은 같은 내용을 지시한다. 이는 '내가 어제 읽

은 것은 이 책이다'의 주어와 보어가 서로 위치를 바꿔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치 (의사)분열문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만약 이를 분열문으로 볼 수 있다면 '-ㄴ 것은/이 ~이다'와 같은 양상이 나오는 것이 기대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두 구문 간에 통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최윤지(2016가: 250-1)에서는 (89나)와 같은 경우에는 분열된 성분이 실체여야 하고, 실체 중에서도 사물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90) 가. 철수가 먹은 것{은, 이} 비빔밥이다.
가′. 비빔밥{은, 이} 철수가 먹은 것이다.
나. 철수가 만난 것{은, 이} 영희다.
나′. *영희{는, 가} 철수가 만난 것이다.
다.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은, 이} 지난 4월이다.
다′. *지난 4월{은, 이}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이다.
라.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은, 이} 부산에서였다.
라′. *부산에서{는, 가}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이었다.
마.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은, 이} 소개팅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마′. *소개팅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가}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이었다.
(이상 최윤지 2016가: 250)

(90가)~(90마)는 전형적인 분열문의 예이고, 분열된 성분은 각각 사물 실체, 사람, 시간, 장소, 이유이다. (90가′)~(90마′)는 소위 도치 분열문의 예로, 이때 분열된 성분이 사물 실체일 때만 가능하고, 분열된 성분이 사람이나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 혹은 이유가 나타난 부사절 등의 성분일 때는 사용되지 못한다. 최윤지(2016가: 250)에 따르면 이때 '관형사절 + 것' 구성 전체는 사물 실체를 가리킬 뿐이고 열린 명제를 가리키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이를 분열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책은 내가 어제 읽은 것이다.'에서의 '것'은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인 '책'으로 대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것'을 분열문에 쓰인 '것'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기보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에 이미 출현한 단어를 환언하는 역할을 하는 어휘적인 기능만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것'이 사물 실체를 가리킨다고 하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후술하겠지만 분열문 구성에 쓰인 '것'은 이와 달리 사물을 지시하는 기능이 없고 주로 문법적 기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89다)가 분열문인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열문은 어떤 특정한 성분을 초점으로 만들어 주고, 이를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Jhang(1994: 105-6)에서는 '것' 분열문의 경우 문두에 오는 성분이 초점이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목적어로서 일반적으로 동사 '읽다' 앞에 있어야 하는데, (89다)에서 '이 책'은 문두에 오기 때문에 이는 초점이 된다. 그러나 최윤지(2008: 105)에서는 Jhang(1994)가 전치를 통해 표현되는 초점과 분열문을 통해 표현되는 초점을 혼동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때 '이 책'이 초점이 되는 것은 '-ㄴ 것이다' 구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치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Jhang(1994)의 분석에 따르면 '어제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어제'이다. 그러나 시간부사는 일반적으로 문두에 오기 때문에 '어제'가 문두로 가더라도 '어제'가 초점되어 강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미·기능적으로 Jhang(1994)에서 소위 '것' 분열문이라고 말한 것은 분열문의 기능, 즉 초점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Kim, Bender & Bond(2013: 518)에서 제시한 세 번째 유형은 Jhang(1994)와 조금 다르다. Kim, Bender & Bond(2013: 518)에 따르면 '-ㄴ 것이다' 구문은 어순 변화가 없는 일종의 원위치의 초점 분열문(in-situ focus cleft)이다. 아래 예를 보자.

(90) 그때 [[존이 집에 온] 것]이었다. (Kim, Bender & Bond 2013: 518)

Kim, Bender & Bond(2013: 518)에서는 초점이 되는 성분이 일반적으로 운율적 돋들림을 받고, 만약 강조할 부분이 없으면 전제 절이 초점이 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90)에서 '집에'에 고조 악센트를 두면 '집에'가 초점 되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존이 집에 온다'라는 절 전체가 초점이 된다.

그러나 꼭 '-ㄴ 것이다' 구문이 아니라도 운율적 돋들림을 통해 초점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ㄴ 것이다' 구문을 분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윤지(2008: 105-6)에서는 절 전체를 초점, 즉 문장 초점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ㄴ 것이다' 구문이 문장 초점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래 예를 보자.

(91) Q: 무슨 일이야?
A: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야!

(최윤지 2008: 106)

(91)에서 제시한, 문장 초점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대답 쌍을 통해 볼 수 있듯이 '-ㄴ 것이다' 구문은 '무슨 일이야'의 대답이 되지 못한다. 또한 Lambrecht(1994: 222-233)에 따르면 문장 초점은 사건을 보고하거나 새로운 담화적 지시체를 표현하고, 문장 초점 구성에서 어떤 화용적 전제를 형식적으로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나리(2012), Yeom(2020)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ㄴ 것이다' 구문은 일반적으로 선행 담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때 (91)과 같은 '-ㄴ 것이다' 구문은 문장 초점을 표현한 분열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때의 '것'이 이미 계사 '이다',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해 '-ㄴ 것이다'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졌다고 본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고에서 검토할 분열문 구성은 주로 '관형사형 어미 + 것은/이 ~이다'이고,[52] 전형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92) 가. 우선 해외에 팔기 쉬운 것은 주식이다.
나. 지금 가장 힘든 건 김비서야.

---

52) '관형사형 어미 + 것은/이 ~이다'라는 구문 형태로 쓰인 문장은 모두 분열문인 것은 아니다.

예: 가. 아파트의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나. 우리가 폭력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다. 예산 낭비의 사례가 많은 것은 물론이다.

이때 '이다' 앞에 오는 보어인 '위법', '사실' 그리고 '물론'은 '것' 절 안의 필수 성분이나 부가 성분이 되지 못한다. 또한 전체 문장은 보어를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문들은 분열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예문들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3.4.2. 통사적 특징

먼저 분열문에 쓰이는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에 제약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박철우(2008: 79), 최윤지(2016가: 251) 등에서는 분열문의 형식을 '-ㄴ 것{은/이} ~이다'로 규정하였다. 이는 분열문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로 '-ㄴ'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희(2000: 67), 이정훈(2020: 67)에서는 분열문의 '것'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ㄴ' 이외에 '-ㄹ'도 올 수 있음을 밝혔다.

(93) 가. 내가 받은 것은 칭찬이었다.
가′. 내가 받을 것은 칭찬이다.
나. 앞에서 이미 밝힌 것은 동학혁명이 내세운 기치인 '除暴救民'은 '廣濟蒼生 布德天下'의 현실적 표현이었다는 점이다.
나′. 여기서 밝혀 둬야 할 것은 동학혁명이 내세운 기치인 '除暴救民'은 '廣濟蒼生 布德天下'의 현실적 표현이었다는 점이다.

(94) 가. 정말로 단속해야 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이다.
가′. 정말로 단속해야 할 것은 고위 공직자들이다.
나. 멸망당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나′. 멸망당할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95) 가. 철학에서 일단 가려야 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 중에서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이다.
가′. 철학에서 일단 가려야 할 것은 이론과 실천 중에서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이다.
나. 우리가 먼저 찾아보아야 하는 것은 그 대답이 어떠한 것인가이다.
나′. 우리가 먼저 찾아보아야 할 것은 그 대답이 어떠한 것인가이다.

(93가)~(93나), (94가)~(94나), (95가)~(95나)는 분열문 구성의 '것'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오는 예이고, (93가′)~(93나′), (94가′)~(94나′), (95가′)~(95나′)는 분열문 구성의 '것'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오는 예이다. (93)~(95)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은 ~이다' 구성에서 분열된 성분은 각각 사물 명사, 사람 명사, 그리고 절이다.

그러나 분열문 구성의 '것' 앞에 '-ㄹ'이 올 때는 '-ㄴ'이 올 때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더 많다. 아래 예를 보자.

(96) 가. 이경찰이 보좌관들을 데리고 떠난 것은 오후 6시 20분이다.
가′. *이경찰이 보좌관들을 데리고 떠날 것은 오후 6시 20분이다.
나. 택배가 온 것은 경비실이다.
나′. *택배가 올 것은 경비실이다.
다. 산에 가는 것은 밭에서 자라는 채소를 보기 위해서이다.
다′. *산에 갈 것은 밭에서 자라는 채소를 보기 위해서이다.

(96가)~(96다)는 분열문 구성의 '것' 앞에 '-ㄴ'이 오는 예이고, (96가′)~(96다′)는 분열문 구성의 '것' 앞에 '-ㄹ'이 오는 예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ㄴ'인 경우, 분열된 성분은 사람 명사나 사물 명사 이외에 시간, 장소, 이유 등도 허용된다. 이는 (96가)~(96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96가′)~(96다′)를 통해 볼 수 있듯이 '-ㄹ'이 선행할 때는 시간, 장소, 이유 등이 분열되지 않는다.

이때 '-ㄹ' 뒤에 오는 '것'은 '-ㄴ' 뒤에 오는 '것'과 다르며, '-ㄹ 것은 ~이다'를 분열문으로 볼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것'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사용되는 환경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때의 '것'은 앞에서 살펴본 '이 책은 내가 어제 읽은 것이다'의 '것'과 달리 사물 실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킬 수 없고, 가리킬 수 있어도 주로 사람을 낮추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정말로 단속해야 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이다'라는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위 공직자들'을 낮추는 뜻이 없기 때문에 이때의 '것'은 '고위 공직자'와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ㄹ 것은 ~이다' 구문에서 절이 '이다'에 선행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먼저 찾아보아야 할 것은 그 대답이 어떠한 것인가이다'의 경우, 이때의 '그 대답이 어떠한 것인가'는 지시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것'과 공지시를 이룬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때 '-ㄹ 것은 ~이다' 구문의 사용환경이 제한되지만, 여기의 '것'은 일반적으로 지시성을 가지는 '것'의 성질과 다르고, 지시적인 '것'보다 의미가 더 추상적이다.

나아가 앞에서 언급하였던 (93)~(95)에서 제시한 예문들은 모두 ‘이다’ 앞에 오는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단문으로 바꾸어도 명제의 진리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예컨대 ‘내가 받을 것은 칭찬이다’의 경우, 이는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단일 명제를 표현하고, 초점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인 ‘네가 무엇을 받을 거야?’의 답이 될 수 있으므로 ‘초점’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분열문 구성의 ‘것’ 앞에 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분열문에 쓰인 ‘것’의 후행 요소를 살펴보겠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분열문은 주로 ‘-ㄴ/ㄹ 것{은/이} ~이다’의 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것’ 뒤에 올 수 있는 조사와 서술어가 제한되어 있다. 아래 예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것’ 뒤에는 주로 주격 조사 ‘이’나 보조사 ‘은’이 오고, 후행 서술어로는 계사 ‘이다’만 올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7) 가.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열쇠야.
나.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열쇠야

(이상 최윤지 2016가: 246)

또한 최윤지(2016가: 251 각주99)에서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올 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어 보조사 ‘도’도 분열문에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분열문에 ‘보조사’는 쓰일 수 있지만, 목적격 조사 등 다른 격조사는 쓰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분열문의 ‘것’의 명사성 정도를 확인해 보자. 먼저 분열문의 ‘것’이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열문에서는 명사뿐 아니라 ‘명사+조사’ 구성이나 절도 분열이 가능하다. 아래 (98가)와 (98나)는 명사가 분열된 성분이 되는 예이고, (98다)와 (98라)는 각각 ‘명사+조사’ 구성이나 절이 분열된 성분이 되는 예이다.

(98) 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돈이다.

나. 종이학을 불태운 {것, *그것}은 그분이다,
다. 아궁이가 보일러로 변한 {것, *그것}은 1964년의 그 유명한 마포 아파트에서이다.
라. 전문 저술보다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 통념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98)에서 볼 수 있듯이 분열된 성분은 사물 명사일 때 '것' 앞에 지시사 '그'가 올 수 있으나 다른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98가)에서 '그' 뒤에 오는 '것'은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으로 해석되고, '것' 앞에 '그'가 쓰이면 이 문장을 더 이상 분열문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아래 (99)를 통해 '것' 뒤에 복수 표지 '-들'을 붙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99) 가. 영수가 산 {것, 것들}은 가방이었다. (염재일 2014: 113)
나. 영이가 만난 {것, *것들}은 철수와 순이였다.
(이정훈 2020: 64, '것들'은 필자 추가)
다. 아궁이가 보일러로 변한 {것, *것들}은 1964년의 그 유명한 마포 아파트에서이다.
라. 전문 저술보다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것, *것들}은 우리 사회의 일반 통념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정훈(2020), 연재훈·박종원(2021)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분열분의 '것'은 복수표지 '-들'로 복수화할 수 없다. 이는 (99)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99가)에서는 '것들'이 가능한데, 연재훈·박종원(2021: 149)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때의 '것'은 내용 명사 '것(본고의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이고, 분열문의 '것'이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

요컨대 분열문의 '것'은 지시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복수표지 '-들'과 결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분열문에 쓰인 '것'은 명사성을 거의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3.4.3. 의미적 기능

이 항에서는 분열문 구성의 '것'이 어떤 의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분열문 구성에 쓰인 '것'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분열문 구성에 쓰인 '것'의 위상을 살펴보겠다.

(100) 가. 의존명사/(대)명사: 홍용철(2015), 위혜경(2016) 등
나. 형식명사/도식명사: 김영희(2000), 연재훈·박종원(2021) 등
다. 허사: Yoon(2012), 이정훈(2020) 등
라. 빈 NP 채우기: 최기용(2011) 등
마. 보절자/명사화소: Kang(2006), 박소영(2014), 박명관(2019),[53] 박소영·김석진(2019), 김석진(2020), 경소력(2021) 등

(10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열문 구성에 쓰이는 '것'의 위상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분열문의 '것'이 대용적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견해가 나뉜다. (100가)는 '것'이 여전히 대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고, 나머지 (100나)~(100마)는 모두 '것'이 대용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먼저 '것'이 대용적 기능을 가진다는 견해부터 살펴보겠다. 홍용철(2015: 166)에서는 '것' 분열 구문이 관계절 분열 구문의 형식과 같고,[54] 특히 '것' 앞에 오는 절의 형태는 관계절 형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것'은 (대)명사처럼 쓰이며 관계절의 선행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열문의 '것'은 일반적인 관계절 선행사와 달리 어휘적인 성격이 매우 약하다. 3.4.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분열문 구성의 '것'은 지시사의 수식도 받지 못하고 복수화되지도 못한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분열분 구성의 '것'은 이러한 대용적 기능을 가진 '것'과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형식이 같더라도 분

53) 박명관(2019)에서는 한국어의 '-ㄴ 것은/이 ~이다'라는 구문은 영어의 wh-분열문(즉 의사분열문)에 대응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ㄴ 것은/이 ~이다'라는 구문을 의사분열문이라고 칭하였다. 이는 명칭의 차이일 뿐이고, 본고에서의 '분열문'과 차이가 없다.

54) 홍용철(2015)에서 제시한 관계절 분열 구문의 예로는 '철수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가 있다.

열문 구성의 '것'은 일반적인 관계절 선행사와 같다고 하기가 어렵다.

또한 위혜경(2016)에서는 '상위언어적 담화지시체(meta-linguistic discourse referent)'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55] '것'은 '담화지시체를 지칭하는 상위언어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이때의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에 대한 지시적 표현이 아니고 언어 표현으로 존재하는 개체이다. 예컨대 '민수가 어제 만난 게 김 선생님이다'라는 분열문에서 '<'민수가 어제 만난 여자'라고 표현된 지시체>는 김 선생님이다'로 해석되고, 이때 '것'은 어떤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민수가 어제 만난 여자'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 표현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혜경(2016)에서 제시한 상위언어적 담화지시체는 등가절로서의 분열문에서만 나타나고, 술어절로서의 분열문의 경우를 언급하지 않았다.[56] 예컨대 '민호가 꽃을 산 것은 수미를 위해서이다(위혜경 2015: 780)'의 경우, 위의 해석을 따르면 '<'민호가 꽃을 산 이유'라고 표현된 지시체>는 수미를 위해서이다'로 해석되는데, '수미를 위해서'라는 것은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분열문의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것'이 대용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견해를 살펴보자. (100)에서 볼 수 있듯이 논의에 따라 분열문의 '것'에 붙는 명칭이 다르다. 그러나 명칭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것' 뒤에 복수 표지 '-들'을 붙일 수 없다는 점을 통해 분열분의 '것'은 이미 어휘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문법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취한다. 먼저 아래 예문은 분열문에서의 '것'을 항상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사로 대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55) 담화지시체는 비한정명사가 출현할 때 "그 존재에 대한 정확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개체를 위한 변항(위혜경 2016: 118)"을 말한다. 또한 상위언어적 지시체라는 것은 "'언어 표현'을 지시대상으로 갖는 표현(위혜경 2016: 119)"이라고 하였다.

56) 위혜경(2015)에서는 분열된 성분이 '것'-분열절에서의 필수 논항인지 여부에 따라 '등가절(equative clause)로서의 분열문'과 '술어절(predicate clause)로서의 분열문'로 나누었다. 전자에서 분열된 성분은 '것'-분열절의 필수 논항이고, 후자에서 분열된 성분은 부가어이다. 아래 (가)와 (나)는 각각 등가절로서의 분열문과 술어절로서의 분열문의 예이다.

예: 가. 민호가 수미에게 보낸 것은 꽃이다. (위혜경 2015: 777)
나. 민호가 꽃을 산 것은 수미를 위해서이다. (위혜경 2015: 780)

(101) 가. 종이학을 불태운 {것, 사람}은 그분이다.
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사물}은 돈이다.
다.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일}은 여행이다.
라. 이경철이 집에 있던 보좌관들을 데리고 떠난 {것, 시간}은 오후 6시 20분이다.
마. 택배가 온 {것, 곳}은 경비실이다.
바. 산에 가는 {것, 이유}은 밭에서 자라는 채소를 보기 위해서이다.

(102) 가. 아궁이가 보일러로 변한 {것, *곳}은 1964년의 그 유명한 마포 아파트에서이다.
나. 교회가 아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 *시간}은 이때부터이다.

(101)과 (102)는 모두 분열문인데, 분열문의 '것'을 다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사로 대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101)의 '것'은 '사람', '사물' 등 명사로 대치할 수 있으나 (102)의 '것'은 다른 명사로 대치할 수 없다.

'것'은 '사람, 사물, 시간' 등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사를 가리킬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명사로 완전히 대치하기 어렵다. 특히 분열된 성분이 '아파트에서'나 '이때부터'와 같은 부사어인 경우, '것'을 다른 명사로 대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시적 기능을 가진 '것'은 '사람'은 물론 '장소', 혹은 '시간'과 같은 단어로 대치되지 못한다.[57] 따라서 이때의 '것'은 지시적 기능을 가진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것'과 대치되는 명사는 후행하는 명사에 따라 결정되며, 선행 문맥만을 고려해서는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예컨대 '고등학교 연극반을 맡게 된 것은 김 선생이다'라는 문장에서 '것'과 대치될 수 있는 명사는 '사람'이고, '고등학교 연극반을 맡게 된 것은 작년이다'라는 문장에서 '것'과 대치될 수 있

57) 지시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 '장소'나 '시간'을 뜻하는 단어와 대치될 수 없는 예는 아래와 같다.

예: 가. 자신이 평소에 자주 가는 {곳, *것}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떠올려본다.
나. 1시간 40분짜리 영화 한 편 수신에 소요되는 {시간, *것}은 불과 3-5분에 불과하다.

는 명사는 ‘시기’이다. 즉 후행 내용이 나와야 ‘것’과 대치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고등학교 연극반을 맡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뒤에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만 올 수 있고 ‘작년’과 같은 시간 명사는 올 수 없다. 따라서 ‘것’은 ‘사람’을 비롯한 일반 명사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열문의 ‘것’은 지시사 ‘그’나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어휘적 의미를 거의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윤지(2008: 4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열문의 ‘것’은 거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열린 명제에서 변항 ‘x’의 자리를 채워주는 문법적 기능을 위주로 한다.

한편 분열문의 ‘것’은 분열된 성분과 공지시적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분열된 성분은 모두 지시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분열문의 ‘것’은 분열된 성분과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고 하기 어렵다. 아래 예를 보자.

(103) 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다.
나. 경진이가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난 것은 언니 때문이다.
(최윤지 2008: 38)
다. 아궁이가 보일러로 변한 것은 1964년의 그 유명한 마포 아파트에서이다.

(103가)의 ‘것’은 ‘필요하다’의 주어로 볼 수 있고, 이때 분열된 성분인 ‘돈’과 공지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최윤지(2008: 3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03나)의 ‘언니 때문’은 지시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것’과 공지시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03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사어는 지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영제(2013: 48)에서는 명사의 어휘적 특성을 지시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성이 없는 분열문의 ‘것’은 어휘적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분열문의 ‘것’을 보절자나 명사화소로 보는 견해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ang(2006), 박소영(2014) 등 많은 연구에서 ‘것’을 보절자로 보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생성문법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라 여기서 언급한 보절자는 본고에서의 보절자와 다르다. 생성문법에서의 보절자는 내포절을 인도하는 요소들이다(原口庄輔·中村捷 1992/강명윤 역 1998: 154). 즉 관계절에

쓰인 ‘that’도 보절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보절자는 주로 공백이 없는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생성문법 이론에 따르면 분열문의 ‘것’을 보절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본고의 보절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것’ 앞에는 일반적으로 공백이 있는 문장이 오기 때문이다. 또한 분열문 구성의 ‘것’을 명사화소의 일부로 본다고 주장한 김석진(2020: 54-60)에서는 분열문 구성의 ‘것’에는 지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관계절의 핵어 명사로 볼 수 없고, 또한 앞에 오는 관형사절에 비어 있는 성분이 있어 보절이 아니기 때문에 ‘것’을 보절자로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 화제 부분이 보조사 ‘-은’ 뒤에 올 수 있도록 삽입한 기능 요소인 ‘-ㄴ 것’은 명사화소라고 보았다. 그러나 김석진(2020)에서 말한 ‘명사화소’는 3.3.에서 살펴본 명사화소 ‘-ㄴ/ㄹ 것’과는 다르다. 본고에서 말하는 명사화소 ‘-ㄴ/ㄹ 것’은 명사화소 ‘-음’이나 ‘-기’에 준하는 문법적 요소이다.[58]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절자’나 ‘명사화소’ 등의 술어를 수용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분열문 구성에 쓰인 ‘것’에 따로 명칭을 붙이지 않고, 분열문 구성의 ‘것’으로 칭한다.

3.4.4. 준분열문 구성

한국어의 분열문 구성 중에는 위에서 살펴본 정규적인 분열문이 있을 뿐 아니라 최윤지(2016나, 2017)에서 제시한 비정규적인 준분열문의 형식도 존재한다. 이 항에서는 먼저 최윤지(2016나, 2017)에서 제시한 준분열문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준분열문에 쓰인 ‘것’의 성질을 검토할 것이다.

최윤지(2016나: 196-9)에 따르면 준분열문은 통사적·의미적 측면에서 분열문과 유사하지만 분열된 성분의 통사적 지위에 있어서는 정규적인 분열문과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 예를 보자.

(104) 가. 중요한 거는 [저걸 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껄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58) 김석진(2020: 55)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의 명사화소 ‘-ㄴ 것’은 명사형 어미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구 싶은 게, [부서면 활동 보고란에::, 학개부는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니까 중간에, 한 번, 띠시고, 학개부장님 인사를 놓으시면서, 바꾸세요.]

(이상 최윤지 2016나: 196)

(104가)에서는 '것' 절에 출현한 요소인 '중요하다'가 후행하는 부분에 다시 나타나고, (104나)에서는 분열된 부분이 계사의 보어가 아닌 독립된 절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최윤지(2016나)에서는 전자를 '중복 분열문', 후자를 '열린 분열문'으로 부른다.

먼저 '중복 분열문'부터 살펴보자. '중복 분열문'은 분열된 성분 뒤에 '것' 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최윤지 2016나: 201-2).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때 (105)는 (106)과 같은 두 문장으로 분리할 수 있다.

(105)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중요한 게, 그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06) 가. 아프가니스탄은 A[정말 중요한 게] B[그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나. B[그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C[굉장히 중요하다].

이 절에서 검토한 분열문의 '것'은 A부분에서의 '것'에 해당한다. (106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는 정규적 분열문과 같은 형식이다. 따라서 이때의 '것'은 정규적 분열문 구성의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열린 분열문'은 분열된 성분이 계사 '이다'의 보어가 아닌, 독립적인 절로 나타나는 일종의 준분열문 유형이다(최윤지 2016나: 206). 최윤지(2017)에서 '열린 분열문'을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관형사절로 표현된 열린 명제가 문맥에서 주어졌는지에 따라, '열린 분열문'을 표면적으로 '전제로 보이는 열린 분열문'과 표면적으로 '비-전제로 보이는 열린 분열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 비-전제로 보이는 열린 문열문을 또 양태적 열린 분열문과 단언적 열린 분열문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107) 가. A: 일단 그~ 시간에 역사라는 책이 브리프 스토리 오브 타임 // 예 그게 천

구백팔십팔년 사월 일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B: 오래됐어요. 그죠?

A: 예. 팔십팔년이고 만우절날 나왔다고 스티븐 호킹이 // 강조하고 있드라구요.

C: 아. 본인이 강조하는군요?

A: 본인이 강조하는 게 지금 제가 자져온 책은 그~ 시간에 그때 그 시간에 역사가 아니고...(생략)

나. (A가 사는 동네의 공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

A: 공기 안 좋아::.

B: 별로 안 좋아. 얘넨 또 어중간해요::.

A: 아 공기가 안 좋은 게, 북한산에 막혀서, 대기 순환이 안 된대.

(최윤지 2017: 99)

(108) 가. 근데 중요한 건 인제 아주 다양한 수시전형 방법이 있지만 이 중에서 지원하는 유형은 우리 박 선생님이 짚어줬듯이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 이 정도 쓴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수시비중하고 정시비중하고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나. 이 소급적 추인의 약정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추인의 일종이다' 보는 견해도 있었고, 무권대리 추인처럼 '이건 그 유동적 무효 추인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이건 당사자의 사적자치 인정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었는데 ... 이거 여러분 그 무효행위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게 '새로운 범률 행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소급적 추인 인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면 안 되거든요.

(107)은 표면적으로 전제로 보이는 열린 분열문이고, (108)은 표면적으로 비-전제로 보이는 열린 분열문이다. (107)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 문맥을 통해 '본인이 x를 강조한다'나 'x 때문에 공기가 안 좋다'와 같은 열린 명제가 전제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08)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 문맥을 통해 'x가 중요하다'나 'x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으로 볼 수 없다'와 같은 전제를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108가)와 (108나) 간에도 차이가 있다. 최윤지(2017)에 따르면 (108가)와 같

은 예문은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해 화자가 자신의 태도나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다. 이때 화자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는 것을 표현하는 열린 명제는 화·청자 간에 공유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화·청자 간에 'x가 중요하다'라는 열린 명제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08나)와 같은 예문은 관형사절 부분도 화자가 상대방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단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윤지(2017)에서는 (108가)를 양태적 열린 분열문, (108나)를 단언적 열린 분열문이라고 부른다.

또한 최윤지(2017: 10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린 분열문을 정규적 분열문으로 바꿀 수 있다. 예컨대 '공기가 안 좋은 게, 북한산에 막혀서, 대기 순환이 안 된대'는 '공기가 안 좋은 게, 북한산에 막혀서, 대기 순환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와 같은 정규적 분열문으로 바꿀 수 있다. 단, (108나)처럼 '것' 절 뒤에 문장 둘 이상이 올 때 이를 그대로 정규적 분열문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자연발화를 할 때 문장이 길어지면 앞뒤 호응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 분열문은 정규적 분열문에서 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것'은 정규적 분열문 구성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지은(2021)에서는 (109)와 같은 예를 제시하였고, 이때의 '-ㄴ 것이'를 부사절의 표지로 보았다. 이지은(2021)에서 제시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109) 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공범과 주범 모두 사실은 연령대가 많지 않단 말씀이니다. (이지은 2021: 74)

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영화는 토털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그게 커버린 게 일단 계약만 놓고도 이중계약이 문제가 돼서 협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자메시지나 사진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서 너무 심한 타격을 받았어요.

(이상 이지은 2021: 77)

이지은(2021)에 따르면 '-ㄴ 것이'는 (109가)에서 '이유'의 의미, (109나)와 (109다)에

서 ‘상세화(elaboration)’의 의미를 나타내고 두 절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우선 (109가)는 전형적인 분열문의 예로 볼 수 있다. 이 예를 ‘저는 공범과 주범 모두 사실은 연령대가 많지 않단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단문으로 바꿀 수 있고, 단문으로 바꿔도 동일한 명제를 표현한다. 또한 (109나)와 (109다)는 최윤지(2016나)에서 언급한 준분열문과 비슷하다.

먼저 (109나)를 살펴보자. ‘-ㄴ 것이’를 부사절의 표지로 볼 수 없는 것은 선행절을 완전한 문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ㄴ 것이’ 앞에 오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다’의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근문(root sentence)’이라는 지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사절의 표지로 연결된 두 절은 각각 독립적인 근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때의 ‘-ㄴ 것이’는 두 근문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기 어렵다. (109나)를 비롯한 문장은 최윤지(2016나)에서 제시한 ‘중복 분열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109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영화는 토털 엔터테인먼트 패키지이다’와 ‘제 영화는 토털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야기를 한다’의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것’도 분열문 구성의 ‘것’이고, 선행절이 근문의 지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ㄴ 것이’는 부사절의 표지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109다)를 살펴보자. 표면적으로 보면 (109다)의 ‘-ㄴ 것이’로 연결된 두 절은 모든 논항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사절의 표지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09다)와 같은 문장은 구어에 쓰일 뿐, 문어에 쓰이면 비문으로 여겨질 확률이 크다. 또한 이때의 ‘-ㄴ 것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는 이유는’라는 표현도 있는데, ‘-ㄴ 것이’를 부사절의 표지로 본다면 ‘-는 이유는’도 부사절의 표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먼저 아래 예를 보자.

(110) 내신을 제가 이제 그~ 뭐 수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내신을 강조하<u>는 {이유는, 게}</u> 나중에 이제 사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에 전문 대학을 지원하실 때에도 어~ 내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10)에서 볼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 보면 ‘-는 이유는’도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서의 ‘이유는’은 ‘게(것이)’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이유’라는 단어 자체

의 어휘적인 의미도 드러나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결과-이유'의 의미 관계가 나타난다. 구어에서 말이 길어지면 앞뒤 호응이 안 될 때도 있다. 다시 말해 전형적으로 '~이유는 ~것/ 때문이다' 정도를 사용해야 하는데, 말이 길어지면 후행하는 '-것/때문이다'가 생략되는 일이 종종 있다. 여기서의 '-는 이유는'은 '-ㄴ 것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되는데, 만약 '-ㄴ 것이'를 연결어미로 보면 '-는 이유는'도 일종의 연결어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는 '-ㄴ 이유는 ~것/때문이다'에서 '이유'에 호응되는 것들이 단순히 생략되는 것일 뿐이므로 굳이 '-는 이유는'을 부사절의 표지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ㄴ 것이'도 마찬가지로 정규적 분열문에 쓰였던 '때문이다'를 비롯한 성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장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윤지(2017: 124-5)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ㄴ 것이'가 쓰인 단언적 열린 분열문은 정규적 분열문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111) (Q: 이번 여름에 어디 가면 좋을까?)
가. 저는 포항을 추천하는 게,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는데 엄청 괜찮았어요.
나. #저는 포항을 추천하는 게,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는데 엄청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서요}.

(이상 최윤지 2017: 124)

(11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문맥에서 단언적 열린 분열문을 정규적 분열문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즉 정규적 분열문의 뒷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때의 '-ㄴ 것이'를 연결어미로 볼 여지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최윤지(2017: 124-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전제가 있는 열린 분열문이라면 이를 정규적 분열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전제가 있는지 여부는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문장에서 쓰인 '-ㄴ 것이'인데 문맥에 따라 하나는 부사절의 표지로 보고, 하나는 준분열문의 형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열린 분열문 구성의 '-ㄴ 것이'는 '결과-원인/이유'라는 의미관계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굳이 '-ㄴ 것이'를 '이유'의 의미를 나타낸 부사절 표지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 이러한 용법은 열린 분열문의 체계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

전형적인 의존명사 '것'은 지시적 기능을 하며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성분으로 쓰인다. 그런데 일부 '것'은 선·후행하는 요소와 결합하여 마치 어미처럼 쓰이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어미로 굳어진 '것' 구성과 아직 어미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미처럼 쓰인 '것' 구성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4.1.에서는 종결어미로 쓰인 '것' 구성을 살펴볼 것이고, 4.2.와 4.3.에서는 각각 연결어미 상당의 '것' 구성과 선어말어미 상당의 '것' 구성을 살펴볼 것이다.

4.1. 종결어미의 '것' 구성

한국어 종결어미 '-ㄹ게'와 '-ㄴ/ㄹ걸'은 의존명사 '것'에서 발전한 종결어미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지는 '-ㄹ 것'은 개별 어미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것'의 하위 의미로 "문장을 끝맺는 말"이라는 용법이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ㄹ 것'도 종결어미 구성으로 보아 4.1.에서 다룰 것이다.

4.1.1. '-ㄹ게'

이정민(1975: 305 각주4), 안명철(1990: 128), 안주호(2002) 등에서는 종결어미 '-ㄹ게'는 '-ㄹ 것이-'가 융합 과정을 거쳐 변화해 온 것이라고 하였다. 안명철(1990: 128)에 따르면 '-ㄹ 것이야'는 '-ㄹ 거야'의 형태를 거쳐 '-ㄹ게'로 변하였다.[1] 이정민(1975: 305 각주4)에서는 '-ㄹ게'는 '-ㄹ 것이어'에서 왔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안주호(2002: 108-9)에서는 '-ㄹ게'가 '-ㄹ 것이-'에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2] 이 연구들은

1) 안명철(1990) 등에서는 '-ㄹ게'를 '-ㄹ께'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2017. 03. 28 시행)에서는 '-ㄹ게'를 취하고 있다(https://www.law.go.kr).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ㄹ 것이-’ 뒤에 오는 성분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ㄹ 게’가 ‘-ㄹ 것이-’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볼 때 ‘-ㄹ게’에 의존명사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ㄹ게’와 ‘-ㄹ 것이-’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후술하겠지만 ‘-ㄹ 것이-’는 ‘추측’과 ‘의도’, ‘예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ㄹ게’는 ‘의도’나 ‘약속’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3)]

‘-ㄹ게’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주어는 1인칭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ㄹ게’의 용법이 확장되어 주어가 2인칭일 때도 ‘-ㄹ게’가 쓰일 수 있다. 이 항에서는 먼저 ‘-ㄹ게’의 문법적인 특징을 살펴본 후에 ‘-ㄹ게’의 의미와 확장 용법을 살펴볼 것이다.

4.1.1.1. 문법적 특징

박재연(1998: 84-6), 윤은경(2006: 56-8), 장채린(2017: 4-8) 등에서는 ‘-ㄹ게’의 주어 인칭 제약, 서술어 제약 등 문법적 특징을 밝혔다. 먼저 ‘-ㄹ게’의 인칭 제약을 확인해 보겠다.

(1) 가. 2층 청소는 내가 할게.
나. *2층 청소는 네가 할게.
다. *2층 청소는 철수가 할게.

(2) 가. 인제 그중에 아주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잠깐 영상으로 보실게요.
나. 승원이 잠깐 데리고 나가셔서 기분 좀 풀고 올게요.

(1)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속’의 의미를 가진 ‘-ㄹ게’는 주어 제약이 존재하여서, 1인칭 주어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2)처럼 ‘-ㄹ게(요)’가 2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ㄹ게(요)’는 이미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지 않

2) 안주호(2002: 107-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ㄹ게’가 ‘-ㄹ 것이야’에서 왔다면 ‘-ㄹ게야’가 되어야 하는데 ‘-ㄹ게야’는 약속의 의미가 없다.
3) ‘-ㄹ게’의 의미는 4.1.1.2에서 후술할 것이다.

고,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획득한다.

다음으로 ‘-ㄹ게’의 서술어 제약, 그리고 선어말어미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3)은 ‘-ㄹ게’의 서술어 제약을 확인하는 예이고, (4)는 ‘-ㄹ게’의 선어말어미 제약을 확인하는 예이다.

(3) 가. 내가 보고 올게요.
나. *내가 예쁠게요.
다. *내가 학생일게요.

(4) 가. 전 전철 타고 갈게요.
나. *전 전철 타고 갔을게요.
다. *전 전철 타고 가겠을게요.
라. *어머니께서 전철 타고 가실게요.
마. 이렇게 30초 간 하시다가 음악에 맞춰 옆으로 이동하실게요.

(3)을 통해 ‘-ㄹ게’ 앞에 동사만 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ㄹ게’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나 계사와 같이 쓸 수 없다.[4] 또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ㄹ게’는 선어말어미 ‘-었-’이나 ‘-겠-’, 혹은 ‘-시-’와 결합할 수 없으나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질 때 (4마)처럼 ‘-시-’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또한 윤은경(2006: 5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게’는 평서문에만 쓰인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가. 내일 집에 {갈게요, 갈래요}.
나. 나랑 술 한잔 {*할게, 할래}?

(6) 가. 승원이 잠깐 데리고 나가셔서 기분 좀 풀고 올게요.
나. 이렇게 30초 간 하시다가 음악에 맞춰 옆으로 이동하실게요.

4) 일반적으로는 ‘-ㄹ게’ 앞에 형용사가 올 수 없지만 ‘건강하다’, ‘행복하다’, ‘아프다’를 비롯한 일부 형용사는 ‘-ㄹ게’와 결합할 수 있다. ‘건강할게요’나 ‘안 아플게요’가 형용사와 ‘-ㄹ게’가 결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5)에서 볼 수 있듯이 '-ㄹ게'는 평서문에만 쓰이고, 의문문에 쓰이지 못한다. 즉 '-ㄹ게'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때만 쓸 수 있고, 화자가 청자의 의도를 물어볼 때는 쓸 수 없다. 반면에 이와 비슷한 의도 표현인 '-ㄹ래'는 평서문에 쓰일 뿐 아니라 의문문에도 쓰일 수 있다. 또한 (6)과 같은 경우, '-ㄹ게'가 쓰인 문장을 명령문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4.1.1.2. 의미적 특징

'-ㄹ게'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약속'으로 보고(한길 1991, 박재연 1998 등), 양태 체계 안에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다.[5] 권재일(1984), 윤석민(2000), 박재연(1998), 박재연(2013) 등에서는 '-ㄹ게'를 약속문이란 문장 유형을 표시한 종결형식으로 보았으나, 이윤진·노지니(2003), 윤은경(2006), 오승은(2018가), 오승은(2018나) 등에서는 '-ㄹ게'를 '의도'라는 양태 의미를 가진 종결어미로 보고 있다. 약속문이라는 문장 유형의 설정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6] 약속문이라는 문장 유형을 설정해도 '-ㄹ게'는 양태 의미를 가진 종결 형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박재연(2019: 226-3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령문, 약속문 등의 의미 영역은 행위 양태의 의미 영역과 같고, '-ㄹ게'를 비롯한 표현들은 문장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는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양태로도 파악될 수 있다.

다음으로 '-ㄹ게'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1인칭 주어만 허용되는 '-ㄹ게'부터 검토할 것이다. 아래 예문 (7)과 <표 9>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ㄹ게'의 의미를 살펴보자.

(7) 가. (다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규철 배낭 선반 위에 올리려고 하면) 다현: 주세요. 제가 올릴게요.
나. A: 누가 책 읽을래요?

5) 박재연(2006), 손혜옥(2016)을 비롯한 양태 체계를 다루는 논의에서 '-ㄹ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6) 임동훈(2011가)를 비롯한 논의에서는 '약속'을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임동훈(2011가: 333)에 따르면 '약속문'은 간접인용절에 쓰일 때 평서문 어미 '-다'로 합류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평서문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B: 제가 읽을게요. (박숙영 2006: 26-7)

다. 난희: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표 8> '-ㄹ게'의 예문에 따른 의미 기술

	(7가)	(7나)	(7다)
한길(1991)	약속	-	알림
박숙영(2006)	약속	의지	알림
박재연(2013)	약속	-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
오승은(2018나)	약속	-	기대 미래
전휘(2022)	약속	-	베풂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7가)처럼 '약속' 의미의 '-ㄹ게'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의 견해가 일치하나 (7다)의 '-ㄹ게'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길(1991: 145), 박숙영(2006: 29)에서는 (7다)의 '-ㄹ게'는 '약속'의 의미가 약화되거나 거의 상실되어 '알림'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박재연(2013: 265-7)에서는 (7다)의 '-ㄹ게'가 가지는 '의도'라는 의미는 '약속'의 의미로부터 확장해 왔다고 하였고, 이때 '-ㄹ게'가 가진 '청자를 고려함'이라는 의미 성분은 '청자는 화자의 행위를 바람직하게 생각함'이라는 의미 성분에 잔존한 것이라고 하였다.[7] 또한 박숙영(2006: 26-7)에서는 (7나)에 대해서 '-ㄹ게'의 기본적인 의미인 '의지'를 표현하는 예라고 하였다.

먼저 '-ㄹ게'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란 의미를 살펴보겠다. Searle(1969: 6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속' 화행이 성립될 때 그 조건들 중의 하나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화자가 수행할 행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의 의미를 가진 '-ㄹ게'는 주로 청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쓰일 수 있다.[8]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7) 박재연(2013: 264)에서 제시한 '약속'과 '의도'의 의미 성분은 다음과 같다.

> 의도: [화자의 행위], [화자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짐]
> 약속: [화자의 행위], [화자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짐], [청자는 화자의 행위를 바람직하게 생각함], [화자는 행위의 수행에 대한 의무를 짐]
>
> (이상 박재연 2013: 264)

8) 윤은경(2006), 오승은(2018나) 등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8) Q: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A: 가. 네, 먹을게요.
나. *아니요, 안 먹을게요.

(8)에서 볼 수 있듯이 청자가 원하는 행위를 해 줄 때 '-ㄹ게'를 쓸 수 있으나 청자의 바람과 어긋날 때 '-ㄹ게'를 쓸 수 없다. 이는 다른 '의도' 표현과는 다른 '-ㄹ게'만의 큰 특징이다.

'-ㄹ게'는 청자가 명확하게 부탁이나 명령 등 요청을 한 후에 화자가 이 요구를 들어주고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표현할 때 쓸 뿐 아니라, 표면적으로 청자가 명확하게 요구를 하지 않을 때도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9] 아래 예를 보자.

(9) 가. 유선: (스르르 손 놓는 원망스럽게 본다) 전화는 자주 해주세요.
기철: 그래 자주 할게. 매일 할게. (웃어 보인다)
나. 진만: 너 방학도 하고 그랬으니까 집에도 좀 자주 들러. 현진이야 바빠서 할 수 없다지만. 니네 엄마 아주 쓸쓸한가 보다.
다현: 알았어요. 자주 들릴게요. 죄송해요. 아빠.

(10) 가. 정사: 김치빈대떡 먹구 싶어요~
은주: 지금 해드릴게요~
나. 할머니: (끄덕끄덕) 옳은 말이야..(하고) 사설 못 읽은 지가 언젠지 몰라. 잔글씨 안 보여서
은주: 제가 자주 읽어드릴게요.

(9)는 청자의 부탁이나 명령이 명확하게 나타날 때 '-ㄹ게'가 쓰이는 예이고, (10)은 청자가 명확하게 요구를 하지 않을 때 '-ㄹ게'가 쓰이는 예이다. 후자의 경우, 청자가 직접 자신의 부탁이나 요구를 하지 않지만 화자가 청자를 고려해서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것이다. 화자가 앞으로 수행할 행위는 청자에 대해 이익이 되기 때문에 '-ㄹ게'의 의미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9) 오승은(2018나: 188-9)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또한 청자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자신의 부탁이나 요구 등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화자가 일방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예를 보자.

(11) 가. 지애: 이뻐서 주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마.
달수: (지애 맘 알겠고) 잘 신을게. 그리고, 잘 다녀올게.
나. 광희: 고마워요 나영씨...
나영: 뭐가요?
광희: 육아만화 말이에요. 나영씨 아니었으면, 정말 만화 관둘 뻔 했어요.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11가)의 경우 '지애'는 '달수'에게 구두를 주었을 뿐이고, '달수'에게 이 구두를 잘 신으라는 요구가 없다. (11나)도 마찬가지로 '나영'이 '광희'를 도운 것이 '광희'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도를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때의 '-ㄹ게'는 화자의 다짐 또는 화자의 약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앞으로 할 행위는 청자가 전에 했던 행위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화자가 이러한 말을 할 때 청자와 관련이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의 행위는 청자의 이익과 어긋나지 않고, 화자와 청자 모두 이런 행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11)의 '-ㄹ게'도 '약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10]

다음으로 (7나)를 보겠다.[11] (7나)의 경우, '제가 읽을게요'가 '누가 책 읽을래요?'의 대답으로 쓰일 때, 화자가 단순히 '자기가 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책을 읽을 사람이 없어서 나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10) 탕이잉(2018: 17-8)에서는 (11가)의 '-ㄹ게'는 '약속'이 아닌 '인사'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는 '약속'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문맥에서 '-ㄹ게'가 쓰일 때 화자가 꼭 그 약속을 지키는 생각 없이 인사말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ㄹ게'의 용법 중의 하나이지 '-ㄹ게'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없다. 화자가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약속인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쓰이는 '-ㄹ게'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약속'으로 볼 수 있다.

11) (7나)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7나) A: 누가 책 읽을래요?
B: 제가 읽을게요. (박숙영 2006: 26-7)

상대방을 고려하여 한 말로 이해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화자의 대답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화자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후자만큼 확실하지는 않지만 질문하는 사람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때의 '-ㄹ게'는 '약속'의 의미를 가진 '-ㄹ게'로 해석한다. 그이때의 '-ㄹ게'를 '약속'으로 본다면 별도의 메타언어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ㄹ게'가 가지는 '약속'의 의미는 다른 '의도'가 드러난 표현과 비교할 때 더 명확히 드러난다. 아래 예를 보자.

(12) Q: 누가 사무실에 다녀올래?
A: 제가 {갈게요, ?갈래요}. (윤은경 2006: 60)

(13) Q: 우리 집에 언제 올 거예요?
A: 내일 {갈 거예요, 갈게요}. (이윤지·노지니 2003: 200)

(12)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 사무실에 다녀올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ㄹ게'가 '-ㄹ래'보다 더 자연스럽다. 윤은경(2006: 60-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문에 가벼운 부탁 혹은 명령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ㄹ게'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약속'의 의미를 가진 '-ㄹ게'의 특징과 부합한다. 또한 (13)의 경우 '-ㄹ게'와 '-ㄹ 것이-'로 모두 대답할 수 있는데, 이때 '-ㄹ 것이-'에 비해 '-ㄹ게'는 상대방에게 약속을 한다는 의미가 추가된다(이윤지·노지니 2003: 200). 따라서 '-ㄹ게'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동시에 화자 자신의 행위가 청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창자의 이익과 어긋하지 않은 의미도 동반된다.

마지막으로 '-ㄹ게'가 가진 단순한 '의도'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아래 예를 보자.

(14) 가. 난희: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나. 연지: 여기서 지하철 타는 게 빨라요. 내릴게요.
다. 혜영: 먼저 들어가요. 나 필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라. 미진 : (입을 닦으며)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아줌마! 이 테이블도 계산할게요.

(1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예문들은 모두 화자가 자신이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의도

를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것들이고, 상대방에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약속'이란 의미와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14)의 '-ㄹ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의견이 갈린다. 한길(1991), 박숙영(2006)에서는 이때의 '-ㄹ게'는 '알림'이란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술어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달한다는 의미만 들어갈 뿐, '-ㄹ게'가 가진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혼잣말이 아니면 화자가 하는 말은 모두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알림'이라는 술어는 '-ㄹ게'의 본질적인 의미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재연(2013: 265-7)에서는 '-ㄹ게'가 '-ㄹ래'에 비해 '화자가 행위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자를 고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의미는 '약속'의 의미 성분 중의 하나인 '청자는 화자의 행위를 바람직하게 생각함'이 잔존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박재연(2013)에서는 (14)의 '-ㄹ게'의 의미는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라고 보았다. 이러한 기술은 '-ㄹ게'가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약속'의 의미를 가진 '-ㄹ게'도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 의미 기술은 취하지 않는다.

오승은(2018나: 192-8)에서는 (14)의 '-ㄹ게'의 의미가 '기대미래(expected future)'라고 주장하였고, 화용적으로 '-ㄹ게'가 '고지(告知)'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대미래'라는 술어가 적절한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Bybee *et al.*(1994: 249)에서는 '기대미래'가 가까운 미래에 기대된 사건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거나 계획된 사건이 발생할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계획된 사건이 발생할 것을 의미할 때 이를 '계획된 미래(scheduled future)'라고도 하였다. 다시 말해 '기대미래'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이 미래이고, 발생할 사건이 계획된 사건이나 화자가 기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ㄹ게' 앞에 오는 사건은 이러한 특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기대미래'라고 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사건이 화자가 기대한 사건일 수도 있고 제3자가 기대한 사건일 수도 있다. 예컨대 영어에서 '기대미래'를 표시할 수 있는 'be going to'는 인칭 제약이 없다. 그러나 '-ㄹ게'는 화자의 의도만 표현할 수 있고 제3자의 의도를 표현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기대미래'는 '-ㄹ게'가

가지고 있는 화자의 의도라는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술어는 아니다. 그리고 '-ㄹ게'는 청자가 존재하는 상황에만 쓰일 수 있는데 '기대미래'라는 술어로는 이러한 특징을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대미래'도 '-ㄹ게'의 의미라고 하기 어렵다.[12)]

한편 전휘(2022)에서는 '베풂'이라는 의미를 설정하였다. '베풀다'는 '일을 차리어 벌이다'라는 뜻인데,[13)] 이 술어도 '-ㄹ게'의 본질적 특징, 즉 '의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ㄹ게'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술어인 '의도'로 '-ㄹ게'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 '약속'의 '-ㄹ게'와 달리 [상대방에게 이익이 됨]이라는 자질이 없고 단순히 화자의 의도를 표출할 뿐이다.

'의도'라는 의미를 가진 '-ㄹ게'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는 기능만 하고, 청자의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 특히 오승은(2018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의 '-ㄹ게'는 청자의 요구와 반대일 때도 쓸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15) 가. 창호: 손님도 없어요. 올라가서 커피 한 잔 할래요?
인경: 그냥 갈게요. 또 연락드려도 괜찮죠? 얘기할 것도 많은데.
나. 가정부: 목욕물 받을까요...?
준호: 아니요, 제가 할게요...

(15가)의 '창호'는 '인경'에게, (15나)의 '가정부'는 '준호'에게 각각 제안을 하는데, 이때 제안을 받은 당사자인 '인경'과 '준호'는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 즉, 이때 '-ㄹ게'를 쓰는 것은 제안을 한 당사자를 고려한 대답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도를 표출할 뿐이다.

이상으로 주어로 1인칭만 허용되는 '-ㄹ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한편, 최근에는 '-ㄹ게' 뒤에 존경을 뜻하는 보조사 '요'가 붙은 형태인 '-ㄹ게요'가 2인칭 주어와 쓰이는 경향도 나타난다.[14)] 박재연(2013), 박미은(2016), 정연주(2019) 등에서 이러한 현상

12) 오승은(2018나: 192)에서는 '기대미래'의 의미를 가진 '-ㄹ게'를 "청자의 요구가 배제된 화자의 사태 실현의 미래성"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ㄹ게'는 미래성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 화자의 의도도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붙여도 '기대미래'라는 술어는 '-ㄹ게'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13) '베풀다'의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14) 박재연(2013: 26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의 '-ㄹ게'에는 '요'가 반드시 후행한다.

을 언급한 바가 있다.[15)16)] 아래 예를 보자.

(16) 가. 인제 그중에 아주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잠깐 영상으로 보실게요.
나. 승원이 잠깐 데리고 나가셔서 기분 좀 풀고 올게요.
다. 기사님, 휴게소 잠깐만 들를게요.

(16)에서 볼 수 있듯이 '-ㄹ게요'의 주어는 1인칭이 아니다. 박재연(2013: 26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게요'가 (16)과 같은 용법으로 쓰일 때 문장의 주어가 일반적으로 생략되는데, 생략된 주어는 2인칭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때의 '-ㄹ게요'는 2인칭 주어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 화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6)의 '-ㄹ

15) 안주호(2017)에서도 '-ㄹ실게요'를 다루었는데, 이 논의에서 제시한 '-ㄹ실게요'의 형성 과정은 박재연(2013) 등에서 제시한 '-ㄹ실게요'의 형성 과정과 다르다. 박재연(2013), 박미은(2016) 등에서는 '-ㄹ실게요'가 존대 선어말이미 '-시-'와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ㄹ게요'가 결합한 형태라고 하였으나 안주호(2017)에서는 '-ㄹ실게요'가 '-ㄹ실 것이에요'에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 정연주(2019: 1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ㄹ실게요'가 자주 쓰이는 서비스업 현장에서 '-ㄹ실 거예요'를 비롯한 표현이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ㄹ실게요'는 여기에서 온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 '-ㄹ실게요'는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화자의 의지가 표현된 '-ㄹ게요'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16) 박재연(2013), 박미은(2016), 정연주(2019) 등에서는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 '-ㄹ게요/-ㄹ실게요'는 '의도'의 의미를 가진 '-ㄹ게'부터 온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용법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박재연(2013)에서는 '-ㄹ게'가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라는 의미(본고의 '의도')에서 행위주를 전환하여 '청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도'라는 의미로 변하였다고 하였고, '의도'라는 동일 영역에서 인접한 의미 성분 간에서 일어나는 환유라고 하였다.

또한 박미은(2016)에서는 '-ㄹ게'를 '약속'과 '알림'의 두 가지 의미로 나누었고, '알림'이란 의미를 "화자의 행동을 청자에게 알림(예: 이제 그만 먹을게요)", "화자와 청자의 행동을 청자에게 알림(예: 선생님 가위 좀 빌릴게요)", 그리고 "청자의 행동을 청자에게 알림(예: [피디가 출연자에게] 지금 들어갈게요)"으로 세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자의 행동을 청자에게 알림'이라는 하위 의미는 지시 화행으로 볼 수 있고, 청자를 높이기 위해 '-시-'를 붙여 '-ㄹ실게요'가 형성된다.

한편, 정연주(2019)에서는 발표나 강의 등에 쓰이는 '-ㄹ게'의 사용 양상을 통해 '-ㄹ게요'가 '명령'의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을 추정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발표나 강의 등 장르에서 사용하는 '-ㄹ게'는 주로 화자가 앞으로 할 행위를 청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예: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할게요.)을 하고, 이럴 때 '-ㄹ게'는 청자도 같이 이 행위에 동참하는 것을 요청하는 기능(예: 그럼 한 번 데모를 한 번 볼게요.)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ㄹ게'는 '청유'의 의미로 쓰이게 된 후에, 이를 토대로 청자에게 단독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능, 즉 '명령'의 기능(예: 앞으로 와서 정리, 정리할게요)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한 '-ㄹ게'가 '명령'의 기능을 획득한 과정은 모두 추론일 뿐이고, 현실적인 언어자료로 입증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화 과정보다 변화 결과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변화 과정에 대한 견해들을 언급만 하고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

게요’는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지고 있고, ‘-(으)세요’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평서문을 통해 지시 화행을 수행하는 것은 청자에게 주는 체면 위협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4.1.2. ‘-ㄴ/ㄹ걸’

‘-ㄴ/ㄹ걸’은 이미 일종의 종결어미로 등재되어 있는데, 변화 과정에서 ‘것’이 존재한다. ‘-ㄴ걸’이나 ‘-ㄹ걸’의 형성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최동주(2009), 최대희(2012), 이민(2012), 이지영(2017), 정혜선(2017) 등이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의미와 상관없이 ‘-ㄴ걸’이나 ‘-ㄹ걸’은 ‘-ㄴ 것을’이나 ‘-ㄹ 것을’로부터 변화해 온 것이라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17) 가. 풀 긋틱 이슬 ᄀᆞᆺ튼 목숨이 아ᄎᆞᆷ의 잇짜가 나죄 주그며 오날 잇짜가 닉일 죽ᄂᆞᆫ 거슬 쳔년 만년이나 살가 ᄒᆞ야 세간 탐심 ᄒᆞᄂᆞ니 <염불보권문일사본21b>

(정혜선 2017: 244)

나. 대개 입때예 비위 긔운이 됴화야 ᄒᆞᆯ 거ᄉᆞᆯ 사온사온 증이 이러ᄐᆞᆺᄒᆞ면 죽시가 머디 아닐 거시니 맛당이 급피 다ᄉᆞ릴디라 <두경 51a>

다. 힝여 조차 갓던 아히들은 노홉고 애ᄃᆞ라 도로 너머오며 혼잣말노 닐오ᄃᆡ 이럴 줄 아던들 가디 말 거ᄉᆞᆯ 나갈가 너겨더니 <계축 下:33b>

(이상 정혜선 2017: 249)

정혜선(2017)에 따르면 (17가)의 ‘-ㄴ 것을’은 ‘배경’의 의미를 나타내고, (17나)와 (17다)의 ‘-ㄹ 것을’은 각각 ‘추측’과 ‘후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ㄴ 것을’이나 ‘-ㄹ 것을’은 후행하는 타동사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지영(2017), 정혜선(2017) 등에서는 ‘-ㄴ 것을’과 ‘-ㄹ 것을’이 축소된 형태인 ‘-ㄴ걸’과 ‘-ㄹ걸’은 19세기 말부터 나타난다고 하였고, 종결 기능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래는 종결형으로 쓰인 ‘-ㄴ걸’과 ‘-ㄹ걸’의 예이다.

(18) 가. (어자) 안이야 안이야 쥬인은켜녕 사ᄅᆞᆷ의 셩형조차 몰으ᄂᆞᆫ걸 (니)네 말이 가지록 슈샹토다 <비행선 23> (정혜선 2017: 246)

나. 참 그 두 쑬이 걸녀셔 드러가기 어려울걸이오 <매일신문(1898/7/7) 잡보> (이지영 2017: 37)

다. 에그 닉가 잘못허엿지 아모리 급히도 갑동이나 ᄎᆞ져 ᄃᆡ리고 올걸 ᄒᆞ면서 <고목화 124> (정혜선 2017: 252)

(18가)는 '-ㄴ걸'의 예인데, 이때 '-ㄴ걸'의 후행절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결 기능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ㄴ걸' 절은 후행절을 위한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18나)와 (18다)는 각각 '추측'과 '후회'의 의미가 나타난 '-ㄹ걸'의 예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ㄹ걸'은 이미 하나의 종결어미처럼 쓰이고 있다. 따라서 '-ㄴ걸'과 '-ㄹ걸'은 각각 '-ㄴ 것을'과 '-ㄹ 것을'로부터 발전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동주(2009: 233-6)는 '추측'의 의미를 가진 '-ㄹ걸'은 '-ㄹ 걸세'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ㄹ걸'은 '-ㄹ 것이-'와 '-ㄹ세'를 결합한 '-ㄹ 것일세'가 줄어든 형태인 '-ㄹ 걸세'로부터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자.

(19) 가. 재물을 탕진하는 재미로 외로움을 {잊을 걸세, 잊을걸}.

나. 금년 9월쯤이면 자네 집에 큰 경사가 {있을 걸세, 있을걸}.

(이상 최동주 2009: 234, '-ㄹ걸'은 필자 추가)

최동주(2009: 234)에서는 (19)에서의 '-ㄹ 걸세'가 '-ㄹ걸'로 바뀌어도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였고, 이런 점을 고려하여 '-ㄹ걸'과 '-ㄹ 걸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동주(2009)에 따르면 '-ㄹ걸'이 가지고 있는 '추측'의 의미가 '-ㄹ 것이-'에서 온 것이고,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의미는 '-ㄹ세'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ㄹ걸'의 확실성이 '-ㄹ 것이-'보다 약하게 나타나는 것도 '-ㄹ걸'이 '-ㄹ 것일세'에서 왔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민(2012: 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ㄹ걸'을 '-ㄹ 걸세'로 바꾸어도 큰 의미 차이가 없다는 것은 '-ㄹ걸'과 '-ㄹ 걸세'의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을 뿐, '-ㄹ걸'이 '-ㄹ 걸세'에서 변화해 온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 또한 이에 따르면 '-ㄹ 걸세'는 '-ㄹ 거야'로 대치하는 것이 '-ㄹ걸'로 대치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최동주(2009)의 견해를 취하지 않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보았던 것처럼 '-ㄹ걸'이 '-ㄹ 것을'에서 왔다는 입장을 취한다.

공시적인 시각에서 이금희(2013), 김병건(2015), 김연경(2022) 등 많은 연구에서 '-ㄴ/ㄹ걸'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논의한 바가 있다. 또한 '-ㄹ걸'은 '-ㄴ걸'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별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현화(2008), 최동주(2009), 이민(2012), 권영은(2020가, 2020나) 등에서도 '-ㄹ걸'만 연구 대상을 삼고 이를 검토하였다.

먼저 아래 <표 9>를 통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뜻풀이를 살펴보겠다.

<표 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ㄴ/ㄹ걸'의 뜻풀이

표제어		뜻풀이
-ㄴ걸	-은걸	(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현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
	-는걸	(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현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던걸	(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처럼 쓰여, 화자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띤다.
-ㄹ걸		(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처럼 쓰여,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구어체로) 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아니한 어떤 일에 대하여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ㄴ걸’은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선어말어미 ‘-느-’나 ‘-더-’와 같이 쓰일 수도 있다. 이때 ‘-은걸’과 ‘-는걸’, ‘-던걸’의 의미는 거의 같다. 단, ‘-은걸’일 때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라는 의미도 가진다. 또한 ‘-ㄹ걸’의 경우, 주로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 다르다’는 의미와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전자는 ‘-ㄴ걸’의 의미와 비슷하나 후자는 주로 ‘-ㄹ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ㄴ걸’에 비해 ‘-ㄹ걸’의 의미, 특히 ‘-ㄹ걸’이 가지는 양태적 의미가 많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17] ‘-ㄴ걸’은 ‘-ㄹ걸’의 일부 용법과 비슷한 면이 있으나 ‘-ㄹ걸’의 용법들 간에 대립적인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우선 의미의 공통점을 고려하지 않고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에 따라 ‘-ㄴ걸’과 ‘-ㄹ걸’을 구분하여 이들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1.2.1. ‘-ㄴ걸’

‘-ㄹ걸’에 비해 ‘-ㄴ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ㄴ 걸’의 여러 문법적인 특징과 의미적인 특징을 검토한 논의는 한길(1991, 2004), 이금희(2013), 정효문(2013), 김연경(2022) 등이 있다. 통사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대부분 논의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의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이 목에서는 먼저 ‘-ㄴ걸’의 문법적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의 의미적 특징을 검토하겠다.

4.1.2.1.1. 문법적 특징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ㄴ걸’은 주어 인칭 제약이 없고, 앞에 올 수 있는 서술어에 대한 제약도 없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이들의 의미에 관한 쟁점은 후술할 것이다.

(20) 가. 그래도 월급쟁이보단 (학원 둘러보며) 학원 원장인 내가 능력 있는걸!!
나. 당신은 더 멋있어 졌는걸.
다. 난 괜찮아. 우리 쌍둥이가 지켜주는걸.

(21) 가. 언니라구 불러드리구 싶은데 하는 거 보면 아줌만데 어떡해요. 나두 그냥 아줌마라구 나오는걸.
나. 야 야 끊어. 건강에도 안 좋은걸.
다. 그건 제 잘못인걸요.

(20)은 '-ㄴ걸'의 인칭 제약을 확인하는 예이고, (21)은 '-ㄴ걸'의 서술어 제약을 확인하는 예이다. (20)과 (21)을 통해 '-ㄴ걸' 앞에 1인칭이나, 2인칭, 혹은 3인칭이 모두 올 수 있다는 것과 '-ㄴ걸' 앞에 동사와 형용사, 계사가 모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강현화(2008: 55)는 '-는걸, -던걸, -었는걸'은 경험하거나 본 것에 근거하여 이에 대해 감탄할 때 1인칭 주어가 제약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는걸'과 '-었는걸'은 1인칭 주어 제약이 없고, '-던걸'의 1인칭 주어 제약도 일부 환경에서 해소될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22) 가. 정말 그런가 보군. 이거 왠지 사이몬들이 우리 세계로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걸!
나. 세상에, (내가) 너무 오래 잤는걸!

(23) 가. {*나도, 너도, 그 사람도} 담배를 피우던걸.
(정효문 2013: 39 '너도'는 필자 추가)
나. 난 미자가 나 알아보는 게 더 신기하던걸.
다. 역시 정직한 놈이 또박또박 물어오니까 나두 정직하게 따박따박 대답할 수밖에 없던걸?

(22가)는 '-는걸'의 예이고, (22나)는 '-했는걸'의 예이다. (22가)에서는 생각을 하는 주체가 화자, 즉 '나'이고, 이때 화자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에 감탄한다. (22나)에서는 화자가 주변 환경을 보고 자신이 너무 오래 잤다는

것에 대해 감탄을 하였다. 이 예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는걸'과 '-었는걸'은 1인칭 주어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23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객관 술어일 때 '-ㄴ걸' 앞에 선어말어미 '-더-'가 오면 이는 1인칭 주어 제약을 받는다.[18] 그러나 (23나)처럼 주관 술어일 때는 '-던걸' 앞에 1인칭이 가능하고, (23다)처럼 화자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달을 때도 1인칭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특성은 종결부에 쓰이는 '-더-'의 특성과 같다. 따라서 '-던걸'의 이러한 특성은 종결부에 쓰이는 '-더-'로 기인하고, '-ㄴ걸'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내용들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감탄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는걸'이나 '-었는걸'은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내용에 대해 감탄할 때 주어 인칭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던걸'은 종결부에 쓰인 '-더-'와 같은 제약을 받는다.

다음으로는 '-ㄴ걸'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를 살펴보자. (24)는 '-ㄴ걸'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의 예이고, (25)와 (26)은 각각 '-는걸'과 '-던걸'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의 예이다.

(24) 가. 뭐~ 차분하게 얘기 잘하는걸.
나. 이주완 과장님이 알려주시던걸.
다. 하지만 스님이 못 내려가게 하시는걸요.

(25) 가. 난 아직 팥죽을 안 먹었는걸.
나.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넘 좋아하시겠는걸?
다. 나는 용우물 집에 다녀와야겠는걸.

---

18) 객관 술어는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 상태나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가리키고, 주관 술어는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가리킨다. 이러한 분류는 목정수(2003: 424)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단 목정수(2003: 424)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동사로 간주하고, '객관동사'와 '주관동사'라는 술어를 사용하였다. 이 논의에서 제시한 '객관동사'와 '주관동사'의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목정수(2003: 424)에서 제시한 한국어 동사의 하위 분류

품사	하위부류		예
동사	객관동사	행위동사	먹다, 자다, 놀다 …
		기술동사	붉다, 예쁘다 …
	주관동사		좋다, 싫다 …

라. 숨이 막혀서 못 살겠는걸요.

(26) 가. 그래도 이 카메라,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 실내에서 찍어도 보통 사진기보단 훨씬 선명하고. 방금 찍은 사진도 괜찮게 나왔던걸?

나. 일기예보를 들어 보니까 내일은 더 춥겠던걸. (구글 검색)

다. 맞습니다. 저도 못 먹겠던걸요. 그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24)에서 볼 수 있듯이 '-ㄴ걸' 앞에 선어말어미 '-느-'나 '-더-', '-시-'가 모두 올 수 있다. 또한 이금희(2013), 김병건(2015) 등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25)의 '-는걸' 앞에는 선어말어미 '-었-'이나 '-겠-'도 올 수 있다. 그리고 '-겠는걸'의 '-겠-'은 '추측'의 의미 외에 '의도'나 '능력'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19] 또한 '-었는걸'과 '-은걸'의 비교에 대해 김병건(2015: 73)에서는 과거의 일회성 사건이라면 '-었는걸'과 '-은걸'을 모두 쓸 수 있다고 하였고, 이금희(2013: 135-7)에서는 동사나 상황과 관련 없이 대부분 경우에 '-었는걸'과 '-은걸'을 서로 대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26)에서 볼 수 있듯이 '-던걸' 앞에도 선어말어미 '-었-'과 '-겠-'이 올 수 있다.[20] 이때의 '-겠-'은 (26나)와 (26다)에서 제시한 것처럼 '추측'이나 '능력'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겠는걸'에 비해 '-겠던걸'의 '-겠-'은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다. '-겠-'은 '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주어가 1인칭이어야 하는데, 종결부에 쓰인 '-더-'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던걸' 앞에 '의도'를 의미하는 '-겠-'이 오기 어렵다. 또한 '-던걸' 앞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도 올 수 있다. 종결부에 쓰인 '-었더-'가 일반적으로 '흔적 지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박재연(2006) 등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그러나 '-었던걸'에서의 '-었더-'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26가)의 경우 찍은 사진을 직접 보고 한 말이고, 어떤 사진에 관한 흔적을 보고 한 말이 아니다. 이때 '-던걸'과 '-었던걸'은 비슷한 의미가 나타나고, '-던걸'에 비해 '-었던걸'의 과거성이 보다 강하다. 따라서 이때 '-었던걸'은 '-ㄴ걸'과 '-었더-'가 결합해 형성된 복합체라고 하기보다는 '-던걸'과 '-었-'

19) '-겠는걸'의 '-겠-'이 '추측'의 의미를 가질 때 '-ㄹ걸'과 비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ㄹ걸'을 검토할 때 다루고자 한다.

20) 정효문(2013: 39)에서는 '-던걸' 앞에 선어말어미 '-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가 있으나 '-겠-'과 결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결합해 형성된 복합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던걸'과 '-었는걸'이다. 이윤복(2019: 88-90)에서는 '-ㄴ/는걸'은 일종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간주하였고,[21] 이때 쓰이는 '-던걸'과 '-었는걸'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던걸'은 화자가 지각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었는걸'은 어떤 흔적을 보고 화자가 추론한 내용을 나타낸다. 그러나 '-었는걸'은 꼭 흔적 추리를 통해 얻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던걸'과 같이 직접 본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 아래 예를 보자.

(27) 가. 탈의실에 불이 나던걸!
나. 탈의실에 불이 났는걸!

(27가)는 '-던걸'의 예이고 (27나)는 '-었는걸'의 예이다. (27가)는 화자가 직접 불이 난 장면을 보고 하는 말인데, (27나)는 꼭 화자가 연기를 보거나 불에 그슬린 탈의실을 보고 자신의 추론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다. (27나)의 경우, 화자가 탈의실에 불이 난 것을 직접 보고 한 말일 수도 있다. 즉 '-었는걸'의 경우, 화자가 흔적을 통해 추론한 것뿐 아니라, 직접 본 장면을 기술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ㄴ걸'의 부정형을 보겠다. 정효문(2013: 43), 김연경(2022: 53)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ㄴ걸'에 있어 '안' 부정문이나 '못' 부정문이 모두 가능하고,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도 모두 가능하다.

(28) 가. 야 야 끊어. 건강에도 안 좋은걸.
나.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걸?
다. 버텨 봤자. 몇 개월 못 되는걸.
라. 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걸.
마. *팥죽을 먹지 {마는걸, 만걸}.

21) 이윤복(2019: 8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외성을 가진 '-ㄴ걸/는걸'은 상향 억양과 동반된다. 다시 말해 모든 환경에서 쓰인 '-ㄴ걸/는걸'은 모두 의외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ㄴ걸/는걸'은 하향 억양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8가)와 (28나)는 '안' 부정문의 예이고, (28다)와 (28라)는 '못' 부정문의 예이다. 그리고 (28라)는 '말다' 부정문의 예이다. (2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ㄴ걸' 앞에 오는 내용을 부정할 때 '안' 부정이나 '못' 부정이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말다' 부정은 사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ㄴ걸'의 후행 요소와 복원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한길(1991: 151) 등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ㄴ걸' 뒤에 '요'를 붙일 수 있고, '-ㄴ걸'을 '-ㄴ 것을'로 바꿀 수 없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29) 가. 그게 그 사람 운명인걸요.
나. 초등학생들도 다 가는걸요.
다. 그래도 할 말은 다 하던걸요.

(30) 가. 그게 그 사람 {운명인걸, *운명인 것을}.
나. 초등학생들도 다 {가는걸, *가는 것을}.
다. 그래도 할 말은 다 {하던걸, *하던 것을}.

(29)는 '-ㄴ걸' 뒤에 '요'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고, (30)은 '-ㄴ걸'을 '-ㄴ 것을'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29)와 (30)의 예를 볼 때 '-ㄴ걸'은 이미 하나의 어미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는걸'을 '-는 것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31) 가. 나는 그 점을 세이지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차를 보내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인 점을 후회했다. 전차를 타고 고쿠분지까지 가서 역에서 내려 진나이 저택까지 걸어가면 {되는 것을, 되는걸}.
나. 내가 진작 이 생각을 못 했지? 아주머니만 구워 삶으면 {되는 것을, 되는걸}.
다. 미안하다. 화양이 들어갈 때 미리 막았어야 {하는 것을, 하는걸}.
라. 역시 그냥 기차를 타고 왔어야 {하는 것을, 하는걸}!

(31가)와 (31나)는 '-(으)면 되다' 뒤에 '-는 것을'이 오는 예이고, (31다)와 (31라)는

‘-었어야 하다’ 뒤에 ‘-는 것을’이 오는 예이다. (3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의 ‘-는 것을’은 ‘-는걸’로 대치할 수 있고, 이는 ‘후회’의 의미를 나타낸다.[22)]

한편 이금희(2013: 122)에서는 ‘후회’의 의미를 가진 ‘-는걸’은 후회의 ‘-ㄹ걸’과 마찬가지로 뒤에 ‘그랬다’를 복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연경(2022: 51)에서는 일부 순간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는걸’은 ‘그랬다’를 복원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는걸’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는걸’의 의미는 후술할 것이고, 우선 ‘-는걸 그랬다’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32) 가. 제가 진작 알았으면 우리 집 냉장고에다 넣고 오는 걸 그랬습니다.
나. 그제야 2층으로 따라갔어야 하는걸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다. 아! 애당초 조제프가 이렇게 멀리 돌아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만 있었더라면, 다리 이쪽 끝에다 초소 하나를 더 세우면 되는 걸 그랬어.
라.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걸 그랬어.

(33) 가, *뭐~ 차분하게 얘기 잘하는 걸 그랬어.
나. *야 야 끊어. 건강에도 안 좋은 걸 그랬어.
다. *이주완 과장님이 알려주시던 걸 그랬어.

(32)는 모두 ‘-는걸’ 뒤에 ‘그랬다’와 결합 가능한 예이다. 이때 ‘-는걸’ 앞에 주로 ‘-었으면’, ‘-었어야’를 비롯한 반사실적 가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허락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어도 되다’, 혹은 어떤 결과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의미하는 ‘-으면 되다’가 온다.[23)] 이때 ‘-는걸’은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낸다. 그러나 ‘-는걸’이 ‘후회’라는 의미

22) 김연경(2022: 50-1)에서는 ‘-는걸’은 ‘확인서술’의 의미일 때는 ‘-는 것을’로 환언될 수 없으나 ‘반박’의 의미일 때는 ‘-는 것을’로 환언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은걸’의 경우 어떤 의미든 모두 ‘-은 것을’로 환언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 예문에서 ‘-는걸’은 ‘반박’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이때 ‘-는걸’은 ‘-는 것을’로 대치하기 어렵다.

예: 가. P2: 저는 사실 걱정했거든요. 제가 말문이 막히거나 얘기를 못 할까 봐
P3: 뭐~ 차분하게 얘기 {잘하는걸, *잘하는 것을}.
나. A: 싸구려 청소기라서 잘 안 되지?
B: 아니, 잘 {되는걸, *되는 것을}. (이금희 2013: 127-8, ‘-는 것을’은 필자 추가)

23) ‘-었으면’, ‘-었어야’는 비사실적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숙영(2009: 246-50)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를 가지지 않을 때 (33)에서 제시한 것처럼 '-는걸' 뒤에 '그랬다'를 붙일 수 없다.

4.1.2.1.2. 의미적 특징

'-ㄴ걸'의 의미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의미부터 살펴보자. 아래 <표 10>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ㄴ걸'의 의미이다.

<표 10>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ㄴ걸'의 의미

한길(1991, 2004)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확인 서술
허경행(2010)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감탄, 가벼운 반박/부정, 후회
이금희(2013)	의견 강조, 감탄이나 놀람, 아쉬움
정효문(2013)	지나간 사실, 가벼운 반박, 감탄, 가벼운 주장
김병근(2015)	체념, 감탄
김연경(2022)	확인 서술, 반박, 감탄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 '-ㄴ걸'의 앞에 오는 내용은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였고, '-ㄴ걸'은 '감탄'이나 '반박'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감탄'이든 '반박'이든 모두 문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ㄴ걸'의 의미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본고에서는 '-ㄴ걸'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자기의 생각을 서술할 때 쓰는 종결어미로 보고, 문맥에 따라 '놀라움'이나 '반박' 등의 부차적인 의미를 동반한다고 본다. 아래 예를 보자.

(34) 가. 해인: 그렇진 않으신데.. (병두 보고) 그래서 두 분이 얘기는 잘 되신 거예요?
병두: 잘 되고 말고가 어딨어. 일방적으루 사과하러 나온걸. 이제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서로 신경 쓸 일이 없지. 안 그러냐?

나. 유선: (조니의 곰돌이를 가리키며)이게... 그때 한지훈 변호사가 갖고 있던, 곰돌이가 맞다구요?
최재식: 내가 이걸 한두번 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꾼 인형인데,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직도 꿈에 나오는걸...

다. 미나꼬: (선우의 팔짱을 끼며) 선짱 선짱! 나 좀 태워다줘. 중요한 일 있는데

늦었어.

선우: (영희 눈치 힐끔) 아 택시 타.

미나꼬: 지금 시간에 차가 많던걸? 부탁이야, 선짱. 응?

(35) 가. 세라: ....(갈라진 음성) 핸드폰 왜 꺼놨어?

현민: 으응.. (욕실로 가며) 어려운 자리였어. 회장님 만나는 자리라....(비틀)

세라: 진동으로 해놔도 되잖아.

현민: 그래 봐야 못 받는 걸... (힘들어서 벽에 기대 칫솔질)

나. 경수: (막상 힘든데, 뻥치며) 야, 이거 생각보다 운동도 되고 좋다! 매일 밤 하면 곧 노동으로 단련된 근육이 생기겠는걸? (방망이 주며) 너도 한번 해봐라.

다. ㄱ: 우리 애가 이번에 1등을 했어요.

ㄴ: 와! 대단한걸. (이금희 2013: 129)

(34)는 화자가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예이고, (35)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예이다. (34)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기술할 때 '-은걸', '-는걸', '-던걸'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반면에 (35)처럼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는 동사의 경우 '-는걸'이, 형용사의 경우 '-ㄴ걸'이 쓰인다. 그리고 이때 '-는걸' 앞에 선어말어미 '-겠-'도 올 수 있다.

또한 문맥에 따라 '-ㄴ걸'은 여러 부차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아래 (36)은 '반박'의 의미를 가진 '-ㄴ걸'의 예이고, (37)은 '놀라움'의 의미를 가진 '-ㄴ걸'의 예이다.

(36) 가. 민재: 설마 너.. 그 형이 좋다거나 그런 소릴 하는 건 아니겠지?

채영: (생각해보더니) 왜? 난 그 사람을 좋아하는걸.

나. P2: 저는 사실 걱정했거든요. 제가 말문이 막히거나 얘기를 못 할까 봐.

P3: 뭐~ 차분하게 얘기 잘하는걸.

(37) 가. 오숙수: (미소로 먹으며 감탄) 이렇게 맛있는걸! 대체 아깐 뭘 뺀 거야.

나. (인아, 벽에 기대서 희진에게 십자수를 가르친다. 힘들어 보이지만 애써 명랑하게)

인아: 알았지? 해봐 한번.

희진: (배운 대로 한다) 이렇게요?
인아: 소질 있는걸?

(36)에서 볼 수 있듯이 '-ㄴ걸'은 '반박'이란 의미를 동반할 때 앞에 주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타난다. 반면에 (37)처럼 '놀람'이란 의미를 동반할 때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통해 생기는 생각이 주로 선행한다. 이윤복(2019: 88-90)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때의 '-ㄴ걸'은 일종의 의외성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정혜선(2017: 258)에서 언급하였듯이 '-ㄴ걸'이 쓰이는 문장은 선행하는 문장의 이유를 제시하는 기능도 존재한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8) 가. 동석씨. 지금 나, 불행하지 않아. 그리구 아무도 날 버린 사람은 없어. 난 이미 ..... 사랑을 가졌는걸.
나. 그런데 전화가 이상해.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걸. (정혜선 2017: 258)
다. 왜 돌려요? 지금 재미있게 보구 있는걸.
라. 낼 아침에 얘기하자. 밤이 늦었는걸.

(38)을 통해 볼 수 있듯이 '-ㄴ걸'이 쓰이는 문장은 선행하는 문장의 이유를 나타낸다. (38가)의 경우 화자가 이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38나)의 경우,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기 때문에 화자가 이 전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38다)에서 '지금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이고, (38라)에서 '밤이 늦었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는 제안을 하는 이유이다. Sweetser(1990)에서는 두 절이나 문장 간에 가지고 있는 관계를 내용 영역(content domain), 인식 영역(epistemic domain), 화행 영역(speech act domain)으로 나누었다.[24] 이때 '-ㄴ걸'이 쓰이는 문장은 선행하는 문장

24) Sweetser(1990: 77)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영어 접속사 'because'절은 이 세 가지 영역에 모두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영역들은 'because'절 내용이 유발하는 주절의 내용이 실현 세계에 있는 사건인지, 화자의 추론인지, 혹은 화자가 하는 어떤 발화행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의 이유를 제시할 때 주로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ㄴ걸'은 화자의 '후회'도 표현할 수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39) 가. 은숙: 진작 와서 입어 보구 샀어야 되는걸. 그동안 괜히 신서방 맘만 상하게 했네. 미안해. 마음 풀어.
나. 나영: (경태 보며) 어머... 어떻게 해요? 괜히 저 때문에 경태씨만 홀딱 젖었잖아요...? 그냥 나 혼자 뛰어와도 되는걸...
다. 내가 진작 이 생각을 못 했지? 아주머니만 구워 삶으면 되는걸.

(39)의 '-는걸'은 '후회'의 의미를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럴 때의 '-는걸'은 '-는 것을'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 '후회'의 경우 '-는 것을 그랬다'로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은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화자의 생각'을 기술하는 '-는걸'과 통사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는걸'은 구분해야 된다. 단, '-는걸'은 '-어야 하다/되다', '-으면 되다' 등의 구성과 결합할 때만 '후회'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특징이 있다.[25] 이는 후회의 '-ㄹ걸'보다 사용 환경이 좁고 일반적인 동사 뒤에 오면 '후회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예: 가. John came back because he loved her. (내용 영역)
나. John loved her, because he came back. (인식 영역)
다. What are you doing tonight, because there's a good movie on. (화행 영역)

25) 이금희(2013)에서는 '-ㄴ걸'은 '후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때 '-ㄴ걸'의 뒤에 '그랬다'로 복원할 수 없다. 아래 예를 보자.

예: 가. 돌잔치에서 너무 {먹은걸/*먹은 걸 그랬어}.
나. (체중계에 올라서서) 내가 요즘 너무 {먹는걸/*먹는 걸 그랬어}.
(이상 이금희 2013: 131)

위의 예는 이금희(2013)에서 제시한 '후회'의 의미를 가진 '-은걸'과 '-는걸'의 예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은걸'이나 '-는걸' 뒤에 '그랬다'가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예문들은 '후회'의 의미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문맥이 있으면 이 문장들은 '후회'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들은 화자가 '돌잔치에서 너무 먹었다'는 사실이나 '요즘 너무 먹는다'는 사실을 전달할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은 '후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는걸'의 예로 보지 않았다.

4.1.2.2. ‘-ㄹ걸’

‘-ㄹ걸’은 선행 연구에서 ‘추측’과 ‘후회/아쉬움’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많이 언급되어 왔다(박재연 2006, 최동주 2009, 권영은 2020나, 이소영 2022 등). 또한 이민(2012)에서는 ‘-ㄹ걸’은 ‘추측’과 ‘후회’의 의미 이외에 ‘타박’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금희(2013)에서는 ‘-ㄹ걸’은 ‘의견 강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의미들은 ‘추측’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나 종결어미 ‘-ㄹ걸’의 의미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ㄹ걸’의 기본적인 의미로 보지 않겠다. 따라서 ‘-ㄹ걸’의 문법적 특징을 검토할 때 ‘-ㄹ걸’의 의미를 ‘추측’과 ‘후회/아쉬움’ 두 가지 의미로 나누고 각각의 문법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1.2.2.1. 문법적 특징

한길(1991, 2004), 이민(2012), 이소영(2022) 등 많은 연구에서 ‘추측’의 ‘-ㄹ걸’과 ‘후회’의 ‘-ㄹ걸’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을 밝힌 바가 있다.

먼저 의미에 따른 ‘-ㄹ걸’의 인칭 제약을 살펴보자. 아래 (40)과 (41)은 각각 ‘-ㄹ걸’이 ‘추측’과 ‘후회/아쉬움’의 의미일 때의 예이다.

(40) 가. 여준씨보다는 내가 나을걸요.
나. 아마 넌 나 대신에 선보느라 정신없을걸.
다. 개인이 룸에 없을걸요.

(41) 가. 나두 그냥 경찰 따라 갈걸.
나. 오늘 도착할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너두 나랑 같이 이력서나 널걸.
다. 주인공은 태연이가 할걸.. (김연경 2022: 33)

(40)은 ‘-ㄹ걸’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이다. (40)에서 볼 수 있듯이 ‘-ㄹ걸’이 ‘추측’의 의미일 때는 인칭 제약이 없다. 한편 ‘-ㄹ걸’이 ‘후회/아쉬움’의 의미를 나타낼 때 박재연(1998: 80), 권영은(2008: 48-9) 등에서는 1인칭 주어 제약이 있다고 하였으나, 강현화(2008: 58-9), 이금희(2013: 120-21), 권영은(2020가: 195) 등에서는

일부 상황에서 2인칭이나 3인칭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41)은 '-ㄹ걸'이 '후회/아쉬움'의 의미를 가질 때 앞에 2인칭이나 3인칭이 오는 것의 예이다. 강현화(2008: 5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때는 주로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자의 '후회'를 표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ㄹ걸' 앞에 올 수 있는 서술어를 살펴볼 것이다.

(42) 가. 월급 계좌는 미래 은행이고. 다른 계좌나 자산관리사 번호는 비서가 알걸.
나. 그 자식 완전 칼루이스야. 자전거 보다 열배는 빠를걸?
다. 아마 관아수령 사기 치는 사람은 예술가 형뿐일걸?

(43) 가. 아까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라도 좀 얻어올걸.
나. 그러게. 그냥 현실에 만족할걸. 앞으로 더 핍박이 심해질 거 같애.
다. 내가 그때 좀 더 적극적일걸.

(42)는 '추측'의 의미를 가진 '-ㄹ걸'의 예이고, (43)은 '후회/아쉬움'의 의미를 가진 '-ㄹ걸'의 예이다. (42)~(43)에서 볼 수 있듯이 '추측'의 '-ㄹ걸'과 '후회/아쉬움'의 '-ㄹ걸' 뒤에 동사, 형용사, 계사가 모두 올 수 있다. 그러나 '후회/아쉬움'의 '-ㄹ걸'은 항상 형용사나 계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민(2012: 22), 권영은(2020가: 191-2), 이소영(2022: 154-5)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나 화자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 후회의 '-ㄹ걸' 앞에 형용사도 올 수 있다. 그리고 (43다)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후회'의 '-ㄹ걸'이 계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쁠걸'이나 '내가 학생일걸'과 문장에서 후회의 '-ㄹ걸'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측'의 '-ㄹ걸'과 '후회/아쉬움'의 '-ㄹ걸'을 구별할 때 부정문의 제약, 선어말어미의 제약, 그리고 존대를 뜻하는 보조사 '요'와 결합 가능성도 많이 언급되었다. 먼저 의미에 따른 '-ㄹ걸'의 부정 형식부터 검토하겠다.

(44) 가. 아마 한 선생이 가만 안 있을걸?
나. 당신도 결국엔 날 입양하지 않을걸?
다. 이젠 새벽에 못 일어날걸.
라. 그러니 자네나 난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도지 도련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할걸.
마. *이젠 새벽에 일어나지 말걸.

(45) 가. 거긴 괜히 갔어. {?안 갈걸, *가지 않을걸}.
나. 거긴 괜히 갔어. {*못 갈걸, *가지 못할걸}.

(이상 최동주 2009: 239-240)

다. 술은 많이 먹지 말걸.

(44)와 (45)에서 볼 수 있듯이 '-ㄹ걸'은 '추측'의 의미일 때 '안' 부정과 '못' 부정은 모두 가능하나 '후회/아쉬움'의 의미일 때 '안' 부정이나 '못' 부정은 어색하거나 불가능하다.[26] 반면에 '-ㄹ걸'은 '추측'의 의미일 때 '말다' 부정이 불가능하나 '후회/아쉬움'의 의미일 때는 '말다' 부정이 가장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ㄹ걸'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와 보조사 '요'와의 결합 가능성을 확인해 보자. (46)은 '-ㄹ걸' 앞에 선어말어미 '-었-'이 오는 예들이고, (47)은 '-ㄹ걸' 앞에 선어말어미 '-시-'가 오는 예들이다. '-더-'나 '-겠-'을 비롯한 선어말어미는 관형사형 어미인 '-ㄹ'과 공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하지 않겠다. 또한 (48)은 '-ㄹ걸' 뒤에 '요'가 결합한 예이다.

(46) 가. 벌써 한 10년 됐을걸. (추측)
나. *아까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라도 좀 얻어왔을걸. (후회)

---

26) 최동주(2009: 24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회'의 '-ㄹ걸'이 '안' 부정문에 쓰일 때 단행 부정문은 어색하지만 완전히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민(2012: 25)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받아드리고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도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 예는 이민(2012: 25)에서 제시한 예이다.

예: 가. 동주: 안 태워줄걸. 사정사정해서 태워줬더니...
나. 준하: 이선생이 유선이 아픈거 몰랐던 모양이더군요.
유진: !
준하: 미안해요. 말 안할걸 그랬나요?
유진: 아니예요, 괜찮아요. (이상 이민 2012: 25)

(47) 가. 그 양반 장애가 심해서 벌떡 일어나진 못하실걸. (추측)
나. *아까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라도 좀 얻어오실걸. (후회)
(48) 가. 아마 고생 엄청 해야 {할걸, 할걸요}. (추측)
나. 아까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라도 좀 {얻어올걸, *얻어올걸요}. (후회)

(46)과 (47)에서 볼 수 있듯이 '-ㄹ걸'의 의미는 '추측'일 때 '-ㄹ걸' 앞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나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할 수 있으나 '후회/아쉬움'일 때는 그렇지 않다. '-ㄹ걸'은 '후회/아쉬움'의 의미가 나타날 때 주로 화자가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기 때문에 존대를 뜻하는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하기 어렵다. 단, 이소영(2022: 15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얘기하다 저녁이나 들고 가실걸'처럼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와도 결합할 수 있다.

한편 (48)을 통해 '-ㄹ걸'은 '추측'의 의미일 때는 뒤에 '요'를 붙일 수 있으나 '후회'의 의미일 때는 뒤에 '요'를 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재연(1998: 80 각주 58)에서 언급하였듯이 '후회'의 '-ㄹ걸'이 쓰이는 문장은 혼잣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의 요소인 '요'와 결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ㄹ걸'을 '-ㄹ 것을'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와 '-ㄹ걸' 뒤에 '그랬다'를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49) 가. 아마 넌 나 대신에 선보느라 정신 {없을걸, *없을 것을}. (추측)
나. 차라리 듣지 {말걸, 말 것을}. (후회)
(50) 가. 아마 넌 나 대신에 선보느라 정신 {없을걸, *없을 걸 그랬어}. (추측)
나. 떠날 때 차라리 울지 {말걸, 말 걸 그랬어}. (후회)

(49)는 '-ㄹ걸'을 '-ㄹ 것을'로 바꾸어 본 예이고, (50)은 '-ㄹ걸' 뒤에 '그랬다'가 붙는 예이다.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ㄹ걸'의 의미가 '추측'일 때 '-ㄹ 것을'로 대치할 수 없으며 그 뒤에 '그랬다'도 복원할 수 없다. 반면에 '-ㄹ걸'은 '후회/아쉬움'일 때 이를 '-ㄹ 것을'로 바꿀 수 있고 뒤에 '그랬다'도 복원할 수 있다. 이는 '후회/아쉬움'

의 의미를 가지는 '-ㄹ걸'의 문법화 정도가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ㄹ걸'보다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1.2.2.2. 의미적 특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는 '-ㄹ걸'은 '추측'과 '후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박재연(2006), 김병건(2015), 오승은(2018가), 권영은(2020가) 등 연구에서 '-ㄹ걸'이 가지고 있는 양태적 의미의 특징도 검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ㄹ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양태적 특징도 같이 살펴볼 것이다.

먼저 '-ㄹ걸'의 '추측'이란 의미를 보겠다. 이민(2012: 16-21), 권영은(2020나: 320-3)에서는 추측의 '-ㄹ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맥적 의미를 제시한 바가 있다. 아래 예를 보자.

(51) 가. 다정: 거기 검색해보니까, 내 취향 아니야. 완전 오글거려.
미모: 네 취향 맞을걸? 너 22살일 때, 완전 유치뽕짝이었거든. 기억 안 나?
나. 정우: 그렇게 신경 쓰이면 어떻게든 비안이 외국으로 보낼게.
나경: 아뇨,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당신 마음속에 더 깊이 박힐걸요.

(52) 가. 보면 뭘 해.. 가슴만 아플걸. (이민 2012: 20)
나. 어차피 지금 가도 늦을걸. (권영은 2020가: 321)

(51)과 (52)는 모두 '추측'의 의미를 가진 '-ㄹ걸'인데, 그중에서 (51)은 '-ㄹ걸'이 '반박'의 의미를 수반하는 예이고, (52)는 '-ㄹ걸'이 '체념'의 의미를 수반하는 예이다. 이민(2012: 18-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측'의 '-ㄹ걸'이 '반박'의 의미로 쓰일 때 '-ㄹ 것 같-'을 비롯한 추측 표현과 대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ㄹ걸'이 수반된 '반박'의 의미는 다른 추측 표현과 구별할 수 있는 변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ㄹ걸'을 인식 양태로 본 선행 연구에서는 '-ㄹ걸'이 주로 '불확실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박재연 2006, 김병건 2015 등). 그러나 '-ㄹ걸'은

화자의 강한 주장도 표현할 수 있다. (53)은 '-ㄹ걸'이 '불확실한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 예이고, (54)는 '-ㄹ걸'이 화자의 강한 주장을 표현하는 예이다.

(53) 가. 실력이 엄청 대단해. 아마, 우리 회사 법조팀 보다 나을걸?
나. 그놈 좀 이상한 놈이에요,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놈인지, 맨날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들 하고 얘기도 잘 안 해요, 연락처 아는 애도 없을걸요..

(54) 가. 뭐가 문제야. 개별 선생부터 필요한 건 다 집으로 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도 형우 못 본 사람 많을걸..
나. 약속했으면 지켜! 더 이상 무슨 소릴 해도 안 먹힐걸! 그만 끊겠어.

(53)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의 '-ㄹ걸'은 화자의 불확실한 추측을 표현하고, 이때 '-ㄹ걸'은 '- 것 같-'으로 대치될 수 있다. 그러나 (54)의 경우, 이때의 '-ㄹ걸'은 '-ㄹ 것 같-'으로 대치하기 어렵고, 확실성이 강한 추측 표현인 '-ㄹ 것이-'와 비슷한 뜻이 나타난다. 이금희(2013: 126-7)에서는 이때의 '-ㄹ걸'은 '의견 강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고 '추측'과 구별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ㄹ걸'의 이런 의미도 '추측'에 속한다고 본다. 이들은 화자가 추측하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확신 정도가 다를 뿐, 새로운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자가 추측하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확신 정도가 높을 때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동반된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5) 가. 도망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걸?!
나. 한아름! 사내 연애 금지인 거 잘 알고 있지? 대표님한테 이 증거 들이대면서 얘기하면, 너 그 자리서 당장 잘릴걸?!
다. 그래요? 근데 어쩌나? 백 서방 지원으로 우리가 드림 변호인단을 총동원하게 됐거든요. 지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각오하셔야 할걸요?

(55가)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55나)는 화자가 한아름에게 사내 연애를 고발하게 되면 잘릴 거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55다)도 마찬가지다. 이때 (55)의 '-ㄹ걸'은 '-ㄹ 거야'로 대치할 수 있고, 화자의 강한 경고를 보여준다.[27)]

나아가 추측 표현은 일반적으로 완화 기능을 가진다.[28] '-ㄹ걸'도 마찬가지다. 아래 (56)을 보자.

(56) 가. 유라: 얼핏 최근에 경찰에 잡혀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당신이 사건 때문에 필요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고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경수: 담당 사건이 아니면 힘들걸.
나. 신영 ; 그게 이초희 노래란 걸 어떻게 증명하지? 증명만하면 이건 특종인데.
민재: 음성학 연구소 같은데 가서 음파 비교를 해보면 될걸요.

(56가)는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이고, (56나)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때 '-ㄹ걸'은 '-ㄹ 것 같-'과 같이 모두 화자의 거절을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제시할 때 쓰는 완화 표현이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자 하는 것은 '-ㄹ걸'과 '-겠는걸'의 차이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겠는걸'은 '-겠-'으로 인하여 '추측'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금희(2013: 132-5), 김병건(2015: 75-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겠는걸'과 '-ㄹ걸'은 서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아래 예를 보자.

(57) 가. 우리 최윤이가 현 시점에서 제임스 딘처럼 확 디져 버리면...족히 백만원은 {받을걸, 받겠는걸}... 백만원..
나. 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못하는 게 없다, 나중에 애두 낳으면 애두 잘 {볼걸, ?*보겠는걸}? 니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할 거야, 내가.
다. 강철판이 저렇게 착 휘어지다니 정말 {뜨겁겠는걸, *뜨거울걸}.
(이상 이금희 2013: 133-4)

(57가)는 '-ㄹ걸'이 '-겠는걸'로 환언될 수 있는 예이고, (57나)와 (57다)는 각각 '-ㄹ걸'만 가능한 예와 '-겠는걸'만 가능한 예이다. 이금희(2013: 133-4)에 따르면 '-ㄹ걸'

27) (55가)와 (55나)의 '-ㄹ걸'은 '-ㄹ 것 같-'로도 대치할 수 있지만, '-ㄹ 것 같-'로 대치하게 되면 화자의 강한 태도를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서 '-ㄹ 것 같-'보다 '-ㄹ걸'의 의미는 '-ㄹ 거다'와 보다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28) 이민(2012: 19-20)에서 '-ㄹ걸'의 완화 기능을 언급한 바가 있다.

과 ‘-겠는걸’은 서로 바꿀 수 있을 때 ‘-겠는걸’이 사용되는 문장은 화자가 추론을 할 만한 증거를 비롯한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드러난다. 또한 화자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추론 과정을 거쳐도 추론에 대해 화자가 낮은 확신을 가질 때 (57나)처럼 ‘-ㄹ걸’이 가능하지만 ‘-겠는걸’은 어색하다. 반면에 (57다)처럼 화자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 추론한 내용에 대해 확신이 높을 때는 ‘-겠는걸’이 자연스럽고 ‘-ㄹ걸’이 부자연스럽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겠는걸’의 ‘-겠-’은 ‘추측’의 의미 이외에 ‘의도’나 ‘능력’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겠는걸’을 ‘-ㄹ걸’로 바꿀 수 없다.[29] 아래 (5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8) 가. 나는 용우물 집에 {다녀와야겠는걸, *다녀와야할걸}. (의도)
나. 숨이 막혀서 못 {살겠는걸요, *살걸요}. (능력)

다음으로 ‘-ㄹ걸’이 가지고 있는 ‘후회’라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권영은(2008: 2), 최동주(2009: 237-8), 오승은(2018가: 135-7)에서는 ‘-ㄹ걸’은 ‘화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만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59) 가. 복권에 {*당첨될걸/당첨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당첨되었어야 했는데}.
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걸/합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합격했어야 했는데}.
(이상 오승은 2018가: 136 각주 125)

(59)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ㄹ걸’이 쓰이기 어렵다. (59가)의 경우, 복권에 당첨될지 여부는 화자의 의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ㄹ걸’을 쓸 수 없다. (59나)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합격이나 불합격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ㄹ걸’을 쓰면 비문이 된다.

또한 ‘후회/아쉬움’의 의미를 가진 ‘-ㄹ걸’이 어떤 양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29) 이금희(2013: 134-5)에서는 ‘-겠-’이 ‘능력’의 의미일 때 ‘-겠는걸’이 ‘-ㄹ걸’로 환언될 수 없음을 밝힌 바가 있다.

는 이견이 있다. 박재연(2006: 221-2), 권영은(2020가: 176-85), 김연경(2022: 39) 등에서는 이를 사건 양태로 보았으나,[30] 이선웅(2001: 330), 임채훈(2009: 67-8), 김병건(2015: 89-90), 도재학(2019: 194) 등에서는 이를 감정 양태로 보았다. 또한 임동훈(2008: 227 각주 15), 임동훈(2011나: 113), 손혜옥(2016: 237) 등에서는 이를 인식 양태의 일종으로 보았다.

먼저 '-ㄹ걸'을 인식 양태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자. 임동훈(2008: 227 각주 15), 임동훈(2011나: 113)에 따르면 '-ㄹ걸'이 가지고 있는 '후회'의 의미는 '반사실성+가능성'이란 인식 양태에서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손혜옥(2016: 237)에서는 '-ㄹ걸'은 다른 전형적인 인식 양태 표현과 차이가 있지만, 명제의 사실성과 관련이 있기에 인식 양태 표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추측'의 의미를 가진 '-ㄹ걸'은 반사실적 구문에서 쓰일 때 '후회'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후회의 의미를 가진 '-ㄹ걸'과 문법적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 예를 보자.

(60) 가.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걔한테 더 잘해줄걸.
나.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걔한테 더 잘해줬을걸.

(이상 이민 2012: 50)

이민(2012: 51)에서는 (60가)의 '-ㄹ걸'은 '후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60나)의 '-ㄹ걸'은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에 따르면 (60나)의 '-ㄹ걸'은 '후회'의 의미로 발화할 수 없다. (60나)의 주어가 1인칭으로 상정될 때 화자의 '후회'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었을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재씬 줄 알았으면, 다르게 해결했을 거야'와 같은 예문에서 '-었을 거야'도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추측을 통해 '후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 '-었-'이 필요한데, (60가)의 '-ㄹ걸' 뒤에 '-었-'이 올 수 없다.[31] 그리고 앞에서

30) 박재연(2006)에서는 '사건 양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행위 양태'라는 용어를 썼다. 이 논의에서 사용한 '행위 양태'는 의무 양태와 동작 양태가 포함되어 있다. Palmer(2001)에서는 양태를 명제 양태와 사건 양태로 나누었고, 사건 양태에서 의무 양태와 동작 양태를 포함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재연(2006)에서 제시한 '행위 양태'는 Palmer(2001)에서 제시한 '사건 양태'와 같다고 판단된다.

31) 권영은(2020가: 180-1)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60가)의 '-ㄹ걸'은 (60나)의 '-ㄹ걸' 간에 여러 통사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60가)의 '-ㄹ걸'은 꼭 (60나)의 '-ㄹ걸'의 범위 안에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나라도 그렇게 못했을걸'처럼 '-었을걸' 앞에 반사실성을 드러낸 구문이 나타나지 않으면 '-었을걸' 자체로 '후회'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고 '추측'의 의미만 나타난다. 그러나 (60가)의 경우는 '-ㄹ걸' 앞에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이란 절이 없어도 '후회'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후회'의 '-ㄹ걸'은 '추측'의 '-ㄹ걸'과 구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후회'의 '-ㄹ걸'을 '반사실성+가능성'이란 인식 양태로 보지 않는다.

다음으로 '-ㄹ걸'을 '사건 양태'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자. Palmer(2001: 70)에서는 사건 양태를 당위 양태와 동적 양태로 나누었고, 이들은 실현하지 않는 사건이나 일어나지 않았지만 단지 잠재력이 있는 사건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오승은(2018가: 132-8), 권영은(2020가: 176-185), 김연경(2022: 39) 등에서는 '-ㄹ걸'이 '의도'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32] 오승은(2018가: 135-6)에서는 '후회'의 '-ㄹ걸'과 결합한 명제 내용은 화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미실현된 행위 의도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또한 권영은(2020가: 193)에서는 '-ㄹ걸'이 화자가 과거에 가졌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화자가 '-ㄹ걸' 앞에 오는 사태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여서 '-ㄹ걸'이 '후회'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도'는 동적 양태의 일종이다. 박진호(2011가: 311)에서는 '동적 양태'는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원인 중의 하나인 의지가 사태 참여자인 화자에 있어야 하고, 화자의 의지에 따라 사태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ㄹ걸'의 경우, 화자가 과거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통제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화자의 의도에 따라 사태의 발생을 좌우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ㄹ걸'의 의미가 '동적 양

32) 오승은(2018가: 132-7)에서는 후회의 '-ㄹ걸'은 '의도'의 의미에 속한다고 밝힐 뿐, 사건 양태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태'의 기본적인 의미와 맞지 않기 때문에 '-ㄹ걸'을 동적 양태, 혹은 사건 양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ㄹ걸'을 '후회/아쉬움'을 표현하는 감정 양태로 보고자 한다. 박진호(2011가: 311)에서는 '감정 양태'는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여기서 '놀라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등 감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감정 양태를 설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감정 양태'를 인정한다면 '후회'의 '-ㄹ걸'은 '감정 양태'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된다. 또한 박진호(2011가: 312)에서는 양태 의미의 작용역 범위에 따라 양태를 사태 양태와 참여자 양태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 양태 의미의 힘은 사태 전체에 쏠려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양태 의미의 힘은 사태 내부의 특정 참여자에게 쏠려 있다. '동적 양태'와 '감정 양태'는 각각 참여자 양태와 사태 양태에 속한다. 만약 '-ㄹ걸'을 '동적 양태'로 본다면 양태 의미의 힘은 특정 참여자에게 쏠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ㄹ걸' 앞에 오는 주어가 1인칭일 때 이러한 양태 의미는 사태의 특정 참여자인 주어에게 쏠릴 수 있는데, '-ㄹ걸' 앞에 오는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일 때 이러한 양태 의미는 사태의 특정 참여자인 주어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화자가 곧 주어일 때는 '후회'를 표하는 주체가 사태 내부의 특정 참여자와 같은 사람인데, 화자가 주어가 아닐 때는 '후회'를 표하는 주체가 사태 내부의 특정 참여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때 '후회'라는 양태 의미의 힘은 사태 내부의 특정 참여자에 쏠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동적 양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ㄹ걸'은 화자가 과거에 선택할 수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사태에 대해 '후회/아쉬움'이라는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이때 '-ㄹ걸'은 '후회/아쉬움'이라는 감정 양태를 표현하는 종결어미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ㄹ걸'의 '타박'의 의미이다. 이민(2012)에서는 '타박'의 '-ㄹ걸'은 다른 의미의 '-ㄹ걸'과 문법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미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33] 그러나 '타박'의 '-ㄹ걸'은 주로 도치로 문말에

33) 이민(2012: 40)에서는 '타박'의 '-ㄹ걸'은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와 결합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말뭉치에서 '타박'의 '-ㄹ걸'과 형용사가 같이 나타나는 예가 발견된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 가. 니들이 여긴 뭐하러 왔어?! 누나만 오면 충분할걸!
나. (주리는 참 빨리 주방으로 달려갔다. 거기에 비해 난 참 느릿느릿 주방으로 향했다.) 너

쓰이기 때문에 종결어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아래 예를 보자.

(61) 가. 아니.... 왜 이걸 나한테 주시오? 오면 직접 전하면 될걸...
나. 너 왜 그래? 나가서 먹으면 편할걸.

(61가)는 '오면 직접 전하면 될걸 왜 이걸 나한테 주시오?'로 볼 수 있고, (61나)는 '나가서 먹으면 편할 걸 너 왜 그래?'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ㄹ걸'은 문말에 쓰이지만 이는 선·후행절 도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타박'의 의미로 쓰인 '-ㄹ걸'을 도치의 결과물로 보고 종결어미 '-ㄹ걸'의 의미를 검토할 때 따로 검토하지 않겠다.[34)]

4.1.3. '-ㄹ 것'

『표준국어대사전』에서 '-ㄹ 것'의 뜻풀이는 "명령이나 시킴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는 말"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ㄹ 것'은 일종의 명령을 표현하는 구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김태호·김종복(2010: 2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 것' 뒤에 복수 표지 '-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때의 '것'은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과 다르다고 하였다.

왜 그래? 나가서 먹으면 편할걸.

34) 그러나 아래 예문과 같은 일부 예문에서 '-ㄹ걸'절만 나타나고 주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ㄹ걸'이 연결 기능부터 종결 기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때 문맥을 통해 생략된 후행절을 보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연결 기능을 가진 '-ㄹ걸'로 볼 여지가 있다.

예: 가. 어머니: 큰애한테 전화하잖아요!
아버지: 나참 들어오면 물어보면 될걸!
나. 숙경: 이게 뭐예요?
상길: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정말 고맙다 한 마디만 하면 될걸.

(가)는 '나참 들어면 물어보면 될 걸 왜 전화를 해' 정도로 보완될 수 있고, (나)는 '정말 고맙다 한 마디만 하면 될 걸 왜 물어봐' 정도로 보완될 수 있다.

‘-ㄹ 것’의 형성에 대해 양인석(1976: 132)에서는 ‘-ㄹ 것’을 명사화소로 보고 이는 ‘-ㄹ 것을 명령하다/요청하다/부탁하다’ 뒤에 동사 ‘명령하다/요청하다/부탁하다’가 생략되어 이루어진 형태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금자(1987), 고성환(2003) 등에 따르면 ‘-ㄹ 것’ 뒤에 복원된 동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상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문숙영(2015: 5), 이지수(2016: 35-6)에서는 ‘-ㄹ 것’은 탈종속화를 거쳐 형성된다고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고에서도 ‘-ㄹ 것’을 탈종속화의 산물로 본다. 다음으로 ‘-ㄹ 것’을 탈종속화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이유를 검토하겠다.

탈종속화는 “종속절이나 의존적 구성이 주절처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현상(문숙영 2015: 1)”이다. 문숙영(2015)에 따르면 탈종속화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단순한 생략 구성과의 구별 가능성과 해당 절을 독립절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복원할 수 있는 후행 요소가 제한되면 해당 절은 단순한 생략 구성과 구별할 수 있고, 해당 절이 종속절에 쓰일 때와 주절에 쓰일 때 통사나 의미·화용적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면 독립절로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기준을 이용해 ‘-ㄹ 것’의 탈종속화를 살펴보자.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양인석(1976: 132)에서는 ‘-ㄹ 것’을 ‘-ㄹ 것을 명령하다/요청하다/부탁하다’가 생략된 형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금자(1987: 79)는 아래 예를 통해 ‘-ㄹ 것’ 뒤에 복원할 수 있는 서술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62) 가. 15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할 것.
나. 15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할 것을 명령한다/요청한다/ 부탁한다.
다. 15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할 것을 바란다.
라. 15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할 것을 강조한다/지적한다.

(이상 박금자 1987: 79)

(62)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 뒤에 복원할 수 있는 서술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ㄹ 것’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면,[35] 고성환(2003: 136)에서 지적한 것처

35) 이지수(2016: 37)에서는 ‘-ㄹ 것’이 일반적으로 메모나 게시판의 공고문을 비롯한 문어에서나 군대 내 방송을 비롯한 구어에서 주로 쓰인다고 하였다.

럼 '-ㄹ 것' 뒤에 서술어가 복원되면 문장이 어색해질 수도 있다.

또한 명령의 뜻으로 쓰이는 '-ㄹ 것'은 '-ㄹ 것을 명령하다/요청하다/부탁하다'에 비해 행위자 인칭이 제한되어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63) 가. 재판부는 {나, 너, 심슨}에게 매달 9천 달러의 이혼수당, 1만5천 달러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나. ({*내, 네, *철수}가) 낼까지 각자 대본 외워 올 것.

(64) 가. {나는, 너는, 이집트왕은} 라다메스에게 이집트 공주인 암네리스와 결혼할 것을 명령한다.
나. 낼까지 각자 대본 외워 올 것.

(63)은 명령의 내용을 수행할 사람, 즉 명령을 받은 대상의 인칭에 대해 제약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이고, (64)는 명령을 내리는 행위자의 인칭에 대해 제약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이다. (63)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을 명령하다/요청하다/부탁하다'일 때 명령을 수행할 행위자는 인칭 제약을 가지지 않으나, 고성환(2003: 139), 이지수(2016: 36)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 것'일 때 명령을 수행할 행위자는 2인칭만 가능하다.[36] 그리고 명령의 대상은 2인칭이지만 2인칭 대명사가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64)에서 제시한 것처럼 후행 서술어가 복원된 경우에는 주어가 인칭 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 '-ㄹ 것'의 경우에는 주어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1인칭 주어만 상정할 수 있다.

또한 '-ㄹ 것을 명령하다/요청하다/부탁하다'는 일종의 간접 명령 화행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진술 화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ㄹ 것'은 명

---

36) 고성환(2003: 145)에서 아래와 같은 예문은 제시하였다.

예: 가. 등산 모임에 참가할 사람은 일요일 아침 8시까지 학교 정문 앞으로 올 것.
나. 수험생들은 9시까지 입실할 것.
다. 김철수는 이번 주 안으로 과사무실에 들를 것.

(이상 고성환 2003: 145)

겉으로 보면 이 문장들의 주어는 3인칭인데, 이러한 주어 명사나 주어 명사구가 지칭하는 사람은 청자(혹은 독자)이기 때문에 3인칭처럼 표현하더라도 실제는 2인칭으로 볼 수 있다.

령의 발화수반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 화행으로만 쓰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ㄹ 것'은 '-ㄹ 것을 명령하다/요청하다/부탁하다'와 구별할 수 있고,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한 생략 형식보다는 탈종속화의 한 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Gerner(2012: 831)에서는 종결어미처럼 쓰인 한국어의 '-ㄹ 것'을 제시하고 이는 일종의 내포되지 않는 명사화라고 하였다.[37] 명사화된 절이 독립적으로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수행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드문 현상이 아니다. '-ㄹ 것'뿐만 아니라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가 쓰이는 문장도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질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5) 가. 이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음.
나. 이곳에서는 차를 세우지 못함.
(이상 고성환 2003: 135)

(66) 가. 일회용품 안 쓰기 (Krawmoh 2018: 152)
나. 하루에 한 가지씩 안 해 본 일 하기.

4.1.3.1. 문법적 특징

'-ㄹ 것'이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그 형태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앞에 올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로 '-ㄹ'만 허용되고 '-ㄴ'이 올 수 없다. 아래 (67)과 (6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7) 가. 퇴사조치 시킬 것.
나. 신경 쓴 티 내지 말 것.

(68) 가. 퇴사조치 {*시키는, *시킨} 것.

37) Yap, Grunow-Hårsta & Wrona(2011: 7-9)에서 제시한 명사화의 분류 중의 하나는 내포되는 명사화(embedded nominalization)와 내포되지 않는 명사화(non-embedded nominalization)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내포되는 명사화는 '절 명사화로 된 절은 주절의 논항으로 되는 것'이고, 내포되지 않는 명사화는 '절 명사화로 된 절이 완전하고 독립적인 발화로 되는 것'이다. 이때 내포되지 않는 명사화로 형성된 문장은 주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한다.

나. 신경 쓴 티 내지 {*마는, *만} 것.

(67)과 (6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수행할 때 '것'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ㄹ'만 올 수 있고, '-ㄴ'이 오지 못한다. 윤이운(2019: 6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ㄹ 것'을 '-ㄴ 것'으로 바꾸면 명령의 의미가 없어질 뿐 아니라 문장이 종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68)의 예를 문장으로 보기가 어렵다.

김태호·김종복(2010: 27), 고성환(2012: 90)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작 동사만 명령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 '-ㄹ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다음으로 '-ㄹ 것' 앞에 올 수 있는 서술어의 종류를 살펴보겠다.

(69) 가. 낼까지 각자 대본 외워 올 것.
나. 파트너는 예쁠 것. (안효경 2001: 98)
다.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일 것. (고성환 2003: 139)

(69가)~(69다)는 각각 '-ㄹ 것' 앞에 동사, 형용사, 계사가 오는 예이다. (7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ㄹ 것' 앞에 선행하는 서술어에 있어 제약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안효경(2001) 등에서는 이때 (69가)의 '-ㄹ 것'만 명령의 뜻을 표현하고, (69나)와 (69다)의 '-ㄹ 것'은 명령의 뜻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69나)와 (69다)는 전형적인 명령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간접 화행의 측면에서 이들이 명령 화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령'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4.1.3.2.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ㄹ 것'의 시제와 양태 제약을 살펴보겠다. 박금자(1987: 73-4), 이지수(2016: 105)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시제 표지나 양태 표지와 결합할 수 없다. '-ㄹ 것'도 일종의 명령 발화수반력을 가진 구성이기에 이와 같은 제약을 가진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0) 가. *퇴사조치 시켰을 것.

나. *퇴사조치 시킬 것일 것.

(71) 가. *퇴사조치 시키겠을 것.

나. *퇴사조치 시키덜 것.

(70)과 (71)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은 과거나 미래를 뜻하는 표현과 결합할 수 없고, '-겠-'이나 '-더-'와 같은 양태 선어말어미와도 결합할 수 없다. 이지수(2016: 105)에서는 의미적 측면에서 명령문이 '미래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성'을 가진 '-ㄹ 것'은 과거의 의미를 가진 '-었-'과 충돌되고 미래의 의미를 가진 '-ㄹ 것이-'와 중복되기에 이들과 결합할 수 없다. 또한 명령의 내용은 화자가 추측한 것이나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 선어말어미와 결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때 '-ㄹ 것' 앞에 '-겠-'이나 '-더-'도 올 수 있다.

4.1.3.2. 의미적 특징

'-ㄹ 것'은 동사 뒤에 올 때 일종의 명령을 표현하는 문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 것' 앞에 형용사나 계사가 올 때도 있다. 그럼 동사에 후행하는 '-ㄹ 것'과 형용사나 계사에 후행하는 '-ㄹ 것'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안효경(2001: 98)에 따르면 서술어가 동사일 때 '-ㄹ 것'은 명령을 표현하고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 당위"를 표현한다. 또한 고성환(2003: 139)에서는 '-ㄹ 것'이 형용사나 계사와 결합하면 이는 조건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고 명령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위 표현은 명령의 간접 화행으로 실현될 수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명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 예를 보자.

(72) 사장을 대하는 국의 태도는 반항적이지 말 것.

<u>반듯하고 고요할 것.</u>

박사장도 흥분하지 말 것.

그저 차갑고 낮은 어조로 강국을 다그칠 것.

(72)는 드라마 <아일랜드>03의 대본으로, 대사가 아닌 지문들이다. 즉 배우들에 대한 일종의 요구로 볼 수 있다. 특히 '반듯하고 고요할 것'에서의 '고요하다'는 일반적으로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형용사와 다른데도 '-ㄹ 것'이 쓰일 수 있다.[38] 이때 이 문장은 배우에게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라는 요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상대방에게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문장들은 전형적인 명령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ㄹ 것'의 사용 환경, 즉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나 계사가 쓰이는 문장도 요구나 조건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로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명령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ㄹ 것' 앞에 동사가 오든 형용사나 계사가 오든 모두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ㄹ 것'에 동사가 선행할 때는 '명령'의 의미가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형용사나 계사가 선행할 때는 당위를 표현하거나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뜻을 표현한다. 후자는 전형적인 명령문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명령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명령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2. 연결어미 상당의 '것' 구성

'것'이 포함된 구성 중에는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선행 연구는 종결어미 '것' 구성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이현희(2012), 이지영(2017), 정혜선(2017)에서는 통시적인 자료를 통해 '-ㄴ/ㄹ 것을'이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은(2021)에서는 내핵관계절로부터 의미·기능이 부사절로 확장된 '-ㄴ 것이'와 '-ㄴ 것을'을 검토하였고, 이준희(2021)에서는 연결어미 기능을 가진 '-다는 것이'와 '-다는 것을'을 살펴보았다.[39]

---

38) 김선영(2011), 고성환(2012) 등에서는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형용사를 제시하였고, 이들을 범주화하면 이 술어들은 "행위의 주체가 제어·통제할 수 있는 상황 술어(이지수 2016: 116)"라고 할 수 있다. '조용하다, 행복하다'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39) 최종원(2022: 162, 168-171)에서도 '-다는 것이'와 '-다는 것을'의 의미와 기능을 언급한 바가 있다. 단 최종원(2022)에서는 이들은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구문적 속어로 보고 있다.

먼저 아래 <표 11>을 통해 이지은(2021: 72)에서 제시한 절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ㄴ 것이'와 '-ㄴ 것을'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표 11> 이지은(2021: 72)에서 제시한 '-ㄴ 것이'와 '-ㄴ 것을'로 표시된 부사절 구성에서 관찰되는 절 연결 의미[40]

절 연결 의미			형태 표지	예문
이유	증거성(직접 지식)과 관련된 이유	내성	-은 것이	시간이 갈수록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는 것이 감기가 걸려도 단단히 걸린 듯. (구글 검색)
		지각	-은 것이	이제 벼가 노랗게 익은 것이 완연한 가을이네요. (구글 검색)
	증거성(직접 지식)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		-은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공범과 주범 모두 사실은 연령대가 많지 않단 말씀입니다. (이삼형 외, 구어)
			-은 것을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것을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삼형 외, 구어)
양보			-은 것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동한다는 것이 그만 그렇게 되어 버렸구나. (이삼형 외, 문어)
			-은 것을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삼형 외, 구어)
상세화			-은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영화는 토털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삼형 외, 구어)

이지은(2021)에서는 먼저 '-은 것이'와 '-은 것을'의 연결 의미를 '이유', '양보', '상세화' 세 가지로 나누었고, '이유'에서는 또다시 증거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었다. 또한 증거의 출처에 따라 '내성'과 '지각'이 또 구분되었다. <표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증거성과 관련된 이유'와 '상세화'를 표현할 때

40) <표 11>은 이지은(2021: 72)에서 제시한 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ㄴ 것이’만 가능하다. 그러나 ‘증거성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의 경우 ‘-은 것이’의 예문은 ‘이유’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저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은 ‘공범과 주범 모두 사실은 연령대가 많지 않단 말씀이다’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혜영(200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행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양보’의 경우에 ‘-은 것이’의 예문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다는 것이’의 예이고, 이지은(2021: 75-6)에서 제시한 ‘-은 것이’의 다른 예도 마찬가지이다. 이준희(2021: 159)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는 것이’는 ‘-ㄴ 것이’로 바꿀 수 없다. 이 때문에 ‘-다는 것이’와 ‘-ㄴ 것이’를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은 것을’이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은경(2000: 247), 윤평현(2005: 146), 이순욱(2017: 11) 등에서는 ‘양보’가 ‘기대 부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선행절의 내용을 통해 어떤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데, 후행절의 내용은 이 예상된 결과와 반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라는 예문의 경우, ‘-ㄴ 것을’을 ‘양보’의 의미로 파악하면 후행절은 ‘중앙지검장이 상세하게 답을 많이 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예문에서 이와 반대된 의미, 즉 ‘아무 말을 할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이 나왔다. 즉 후행절의 내용은 기대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ㄴ 것을’은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앞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결어미처럼 쓰인 ‘-ㄴ 것이’와 ‘-ㄴ 것을’은 의미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다는 것이’와 ‘-다는 것을’은 ‘-ㄴ 것이’나 ‘-ㄴ 것을’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분해야 할 것이다.[41] 따라서 이 구성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연결어미처럼 쓰인 ‘-ㄴ 것이’, ‘-ㄴ/ㄹ 것을’, 그리고 ‘-다는 것이/것을’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1) ‘-다는 것이’와 ‘-다는 것을’을 ‘-ㄴ 것이’나 ‘-ㄴ 것을’로 대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이준희(2021: 159)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4.2.1. ‘-ㄴ 것이’

전혜영(2005)에서는 ‘-ㄴ 것이’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화자의 심리나 태도를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최윤지(2017)에서는 이러한 ‘-ㄴ 것이’가 포함된 문장들을 분열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이 항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지은(2021)에서는 ‘-ㄴ 것이’가 ‘이유’, ‘상세화’ 등 여러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지은(2021)에서 같은 의미의 ‘-ㄴ 것이’로 제시한 예문 중에는 상이한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지은(2021)에서 제시한 예문들을 다시 살펴보자.[42)]

(73) 가. 기침이 나오려는 것이 감기가 오려나 보다. (내성)
나. 이제 벼가 노랗게 익은 것이 완연한 가을이네요. (시각)
(이상 이지은 2021: 73)

(74) 가. 인명을 가볍게 보는 것이 초개만도 못하다.
나.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공범과 주범 모두 사실은 연령대가 많지 않단 말씀입니다.
(이상 이지은 2021: 74)

(75) 가. 지금 상황은 너무나 그게 커버린 게 일단 계약만 놓고도 이중계약이 문제가 돼서 협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자메시지나 사진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서 너무 심한 타격을 받았어요.
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영화는 토털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이지은 2021: 77)

이지은(2021)에 따르면 (73)과 (74)에서 ‘-ㄴ 것이’로 연결된 선행절 내용은 후행절 내용의 이유가 되고, 차이는 이 이유가 증거성(직접 지식)과 관련되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 절 연결 의미에 있어 (73)은 ‘증거성(직접 지식)과 관련된 이유’이고 (74)는 ‘증거

42) 본고에서는 ‘-ㄴ 것이’와 ‘-다는 것이’를 같은 항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지은(2021)에서 제시한 ‘-다는 것이’의 예문을 일단 제외한다. ‘-다는 것이’에 대한 논의는 후술할 것이다.

성(직접 지식)과 관련되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75)는 '-ㄴ 것이'가 '상세화(elaboration)'라는 의미를 가진 예들이다.

본고에서는 (73)에서의 '-ㄴ 것이'를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보고, (74)나 (75)의 '-ㄴ 것이'는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보지 않는다. (74가)의 경우 여기서 '-ㄴ 것이'가 이끄는 절은 후행 서술어인 '못하다'의 논항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ㄴ 것이'는 절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3.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4나)와 (75)는 분열문이나 준분열문에 속하기에 이때의 '것'은 분열문 구성의 '것'이므로 여기에 쓰이는 '-ㄴ 것이'를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43]

그러나 (73)에서의 '-ㄴ 것이'를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최종원(2018), 이지은(2021)에서는 '-ㄴ 것이'가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언급한 바가 있으나, 문숙영(2017: 50)에서는 (73)과 비슷한 예문을 제시하여 이때의 '것'은 보절 명사라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76) 동쪽 하늘이 붉은 것이 또 산불 났나 봐. (문숙영 2017: 50)

문숙영(2017: 50)에서는 문맥에 따라 (76)의 '것'은 지시사 '그'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고, '-들'을 통해 복수화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76)의 '것'이 다른 성분과 결합할 수 있고 어휘적인 성격이 남아 있으므로 이때의 '-ㄴ 것이'는 아직 완전히 굳어진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ㄴ 것이'의 '것'이 '그것'이나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하나의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것'과 결합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것' 앞에 선행할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는 '-ㄴ'뿐이고, '것' 뒤에 후행할 수 있는 조사는 주격 조사 '이'뿐이다.

(77) 가. 갑자기 짜증이 확 일면서 머리카락이 삐죽 {서는, *설} 것이 일할 투지가 나네.

43) 자세한 내용은 3.4.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나. 자꾸 {웃는, *웃을} 것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78) 가. 갑자기 짜증이 확 일면서 머리카락이 삐죽 서는 것{이, *을, *에, *으로} 일할 투지가 나네.

나. 자꾸 웃는 것{이, *을, *에, *으로}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둘째, '-ㄴ 것이'가 쓰이는 절은 후행하는 서술어의 논항이 될 수 없다. 예컨대 (77가)에서 '머리카락이 삐죽 서는 것'은 '나다'의 주어가 될 수 없고, (77나)에서 '자꾸 웃는 것'도 '채다'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것' 절은 후행하는 서술어의 필수 성분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두 절 간의 관계는 내포 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이다.

셋째, 후술하겠지만 '-ㄴ 것이'로 연결된 선·후행절은 특정적인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것' 명사 보절이 나타낼 수 없는 의미라 '것' 명사 보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문맥이 주어지면 '-ㄴ 것이'의 '것'은 지시사 '그'나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있지만, 실제 용례에서는 '그것'이나 '것들'로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ㄴ 것이'를 하나의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보고, 그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2.1.1. 문법적 특징

먼저 '-ㄴ 것이'의 선행 요소를 살펴보겠다. (79)는 '-ㄴ 것이'와 결합할 수 있는 서술어를 보이는 예이고, (80)은 '-ㄴ 것이'와 결합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를 보이는 예이다.

(79) 가. 갑자기 짜증이 확 일면서 머리카락이 삐죽 서는 게 일할 투지가 나네.

나. 하늘이 잔뜩 흐린 것이 비가 많이 올 듯해요.

다. 말 따로 마음 따로인 게, 꼭 작은애를 보는 거 같아.

(80) 가. 으실으실 춥고 식은땀도 나는 게 아무래도 감기가 세게 걸린 것 같은데

나. 자꾸 {웃던, 웃었던} 것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다. *자꾸 웃겠는 것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79)에서 볼 수 있듯이 '-ㄴ 것이' 앞에는 동사, 형용사, 계사가 모두 선행할 수 있고, 서술어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8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ㄴ 것이' 앞에 선어말어미 '-느-'나 '-더-'는 올 수 있지만 '-겠-'은 쓰일 수 없다.

다음으로 '-ㄴ 것이'의 후행절의 시제와 문장 유형을 살펴보겠다. 아래 예를 보자.

(81) 가. 말하는 게 이제 장사꾼 다 됐네.
나. 갑자기 짜증이 확 일면서 머리카락이 삐죽 서는 게 일할 투지가 나네.
다.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은 게 완전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라. 멀리 세트장 안에서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았어요. (이지은 2021: 73)

(82) 가. 자꾸 웃는 게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나. *자꾸 웃는 게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81)에서 볼 수 있듯이 후행절에는 과거 사건, 현재 사건, 그리고 미래 사건에 대해 추측하거나 판단할 수 있지만, 추측이나 판단의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발화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81라)처럼 과거에 한 추측이나 판단도 가능하다. 또한 문장 유형에 있어 (82)에서 제시한 것처럼 '-ㄴ 것이'의 후행절은 평서문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의문문이 허용되지 않는다.[44] 그리고 '-ㄴ 것 같다'를 비롯한 추측 표현들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일 수 없으므로 '-ㄴ 것이'의 후행절도 명령문과 청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45]

44) 단, '자꾸 웃는 게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지 않아요?'처럼 확인의 의미로 쓰이는 확인의문문은 가능하다.
45) 박재연(2006: 5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령'이나 '청유' 등의 의미 영역 자체가 양태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으므로 명령문이나 청유문 등에 별도의 양태적 의미를 부착하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4.2.1.2. 의미적 특징

이지은(2021)에서는 '-ㄴ 것이'가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증거성(직접 지식)'과 관련된 이유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83) 가. 하늘이 잔뜩 흐린 것이 비가 많이 올 듯해요.
나. 말하는 게 이제 장사꾼 다 됐네.
다. 배가 뒤틀리듯이 아픈 것이, 집에 가 며칠 쉬어야겠네.

(83)에서 볼 수 있듯이 '-ㄴ 것이' 앞에 선행하는 내용은 화자가 지각을 통해 얻은 정보나 자신의 느낌을 통해 얻은 정보이다. (83가)는 '하늘이 잔뜩 흐린 것을 보고서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의미이고, (83나)는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제 장사꾼이 다 됐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의미이다. 그리고 (83다)는 '배가 뒤틀리듯이 아픈 것을 느껴서 집에 가 며칠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최종원(2018: 127-9)에서는 이때 '-ㄴ 것이'가 포함된 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는 '어떤 추측이나 판단의 근거-추측/판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ㄴ 것이'의 선행절은 화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내용을 표현하고, 후행절은 화자가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추측하거나 판단하는 내용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ㄴ 것이'의 후행절은 화자의 추측이나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ㄴ 것이'가 '추측'을 의미하는 우언적 구성이나 '새로 앎'의 의미를 가진 종결어미 '-네'와 자주 사용된다. 아래 (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4) 가. 자꾸 웃는 게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나. 이제 그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간 게 그 금액이 한 삼백만 원정도 됐나 봐요.
다. 갑자기 짜증이 확 일면서 머리카락이 삐죽 서는 게 일할 투지가 나네.

요컨대 '-ㄴ 것이'의 선·후행절은 각각 '추측이나 판단의 근거'와 '추측이나 판단'을 표현하고, '추측이나 판단의 근거'는 화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이다.

4.2.2. '-ㄴ/ㄹ 것을'

이현희(2012: 88-9)에서는 개화기 시기의 자료인 낙선재본 번역소설 <홍루몽>을 검토하여 이 시기에 '-ㄹ 것을'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쓰이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홍루몽> 이전 시기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지영(2017: 28-35)에서는 접속 구성으로 볼 수 있는 '-ㄴ 것을'과 '-ㄹ 것을'이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자료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85) 가. 돗근 세 닐 살 거슬 두 닙 사 와시니 <순천 190>
나. 보고 와셔 엇디홀고 근심ᄒᆞ는 거슬 ᄯᅩ 소니 그러면 비록 듕티 아니ᄒᆞ다 올흘가 <순천 190>
다. 뵈 ᄠᆞᆯ 것도 보내던ᄃᆞᆯ 아ᄆᆞ려나 ᄲᅳ일 거슬 다ᄆᆞᆫ 더듸여만뎡 요ᄒᆞ란 그리 호마 <순천 147>

(이상 이지영 2017: 29)

(86) 가. 다만 이삼일만 견ᄃᆡ면 될 거슬 엇지 굿ᄐᆞ여 우민ᄒᆞ리오.(홍루몽 4:30)
나. 사ᄅᆞᆷ이 겨유 안져셔 더워 오ᄂᆞᆫ 거슬 네가 믄득 와셔 요란을 ᄲᅵᄂᆞᆫ도다. (人家纔坐暖和了, 你就來鬧) (홍루몽 51: 37)

(이상 이현희 2012: 88)

(85)는 16세기의 예이고 (86)은 개화기의 예이다. 이지영(2017: 29)에서는 (85가)는 "돗자리는 세 개를 샀어야 하는데, 두 개를 사왔으니"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85나)와 (85다)의 '-ㄴ/ㄹ 것을'도 마찬가지로 접속 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현희(2012: 88)에 따르면 (86)에서 '다만 이삼일만 견ᄃᆡ면 될 거슬'과 '사ᄅᆞᆷ이 겨유 안져셔 더워 오ᄂᆞᆫ 거슬'은 각각 '다만 이삼일만 견ᄃᆡ면 될 터{인ᄃᆡ, 이로ᄃᆡ}' 및 '사ᄅᆞᆷ이 겨유 안져셔 오ᄂᆞᆫ 것{인ᄃᆡ, 이로ᄃᆡ}'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현희(2012: 8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용법은 현대 한국어에도 남아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7) 가.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지은 2021: 72)
나.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을,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왔다.
다.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을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87)에서 볼 수 있듯이 '것'이 포함된 구성을 목적어로 취하는 후행 서술어를 찾기 어렵다. (87가)는 '지금 수사가 시초인 것인데' 정도로 해석될 수 있고, (87나)는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87다)는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인데/텐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ㄴ/ㄹ 것을'은 연결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ㄴ 것을'과 '-ㄹ 것을'은 모두 '-ㄴ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ㄴ 것을'은 '-ㄹ 것을'처럼 '대립 관계'를 표시하는 기능 외에 '배경 설명'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ㄴ 것을'을 검토할 때 이의 의미를 '배경 설명'의 '-ㄴ 것을'과 '대립'의 '-ㄴ 것을'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편의를 위해 전자는 '-ㄴ 것을1'로 표시하고, 후자는 '-ㄴ 것을2'로 표시한다.

또한 (88)과 같은 경우에 '-ㄴ/ㄹ 것' 뒤에 올 수 있는 조사는 '을'밖에 없고 '것'의 앞뒤에도 다른 요소가 삽입되지 못한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8) 가.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을, *이, *에, *으로}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지은 2021: 72, '이, 에, 으로'는 필자 추가)
나.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을, *이, *에, *으로},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왔다.
다.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을, *이, *에, *으로}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89) 가.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 *그것}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지은 2021: 72, '그것'은 필자 추가)
나.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 *그것}을,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왔다.
다.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 *그것}을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90) 가.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 *것들}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지은 2021: 72, '것들'은 필자 추가)
나.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 *것들}을,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왔다.
다.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 *것들}을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88)에서 볼 수 있듯이 '-ㄴ/ㄹ 것을'의 '을'은 주격 조사 '이'나 부사격 조사 '에' 혹은 '으로'로 대치할 수 없다. 그리고 '-ㄴ/ㄹ 것을'이 포함된 절은 후행하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볼 수 없다. 또한 (89)와 (9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ㄴ/ㄹ 것'의 '것' 앞에 지시사 '그'가 오지 못하고, 복수 표지 '-들'을 통해 '것'을 복수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ㄴ/ㄹ 것을'은 이미 분리되지 못하고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쓰인다.

이 항에서는 이러한 연결 기능을 가진 '-ㄴ/ㄹ 것을'의 여러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2.2.1. 문법적 특징

먼저 '-ㄴ/ㄹ 것을'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를 살펴보겠다. (91)과 (92)는 '-ㄴ 것을1'과 '-ㄴ 것을2'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의 종류를 확인하는 예이고, (93)은 '-ㄹ 것을'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의 종류를 확인하는 예이다.

(91) 가. 쥬빠오런의 말은 북경어인데 그들 한족끼리도 지역을 약간만 달리해도 의사소통이 안 <u>되는 것을</u>, 내가 겨우 배운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거리에 당장 나가더라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 하물며, 여랑을 떠올리는 순간은 배가 고픈 것도, 졸린 것도 느끼지 못할 <u>지경이었던 것을</u>, 다른 여인의 무언가를 떠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92) 가. 그렇게 돌아서면 <u>되는 것을</u>,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왔다.
나. 전에는 일개 컴파운드에 무려 오륙천 명씩 <u>수용하던 것을</u>, 포로들의 조직적인 집단 행동들을 막기 위해, 사오백 단위로 토막을 쳐서 하나를 열 개로 나누어

수용한 것이다.

(93)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을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91)과 (92)에서 볼 수 있듯이 '-ㄴ 것을' 앞에 선어말어미 '-느-'나 '-더-'가 올 수 있다. 그리고 (93)을 통해 '-ㄹ 것을' 앞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ㄴ/ㄹ 것을'에 선행하는 서술어를 살펴볼 것이다.

(94) 가. 쥬빠오런의 말은 북경어인데 그들 한족끼리도 지역을 약간만 달리해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을, 내가 겨우 배운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거리에 당장 나가더라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것을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지은 2021: 74)

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차피 팍팍한 세상사인 것을, 그렇게 웃어 가며 살아 넘기면 얼마나 숨 쉴 만하랴 싶었다.

(95) 가. 이쯤에서 물러 나와야 하는 것을, 인빈은 끓어오르는 울화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뱉고 말았다.

나. 그런 간단한 움직임만으로 충분한 것을, 왜, 나는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좇아간 것일까.

다. 이리도 간단한 수술인 것을, 하마터면 국상을 치를 뻔했구먼.

(96) 가. 사람의 신체미가 주인이 되고 의복미가 객이 되어야 할 것을 반대로 의복미가 주인이 되고 신체미가 객이 되면 조화를 잃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용모가 덜 보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며 심하면 구역이 날 만치 꼴궂게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나. 그나마 선산 아래로 죽 늘어선 야산 임야나 절대녹지에서 풀리면 좋을 것을 웬일인지 선생은 풀리지 않지 뭡니까.

다. 차가 밀리는지 지하철을 타면 금방일 것을 1시간이나 걸려 집에 도착했다.

(94)는 ‘배경’의 의미를 가진 ‘-ㄴ 것을1’의 예이고, (95)는 ‘대립’의 의미를 가진 ‘-ㄴ 것을2’의 예이다. 그리고 (96)은 ‘-ㄹ 것을’의 예이다. (94)~(9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ㄴ/ㄹ 것을’은 서술어에 제약이 없다.

다음으로는 ‘-ㄴ/ㄹ 것을’의 후행절의 시제를 살펴보겠다. (97)과 (98)은 각각 ‘-ㄴ 것을1’과 ‘-ㄴ 것을2’의 예이고, (99)는 ‘-ㄹ 것을’의 예이다.

(97) 가. 하물며, 여랑을 떠올리는 순간은 배가 고픈 것도, 졸린 것도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을, 다른 여인의 무언가를 떠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 ?하물며, 여랑을 떠올리는 순간은 배가 고픈 것도, 졸린 것도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을, 다른 여인의 무언가를 떠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다.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것을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지은 2021: 74)

(98) 가.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을,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왔다.
나.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을,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온다.
다.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을,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올 것이다.

(99) 가. 지하철을 타면 금방일 것을 1시간이나 걸려 집에 도착했다.
나. 지하철을 타면 금방일 것을 1시간이나 걸려 집에 도착한다.
다. 지하철을 타면 금방일 것을 1시간이나 걸려 집에 도착할 것이다.

(97)을 통해 ‘배경’의 의미를 가진 ‘-ㄴ 것이1’의 후행절에 과거나 미래의 사건은 올 수 있으나 현재 사건이 올 때는 다소 어색하다.[46] 반면에 (98)~(99)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대립’의 의미를 가진 ‘-ㄴ/ㄹ 것을’의 후행절에는 과거 사건뿐 아니라 현재 사건이나 미래의 사건이 모두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ㄴ/ㄹ 것을’ 뒤에 쓰일 수 있는 문장 유형을 확인해 보겠다.

46) 말뭉치에서 ‘배경 설명’의 ‘-ㄴ 것을1’이 쓰이는 평서문의 후행절에는 현재 사건이 오는 예가 확인되지 못한다. 이는 말뭉치의 한계일 수도 있으므로 더 엄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100) 가. 하물며, 여랑을 떠올리는 순간은 배가 고픈 것도, 졸린 것도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을, 다른 여인의 무언가를 떠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 *하물며, 여랑을 떠올리는 순간은 배가 고픈 것도, 졸린 것도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을, 다른 여인의 무언가를 떠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가?

(101) 가.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을,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왔다.

나.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을,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왔어?

(102) 가.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을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나.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을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어?

(100)에서 제시하였듯이 '-ㄴ 것을1' 뒤에 평서문은 올 수 있으나 의문문은 오지 않는다.[47] 반면에 (101)과 (102)를 통해 볼 수 있듯이 '-ㄴ 것을2'와 '-ㄹ 것을'의 후행절로 평서문과 의문문이 모두 올 수 있다. 그러나 '-ㄴ 것을'이나 '-ㄹ 것을'의 후행절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오지 못한다.

4.2.2.2. 의미적 특징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지은(2021)에서는 '-ㄴ 것을'이 '이유'와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목에서는 '-ㄴ/ㄹ 것을'의 의미적 특징을 다시 살펴보겠다.

아래 예를 통해 '-ㄴ/ㄹ 것을'은 연결어미 '-은데'의 기능과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103)과 (104)는 각각 '-ㄴ 것을1'과 '-ㄴ 것을2'의 예이고, (105)는 '-ㄹ 것을'의

47) '배경 설명'의 '-ㄴ 것을1'은 수사의문문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수사의문문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단언 화행에 가깝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 작년에 농장 소개장을 갖고 약정처로 와서는 약을 도매가격에 좀 사 가게 도와달라고 하는 걸, 제가 무슨 수로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이다.

(103) 가. 쥬빠오런의 말은 북경어인데 그들 한족끼리도 지역을 약간만 달리해도 의사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되는데}, 내가 겨우 배운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거리에 당장 나가더라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것을, 많은데}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지은 2021: 74, '-은데'는 필자 추가)

(104) 가.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을, 되는데}, 은수는 멀리 헤매다 힘겹게 돌아왔다.

나. "너한테."{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얼른 그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5) 가. 사람의 신체미가 주인이 되고 의복미가 객이 {되어야 할 것을, 되어야 할 것인데} 반대로 의복미가 주인이 되고 신체미가 객이 되면 조화를 잃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용모가 덜 보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며 심하면 구역이 날 만치 꼴궂게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나. 돌아올 때는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을, 했을 것인데}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103)~(10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기서 '-ㄴ/ㄹ 것을'은 '-은데'와 대치할 수 있다. 이은경(2000)에서 '-는데'의 의미가 '배경'으로 기술되어 있다. '-ㄴ/ㄹ 것을'은 '-은데'처럼 앞에 오는 내용이 후행하는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배경이 된다.

'-은데'의 의미를 크게 보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경'이라는 의미는 세분할 수 있다. 박진희(2011)에서는 '-은데'의 의미를 '대조, 배경, 양보'로 보았고, 송대헌(2015)에서는 '-은데'의 의미를 '대립 관계, 배경 설명, 양보 설명, 이유 제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103)~(10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ㄴ 것을'의 의미도 '-은데'와 마찬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103)의 '-ㄴ 것을1'은 '배경 설명'이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104)의 '-ㄴ 것을2'는 '대립 관계'로 해석된다.

반면에 '-ㄹ 것을'의 경우, (105)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는 주로 후행절의 내용이 선행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만 표현할 수 있다. 이는 '-ㄴ 것을2'의 의미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때의 선행절에는 과거 선어말어미 '-었-'이나 당위성 표현 '-어야 하다'

와 같은 표현이 자주 온다.

4.2.3. '-다는 것이/것을'

백봉자(2006: 89)에 따르면 '-다는 것이'는 '-다고 하는 것이'의 준말이고, 주로 "주어의 의지와는 달리 서술 부분에 일이 잘못 진행되었다"는 의미가 나타난다. 최근에는 이준희(2021), 최종원(2022: 162)에서도 '-다는 것이/것을'이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이 항에서는 '-다는 것이/것을'의 여러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는 것이/것을'을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살펴보겠다. 이에 대해 이준희(2021: 158-61)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다는 것이/것을'의 경우 '것' 앞에는 '-다는'만 올 수 있고, 조사로는 '이'나 '을' 이외에 다른 것이 올 수 없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6) 가. 2번을 {누른다는 게, 누른다는 것이, *누르는 게, *누른 게} 1번을 눌렀네.
나. 안 {오신다는 걸, 오신다는 것을, *오시는 걸, *오신 걸} 제가 억지로 모시구 왔거든요.

(107) 가. 2번을 {누른다는 것이, *누르느냐는 것이, *누르라는 것이, *누르자는 것이} 1번을 눌렀네.
나. 일찍 {출근한다는 걸, *출근하느냐는 걸, *출근하라는 걸, *출근하자는 걸} 늦잠을 잤다. (이준희 2021: 161)

(108) 가. 2번을 {누른다는 것이, *누르다는 것은, *누른다는 것으로, *누른다는 것에} 1번을 눌렀네.
나. 안 {오신다는 것을, *오신다는 것은, *오신다는 것으로, *오신다는 것에} 제가 억지로 모시구 왔거든요.

(106)과 (107)은 '-다는 것이/것을'의 '것' 앞에 오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예이고, (108)은 '-다는 것이/것을'의 '것' 뒤에 오는 요소를 확인하는 예이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다는 것이/것을’의 ‘-다는’은 ‘-는’이나 ‘-(으)ㄴ’으로 대치할 수도 없고, ‘-냐는, -자는, -라는’으로 대치할 수도 없다.[48] 또한 ‘-다는 것이/것을’의 ‘것’ 뒤에 주격 조사 ‘이’나 목적격 조사 ‘을’만 올 수 있고, ‘(으)로’와 같은 부사격 조사 혹은 ‘은’과 같은 보조사를 붙일 수 없다. 또한 이때 ‘-다는 것이/것을’이 포함된 절은 후행하는 서술어의 논항이 될 수 없고, 특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때 ‘-다는 것이/것을’은 이미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2.3.1. 문법적 특징

먼저 ‘-다는 것이/것을’ 앞에 올 수 있는 서술어 종류와 선어말어미를 살펴보겠다. 이준희(2021: 170-5)에서는 ‘-다는 것이/것을’ 앞에 동사만 올 수 있다고 하였고, 선어말어미 ‘-었-’이 붙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에 따르면 ‘-다는 것이’ 앞에는 선어말어미 ‘-겠-’이 결합할 수 없지만, ‘-다는 것을’ 앞에는 ‘-겠-’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말뭉치에서 발견된 예문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래 예를 보자.

(109) 가. 정류장을 찾아간다는 게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버렸다.
나. *병원 가기 싫다는 게 우겨우겨 가서 주사 맞혔다.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억지로 들어갔거든요.
라. 병원 가기 싫다는 걸 우겨우겨 가서 주사 맞혔다.

(110) 가. 정류장을 찾아간다는 게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버렸다.
나. *정류장을 찾아갔다는 게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버렸다.
다. *정류장을 찾아가겠다는 게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버렸다.
라. 피곤해서 집으로 간다는 걸 내가 억지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
마. *피곤해서 집으로 갔다는 걸 내가 억지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
바. 피곤해서 집으로 가겠다는 걸 내가 억지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

48) 그러나 ‘-자는 걸’이 완전히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부대찌개에 햄 사리 넣자는 걸 소세지 사리를 넣었다’와 같은 경우 ‘-자는 걸’도 허용된다. 후술하겠지만 ‘-다는 것을’이 포함된 문장은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하나는 선행절 주어의 착오로 인해 후행절의 일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선행절 주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고 다른 일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자는 걸’이 허용될 때는 후자의 경우일 뿐이다.

(109)에서 볼 수 있듯이 ‘-다는 것이’의 경우 이준희(2021: 171)에서 지적한 대로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으나 ‘-다는 것을’의 경우 동사뿐 아니라 ‘싫다’와 같은 심리형용사도 올 수 있다. 말뭉치에서 확인한 결과 ‘싫다’ 이외에 보조 형용사 ‘-고 싶다’가 선행하는 용례도 있다. 이들은 모두 주어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술어들이다.

(1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는 것이’와 ‘-다는 것을’은 모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기 어렵고, ‘-다는 것이’는 ‘-겠-’과도 결합할 수 없다. 반면에 ‘-다는 것을’ 앞에 ‘-겠-’이 올 수 있고, 이때의 ‘-겠-’은 주로 ‘의도’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 이준희(2021: 17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는 것이/것을’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공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 앞에 오는 내용이 주어가 의도하는 것이라 이미 발생한 과거 사태에 대해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래 (111)~(113)을 통해 ‘-다는 것이/것을’의 후행절의 시제 제약과 문장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111) 가. 2번을 누른다는 게 1번을 {눌렀다, *누른다, *누를 거야}.
나. 2번을 누른다는 게 1번을 {눌렀어, *눌러}?
다. *2번을 누른다는 게 1번을 눌러라.
라. *2번을 누른다는 게 1번을 누르자.

(112) 가. 오기 싫다는 걸 억지로 {데려온 거야, *데려온다, *데려올 거야}.
나. 오기 싫다는 걸 억지로 {데려온 거야, *데려와}?
다. *오기 싫다는 걸 억지로 데려와라
라. *오기 싫다는 걸 억지로 데려오자.

(113) 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땅을 짚는다는 것이 석영의 손위에 포개진다.
나. 수학 학원을 간다는 걸 영어 학원을 가고 있네. (이준희 2021: 162)

(111)과 (112)를 통해 ‘-다는 것이/것을’의 후행절은 주로 과거 시제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13)과 같이 일부 문장에서 현재 시제도 허용된다. 이때 후행절 서술어는 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난 후에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묘사한다.

한편 (111)과 (112)에서 볼 수 있듯이 ‘-다는 것이/것을’의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또한 의문문의 경우, 후행절 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때 의

문문이 쓰일 수 있으나, 후행절 사건을 앞으로 발생할 것인지 질문할 때는 의문문이 쓰일 수 없다. 다시 말해 '-다는 것이/것을'의 후행절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다.

4.2.3.2. 의미적 특징

이 목에서는 '-다는 것이/것을'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이준희(2021)에서는 '-다는 것이/것을'은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면서 의도한 사태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최종원(2022: 169)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였고, '의도 사태의 비실현'인 '-다는 것이/것을' 구문은 애초에 "의도 사태 - 의도 사태가 비실현된 원인 또는 결과 사태가 실현된 원인 - 의도한 사태 대신 일어난 사태"와 같은 패턴을 가진다고 하였다.

(114) 가. 당황스럽게 얼른 화면을 끈다는 것이 [정지버튼을 눌러] 건이 모습에 화면이 정지된다.
나. 일어나. 브랜타 슬라니 만나러 가야 해. 광고주께서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신대. 저녁에 약속 있다는 걸, [겨우겨우 사정해서] 잡아 왔어.

(114)는 최종원(2022: 169)에서 제시한 패턴에 부합하는 예이다. 이때 '정지버튼을 눌러'나 '겨우겨우 사정해서'와 같은 것은 '의도 사태가 비실현된 원인'을 나타낸다. 이때 선행절에는 주어의 의도가 오고, 후행절에는 주어가 의도한 사건이 아닌 주어의 의도와 어긋나는 사건이 온다.

또한 이준희(2021: 189)에서는 'NP1이 VP1다는 것이/것을 깜박하고/잊고 NP2가 VP2하다' 구문의 중간에 있는 서술어가 관습적으로 빈번하게 생략되어, '깜박하다'와 같은 서술어가 출현하지 않아도 'NP1이 VP1다는 것이/것을 NP2가 VP2하다'만으로 의도된 선행절 사태가 실현되지 못하는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는 것이/것을'이 쓰이는 문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115) 가. 잠깐 누워 있는다는 게 지금이네.
나. 정류장을 찾아간다는 게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116) 가. 작은 아버지 보고 싶다고 따라 온다는 걸 겨우 떼놓고 왔어.
나. 오기 싫다는 걸 억지로 데려온 거야.

(115)는 '-다는 것이'의 예이고 (116)은 '-다는 것을'의 예이다. 먼저 (115)의 예문을 '잠깐 누워 있는다는 게 깜박하고/잊고 지금이네'나 '정류장을 찾아간다는 게 깜박하고/잊고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 벼렸다'로 바꾸면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우선 타동사 '깜박하다'나 '잊다' 앞에는 주격 조사 '이'가 오는 것이 어색하다.[49] 또한 (115)의 예문에서 선행절에 나타나는 화자의 의도를 화자가 잊어야만 후행절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15나)의 경우, 화자가 정류장을 찾아가려는 의도를 잊었다기 보다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의도와 달리 산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NP1이 VP1다는 것이 NP2가 VP2하다'는 'NP1이 VP1다는 것이 깜박하고/잊고 NP2가 VP2하다'에서 온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다는 것을'도 이러한 견해와 이질적인 예가 말뭉치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말뭉치에서 연결어미처럼 쓰인 '-다는 것을'은 (116)처럼 부사 '겨우'나 '억지로'가 함께 출현하는 용례가 많다. 이때 선행절에는 제3자의 의지가 나타나고, 후행절에는 화자가 어떤 노력을 통해 제3자의 의지와 어긋나는 사태가 일어나게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때 '-다는 것을'에 원래 '깜박하다'나 '잊다'와 같은 서술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럴 때 쓰이는 '-다는 것을'은 '너 보러 오시겠다는 걸 가까스로 말리고 나 혼자 왔어'와 같은 예문에서 온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NP1이 VP1다는 것을 말리고 NP2가 VP2하다'에서 '말리다'와 같은 '저지'의 의미가 나타난 서술어가 관습적으로 생략되어, 'NP1이 VP1다는 것을 NP2가 VP2하다'만으로도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다는 것을'이 'NP1이 VP1다는 것을 깜박하고/잊고 NP2가 VP2하다'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다는

49) 이준희(2021: 190 각주 22)에서는 '-다는 것이' 구문은 주로 '그만'과 같은 서술어와 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만'을 서술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때 '그만'의 의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후행절의 사건이 주어가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할 뿐이다. 따라서 '-다는 것이' 구문이 '-다는 것이 그만'과 같은 구문에서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것을’ 구문의 후행절에는 항상 선행절 주어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온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는 것이/것을’이 어떤 구문에서 온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준희(20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는 것이/것을’은 ‘의도한 사건-의도와 어긋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4.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ㄴ/ㄹ 것을’도 이러한 대립적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ㄴ/ㄹ 것을’과 ‘-다는 것이/것을’은 서로 환언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다. 먼저 아래 예를 보자.

(117) 가. 정류장을 {찾아간다는 게, *찾아가는 걸, *찾아갈 걸, ?찾아간다는 걸}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 2번을 {누른다는 게, *누르는 게, 누를 걸, 누른다는 걸} 1번을 눌렀다.

(118) 가. 피곤해서 집으로 {간다는 걸. *가는 걸, *갈 걸, *간다는 게} 내가 억지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
나. 국에 설탕을 {넣는다는 걸, *넣는 걸, 넣을 걸, 넣는다는 게} 소금을 넣었다.
(이준희 2021: 171, ‘넣는 걸’, ‘넣을 걸’, ‘넣는다는 게’는 필자 추가)

(117)은 ‘-다는 것이’의 예이고, (118)은 ‘-다는 것을’의 예이다. (117가)의 경우 ‘-다는 것이’를 ‘-ㄴ/ㄹ 것을’로 대치하기 어렵고, ‘-다는 것을’로 대치해도 어색하다. 또한 (118가)에서는 ‘-다는 것을’만 가능하고, 다른 형식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117나)와 (118나)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예문으로, ‘-ㄴ 것을’을 제외한 다른 형식은 모두 가능하다. 다만, ‘-다는 것이/것을’이 ‘-ㄹ 것을’로 대치될 수 있기는 하지만 미묘한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ㄹ 것을’이 쓰일 때는 선행절의 내용 자체만 중요시되고, ‘-다는 것이/것을’이 쓰일 때는 선행절의 내용이 인용된 내용이라는 의미가 더 추가된다. 즉 ‘-다는 것이/것을’의 선행절은 일반적으로 주어가 한 말이나 마음 속의 생각이 인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ㄹ 것을’과 ‘-다는 것이/것을’이 가지고 있는 인칭 제약도 다르게 나타난다. (119)~(121)은 각각 ‘-을 것을’, ‘-다는 것이’, ‘-다는 것을’의 예이다.

(119) 가. 돌아올 때는 내가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을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나. *돌아올 때는 내가 하얼빈으로 직행해야 했을 것을 철수가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신경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120) 가. 정류장을 찾아간다는 게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 *철수가 정류장을 찾아간다는 게 영희가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 2번을 누른다는 게 1번을 눌렀다.
라. *철수가 2번을 누르겠다는 게 영희가 1번을 눌렀다.

(121) 가. 철수가 피곤해서 집으로 간다는 걸 내가 억지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
나. *내가 피곤해서 집으로 간다는 걸 내가 억지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
다. 국에 설탕을 넣는다는 걸 소금을 넣었다.
라. 철수가 국에 설탕을 넣겠다는 걸 영희가 소금을 넣어 버렸다.

먼저 (119)와 (12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ㄹ 것'과 '-다는 것이'는 일반적으로 선·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50] 또한 (121)의 '-다는 것을' 앞에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 올 경우에는 (121가)와 (121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 하고, 동일 주어가 온다면 비문이 된다. 반면에 (121다)와 같이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인식된다. 단, (121라)처럼 의도를 뜻하는 '-겠-'이 쓰일 때는 선·후행절에 각각 다른 주어가 와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다는 것을' 앞에 '-겠-'을 붙이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겠-'이 없을 때 이 구성은 선행절 주어의 착오로 인해 다른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겠-'이 있을 때 이 구성은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선행절 주어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때 (121라)는 (121다)에 비해 (121나)와 더 비슷한 문장이 된다. 하지만 '-다는 게'는 선행절 주어의 착오로 인해 다른 일을 했다는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겠-'과 결합해도 선·후행절의 주어 불일치가 허용되지 않는다.[51] 이는 (120라)

50) '-다는 것이/것을'의 선행절은 일반적으로 주어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검토하는 '-ㄹ 것'은 선행절의 내용이 화자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을 때로 한정된다 '지하철을 타면 금방일 것을 1시간이나 걸려 집에 도착했다'와 같은 경우, 선행절은 화자의 의도보다 사실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주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ㄹ 것을', '-다는 것이', '-다는 것을'의 선·후행절은 모두 '주어의 의도'와 '주어의 의도와 어긋한 사건'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이 가지는 문법적인 제약은 서로 다르다. 또한 '-ㄹ 것을'에 비해 '-다는 것이/것을'을 쓰면 '선행절의 내용으로 주어가 한 말이나 생각이 인용된 것'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4.3. 선어말어미 상당의 '것' 구성

한국어에서 양태 의미는 어미뿐 아니라 많은 우언적 형식으로도 표현된다. 그중에서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와 비슷한 '것' 구성이 있는데, 이들은 아직 하나의 선어말어미로 볼 수 없지만 한국어 양태 체계 안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선어말어미에 준하는 '것' 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4.3.1.에서는 '-ㄹ 것이-'를 살펴볼 것이고, 4.3.2.에서는 '-ㄴ/ㄹ 것 같-'을 살펴볼 것이다.

4.3.1. '-ㄹ 것이-'

'-ㄹ 것이-'는 일종의 양태 표지로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서정수(1978), 고창운(1991), 안정아(2003), 손혜옥(2016), 오승은(2018가)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한국어의 '-ㄹ 것이-'는 추측'과 '의도'라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홍사만(2006: 125), 최대희(2012: 411)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ㄹ 것이-'라는 형태가 이미 출현하였고, 현대 한국어의 '-ㄹ 것이-'와 별 차이가 없다. 아래 예를 보자.

(122) 가. 萬物의 ᄠᅳ들 더욱 可히 볼 거시니(物情尤可見) <杜詩20:35b>
나. 나도 용심ᄒᆞ야 셩녕ᄒᆞᆯ 거시라 (我也用心做生活) <飜朴上:17a>

51) 이준희(2021: 175)에서는 '-다는 게'가 동일 주어 인칭 제약을 가지나 '-다는 걸'이 동일 주어 인칭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다는 게'에 비해 '-다는 걸'은 두 종류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23) 가. 이 글을 읽으면 아내는 아마 웃을 것이다.
나. 내가 널 지켜줄 거야.

(122)는 중세 한국어의 예이고, (123)은 현대 한국어의 예이다. 이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122가)와 (123가)의 '-ㄹ 것이-'는 모두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122나)와 (123나)의 '-ㄹ 것이-'는 모두 '의도'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정혜선(2013: 73-5)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의 '-ㄹ 것이-'는 '추측'과 '의도'라는 양태적 의미 이외에 '당위'와 '예정'의 의미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아래 (124가)는 '당위'라는 의미를 가진 '-ㄹ 것이-'의 예이고, (124나)는 '예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ㄹ 것이-'의 예이다.

(124) 가. 顔氏 가문 ᄀᆞᄅᆞ치ᄂᆞᆫ 글워레 닐어쇼ᄃᆡ ᄂᆞᄆᆡ 칙을 비러다가 다 모로매 ᄉᆞ랑ᄒᆞ며 간슈ᄒᆞ고 몬져 ᄒᆞ여딘 ᄃᆡ 잇거든 즉시예 슈보ᄒᆞ야 고틸 거시니 (顔氏家訓에 曰 借人典籍ᄒᆞ야 皆須愛護ᄒᆞ고 先有缺壞어든 就爲補治니) <飜小8:38a-b>
나. 며츠를 셜웝ᄒᆞ리러뇨 낫 사ᄒᆞᆯ 밤 사ᄒᆞᆯ ᄒᆞᆯ 거시라 오ᄂᆞᆯ브터 모ᄅᆡᄉᆡ장 ᄒᆞ고 파ᄒᆞ리라(說幾箇日頭?說三日三宿,從今日起後日罷散。) <飜朴上:75a>
(이상 정혜선 2013: 73-5, 한어 원문은 필자 추가)

(124가)의 경우 '고틸 거시니'는 '고쳐야 한다'와 같은 의미가 나타나고, 이때 '-ㄹ 것이-'는 당위 양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124나)의 경우 앞에 '낫 사ᄒᆞᆯ 밤 사ᄒᆞᆯ ᄒᆞᆯ 거시라'는 앞에 오는 질문의 대답이기에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정혜선(2013: 75)에서는 이때의 '-ㄹ 것이-'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현대 한국어에서 '-ㄹ 것이-'는 '당위'의 의미로 쓰기 어렵지만, '예정'의 의미로는 쓰이는 경우가 있다. 박재연(2018), 오승은(2018가)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 것이-'는 화자의 '추측'이나 '의도'와 같은 주관적 의미를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객관적 의미인 '예정'을 표현할 때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ㄹ 것이-'를 이미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것'의 의미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ㄹ 것이

-’에서의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언급이 없지는 않다.

최규일(1993: 76)에서는 ‘-ㄹ 것이-’의 ‘것’이 ‘서술,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박주영(1999: 92-7)에서는 ‘추측’이나 ‘의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안정아(2003: 177-8)에서는 ‘것’이 어휘적 요소 혹은 추상적인 사태를 모두 대용할 수 있으므로 ‘-ㄹ 것이-’의 ‘것’도 ‘사실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술, 설명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것이다’ 전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것’의 의미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추측’이나 ‘의도’는 ‘-ㄹ 것이-’ 전체의 의미이고, ‘것’이 단독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공시적으로 ‘-ㄹ 것이-’는 이미 특수한 의미가 확보되어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것’을 분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때 ‘것’을 대신하여 쓸 다른 명사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것’이 ‘사실성’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추측’의 의미는 ‘것’이 ‘-ㄹ 것이-’ 구성으로 쓰일 때에만 나타난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5) 가. 이런 금리는 현재 기업일반대출 금리 15~12.5%보다 최고 3.5%~1%포인트 {낮을, *낮은} 것이다.[52]
나. 나는 그가 올 것{이라고, *으로} 생각했다. (남길임 2004: 169)
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기업정책은 달라져야 할 {것, *그것}이다.
라. 이번 기회에 정부의 기업정책은 달라져야 할 {것, *것들}이다.

(125)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이-’의 ‘-ㄹ’을 ‘-ㄴ’으로 바꾸면 더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고, ‘이다’를 ‘-(으)로’와 같은 단어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남길임(2004: 168-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이다’ 구문은 판단 동사의 소절 구성으로 바꿀 수 없다.[53] 또한 (125다)와 (125라)에서 본 바와 같이 ‘-ㄹ 것이

52) ‘이런 금리는 현재 기업일반대출 금리 15~12.5%보다 최고 3.5%~1%포인트 낮은 것이다’는 비문이 아니지만, ‘추측’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비문 표시를 하였다. 앞으로의 예들도 이와 같이 처리한다.

53) 남길임(2004: 80)에 따르면 ‘생각하다’와 같은 판단 동상의 경우 ‘NP0가 NP1을 NP2로 + 판단 동사’라는 구문에서 ‘NP1’과 ‘NP2’ 간에 의미적 주술 관계가 존재한다. 이때 ‘NP1을 NP2로’는 판단

-’에서의 ‘것’은 지시사나 복수 표지 등과 결합할 수 없는데, 이는 ‘-ㄹ 것이-’가 이미 굳어진 표현임을 방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ㄹ 것이-’의 ‘것’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본다. 또한 선행 연구의 성과에 따라 ‘-ㄹ 것이-’를 ‘추측’, ‘의도’, 그리고 ‘예정’ 세 가지로 나눠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겠다.[54]

4.3.1.1. 문법적 특징

‘-ㄹ 것이-’의 통사적 특징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기에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통사적 특징만 언급할 것이다.[55]

먼저 이 세 가지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통사적 특징은 주어의 인칭 제약이다. 아래 (126가)~(126다)는 각각 ‘추측’, ‘의도’, ‘예정’의 의미를 나타낸 예이다.

(126) 가. 이 글을 읽으면 {나는, 너는, 아내는} 아마 웃을 것이다.
나. {내가, *네가, *철수가} 꼭 밝혀낼 거야.
다. 내일 수업에서 {내가, 네가, 철수가} 발표할 거더라. (박재연 2018: 131)

(126)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이-’가 ‘추측’의 의미일 때는 인칭 제약이 없지만 ‘의도’의 의미일 때는 평서문에서 1인칭만 허용된다. 또한 박재연(2018: 131), 오승은(2018가: 104)에서 언급하였듯이 ‘-ㄴ 것이-’가 ‘예정’의 의미인 경우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이 모두 허용된다.

또한 ‘-ㄹ 것이-’의 의미에 따라 앞에 오는 서술어 종류도 달라진다.

동사의 소절 구성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NP1이 NP2이다’를 ‘NP1을 NP2로’로 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54) 손춘섭(1997: 58-9)에서는 ‘-ㄹ 것이-’의 의미가 ‘상황 진술’로 간주되어 있다. 그러나 손춘섭(1997: 59)에서 제시한 예문을 보면 ‘그는 이미 가고 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 ‘-ㄹ 것이-’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와 같은 ‘의도’의 의미를 나타낸 ‘-ㄹ 것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미를 세분화할수록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각 하위 의미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아무르는 의미 기술을 채택하지 않겠다.

55) ‘-ㄹ 것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손혜옥(2016), 오승은(2018가), 박재연(2018) 등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127) 가. 이 글을 읽으면 아내는 아마 웃을 것이다.
나. 그 멋진 남자..요즘 무지 바쁠 거야.
다. 너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일 거야.

(128) 가. 내가 꼭 밝혀낼 거야.
나. *내가 꼭 예쁠 거야.
다. *앞으로 제가 선생님일 거예요. (오승은 2018가: 108)

(129) 가. 짐 다 싸 놓은 거 보니 너 내일 출발할 거구나. (박재연 2018: 129)
나. *내일 날씨가 좋을 거더라. (박재연 2018: 131)
다. 준호: 내일 시간 있어?
희정: (본다)
희정: ...뮤지컬?
준호: 같이 공부했던 친구 녀석이 출연하는 건데...내일이 마지막일 거야.

(127)은 '-ㄹ 것이-'가 '추측'의 의미를 가질 때의 예이고, (128)과 (129)는 각각 '의도'와 '예정'의 의미를 가질 때의 예이다.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추측'일 때는 서술어 제약이 없는데, '의도'일 때는 '-ㄹ 것이-' 앞에 형용사나 계사가 올 수 없다. 또한 '-ㄹ 것이-'가 '예정'의 의미를 나타내면 앞에 동사나 계사가 올 수 있다. 박재연(2018: 131)에서는 형용사적 사태가 계획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적 의미가 나타난 '-ㄹ 것이-' 앞에 형용사나 계사가 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29다)의 경우, 이때 뮤지컬의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내일이 마지막일 거야'는 이미 충분히 계획된 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문맥이 주어진다면 '예정'일 때 '-ㄹ 것이-' 앞에 계사가 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단, 계사 앞에 오는 명사의 성질에 따라 '이다'가 허용되지 않을 때도 있다. 술어는 일반적으로 장면 층위 술어와 개체 층위 술어로 나눌 수 있다. 장면 층위 술어는 주로 일시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이고, 개체 층위 술어는 주로 영구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사는 장면 층위 술어에 속하고, 형용사는 개체 층위 술어에 속한다. 여기서 '마지막이다'는 동사처럼 일시적인 속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정'의 의미를 가진 '-ㄹ 것이-'와 같이 쓰일 수 있으나, '학생이다'와 같은 영구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라면 '예정'의 '-ㄹ 것이-'와 결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ㄹ 것이-'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겠다.

(130)은 과거의 일에 '-ㄹ 것이-'가 쓰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예이고, (131)은 '-ㄹ 것이-'로 표시된 사건이 과거의 일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예이다.

(130) 가. 방법이라면 다른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나. *내가 꼭 밝혀냈을 거야.
다. *이번 수업에서 내가 발표하였을 거더라.
(131) 가. ??내년에 정부의 기업정책은 달라져야 할 것이었다.
나. *내가 꼭 밝혀낼 것이었다.
다. 곧 그 문제를 논의할 회의가 각 단과대학 차원에서 열릴 것이었다.
(박재연 2018: 132)

먼저 (13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ㄹ 것이-'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만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이 가능하다. 손혜옥(2016: 17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어떤 의도를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도'의 '-ㄹ 것이-' 앞에 '-었-'을 붙이기가 어렵다. 또한 (130다)에서 보았듯이 과거의 일은 이미 발생한 것이기에 '예정'의 의미와도 충돌이 돼서 '-ㄹ 것이-' 앞에 '-었-'이 올 수 없다(오승은 2018가: 104).

또한 (131)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이-'가 '추측'이나 '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화자의 현재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과거의 행위를 표현할 수 없다.[56] 반면에 박재

56) 다키치(2016: 93), 손혜옥(2016: 112-3), 오승은(2018가: 97) 등에서는 '-ㄹ 것이-'가 '추측'이란 의미를 나타낼 때 화자가 과거에 한 추측 행위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 가. 모든 강과 개천은 갖가지 염료며 화학 물질의 색상으로 물들어 갈 것이었다. (손혜옥 2016: 112)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었다. (오승은 2018가: 97)

손혜옥(2016: 113)에서는 화자의 과거 추측을 표현하는 '-ㄹ 것이었다'의 예는 주로 소설에서 발견된다고 하였고, 구어에서 '-ㄹ 것이었다'라는 표현은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어, 특히 특정 장르에 나오는 '-ㄹ 것이-'에 국한하여 '-ㄹ 것이-'가 과거의 추측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특히 소설의 경우, '-ㄹ 것이었다'가 출현하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ㄹ 것이었다'가 나타날 때 앞뒤 문장에도 '-었-'이 붙는 경향이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ㄹ 것이었다'의 '-ㄹ 것이-'가 과거의 추측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앞뒤 문맥에 맞추기 위해 쓰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연(2018: 13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 것이-'가 '예정'의 의미일 때 과거에 예정된 일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ㄹ 것이-'가 양태적 의미를 가진 종결어미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박재연(2018: 121)에서는 아래 (132)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추측'의 의미를 가진 '-ㄹ 것이-'는 '-네', '-구나', '-지' 등 인식 양태 형식과 같이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

(132) 가. *너 요즘 밤에도 {일할 거네, 이할 거구나}.
나. *그럼 영희는 {좋을 거네, 좋을 거구나}.
다. *미자 딸은 {착할 거지, 착할 거지?}

(이상 박재연 2018: 121-2)

(132)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이-'는 '-네'나 '-구나', '-지'와 같이 쓸 수 없다. 박재연(2018: 121-3)에서는 이때의 '-ㄹ 것이-'를 '-겠-'으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고, '-ㄹ 것이-'가 '-겠-'과 달리 다른 인식 양태 어미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추측 의미가 의미론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재연(2018: 121 각주 13)에 따르면 '-ㄹ 것이-'가 다른 인식 양태 어미와 결합할 때 '예정'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예정'의 의미가 아닌 '-ㄹ 것이-'가 다른 인식 양태 어미와 결합하는 예문이 발견되었다. 아래 예를 살펴보겠다.

(133) 가. 이미 폐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 번복은 쉽지가 않을 것이네.
나. 송만득 그 사람도 단순히 차를 사 주진 않았을 거네.

예: 가. 석기를 살리고자 성호를 내준다면 성호가 문제였다. 그러나 인질을 맡긴다면 놈들은 인질을 어쩌지는 못할 것이었다. 안 그래도 살인 사건으로 뒤숭숭한 판에 인질들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하리라고 형기는 판단했다.
나. 돈을 꾸어달라는 것이었다. 아니 돌려달라는 것일 것이었다. 정희수가 융통해 달라는 액수가 언젠가 '비궁'에서 그가 도식의 주머니에 찔러넣어주었던 금액을 약간 넘는 돈이었다.

(133가)는 '-ㄹ 것이-' 앞에 형용사가 오는 예이고, (134나)는 '-ㄹ 것이-' 앞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출현하는 예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정'의 '-ㄹ 것이-'는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쓰이지 않고, '-었-'과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133)의 '-ㄹ 것이-'는 '예정'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 또한 (133)의 주어가 모두 1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의 '-ㄹ 것이-'로 해석될 가능성도 없다. 이때 '-ㄹ 것이-'는 '추측'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추측'의 '-ㄹ 것이-'와 양태 의미를 가진 종결어미 '-네'는 함께 쓰일 수 있다.

4.3.1.2. 의미적 특징

'-ㄹ 것이-'가 하나의 양태 표현으로서 '추측'과 '의도'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ㄹ 것이-'와 비슷한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겠-'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많이 언급되었다. 박재연(2018), 오승은(2018가) 등의 연구에서는 '-ㄹ 것이-'가 양태 의미가 아닌 '예정'이라는 상적 의미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재연(2003, 2006)에서는 양태 의미의 특징을 화·청자 지향성과 주어 지향성으로 나눈 바가 있다. 박재연(2006: 57-63)에 따르면 화·청자 지향성을 가진 양태 표지는 문장의 진리치를 판단할 수 없고, 행위 주체가 1인칭이어야 하며 현재의 태도만 표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주어 지향성을 가진 양태 표지는 문장의 진리치를 판단할 수 있고 행위 주체가 2인칭이나 3인칭인 경우도 가능하며 과거의 태도도 표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 것이-'가 '추측'이나 '의도'란 양태적 의미를 표현할 때 '추측' 혹은 '의도'의 주체는 화자여야 하고, 현재의 태도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 행위나 의도 행위는 화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에 대해 진리치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ㄹ 것이-'는 일종의 화·청자 지향적 양태 표지라고 할 수 있다.[57]

또한 많은 논의에서 인식 양태로 쓰이는 '-ㄹ 것이-'의 증거성을 검토하였다. 박진

57) 손혜옥(2016: 6)에서 '-ㄹ 것이-'는 일종의 화·청자 지향적 양태 표지라는 것을 언급한 바가 있다.

호(2011나: 17-9)에서는 '-ㄹ 것이-'는 간접 증거(indirect evidence)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감각을 통해 얻은 근거보다는 일반적 지식을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론(reasoning)'에 의한 '추측'을 표현한다고 하였다.[58] 또한 정경미(2016)에서도 '-ㄹ 것이-'가 가진 증거성 의미는 간접 증거라고 하였고, 단정적인 태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59] 아래 예를 보자.

(134) 가. (테이블 끝에서 떨어질락 말락 하고 있는 공을 보고) 떨어지겠다/??떨어질 것이다.
나. (긴 테이블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굴러가고 있는 공의 속도/가속도 및 역학 법칙을 바탕으로 추측건대) 공은 테이블에서 떨어질 것이다/?떨어지겠다.
(이상 박진호 2011: 18)

(134)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화자의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추측할 때는 '-ㄹ 것이-'를 쓰는 것이 어색하고, 일반적 지식을 근거로 추측할 때는 '-ㄹ 것이-'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이러한 추측의 근거가 어떤 경로로 얻은 것인지에 따라 한명주(2008: 164-5)에서는 이를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ㄹ 것이-'로 표현한 추측 내용은 '직접적 정보'나 '간접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내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카치(2016), 정경미(2016)에서는 '-ㄹ 것이-'는 내재적 정보에 의한 추론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135) 가. 라디오에서 서울 시내 다 정체라고 들었는데 명동 쪽도 막힐 거야.
나. (하늘이 꾸물꾸물한 걸 보니) 비가 올 것이다.
다. A: 내가 여기로 올 거 어떻게 알았어?

58) 박진호(2011나: 3-6)에서는 간접 증거를 추리(inference), 추론(reasoning), 전문(hearsay)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추리는 지각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한 추측이고, 추론은 일반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추측이다.

59) 정경미(2016: 169)에서는 '단정성'을 "명제에 대해 마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이 딱 잘라 결정해서 표현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B: *왠지 오늘은 니가 버스를 타고 올 것이었어.

(이상 한명주 2008: 164)

(135)는 한명주(2008: 164)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135가)는 간접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의 예이고, (135나)와 (135다)는 직접적 정보와 내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의 예이다. (135다)는 비문인데, (135다)가 비문인 것은 '-ㄹ 것이-'가 내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을 허용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왠지'라는 부사는 화자의 추론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손혜옥(2016: 216-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거 없이 추론을 하는 경우에는 '-ㄹ 것이-'를 쓰는 것이 어색하다.

한편 정경미(2016: 121)에서는 '-ㄹ 것이-'가 내재적 정보를 근거로 한 추론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136)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곧 비 올 게다. (정경미 2016: 121)

(136)에서 볼 수 있듯이 내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을 할 때 '-ㄹ 것이-'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적 정보, 즉 감각으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추론을 할 때 '-ㄹ 것이-'가 쓰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한명주(2008: 164-5)에서는 '시각'으로 얻은 것과 같은 직접적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ㄹ 것이-'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박진호(2011나: 18)에서는 감각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근거로 추론할 때 '-ㄹ 것이-'가 쓰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137) 가.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을 보며) 비 올 게다. 빨리 가자. (정경미 2016: 122)
나. (불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것을 만져보면서) *말랑말랑한 게 떡일 것이다. (정경미 2016: 125)

(137)에서 볼 수 있듯이 (137가)와 (137나)는 모두 직접적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경우인데, (137가)는 정상적인 문장인 반면,[60] (137나)는 비문이다. 그러나 (137가)가 정상적인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은 '-ㄹ 것이-'가 시각으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한 추론을 표현하기 때문이 아니고, 화자의 일반적 지식을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화자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비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고 '비가 올 게다'와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말랑말랑한 것이 있다면 떡일 가능성이 크다'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떡 외에도 말랑말랑한 것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ㄹ 것이-'가 쓰일 수 없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ㄹ 것이-'는 시각과 같은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정보를 통해 추론을 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어 보이는데, 이때는 화자의 일반적인 지식을 개입해서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예정'이란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박재연(20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정'이라는 의미는 객관적 의미이고, 사제·상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오승은(2018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 것이-'의 '예정'의 의미는 '추측'과 '의도'의 의미와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138) 가. 서형사는 여기 다시 오진 않을 거야.
나. 우리는 이 식당에서 밥 먹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138가)의 '-ㄹ 것이-'는 '추측'의 의미로 해석되고, (138나)의 '-ㄹ 것이-'는 '의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만약 문맥이 주어진다면 (138가)와 (138나)는 모두 '예정'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화자가 이미 서형사에게 '여기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138가)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면, 이때의 '-ㄹ 것이-'는 '예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138나)의 경우, 이 말을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한 경우라면 '-ㄹ 것이-'는 '예정'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 계획은 이미 정

60) 박진호(2011나: 18)에서 (137가)와 비슷한 예문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ㄹ 것이-'를 쓰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고 하였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예: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보니) ?곧 비가 올 것이다. (박진호 2011나: 18)

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정’이란 의미를 ‘추측’ 혹은 ‘의도’와 구별할 때는 문맥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정’의 의미일 때와 ‘추측’이나 ‘의도’일 때 ‘-ㄹ 것이-’의 문법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ㄹ 것이었다’이다. 도재학(2019: 198-9)에서는 ‘-ㄹ 것이었다’가 반사실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아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9) 가. 현우: (버럭버럭) 그러니까 내가 학교 맡는다고 했잖아!!
영애: 시끄러워!! 니가 무슨 학교를 맡어!!
현우: 어차피 내가 맡을 거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세웠구, 우리 아버지가 지켰구! 그리고 다음은 내차례야!! 누나 중간에 끼어든 거야!!
나. 김무중 회장이 자기가 졌다라고 그~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자동차를 선택하지 않고 중화학 이제 지금 오늘이 현대 자동차는 아마 대우 자동차로 이렇게 해서 흡수 됐거나 이렇게 // 빅딜이 됐을 거였습니다.

(139)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이었다’는 반사실적 의미를 나타낸다. (139가)는 현우가 학교를 맡아야 했는데 실제로 맡지 못했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139나)는 지금 현대 자동차가 대우 자동차로 흡수됐거나 빅딜이 됐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4.3.2. ‘-ㄴ/ㄹ 것 같-’

‘-ㄴ/ㄹ 것 같-’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종의 양태적인 우언적 표현으로서 선행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정혜선(2013: 99)에서는 ‘추측’의 의미가 나타나는 ‘-ㄴ/ㄹ 것 같-’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출현한다고 하였고, 중세 한국어에서는 ‘-ㄴ/ㄹ 것 같-’의 구문이 비교, 비유의 구문으로만 해석된다고 하였다.[61] 먼저 19세기 한

61) 정혜선(2013)에서 제시한 19세기 이전에 ‘-ㄴ/ㄹ 것 같-’ 구문이 쓰인 예문들은 아래와 같다.

국어의 예를 보겠다.

(140) 가. 사ᄅᆞᆷ의 잘ᄒᆞᄂᆞᆫ 닐을 보미 스ᄉᆞ로 잘ᄒᆞᆫ 것 ᄀᆞᆺ치 즐겨ᄒᆞ며 <1852 태상감응편>
나. 나라에 지물 잇ᄂᆞᆫ 것은 사ᄅᆞᆷ이 혈믹 잇ᄂᆞᆫ 것 ᄀᆞᆺᄒᆞ니 <1896 독립신문>

(141) 가. 셔반아 사ᄅᆞᆷ들이 ᄒᆞᆫ것 ᄀᆞᆺ든 말이 잇서...(후략) <1896 독립신문>
나. 다시 노흐면 도로 죄ᄅᆞᆯ 지ᄂᆞᆫ 것 ᄀᆞᆺ흐니라. <1894 텬로력뎡2>
다. 차아리 한문 글ᄌᆞ로나 쓸것 ᄀᆞᆺᄒᆞ면 한문을 아ᄂᆞᆫ 사ᄅᆞᆷ들이나 시원이 뜻을 알 것이라. <1896 독립신문>

(140)은 비교나 비유로 쓰인 '-ㄴ/ㄹ 것 같-'의 예들이고, (141)은 '추측'의 의미로 쓰인 '-ㄴ/ㄹ 것 같-'의 예들이다. 19세기 한국어는 현대 한국어와 달리 '-ㄴ/ㄹ 것 같-'이 비유나 비교의 의미로 쓰일 때도 '것' 뒤에 조사 '과'가 오지 않는다. 또한 (14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ㄴ/ㄹ 것 같-'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의 상황을 모두 아울러 쓸 수 있다. 이러한 사용 양상은 현대 한국어까지 유지되었다.

'-ㄹ 것이-'와 같이 '-ㄴ/ㄹ 것 같-'도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의 양태적 의미를 살핀 연구가 많다. 또한 '-ㄹ 것이-'에 비해 '-ㄴ/ㄹ 것 같-' 구성의 '것'의 정체에 대한 언급도 많은 편이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견해들은 아래와 같다.

예: 가. 둘흔 眞實ㅅ 覺中에 니르런 自然히 우횟 ᄆᆞᄃᆡᄆᆞ덧 幻이 어루 여흴 것 곧ᄒᆞ니 업스니 <원각 상 2-1:47a> (정혜선 2013: 99)
나. 一云 屍身이 脹ᄒᆞ고 갓과 ᄉᆞᆯ히 湯火에 皰 닌 것 ᄀᆞᆮ야 漸次로 곰기고 <무원록 3:60b>
다. 신이 처음의 감히 긔은ᄒᆞ다가 이제야 딕고ᄒᆞᄂᆞ이다 그 글 속을 신이 과연 보왓ᄂᆞ이다 ᄒᆞ고 인ᄒᆞ야 셔듕 말을 외와 알외노라 일ᄏᆞᄅᆞ되 드러 알외ᄂᆞᆫ 바 두어 귀졀이 스ᄉᆞ로 주작ᄒᆞᆫ 것 ᄀᆞᄐᆞᆫ디라. <천의 4:77b-78a>
(이상 정혜선 2013: 101)

정혜선(2013)에 따르면 (가)는 '-ㄴ/'-ㄹ 것 같-'가 '비교'의 의미로 쓰인 예문이고, (나)는 '-ㄴ/'-ㄹ 것 같-'가 '비유'의 의미로 쓰인 예문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다)와 같은 예문은 비교 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화자가 어떤 명제 내용을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추측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42) 가. '것'이 보절 명사로 쓰이는 견해: 문병열(2007: 61 각주 40),
명정희(2021: 106)
나. '것'이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견해:
① 박주영(1999: 93-4): '것'이 '추측'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② 시정곤·김건희(2009: 199 각주 18): 것이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다. '것'이나 '-ㄴ/ㄹ 것' 문법적 요소로 본 견해:
① Yoon(2006)[62]: '것'을 '보절자'로 본다.
② 김선혜(2019: 182), 김선혜(2021: 18): '-ㄴ/ㄹ 것'을 보절자로 본다.

(142가)는 '-ㄴ/ㄹ 것 같-'의 '것'을 보절 명사로 보고, '것'이 여전히 어휘적인 의미를 보유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명정희(2021: 106)에 따르면 이때의 '것'은 '사건'이나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142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 '추측'이나 '확신'과 같은 양태적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이다. 또한 (142다)의 경우에는 '것'이나 '-ㄴ/ㄹ 것' 전체를 하나의 문법 요소로 본다. Yoon(2006)에서는 '-ㄴ/ㄹ 것 같-'의 '것'이 문법적 기능을 가지며 이것을 일종의 보절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김선혜(2019, 2021)에서는 '것'이 포함된 절은 '같다'가 취하는 보절일 뿐이고 '-ㄴ/ㄹ 것'이 보절자라고 하였다.

먼저 (142가)의 견해부터 살펴보겠다. '것'을 보절 명사로 보면 이는 아직 어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것'이 보절 명사로 쓰일 때 일반적으로 지시사 '그'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있다. '-ㄴ/ㄹ 것 같-'의 '것'도 '보절 명사'로 보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해 보자.

(143) 가.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그것} 같다.
나. 네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난 속이 상해서 병이 날 {것, *그것} 같다.
(144) 가.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것들} 같다.
나. 네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난 속이 상해서 병이 날 {것, *것들} 같다.

62) Yoon(2012: 559 각주2)에서 재인용.

(143)은 '-ㄴ/ㄹ 것 같-'의 '것'이 지시사 '그'의 수식을 받는 예이고, (144)는 '-ㄴ/ㄹ 것 같-'의 '것'이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하는 예이다. (143)과 (144)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때 '것'은 '그'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없다.

또한 '-ㄴ/ㄹ 것 같-'의 '것'은 '사건'이나 '사실'로 대치하기 어렵다. 아래 예를 보자.

(145) 가.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사실, *사건} 같다.
나. 네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난 속이 상해서 병이 날 {것, *사실, *사건} 같다.

(145)는 선어말어미 상당 구성으로 쓰인 '-ㄴ/ㄹ 것 같-'의 예인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것'을 보절 명사 '사실'이나 '사건'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따라서 '-ㄴ/ㄹ 것 같-'의 '것'은 보절 명사의 '것'과 통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것'을 보절 명사로 환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절 명사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142나)의 견해를 검토해 보자. 박주영(1999: 93-4)에서는 '-ㄹ 것이-'나 '-ㄴ/ㄹ 것 같-'의 '것'은 특정한 지시물을 지시하는 기능이 없어지고 '추측'이나 '의도'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시정곤·김건희(2009)에서는 의존명사를 어휘적 양태소로 보고,[63] '것'은 '확신'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논의에 따르면 '것' 뒤에 '이다'가 올 때는 '확신'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나, '것'과 '같다'가 결합할 때는 '같다'가 가진 '추측'이란 의미가 '것'이 가진 '확인'의 의미보다 더 강하게 표출된다. 그러나 '추측'이나 '확신'이라는 의미는 전체 표현에서 도출되는 것이지 '것'이 단독으로 가지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것'은 다른 양태적 표현을 구성할 수 있는 의존명사 '모양'이나 '듯' 등과 달리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거의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의미적 측면에서 전체 표현의 의미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다. '것'이 포함된 몇 가지 특정적인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것'에 양태적 의미를 따로 부여하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것'이 '추측'을 비롯한 양태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63) 시정곤·김건희(2009: 195)에 따르면 어휘적 양태소는 "어휘적으로 양태 의미를 갖는 형태소"이고, '의존명사'와 '보조용언'은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142다)에서 제시한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Yoon(2006)과 김선혜(2019, 2021)에서 제시한 보절자 형식이 같지 않지만 '것'이 포함된 절을 '같다'의 논항으로 보는 것이 동일하다. 또한 김창섭(2012), 손혜옥(2016)에서는 '것'의 정체를 자세히 밝히지 않지만 김선혜(2019, 2021) 등과 비슷하여 '-ㄴ/ㄹ 것 같-'은 '것'이 포함된 절과 '같다'를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창섭(2012: 231-6)에서는 이때의 '같다'를 부접 동사라고 하였고,[64] '개연성 높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선혜(2021: 24-30)에서는 '같다'를 심리형용사로 보았고, '-ㄴ/ㄹ 것 같-' 구문이 나타난 추측의 의미는 비유 구문에서 온 것이라고 추측하였다.[65] '같다'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ㄴ/ㄹ 것'과 '같다'를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추측'의 의미는 '같다'로부터 유래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ㄴ/ㄹ 것 같-'이 가진 '추측'이란 의미는 '같다'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같다'만으로 이러한 '추측'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것'이나 '-ㄴ/ㄹ 것'을 보절자로 본다면 이들은 문법적인 의미만 가진다. 그렇다면 '추측'이란 의미는 '같다'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같다'가 '추측'이란 의미로 해석될 때는 거의 항상 '-ㄴ/ㄹ 것'이 선행하기에,[66] '-ㄴ/ㄹ 것 같-' 전체를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운하(2019)에서는 '것 같다'를 이미 굳어진 것으로 보았고, 더 이상 분리하기 어

---

64) 김창섭(2011: 55)에 따르면 부접 동사는 격표지가 없는 명사구에 부접하여 동사구를 만드는 동사이고, '이-', 답-', '-같('추측'의 의미)' 등은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창섭(2011)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65) 김선혜(2021: 28)에서 제시한 '-ㄴ/-ㄹ 것 같-'이 가지는 '추측'이란 의미의 발전 과정은 아래와 같다.

[대상 A의 속성이 B와 비슷하다] → [대상 A의 속성이 마치 B와 같다] → [대상 A의 속성이 B일 것으로 생각된다]

66) 김창섭(2012: 235)에서는 '같다' 구문이 '추측'이란 의미로 해석될 때 '같다'의 보충어는 '것'이 포함된 절이나 무계사(無繫辭) 절이라고 하였다. '할아버지가 내일 당번 같다'에서의 '할아버지가 내일 당번'과 같은 절은 무계사 절이다(김창섭 2012: 234). 그에 따르면 이 문장은 '할아버지 내일 당번인 것 같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무계사 절을 '이다'로 복원하면 '것'을 포함한 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가 나타난 '같다'의 보충어는 '것'이 포함된 절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렵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것'과 '같다' 간에 조사가 삽입될 수 없으며, 부정문으로 바뀔 때 명제 내용을 부정할 뿐이고 양태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것 같다'가 이미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146) 가. 투표와 일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을, *과} 같다.
나. 어차피 경제전쟁의 태풍은 피할 수 없을 것{*이, *을, *과} 같다.
(147) 가. 투표와 일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나. 투표와 일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다.

(146)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ㄴ/ㄹ 것'과 '같다' 사이에 격조사를 삽입할 수 없다. 또한 (14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때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꿔도 양태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앞에 오는 명제 내용만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같다'와 '것' 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단, 본고에서는 하운하(2019)와 달리 관형사형 어미 '-ㄴ/ㄹ'과 '~것 같다'가 분리되지 않고 '-ㄴ/ㄹ 것 같-' 전체가 하나의 양태 표현으로 굳어진 것으로 본다. 양태 의미를 표현할 때 '것' 앞에 관형사절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4.3.2.1. 문법적 특징

먼저 '-ㄴ/ㄹ 것 같-'이 누구의 추측을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김지은(1998: 99-100), 박재연(2006: 60-1에서는) '-ㄴ/ㄹ 것 같-'이 화자의 추측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의 추측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ㄴ/ㄹ 것 같-'이 언제나 제3자의 추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를 보자.

(148) 가. {나는, ??철수는} 숫자가 말을 하는 것 같다.
나. 철수는 영희가 학교에 안 갈 것 같았다. (박재연 2006: 60)
다. 그 아이가 아직도 나를 선생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148)에서 볼 수 있듯이 (148가)와 같이 '추측'의 주체가 3인칭일 때는 '-ㄴ/ㄹ 것 같

-’이 쓰이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그러나 ‘-ㄴ/ㄹ 것 같-’ 뒤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붙거나 연결어미가 붙을 때는 3인칭도 가능하다. 손혜옥(2016: 98)에서는 ‘-ㄴ/ㄹ 것 같-’ 앞에 3인칭이 오는 경우는 주로 ‘소설’일 때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는 ‘소설’이란 장르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148다)와 같은 문장은 구어에서 충분히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장르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ㄴ/ㄹ 것 같-’은 ‘-ㄹ 것이-’와 달리 화자가 과거에 한 추측을 표현할 수도 있다. 아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9) 가. 영훈오빠 수진씨하고 있는 것 같았어.
나. 너, 국화씨랑 좀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마지막으로 ‘-ㄴ/ 것 같-’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주로 선어말어미 ‘-느-’, ‘-더-’, ‘-었-’, ‘-겠-’을 검토할 것이다.[67]

(150) 가. 놀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다.
나. 정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책 한권 속에 다 담겨져 있던 것 같았다.
다. 어머니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다.
라. 연극평론가 안치운 씨는 여행 가이드가 됐어도 잘 한다는 칭찬을 들었을 것 같다.
마. *철수는 학교에 가겠을 것 같다.

(150)에서 제시하였듯이 ‘-ㄴ/ㄹ 것 같-’ 앞에 선어말어미 ‘-겠-’을 제외한 다른 선어말어미는 모두 올 수 있다. ‘-겠-’이 가지고 있는 ‘추측’이라는 양태적 의미는 ‘-ㄴ/ㄹ 것 같-’이 가진 양태적 의미와 중복이 되기 때문이다.[68] 선어말어미 ‘-느-’가 선행할

67)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는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어미에 따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추측의 주체가 높여야 할 사람이라면 ‘-시-’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선어말어미 제약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68) ‘-겠-’은 화자의 ‘의도’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의미도 ‘-ㄴ/ㄹ 것 같-’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다.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은 상식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만약 화자의 의도라고 하면 화자가 이미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겠-’은 ‘-ㄴ/ㄹ 것 같-’ 앞에 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는 현재의 일에 대한 추측이 나타나고, '-더-'나 '-었더-'가 선행할 때는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이 나타난다. 또한 '-ㄹ 것 같-' 앞에 선어말어미 '-었-'이 오는 경우에도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ㄹ 것 같-'은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는데, 손혜옥(2016: 99-10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 것 같-'은 미래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나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1) 가. 은지와의 약속에 늦을 것 같다.
나. 요새 시험기간이라 영호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다.
다. 연희가 먼저 식당에 도착했을 것 같아.

(이상 손혜옥 2016: 99-100)

(151가)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추측이고 (151나)와 (151다)는 각각 현재와 과거의 상황에 대한 추측이다. (151나)의 '-ㄹ 것 같-'을 '-는 것 같-'으로 바꾸면 의미 차이가 생긴다. 손혜옥(2016: 101)에 따르면 영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측을 할 때는 '-는 것 같-'이 더 자연스러운 반면, 아무 증거 없이 그냥 막연한 추측을 할 때는 '-ㄹ 것 같-'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차이는 관형사형 어미 '-ㄹ'과 '-ㄴ'이 드러내는 서법적 의미, 즉 '현실'과 '비현실'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똑같이 추측을 하더라도 '-ㄴ 것 같-'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추측이고, '-ㄹ 것 같-'은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화자가 마음대로 하는 추측이다.

또한 (151다)의 경우 '-었을 것 같-'을 '-ㄴ 것 같-'으로 바꿔도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151나)와 비슷한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나 손혜옥(2016: 10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반사실 상황인 경우 '-었을 것 같-'을 '-ㄴ 것 같-'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152) 가. 내가 그들 중의 하나였어도 쾌감 만점인 이 놀이에 {집착했을, *집착한} 것 같아서다.

나. 어느 집 소가 고삐를 풀고 도망을 갔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찾았을, *찾은} 것 같아요.

(152)에서 볼 수 있듯이 '-어도'나 '-(으)면'은 반사실적 의미를 나타낸 연결어미들인데 이들 뒤에 오는 '-었을 것 같-'도 반사실적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ㄴ 것 같-'으로 대치하기 어렵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ㄴ 것 같-' 앞에 인용절이 오는 '-다는 것 같-'의 구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자.

(153) 가. 언젠가는 누구나 없어 떠나게 되는 길이지만 육친을 잃은 슬픔처럼 가슴 아픈 일은 따로 {없다는 것, 없다고 하는 것} 같았다.
나. 그 집 애들이랑 자주 {싸웠다는 것, 싸웠다고 하는 것} 같아요.

(153)에서 제시하였듯이 이때 '-다는'을 '-다고 하다'로 대치할 수 있다. 이아총(2019:59)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는 것 같-'은 화자가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

4.3.2.2. 의미적 특징

'-ㄹ 것이-'에 비해 '-ㄴ/ㄹ 것 같-'의 의미는 단순하다. '-ㄴ/ㄹ 것 같-'은 '추측'이란 의미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ㄴ/ㄹ 것 같-'과 '-ㄹ 것이-'는 둘 다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데 서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확실성에 대해 이필영(1998나, 2012)에서는 '-ㄴ/ㄹ 것 같-'의 확실성은 '-ㄹ 것이-'보다 낮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154) 가. 나는 그가 {살아있을 것 같다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 나는 그가 {??살아있을 것 같다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상 이필영 2012: 114)

(154)에서 볼 수 있듯이 '생각하다'일 때 내포절 안에 '-ㄴ/ㄹ 것 같-'이나 '-ㄹ 것이-'가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생각하다'보다 화자의 확신이 더 높은 '믿다'가 쓰일 때

는 내포절 안에 '-ㄹ 것이-'만 허용된다.

이러한 의미 차이로 인해 '-ㄹ 것이-'와 '-ㄴ/ㄹ 것 같-' 간에 존재하는 1인칭 주어 제약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화자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해 추측할 때 '-ㄹ 것 같-'만 쓸 수 있다.

(155) 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할 것 같아, *할 거야}
나.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내가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155)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가 1인칭일 때 자신이 앞으로 할 행위에 대해 추측하면 '-ㄹ 것이-'가 쓰이기가 어렵고, '-ㄹ 것 같-'이 쓰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69] '내가 그 일을 할 거야'나 '내가 잡아줘야 할 거예요'라는 문장은 화자의 추측보다 화자의 의도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ㄹ 것이'가 오면 선행하는 불확신 표현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재필(2017: 106)에서는 '-ㄹ 것이-', '-ㄴ/ㄹ 것 같-' 등의 추측 표현은 일종의 완화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ㄹ 것이-'가 완화의 의미를 거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70] 박선현(2009: 60-2)에서는 '-ㄹ 것 같-'이 완화 표현으로 쓰일 때 주로 제안이나 요청, 혹은 거절 화행에 쓰인다고 하였다.[71] 아래 예를 보자.

(156) 가. 부장: 아, 그리고 오늘 퇴근 후에 신입사원 환영회식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은영씨가 그때 그 일식집 예약 좀 해놓지.
은영: (순간 기분 나쁘지만) 네. 근데, 부장님, 저는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은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 것인데요}.
나. 유빈: 자~ 영진씨, 지금 목소리 참 좋은데요. 톤만 조금만 다운 시키면 더 {좋

69) 만약 후행절에서 '아마'라는 부사를 삽입하면 '-ㄹ 것이-'도 가능하다. 이때의 '-ㄹ 것이-'는 '의도'를 의미하지 않고 '추측'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사가 없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거야'의 '-ㄹ 것이-'는 '의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70) 황지영(2019)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언급한 바가 있다.
71) 일반적으로 '-ㄹ 것이-'는 '-ㄴ 것 같-'으로 대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ㄹ 것 같-'의 경우만 언급하였다.

을 것 같아요, 좋을 거여요}.

(156가)는 '거절'의 예이고, (156나)는 '제안·요청'의 예이다. (156가)의 경우, '은영'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회식을 못 가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여기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 '-ㄹ 것 같-'을 쓰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체면 위협을 완화시키고 좀 더 부드럽게 거절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만약 '-ㄹ 것이-'를 쓰면 '참석은 못 해요'와 비슷한 의미가 나타나고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게 된다. (156나)도 마찬가지로 '-ㄹ 것 같-'을 쓰는 것은 상대방에게 제안하거나 요청할 때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ㄹ 것이-'는 '-ㄹ 것 같-'에 비해 완화 정도가 떨어지고 상대방에게 주는 부담이 커진다. 화자가 확신하는 명제 내용에 '-ㄹ 것이-'와 '-ㄴ/ㄹ 것 같-'과 같은 추측 표현을 붙이는 것은 화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면에서 완화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부 구체적인 화행을 고려하면 '-ㄹ 것이-'는 완화 효과를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다. 이는 '-ㄹ 것이-'가 가진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ㄹ 것이-'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확실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5.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

'것' 구성 중에서 '-ㄹ 것이-'처럼 어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미적 기능 없이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있다. 이 장에서는 어미적 기능이 없지만 합성성 원리를 통해 해석하지 못하는 '것' 구성을 살펴볼 것이다. 5.1.~5.4.에서는 각각 '-ㄴ 것이다', '-ㄴ 거 있다', '관형사형 어미 + 게 어디 있어/어디야/뭐야', '-ㄹ 것 없다'를 다룰 것이고, 5.5.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등 몇 개 어휘화된 '것' 구성을 다룰 것이다.

5.1. '-ㄴ 것이다'

'-ㄴ 것이다'가 쓰인 구문은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선경(1993), 박나리(2012)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ㄴ 것이다' 구문을 두 종류로 나눈다. 손욱(2022)에서 '-ㄴ 것이다' 구문을 세 종류로 나누기도 하였다. 아래 예문을 보자.

(1) 가. 이 증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나. CSCE의 앞으로의 과제는 이 같은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상 손욱 2022: 152)

손욱(2022)에 따르면 (1가)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대용적 기능을 가진 '것', 그리고 동일성 관계를 표시해 주는 '이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ㄴ 것이다' 구문이고, (1나)는 '것'이 포함된 절 구성과 계사 '이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ㄴ 것이다' 구문이다. 그리고 (1다)는 이미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간주된 '-ㄴ 것이다' 구문의 예이다.

(1가)의 '것'은 대용적 기능을 가진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이고, (1나)의 '것'은 명사절의 '것'이나 보절 명사로 쓰인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 따라서 이 절에서 검토할 대상은 (1다)와 같이 이미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형성된 '-ㄴ 것이다'뿐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ㄴ 것이다'에서의 '것'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김상기(1994: 26-7)에서는 '-ㄴ 것이다' 구문에서 '상황 공범주'를 설정하고,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더라도 '것'의 의미는 대체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태영(2005: 19-23)에서는 '것'의 기능을 '비한정적, 비특정적 지시 기능', '명사화 기능', '어미적 기능'의 세 가지로 나누었고, 계사 '이다'의 주어가 없을 때 앞에 오는 '것'은 어미적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비교적 최근 논의인 박나리(2012), 서반석(2021: 125) 등에서는 '-ㄴ 것이다'의 '-ㄴ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 전체가 명사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것'이 어미적 기능을 가진다는 견해부터 보겠다. 어미는 '활용할 때 용언 어간에 붙어 형태가 변하는 부분(구본관 외 2015: 110)'이다. 그러나 '것' 자체는 용언 어간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미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ㄴ 것이다' 전체는 하나의 어미처럼 쓰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은 '것'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것' 자체가 어미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것'을 '상황'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볼 것이다. 김상기(1994: 26-7)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1)]

(2) 가. 상황은 철수가 이 책을 읽은 상황이다.
나. 상황은 내가 이 옷을 입(었)던 것(상황)이다.
다. 상황은 철수가 이 음식을 먹는 것(상황)이다.

(이상 김상기 1994: 26-7)

김상기(1994)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 '-ㄴ 것이다'의 '것'은 보절 명사처럼 기능을 한다. 그러나 '-ㄴ 것이다'가 쓰일 때 '것'을 '상황'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김종복 외(2008나: 273), 박나리(2012: 267) 등에서는 '-ㄴ 것이다' 구문을 '따

1) 김상기(1994)에서는 '-ㄴ 것이다'와 '-ㄹ 것이-'를 함께 검토하였기 때문에 두 구문에 해당하는 예문을 모두 제시하였다. 본고의 이 부분에서 '-ㄴ 것이다'만 살펴보기에 '-ㄴ 것이다'에 해당하는 예문만 가져왔다.

라서',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 부사와 함께 출현한다고 하였다. 텍스트에서 '-ㄴ 것이다' 구문의 이러한 사용 환경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ㄴ 것이다'의 '것'은 '상황'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3) 가. '공동 육아'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충동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마당이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사람을 사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곧 그들에게 사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나. 사람에게는 순경(順境)도 있고 역경(逆境)도 있고 사업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 따라서 한 집안의 영고성쇠(榮枯盛衰)도 정한 것이 없는 것이다.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때의 '-ㄴ 것이다' 구문은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3가)는 앞에 내용을 종합하여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는 것이고, (3나)는 앞에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독으로 쓰일 때 일부 '-ㄴ 것이다'의 '것'은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ㄴ 것이다'의 사용 환경을 덧붙여 고려하면 '것'은 '상황'과 같은 뜻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강소영(2004: 91)에서는 이때의 '것'은 '일'로 대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사구 보문(본고의 명사 보절)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것'은 '일' 이외에 다른 보절 명사와도 대치하기 어렵다. 아래 예문을 보자.

(4) 가. 그는 바람과 어둠의 상황 안에서도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별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일, *사실, *상황}이다.
나. 나는 그 그림자들을 없애 버리고 싶었던 {것, *일, *사실, *상황}이다.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ㄴ 것이다'의 '것'은 다른 보절 명사와 대치하기 어렵다. 김상기(1994: 26-7)에서 제시한 '상황은 내가 이 옷을 입(었)던 것(상황)이다'와 같은 예문이 성립한다고 해도 '것'을 '상황'으로 대치할 때 '-ㄴ 것이다'가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의미가 없어진다.[2] 따라서 이때의 '것'은 보절 명사로 보기 어렵다.

2) 문맥이 없기 때문에 특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ㄴ 것이다'의 '-ㄴ 것'이 명사화 기능을 가진다는 관점을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ㄴ 것'과 계사 '이다'를 분리하여 본다. 일례로 박나리(2012: 268-9)에서는 이때의 '이다'가 동일 관계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다'가 여전히 기본적인 용법, 즉 동일성 관계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강소영(2004), 남길임(2004) 등 많은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ㄴ 것이다' 구문을 부정문으로 쓸 때 어휘 부정소 '아니다'를 쓰는 것은 어색하다. 아래 예를 보자.

(5) 가. 은행은 그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이다.[3)]
나. 은행은 그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다.
(6) 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미쳐 버리는 것이다.
나.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미쳐 버리는 것이 아니다.

(5)와 (6)을 통해 볼 수 있듯이 '-ㄴ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 형식이 존재하지만, 이를 '-ㄴ 것이다'의 부정 형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약 '-ㄴ 것'과 '이다'를 분리하여 '-ㄴ 것'을 명사화 기능으로 본다면 '이다'를 '아니다'로 바꿀 때 부정 작용역이 '-ㄴ 것' 앞에 오는 절 전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5나)와 (6나)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5)의 경우,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꾼다면 '대출해 주지 않는다'와 같은 의미가 나타나야 하는데 (5나)는 대출을 해 주지만, 대출해 주는 이유가 그 기업의 사업성이 아니라는 의미를 표현할 뿐이다. (6나)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미쳐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아닌 다른 경우에 미쳐 버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ㄴ 것'과 '이다'를 분리하여 각각 '명사화 기능'과 '지정'의 기능으로 보지 않고 '-ㄴ 것이다'를 하나의 구문 형식으로 본다.

3) 말뭉치에서 발췌한 원문은 '은행은 그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는 것이다'이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주체이므로 이 예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5)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5.1.1. 문법적 특징

신선경(1993), 강소영(2004), 남길임(2004) 등에서는 일반적인 계사 구문으로서의 '-ㄴ 것이다'와 굳어진 표현으로 쓰인 '-ㄴ 것이다'를 구분하기 위해 이 두 구문의 문법적 차이를 많이 언급하였다. 예컨대 계사 구문으로서의 '-ㄴ 것이다'는 주어와 보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나 굳어진 표현으로 쓰인 '-ㄴ 것이다'는 주어와 보어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또한 계사 구문으로서의 '-ㄴ 것이다'는 어휘 부정소 '아니다'로 부정할 수 있으나 굳어진 표현으로 쓰인 '-ㄴ 것이다'는 '아니다'로 부정하기 어렵다. 이 항에서는 구문화된 '-ㄴ 것이다'에 중점을 두고 이 구문의 여러 문법적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ㄴ 것이다'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와 서술어 유형을 살펴보겠다.

(7) 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미쳐 버리는 것이다.
나. 나는 그 그림자들을 없애 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다. *그는 바람과 어둠의 상황 안에서도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별자리를 만들어 놓았은 것이다.
라. {*나/*그}는 그 그림자들을 없애 버리겠는 것이다.

(8) 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미쳐 버리는 것이다.
나. 그런 도움들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 그는 눈물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법관인 것이다.

(7)은 '-ㄴ 것이다'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를 살펴본 예이다. 이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ㄴ 것이다' 앞에 선어말어미 '-느-', '-더-'는 올 수 있지만,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나 '추측'이나 '의도'를 의미하는 양태 선어말어미 '-겠-'은 오기 어렵다. '-ㄴ'이 표현하는 '현실'의 의미는 '-었-'이 표현하는 '과거'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ㄴ'과 '-었-'이 같이 출현하기가 어렵다. 또한 '-ㄴ'의 의미는 '-겠-'이 표현하는 화자의 주관적인 '추측'이나 '의도'와 충돌되어서 같이 나타나지 못한다.[4]

4) 말뭉치를 검색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겠는 것이다'가 포함된 예문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또한 (8)은 '-ㄴ 것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 서술어의 종류를 제시한 것인데, (8)에서 볼 수 있듯이 '-ㄴ 것이다' 앞에 동사, 형용사, 그리고 계사가 모두 올 수 있으므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ㄴ 것이다' 앞에서도 인용문 형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자.

(9) 가. 외국에도 목욕탕이나 사우나가 있지만 한국만큼 화려한 시설에 다양한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못한 것이다}.
나.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행을 진행하면 적자가 뻔해 설령 위약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어도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택한다고 하는 것이다, *택하는 것이다}.
다. 일단 많이 풀어 개봉 초기 선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거두겠다고 하는 것이다, *거두는 것이다, *거둘 것이다}.

(9)에서 볼 수 있듯이 '-ㄴ 것이다' 앞에 완형 보절이 올 수 있고, '-다는 것이다'는 '-다고 하는 것이다'로 대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ㄴ 것이다'로 대치하면 인용의 뜻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대치가 불가능하다. 특히 '-다는 것이다' 앞에 오는 내용이 '추측'한 내용 등일 때는 '-다는 것이다'를 '-ㄴ 것이다'로 완전히 대치할 수 없다.

남가영(2009: 326-7)에서는 '-다는 것이다'와 '-는 것이다'의 차이를 언급한 바 있

'-겠-'은 '추측'이나 '의도'라는 양태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기 어렵다.

예: 가. 분명히 알겠는 것이다.
나. 알 듯하면서도 모르겠는 것이다.
다. 이 가을에 첫애를 낳게 됐다는 말을 듣고는 우수워 못 견디겠는 것이다.

박재연(2006: 122 각주 15)에 따르면 (가)의 '알겠-'과 (나)의 '모르겠-'은 동사 어간과 '-겠-'의 통합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따라서 이때 '알겠-'이나 '모르겠-'의 '-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들이 이미 하나의 굳어진 관용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ㄴ 것이다'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의 '-겠-'은 '능력(박재연 2006: 120)'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Dixon(2012: 40)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추측', '의무', '능력' 등 양태 의미는 비현실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능력'이란 양태 의미가 현실성을 가지는 '-ㄴ'과는 결합할 수 있지만, '-겠을'과 같은 표현과는 잘 결합하지 않는다.

다. 그에 따르면 첫째, '-다는 것이다'는 전언의 형식이므로 타인의 말처럼 들리는데, '-는 것이다'는 화자 자신의 판단이나 단언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둘째, '-ㄴ 것이다' 앞에 오는 내용에 비해 '-다는 것이다' 앞에 오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때 '-ㄴ 것이다' 앞에 오는 내용은 타인이 한 말에 대한 화자의 환언이라 '-ㄴ 것이다'로 대치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는 것이다'뿐 아니라 '-냐는/라는/자는 것이다'도 사용될 수 있다. 이때의 '-냐는/라는/자는 것이다'도 '-ㄴ 것이다'로 바꾸기 어렵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가. 자기 회사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선정하게 되면 자사의 참고서 매출액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치열한 로비를 펼치지 않을 양심적인 출판사가 {있겠느냐는, *있겠는} 것이다.
나. 요컨대 일본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앞서 역사적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라는 것, *시인하는 것}이다.
다.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는 어떤 경우, 어떤 시기에도 언제나 아킬레스건과 같은 산업의 최대 취약 포인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자는 것, *인식하는 것}이다.

(10)에서 볼 수 있듯이 '-ㄴ 것이다' 앞에 '-냐는/라는/자는'이 올 수 있다. 이때 '-ㄴ 것이다' 앞에 오는 내용은 명령이나 청유 등 화행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ㄴ 것이다'로 대치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ㄴ 것이다' 뒤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와 문장 유형을 살펴보겠다.

(11) 가. 이렇게 즐기길 사흘 만에야 끝나는 것이었다.
나. 그는 그 범법의 사실이 확인함에 기인한 것이겠다.
다. 사람들은 그가 예수인 줄만 알았던 것이더라.
라. *아버지께서 집에 오신 것이시다.
(12) 가. 싼 값에 그 가치의 핵심인 질, 곧 생명성을 즐길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싼 값에 그 가치의 핵심인 질, 곧 생명성을 즐길 수는 없는 것인가?

(11)은 '-ㄴ 것이다' 뒤에 선어말어미가 오는 예이고, (12)는 '-ㄴ 것이다'가 쓰일 수 있는 문장 유형을 보여주는 예이다. (11)을 통해 볼 수 있듯이 '-ㄴ 것이다' 뒤에 선어말어미 '-었-'이나 '-겠-', 그리고 '-더-'가 모두 올 수 있으나 존대 선어말어미 '-시-'는 올 수 없다. 이때 '-시-'가 결합할 수 없는 이유는 '-ㄴ 것이다'의 사용 주체가 화자이고, 일반적으로 화자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ㄴ 것이다'는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쓰일 수 있으나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쓰일 수 없다.[5)]

5.1.2. 의미적 특징

선행 연구에서 '-ㄴ 것이다'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논의해 왔다. 신선경(1993), 안효경(2001), 김종복 외(2008가) 등에서는 '-ㄴ 것이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언급한 바가 있고, 박소영(2001), 조인정(2011), 박진호(2013), 정상철(2016), 조민영(2017), 개맹(2019), 조윤행(2021) 등에서는 문어나 구어에 쓰인 '-ㄴ 것이다'의 여러 텍스트적 기능이나 담화적 기능을 밝힌 바가 있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ㄴ 것이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겠다. 아래 <표 12>는 한국어 사전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ㄴ 것이다'의 기본적 의미이고, <표 13>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문어나 구어에 쓰인 '-ㄴ 것이다'의 텍스트적 기능이나 담화적 기능이다.

<표 12> 한국어 사전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ㄴ 것이다'의 의미

사전류	『표준국어대사전』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확신을 나타낸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그 사실을 강조하거나 설명함을 나타내는 말.
	백봉자(2006)	규칙, 진리
논저	남기심(1991)	규범적인 사실이나 마땅히 지켜야 할 일
	신선경(1993)	기정 사실 강조

5) 장미라(2009: 246)에서도 '-ㄴ 것이다'의 이러한 제약을 언급한 바가 있다.

류	안효경(2001)	단정이나 강조, 당위
	김종복 외(2008)	사건 강조
	장미라(2009)	단정[6], 당위

<표 13>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ㄴ 것이다'의 텍스트적 기능과 담화적 기능

	문어(텍스트적 기능)	구어(담화적 기능)
박소영(2001)	이유, 요약, 부연, 결과, 전환, 역접	
조인정(2011)	보편적 진리나 규범, 부연 설명, 논리적 추리나 결론, 원인이나 이유, 시범, 제안, 권유나 명령, 자신의 결심, 짜증이나 화 표시, 놀라움 표시, 발화 내용에 대한 확신 표시나 사실 확인,	
박진호(2013)[7]	설명: (배후의 사건·원인·이유에 대한) 설명, 교시/충고, 환언, 강조, 발견, 재인식 의지: 청자의(또는 화자·청자의 공동의) 행위에 대한 약속/규칙의 다짐, 화자의(또는 화자·청자의 공동의, 또는 청자의, 또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한 결의	
정상철(2016)	설명: 인과관계 설명, 환언관계 설명, 강조 설명	
조민영(2017)		단언, 판단, 강요, 방법 설명, 해명, 부연 설명, 의외성 표현
개맹(2019)		평서문: 회상, 객관화, 의외, 당위성, 약한 명령, 제안, 말 이음 의문문: 감정 표출, 질문 초점 변화, 재확인, 말 정리, 공손성 강화
조윤행(2021)		의외(상황 묘사, 사실 확인 자기 객관화), 확신, 부연 설명, 방법 설명, 제안, 원인이나 이유

6) 장미라(2009: 245)에서는 '-ㄴ 것이다'의 '단정'의 의미를 두 종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화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사고, 행동 등을 단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인의 말 등을 단정하는 것이다.

7) 박진호(2013)에서는 일본어 'ノダ(noda)' 구문의 용법을 참조하여 한국어 '-ㄴ 것이다' 구문의 용법도 일본어 'ノダ'의 구문과 마찬가지로 크게 '설명'과 '의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고, '의지'의 '-ㄴ 것이다' 구문은 '설명'의 '-ㄴ 것이다' 구문과 다른 근원으로부터 생겨났을 가능성이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ㄴ 것이다'의 기본적 의미는 주로 '강조', '단정' 그리고 '당위'로 보고 있다. 또한 <표 14>를 통해 '-ㄴ 것이다'가 문어나 구어에 쓰일 때 다양한 의미적 기능으로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 일부는 <표 12>에서 제시한 기본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전 지금 열한 시 지나서 첫 끼를 드시는 거예요?(개맹 2019: 65)'와 같은 예문의 '-ㄴ 것이다'는 '강조'나 '단정', '당위'라는 기본적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ㄴ 것이다'의 기능이 문어와 구어에서 유사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구어에만 나타나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어에 쓰인 '-ㄴ 것이다'와 구어에 쓰인 '-ㄴ 것이다'를 구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문어에 쓰이는 '-ㄴ 것이다'를 살펴보겠다. 문어에 쓰이는 '-ㄴ 것이다'는 단락의 첫 문장으로 쓰이기 어렵기 때문에 담화 의존성을 보이고,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표현해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ㄴ 것이다'는 선행하는 문장과의 의미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13) 가. 만약, 인구가 그 증가율이 점점 줄어들든지, 혹은 아주 인구 수가 점점 줄어들든지 한다면, 그 겨레는 설령 현재에 세계적 패권을 잡고, 권세를 휘두르고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장래는 쇠운이 찾아올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겨레의 인구 수의 증감은 그 겨레의 운명의 청우계(晴雨計)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법을 세우는 국회 의원도 법을 범하면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며, 법으로 행정하는 공무원도, 그 상하를 물을 것 없이, 법을 범하면 법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며, 법을 맡아 있는 사법관들도 만약 법을 범하면, 마땅히 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온전히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진정한 법치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진호(2013)에서 지적하였듯이 '의지'의 'ノダ' 구문은 '설명'의 'ノダ' 구문부터 변화해 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의지' '-ㄴ 것이다' 구문도 '설명'의 '-ㄴ 것이다' 구문에서 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고의 관심사는 '-ㄴ 것이다' 구문의 기원보다는 '-ㄴ 것이다' 구문의 용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지 않겠다. 본고에서는 일단 '설명'의 '-ㄴ 것이다' 구문과 '의지'의 '-ㄴ 것이다' 구문을 하나의 구문으로 처리한다.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인 것이다.

(14) 가. 정부는 또 애초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기면서, 과세 대상에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처럼 주택도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개인별로 모두 합쳐 누진세율로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나. 그동안 사람들은 공공의 문제를 거론할 경우 주로 민족국가 단위의 생활 그리고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점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즉 공공성의 영역이 입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15) 가. 사정을 안 수녀가 서울 가는 기차표 한장을 구해줬고, 소년은 술 지게미 한 움큼을 삼키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 날은 추웠고, 배가 고팠던 것이다.

나. 사실 남자들은 이런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16) 가. 매체광고 집행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신문광고비의 총 소요예산은 89억8천여만원이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광고금액만 계산된 것이다.

나. 그와 동시에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묘사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다. 그는 조명 속에 완전히 노출된 채 괴물로 변해 가는 것이다. (박소영 2001: 143)

(13)의 '-ㄴ 것이다'가 쓰인 문장은 선행하는 문장의 내용에 대해 화자가 내리는 결론이나 요약을 제시한다. 이때 '-ㄴ 것이다'는 '그러므로'와 같은 인과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14)의 '-ㄴ 것이다' 구문은 선행 문장의 내용을 환언해 주는 역할을 하고, (15)의 '-ㄴ 것이다' 구문은 선행 문장의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한다. (16)은 단순한 부연설명을 제시하는 예이다. (16가)는 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16나)는 몸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13)~(16)은 모두 화자가 선행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예문이다. 박나리(20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ㄴ 것이다'는 선행 내용을 전제로 하는 2차 발화이고 '-ㄴ 것이다'가 쓰인 문장의 내용은 화자의 내면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강조'나 '단언'의 의미가 수반된다.

또한 환언을 표현하는 '-ㄴ 것이다'와 원인이나 이유를 표현하는 '-ㄴ 것이다'는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 만약 (14)와 (15)의 '-ㄴ 것이다'를 생략하면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의미 관계가 성립하지 못한다. 반면에 결과나 요약을 표현하는 '-ㄴ 것이다'는 생략이 가능하다. 단, 서반석(2021: 130-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ㄴ 것이다'가 있으면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인과 관계가 새롭게 도출된 것이 아니고 선행 문맥을 통해 이미 암시된 것이다.[8] 다시 말해 '-ㄴ 것이다'가 사용되면 화자의 정보에 대한 내면화 정도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16)의 경우, (16가)처럼 '-ㄴ 것이다' 구문이 선행 문장의 어떤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 '-ㄴ 것이다'를 생략하기 어렵고, (16나)처럼 '-ㄴ 것이다' 구문이 선행 문장이 표현한 전제 사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 '-ㄴ 것이다'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ㄴ 것이다'가 쓰이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진술하는 느낌인데 '-ㄴ 것이다'가 쓰이면 어떤 명제를 얘기하는 느낌이다. 서반석(2021: 133)에서는 의미 층위가 바뀌기 때문에 '-ㄴ 것이다'가 쓰일 때 강조의 느낌이 부가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구어에 쓰이는 '-ㄴ 것이다'를 살펴보겠다. 먼저 문어에 쓰이는 '-ㄴ 것이다'와 마찬가지로 구어에서도 2차 발화로 쓰이는 '-ㄴ 것이다'가 존재한다. 아래 예를 보자.

(17) 가. 실용 음악 디렉팅 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음악을 이제~ 어떤 장르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 대학이 이 질문을 나한테 왜 한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 소개서 문항을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묻고 있는 지 좀 명확히 아셔야

8) 서반석(2021: 130-1)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ㄴ 것이다'의 출현 여부에 따른 의미 변화를 설명하였다.

예: 가. 철수는 눈문을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나. 철수는 눈문을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았던 것이다.
(이상 서반석 2021: 130-1)

서반석(2021: 130-1)에 따르면 (가)의 경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후행 문장이 도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를 통해 선행문장과 후행문장이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반면에 (나)의 경우, '-ㄴ 것이다'가 쓰이기 때문에 후행 문장의 내용은 이미 선행 문맥에서 암시되거나 제시되는 것이다.

되구요. 어 단순한 나열 아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단순한 나열이 아니구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 음~ 에~ 훈민정음 답안지를 썼는데 문제는 아주 쉬웠어요. 내가 보기엔 엄청 쉬웠어. 뭐냐면 훈민정음만 외우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야.

라. 동양과 서양이 다르죠. 동양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수복강녕이에요. 주로. 서양은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돈이 많이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동양과 서양이 해 온 과정이 다릅니다.

(17가)는 결과를 표현하는 '-ㄴ 것이다' 구문이고, 이는 '이런 수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어떤 장르를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17나)는 환언 내용을 제시하는 '-ㄴ 것이다' 구문인데, 이는 '자기 소개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나열하지 말라'는 말을 환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17다)는 원인이나 이유를 추가하는 '-ㄴ 것이다' 구문이고, 화자가 훈민정음 답안지를 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7라)는 단순한 부연 설명을 하는 예이고, 이때 '-ㄴ 것이다' 구문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의 '-ㄴ 것이다' 구문은 선행하는 문장에 의존하며, 하나의 응집성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어에서는 2차 발화로 쓰인 '-ㄴ 것이다'는 말차례 교대를 통해 그의 기능을 실현한다. 아래 예를 살펴보겠다.

(18) 가. 현지: 안 올 것처럼 하도 정색하기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엄지: 동탁 오빠 보러 온 거야.
현지: (픽 웃으며) 누가 물어봤어?

나. 여진: 어떻게 된 일이죠? 도망갔다던 순영이가 왜 여기 있어요?
민원장: 처음부터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진: 그럼 ...그이가.. 옛날에 그 수술이 잘못되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원장: 그때 순영씨 수술 후에...문제가 생겼습니다. 깨어나지를 않았어요.
여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죠? 그럼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이대로 모른 척 해왔다는 거예요?

(18가)의 경우, '현지'가 하는 말은 '어떻게 왔어'라는 질문을 암시하고, '엄지'의 말은 자기가 오는 이유를 대답하는 것이다. '엄지'의 말은 '현지'의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선행 문맥을 전제하여 한 2차 발화의 성질과 가깝다. (18나)의 '그럼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이대로 모른 척 해왔다는 거예요?'라는 말은 선행 문맥에서 제시한 사건 전체의 내용을 환언한 것이고, 이때 의문문을 사용해 재확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선행 문맥에 의존하는 2차 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어에서는 2차 발화로 간주할 수 없는 '-ㄴ 것이다' 구문도 많이 쓰인다.[9] 아래 예를 보자.

(19) 가. 내 딸, 자네 믿고 {주는 거야, *줘, *줬어}. 알았나?
나. 할머니, 푹 주무시고 깨시면 {되는 거예요, 돼요}.

(19)에서 제시한 예문들은 2차 발화에 쓰인 '-ㄴ 것이다'로 보기 어렵다. 이들은 선행 발화를 전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가)의 경우, '-ㄴ 것이다'가 쓰인 문장은 부연 설명의 역할을 발휘하지 않지만, 앞에 오는 내용을 명제화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ㄴ 것이다'는 하나의 명제화 장치로서 생략할 수 없다. 반면에 (19나) '-ㄴ 것이다'는 생략 가능하다. 이때의 '-ㄴ 것이다'는 명제화 기능도 거의 가지지 않는다. 박진호(2019나: 127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가 현대 일본어 'のだ' 구문 혹은 한국어 '-ㄴ 것이다' 구문을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의 발화가 청자 및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매우 높은 관련성(relevance)을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山嶋義直 2007)"인데, 청자가 화자의 기대보다 이 발화의 관련성/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면 'のだ' 구문이나 '-ㄴ 것이다' 구문의 표현 가치가 적어지는 것이다. 또한 박진호(2020: 31)에서는 부연 설명의 역할을 하는 'のだ' 구문이 자주 쓰

9) 본고가 2차 발화로 간주할 수 없는 문어의 '-ㄴ 것이다' 구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어에 비해 이러한 '-ㄴ 것이다' 구문이 구어에서 더 활발하게 쓰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의미가 탈색되어 별다른 의미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어의 '-ㄴ 것이다' 구문은 일본어의 'のだ' 구문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19나)를 보면 한국어 '-ㄴ 것이다'에도 의미의 탈색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먼저 명제화 기능을 가진 '-ㄴ 것이다'를 살펴보자.

(20) 가. 같이 먹는 사람이 특별하면 그냥 떡볶이도 몇 배는 더 맛있는 거야. 몰랐지?
나. 엄지: (미안한, 가슴 아픈, 동탁을 보는) 오빠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동탁: (OL)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자는 거야.

(21) 가. 이제 우리 지석이 총장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거야.
나. 반편이 소리 다시 한번 하면 너 오빠한텐 처음으로 맞는 거야.
다. 병원에 갈 정도로 몸이 피곤하다면 심각한 거예요.

(20)은 선·후행 문맥에 명제 논항을 요구하는 서술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쓰는 '-ㄴ 것이다' 구문이다. (20가)에서는 '-ㄴ 것이다' 구문 뒤에 '모르다'라는 명제 논항을 취하는 서술어가 있고, (20나)에서는 '-ㄴ 것이다' 구문 앞에 '아니다'가 있다. '-ㄴ 게 아니라 -ㄴ 것이다'라는 구문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병렬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아니다'가 부정하는 대상은 명제이기 때문에 후행절도 명제를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 '-ㄴ 것이다'에 더 부각되는 의미 기능이 없고 단순히 해당 내용을 명제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21)의 경우, '-ㄴ 것이다' 구문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판단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명제여야 하기 때문에 '-ㄴ 것이다'를 쓰고, 이를 삭제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특히 (21가)와 (21나)의 '-ㄴ 것이다'는 미래의 일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데, '-ㄹ 거야'에 비해 이 일이 확정된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러난다.

다음으로 명제화 기능이 드러나지 않는 '-ㄴ 것이다' 구문을 살펴보겠다. 우선 아래 예를 통해 단언 행위로 쓰이는 '-ㄴ 것이다'를 보자.

(22) 가. 조민아: (마취 주사 놓고) 할머니, 푹 주무시고 깨시면 되는 거예요~

나. 영이: 뭔데요.
정우: 할 말이 없는 거야.

(23) 가. 잘 들어 봐! 이렇게 치는 거야!
나.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발동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 가.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시즌 숫자만 바꿔서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구성으로 다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버스 정류장에서 누구 배웅할 때 말야. 다시 만나자, 잘 가라, 인사할 거 다 하고… 슬픈 얼굴로 안아주고 다 했는데 버스가 안 떠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멀뚱하게 차 떠나는 거 기다려 본 적 있냐고.

(22)~(24)는 화자의 단언을 표현하는 예들이다. 단언은 화행의 일종으로 간주되는데 일반적으로 평서문으로 실현되고 무표적이다. 화자가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출하거나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모두 단언으로 볼 수 있다. 이때 '-ㄴ 것이다'의 기능 부담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ㄴ 것이다'가 있든 없든 문장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의 예문들 중에서 (23)은 '-ㄴ 것이다'가 방법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예로, 조인정(2011: 342), 조민영(2017: 80-1) 등에서 이를 언급한 바가 있다.

또한 (24)는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할 때 쓰는 문장들인데, 선행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예문을 많이 검토하였다. 김정민(2012), 조민영(2017), 조윤행(2021) 등에서는 (24)의 '-ㄴ 것이다'를 의외성을 표현하는 우언적 표현으로 간주하였다.[10] 또한 조민영(2017), 조윤행(2021) 등에서는 '-ㄴ 것이다'가 의외성을 표시할 때 의외성 표지 '-더-'가 포함된 어미 '-더라(고)'와 대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25) 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하더라, 안 해/안 했어}. (조민영 2017: 38)
나. 어떤 차 와 가지구 입구에다 탁 {세워 놓는 거예요, 세워 놓더라고요, 세워 놓았어요}. (조윤행 2021: 296)

10) 박진호(2011나: 7)에서는 의외성은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임(unexpectedness), 신정보(new information)임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라고 하였고 이윤복(2019: 17)에서는 의외성은 "명제의 내용이 화자의 지식 체계에 내면화 되지 않았음을 부호화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2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때 '-ㄴ 것이다'를 '-더라'로 바꾸어 써도 문장이 성립한다. 그러나 (2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ㄴ 것이다'가 완전히 생략되어도 문장은 여전히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때 '-ㄴ 것이다'가 '-더라'처럼 의외성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종결어미 '-어'는 의외성을 명확히 표현하는 어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가 의외성 표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11] 만약 '-더-'가 의외성 표지로 인정된다면 '-더-'는 주로 화자가 과거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발화의 시점에 다시 불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윤복 2019: 84). 이때 의외성을 표현하는 '-더-'는 주어 인칭 제약을 가진다. 주로 객관적 술어일 때 앞에 1인칭이 오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ㄴ 것이다'도 '-더-'처럼 의외성을 나타낸다면 '-더-'와 비슷한 문법적 특징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ㄴ 것이다'는 이러한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아래 예를 살펴보겠다.

(26) 가. 내가 {선택한 거야, *선택하더라}. 괜히 다른 사람 탓하지 마.
나. 이 주먹밥, 첨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한 거예요, *하더라}.

일반적으로 자신이 한 일은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깨닫는 듯이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런데 (26)을 통해 볼 수 있듯이 '-ㄴ 것이다'는 1인칭 주어 뒤에도 쓰인다. 따라서 이때의 '-ㄴ 것이다'를 의외성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ㄴ 것이다'는 의외성을 표시하는 문법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조민영(2017: 39)에서는 '-ㄴ 것이다'가 의외성을 나타낼 때는 '뜻밖임'의 의미만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고, 예상이 되는 내용과 결합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고 하였

11) 박재연(2006), 박진호(2011나), 이윤복(2019) 등에서는 '-더-'가 과거 지각의 시점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성 표지로 보았다. 반면에 조용준(2016), 송재목(2016), 김상민(2021) 등에서는 발화 시점에서 '-더-'가 포함된 명제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성 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송재목(2016: 60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외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판단할 시점은 지각 시점인지 발화 시점인지가 중요하다. 지각 시점에서 판단하면 '-더-'는 의외성 표지로 볼 수 있으나 발화 시점에서 판단하면 '-더-'는 의외성 표지로 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ㄴ 것이다'는 예상된 내용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고, 꼭 '뜻밖임'의 의미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7) 가. 그는 예상대로 응원단이 도착하기 전에 영수증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높게 나타났고요. 어~ 예상대로 나타난 거죠.
다. 결국 밖에서 인화물질을 안으로 던진 사람과 제 뒷머리를 때린 사람! 예상대로 범인은 두 명이었던 거군요.

(27)에서 볼 수 있듯이 '예상대로'가 출현하는 문장 뒤에 '-ㄴ 것이다'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즉 '뜻밖임'이 아닌 경우에도 '-ㄴ 것이다'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ㄴ 것이다'가 의외의 뜻을 나타내는 일부 문맥에 쓰일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ㄴ 것이다'를 의외성 표지로 보지 못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단언'으로 쓰이지 않는 '-ㄴ 것이다'를 살펴보겠다. 아래 (28)은 화자의 의지를 표현할 때 쓰이는 '-ㄴ 것이다'의 예이고 (29)는 지시 화행으로 쓰이는 '-ㄴ 것이다'의 예이다.

(28) 가. 오늘은 마음껏 노는 거야!
나. 그래. 만둣국, 우리 초은이가 좋아하는 만둣국을 끓여주는 거야. (흥얼거리며) 만두를 빚자. 만두 만두~.

(29) 가. 강석이 넌 무조건 올해 안에 결정해서 내년 3월 안에 장가 가구. 혜주 넌 4월에 가는 거야. 알았지?
나. 저번엔 라면 제가 쐈으니까 오늘은 쏘시는 거예요.
다. 관리자1: 사장님 차가 옵니다.
부장: 박수 힘껏 치는 거야! 응 그리구 좀 웃어 웃으라구.
라. 내 눈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는 거야.

(28)은 화자가 앞으로 할 일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때의 '-ㄴ 것이다'는 '-ㄹ 거야'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또한 (28)에서의 '-ㄴ 것이다'는 명제화의 기능을 가지지 않은데도 생략이 어렵다. 이는 반말체 어미 '-어'가 다른 문법 요소 없이 단독으로 쓰일

때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9)는 화자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때 '-ㄴ 것이다'는 당위성을 표현하는 '-어야 하다'나 명령형 어미 '-어라'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당위성 표현도 간접 지시 화행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29)의 '-ㄴ 것이다' 구문이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ㄴ 것이다'를 통해 지시 화행을 표현하는 것은 명령의 강도를 어느 정도 약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지시 화행에 쓰인 '-ㄴ 것이다'는 남기심(1991: 86), 안효경(2001: 97-8), 조민영(2017: 78-80), 개맹(2019: 40-7) 등에서 언급되었다. 남기심(1991: 86), 안효경(2001: 97-8), 개맹(2019: 40-3) 등에 따르면 '-ㄴ 것이다'가 당위성을 표현할 때는 생략할 수 없다.

(30) 가. 이럴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다, *있다, 있어야 한다}.
(남기심 1991: 86, '있다' 및 '있어야 한다'는 필자 추가)
나. 집 걱정은 말어. 너 혼자라도 {뛰어가는 거야, ?뛰어간다, 뛰어가야 한다}. 뒤를 돌아볼 것 없어. 쉬지 말고 {뛰어가는 거야, 뛰어간다, 뛰어가야 한다}.
(개맹 2019: 40)

(30)의 '-ㄴ 것이다'는 '-어야 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당위성을 표현하는 예이다. 이때 '-ㄴ 것이다'가 생략되면 문장이 어색해지는데, 이는 종결어미 '-다'만으로는 당위성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12] 이때 종결어미 '-다'가 아닌 반말체 어미 '-어'로 대치하면 문장이 성립한다. 이는 반말체 어미 '-어'가 문맥이나 억양에 따라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ㄴ 것이다'의 생략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ㄴ 것이다'를 생략한 후에 사용한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편 박진호(2013)에서는 '-ㄴ 것이다'에 '청자의(또는 화자·청자의 공동의) 행위에 대한 약속/규칙의 다짐'을 표시하는 용법이 있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12) 종결어미 '-다'는 일반적으로 '경고', '의지 표출', '감탄' 등을 표현할 수 있으나 '당위성'을 표현하기 어렵다. 종결어미 '-다'의 의미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박재남(2013), 안주호(2016), 임효진(2017), 진관초(201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1) 가. 대신에 결혼하면 성인이니까 학비고 생활비고 니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하는 거야}.

나. 오늘부터 여기서 2주동안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하신 분이니까 잘 배우시고, 2주후에는 이 가게를 맡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하실수 있죠?

다. 난희: 야! 먼저 필름 끊긴 사람이 {나가는 거다, ??나가는 거야}.
형태: 하! 좋다 그래. 그 웨이터가 그 담에 우리 서비스 안주 줬다.

(31가)와 (31나)는 청자에 대한 약속을 표현하는 '-ㄴ 것이다'의 예이고, (31다)는 화·청자의 공동의 행위에 대한 약속/규칙의 다짐을 표현하는 '-ㄴ 것이다'의 예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ㄴ 것이다'가 약속/규칙의 다짐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주로 '-ㄴ 거다'나 '-ㄴ 겁니다'가 쓰이고, '-ㄴ 거야'나 '-ㄴ 거예요'가 쓰이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또한 이때 '-ㄴ 거다'를 생략할 수 없다. '-ㄴ 거다'가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31가)의 '-ㄴ 거다'가 생략되면 '대신에 결혼하면 성인이니까 학비고 생활비고 니가 다 알아서 해'라는 문장은 '약속'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약속으로 쓰일 '-ㄴ 것이다'는 상대방에게 약속을 확인할 때도 쓰일 수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겠다.

(32) 가. 유진: .... 금방 올 거지?
준상: 그래. 금방 올 거야....
유진: (내리다 말고 돌아보며) 오늘 중으로 꼭 {오는 거다, ??오는 거야}.
준상: 그래. 금방 올게.

나. 병도: 내일 {내려가는 거다, ??내려가는 거야}.
주정: 어딜?
병도: (화들짝) 어디라니? 우리 집 같이 내려가기로 했잖아?
주정: 내가? 언제?
병도: 언제? 아까, 4차로 노래방 갔을 때, 친구여 같이 부르면서.

(32)는 화자가 청자에게 약속을 확인할 때 쓰이는 문장들이다. (32가)의 경우, '준상'이 '금방 올 거야'라고 발화한 후에 '유진'이 '오늘 중으로 꼭 오는 거다'라는 말을 통해 '준상'이 했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32나)의 경우, '병도'의 말을 통해 '병도'와 '주정'이 '같이 집에 내려간다'는 약속을 이전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병도'의 첫 번째 말인 '내일 내려가는 거다'를 약속에 대한 확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2)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속을 재확인할 때 쓰는 '-ㄴ 것이다' 구문도 '-ㄴ 거다'라는 형식으로는 쓰이지만, '-ㄴ 거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상으로 평서문에 쓰이는 '-ㄴ 것이다'를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 의문문에 쓰이는 '-ㄴ 것이다'를 살펴보겠다.

먼저 판정의문문에 쓰이는 '-ㄴ 것이다'를 살펴보겠다.

(33) 가. 준호: 나 볼 때마다 네 할머니 몰래 식권 쥐어주는데 뭉클했지. 아 저 여자랑 살면 밥은 안 굶겠구나.
아정: (어이없는) 공짜로 밥 먹고 싶어서 고시원 식당 딸이랑 {결혼한 거야, ??결혼했어}?
나. 아이: (옆에 다가와 건반을 탁 치며)시끄럽단 말예요. 피아노는 그렇게 치는 거 아녜요
삼순: 야! 너까지 날 {무시하는 거야, ??무시해}?

(34) 가. (까페를 나와 우산을 같이 쓰는 준호와 애경.)
준호: 그 젊은 놈이랑 약속 {있었던 거야, 있었어}?
나. 지우: (피식해서 보더니) 잘 먹었다. 고마워.
민기: (놀라며) 야, 너 다 {먹은 거야, 먹었어}?

위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33)에서 '-ㄴ 것이다'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반면, (34)에서는 '-ㄴ 것이다'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33)은 화자가 상대방의 말로 추론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하는 상황이다. 이때 화자가 어떤 행위나 상태 자체를 확인한다고 하기보다는 전체 명제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명제화의 장치인 '-ㄴ 것이다'가 필요하다. 그러나 (34)의 경우 꼭 명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ㄴ 것이다'가 쓰이는지 여부는 문장의 성립이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설명의문문을 살펴보겠다. 개맹(2019: 53-5)에서는 설명의문문에 쓰인 '-ㄴ 것이다'가 '질문 초점 변화'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먼저 아래 예를 보자.

(35) 가. 방송5초 전인데 마이크도 안 오고 원고지도 안 오고, 어떻게 된 거야?
가′. *방송5초 전인데 마이크도 안 오고 원고지도 안 오고, 어떻게 됐어?
나. 저기, 이따 저녁에 들어오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죠?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동네 망신이지. 라디오에서 뭐서 뭐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나′. *저기, 이따 저녁에 들어오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죠? 지금 뭐해요? 이러면서 동네 망신이지. 라디오에서 뭐서 뭐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상 개맹 2019: 53)

개맹(2019: 53-4)에 따르면 (35가)의 '어떻게'는 사건의 결과 등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물어보는 것이다. 또한 (35나)와 같은 예문을 통해 '뭐 하는 거야'가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졌다고 하였다. 이때 '뭐 하는 거야'는 상대방이 하는 행위를 묻는 것도 아니며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개맹(2019: 54-5)에서는 이러한 기능은 의문사 '어떻게', '뭐', '왜'에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어떻게', '뭐', '왜'를 제외한 다른 의문사는 '-ㄴ 것이다'를 쓰든 쓰지 않든 의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어떻게'가 쓰이는 문장은 모두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문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무엇'이 사용된 문장을 보겠다.

(36) 가. 태실: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 해}?
우리: 수화연습.
나. 혼자 멍하니 서서 뭘 보고 {있는 거야, 있어}?
다. 안자고 뭘 보고 {있는 거야, 있어}?
라. 교무실에 먼저 인사 가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해}?

(36)에서 볼 수 있듯이 (36라) 이외에 다른 예문의 '-ㄴ 것이다'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36가)와 (36나)는 화자가 진심으로 상대방이 하는 일이나 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때 '-ㄴ 것이다'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에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36다)의 경우, 여기서 '-ㄴ 것이다'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의미 차이가 나타난다. '-ㄴ 것이다'가 없으면 화자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ㄴ 것이다'가 쓰이면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만약 화자가 '자지 않고 어떤 것을 보고 있다'는 행위 자체에 불만의 태도가 없으면 '-ㄴ 것이다'가 쓰이는 문장과 '-ㄴ 것이다'가 쓰이지 않는 문장은 큰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순히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화자가 이런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 '-ㄴ 것이다'가 쓰일 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동시에 화자의 불만도 동반된다. 또한 '-ㄴ 것이다'가 쓰이는 문장은 화자가 질문하는 의도가 없고 불만만 표현할 때도 쓰인다. 이때는 '-ㄴ 것이다'를 생략하기 어렵다. (36라)는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36라)는 선생님이 인사를 안 하는 학생에게 한 말인데 이때 화자는 학생이 무엇을 하는지를 궁금해하지 않고, 학생이 인사를 안 하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할 뿐이다. 그래서 이때는 '-ㄴ 것이다'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13)]

따라서 화자가 불만의 태도를 가지지 않을 때는 '-ㄴ 것이다'를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나 화자가 불만의 태도를 가지면 '-ㄴ 것이다'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대부분의 의문사가 '-ㄴ 것이다' 구문에 쓰일 때 이러한 의미가 나타난다. 아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7) 가. 미솔이는 왜 {만난 거야, 만났어}?
나. 승희씨 어디 {가는 거야, 가}?
다. 저 사연 누가 {컨택한 거야, 컨택했어}?

13) 이때 언약에 따라 '여기서 뭐 해'는 질문하는 의도 없이 화자의 불만만 표현할 수 있다. 단, 의문문처럼 상향 언약이 수반되면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의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의 경우, 상향 언약이 수반되어도 일반적으로 화자의 불만을 표현할 뿐이고, 질문하는 의도가 동반되지 않는다.

(37)에서 볼 수 있듯이 '왜', '어디', '누가' 등 의문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ㄴ 것이다'의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화자가 불만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ㄴ 것이다'를 쓰는 것을 더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를 살펴보겠다. 아래 예를 보자.

(38) 가. 결혼 얘기 어떻게 {나온 거야, 나왔어}?
나. 근데 상철이 넌 방학도 아닌데 어떻게 {온 거야, 왔어}?!
다. 고소 당했다며? 어떻게 {된 거야, ??됐어}?

(39) 가. 너는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있어}?
나. 근데, 회장님은.. 어떻게 {설득한 거야, 설득했어}?
다.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왔어}? 따라온 거야?

(40) 가. 너 바보니? 대학원 어떻게 {다니는 거야, ??다녀}.
나. 너 도대체 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한 거야, ??검토했어}?

(38)은 '원인'을 물어볼 때 '어떻게'가 쓰이는 예이고, (39)는 '생각'이나 '방식' 등을 물어보는 예이다. 그리고 (40)은 의문사 '어떻게'가 쓰이지만 '의문'의 발화수반력을 가지지 않는 예이다. (3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8다) 이외에 다른 예문의 '-ㄴ 것이다'는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38다)의 경우, '어떻게 됐어'는 소송의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고, '어떻게 된 거야'는 고소를 당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때 '-ㄴ 것이다'의 유무는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39)에서 볼 수 있듯이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볼 때 '-ㄴ 것이다'의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ㄴ 것이다'가 쓰여도 화자의 불만의 태도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40)의 경우, 화자가 질문의 의도 없이 자신의 불만을 표현할 때는 의문사가 쓰인 다른 문장과 마찬가지로 '-ㄴ 것이다'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5.2. '-ㄴ 거 있다'

'있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체나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아래

(41가)는 어떤 실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있다'의 예이고, (41나)는 어떤 사실의 존재를 의미하는 '있다'의 예이다.

(41) 가. 무릎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가, 것이} 있다.
나. 내가 좋아하는 화가 천경자 여사를 따라 가끔 꽃집에 들르는 {일, *것}이 있다.

(41)에서 볼 수 있듯이 실체를 뜻하는 단어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으나 사실을 뜻하는 단어는 '것'으로 대치하기가 어렵다. 존재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맥을 통해 보절 명사 '것'의 의미를 짐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있다' 앞에는 이러한 '명사 보절 + 것' 구성이 쓰이기가 어려운 것이다.[14)]

그런데 구어 대화 상황에서는 확인의문문으로 쓰인 어미 '-지'와 결합한 '-ㄴ 거 있다'가 자주 쓰인다.[15)] 아래 예를 살펴보자.

(42) 가.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로 온 규빈이 의사 선생님을 보고)
규빈: 지금은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구급차 타고 올 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딱 선생님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 ??일} 있죠?
나. 수빈: (지연보며) 어떡해~ 나 완전 망했어! 학원에서 찍어준 거 하나두 안 나온 {거, ??일} 있지! 넌 잘 봤지?

---

14) 만약 문맥을 통해 '것'과 대응하는 보절 명사를 알 수 있다면 '있다' 앞에 명사 보절이 올 수 있다. 아래 제시한 예에서 '것'은 각각 '방법'과 '규칙'을 지시한다.

예: 가. 총점을 구하고 평균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것, 방법}이 있다.
나. 우리 학교의 어린이들은 선생에 대해서 아무런 불안감도 품고 있지 않다. 우리 학교의 교칙 중에는 밤 열 시 이후에는 이층 복도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 규칙}이 있다.

15) 준구어 말뭉치에서 '-ㄴ 것이 있지/죠'로 나타나는 예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ㄴ 것 있지/죠'도 몇 개의 예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표기상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인 '-ㄴ 거 있다'로 표시하였다. '-ㄴ 것 있지/죠'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예: 가. 그래서, 우리 채경이만 괜히 오해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 있지.
나. 조건도 좋고 그 정도면 생각보다 월급도 많은 것 있죠?

(4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의 '것'은 문맥을 살피더라도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일'을 비롯한 보절 명사로 대치하기도 어렵다. 여기서는 화자가 어떤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나 어떤 상태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 있다' 앞에 비현실을 뜻하는 관형사형 어미 '-ㄹ'이 올 수 없다.

다음으로 '-ㄴ 거 있지'의 서술어 제약과 선어말어미 제약을 살펴보겠다.

(43) 가. 현지: 자영씨 참 대단하드라...? 오늘 할머니를 찾아 와서 무릎을 꿇고 우는 거 있지,... 너무 놀랬어,..
나. 규빈: 지금은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구급차 타고 올 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딱 선생님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죠?
다. 미경: 그게 아니라, 글쎄 내 시집에 추천사 써 준 인간이 그 학교 선생인 거 있지!

(44) 가. 학원에서 찍어준 거 하나두 안 나온 거 있지!
나. 자영씨 참 대단하드라...? 오늘 할머니를 찾아 와서 무릎을 꿇고 우는 거 있지,...
다. *자영씨 참 대단하드라...? 오늘 할머니를 찾아 와서 무릎을 꿇고 {울던, 울었던} 거 있지,...

(43)을 통해 볼 수 있듯이 '-ㄴ 거 있지'는 선행하는 서술어에 제약이 없어, 동사, 형용사, 계사가 모두 올 수 있다. 그리고 (44)에서 제시한 것처럼 '-ㄴ 거 있지' 앞에 선어말어미 '-느-'는 허용되나 '-더-'나 '-었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ㄴ 거 있-'의 종결어미로는 주로 '-지' 외에 다른 것이 오기 어렵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5) 가. 개인: 와, 진짜 좋다. 나 완전 행복한 거 {있죠, *있어요, *있거든요}?
진호: 나 같이 근사한 남자랑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나. 헨리: 밤 꼬박 새고 나온 거 아냐?
희진: (웃으며)어. 잠은 안 오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 {있지, *있어, *있거든}. 먹자, 시원한 게 먹고 싶었어.

(45)에서 볼 수 있듯이 '-ㄴ 거 있-'의 종결어미로 '-지'가 아닌 '-어'나 '-거든' 등은 올 수 없다. 박재연(2006: 201-6)에 따르면 평서문에 쓰이는 '-지'는 화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청자도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사용된다. 판정의문문에서도 양태 담지자를 전환하지 않아 화자가 여전히 그 내용을 청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정의문문에 쓰이는 '-지'는 화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청자에게 확인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45)는 청자가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화자도 청자가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45가)의 경우 청자가 화자의 기분을 알기 어렵고, (45나)의 경우 '헨리'가 질문하는 것을 보아 '헨리'와 '희진'이 어젯밤에 같이 있지 않았으므로 '헨리'가 '희진'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45가)와 (45나)는 각각 '나 완전 행복해'와 '잠은 안 오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팠어'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45)와 같은 예에서 화자가 청자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을 앎에도 종결어미 '-지'를 쓰는 것은 청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청자의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ㄴ 거 있지'가 쓰이지 않으면 단순히 화자가 어떤 사실이나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는 것인데, '-ㄴ 거 있지'가 쓰이면 청자에게 이런 일이나 생각이 있음을 전달하며 청자의 공감도 유도할 수 있다.

5.3. '관형사형 어미 + 게 어디 있어/어디야/뭐야'[16]

구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 게' 뒤에 의문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네가 원하는 게 뭐야'처럼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의문사가 사용되어도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있다.

(46) 가. 난정이 너! 아무리 언니라고 해도 동생 휴대폰 함부로 만지는 게 어디 있어?!!
나. 그래도 비행기 타기 전에 말한 게 어디야.
다. 하필 여기서 만날 게 뭐야.

(46가)는 '-는 게 어디 있어'의 예이고, (46나)는 '-ㄴ 게 어디야'의 예이다. 또한 (46다)는 '-ㄹ 게 뭐야'의 예이다. 이 예문들은 모두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는 예문들이지만, '의문'의 발화수반력을 가지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것'이 포함된 구성과 의문사가 결합한 후에 형성된 특수 용법은 아니고, 의문사 자체가 가지는 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17] 그러나 이 의문사들은 '것'이 포함된 구성과 결합하여 특별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구문들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① -ㄴ/ㄹ 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에 선행하는 '것'이 포함된 구성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것'이 선행하

16) 말뭉치에서 보절 명사 '것'이 포함된 구성인 '관형사형 어미 + 것/것이/거 어디야/어디 있어'의 예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형사형 어미 + 것/것이 뭐야'의 예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 아래 예와 같은 '관형사형 어미 + 거 뭐야'의 예만 발견되었는데, 예문의 수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형사형 어미 + 게 뭐야/어디야/어디 있어'를 대표 형식으로 쓰겠다.

예: 이모: (뒷좌석에 엄마와)병실은 났는데 우리는 집으루 가는 중이다.....엄마두 집에 간다 그러구 의사두 집에 가 안정해두 된다는데 굳이 늬 엄마 살 부들부들 떨며 돈 쓰구 병원 있을 거 뭐야.(하며 언니 보면)

17) 예컨대 무량문(2016: 44)에서는 '뭐야' 앞에 '이/그게'가 결합하는 '이게 뭐야', '그게 뭐야'와 같은 예는 전체 문장이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어디야'의 경우, '그래도 나만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가 어디야.'와 같이 앞에 명사가 오는 문장도 있다.

는 관형사절 안에 비어 있는 성분과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것'이 선행하는 관형사절 안에 있는 어떠한 성분으로도 분석되지 않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자.

(47) 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 못 알아들을 게 어디 있어?
(48) 가. 인사 두 번 하는 게 어디 있어?
나. 상추가 이렇게 그~ 저~ 저~ 저~ 국에 넣을 게 어디 있어요? 먹기도 바쁜데...

(47)의 경우, '것'이 각각 선행하는 관형사절의 서술어인 '중요하다'의 주어와 '알아듣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반면에 (48)의 경우, 선행하는 관형사절 안에 논항이 모두 갖춰져 있으므로 '것'이 관형사절 안의 어떠한 문장 성분도 되지 못한다. 이때 '것'의 성질은 다르지만 (47)의 '-ㄴ/ㄹ 게 어디 있어'와 (48)의 '-ㄴ/ㄹ 게 어디 있어'는 같은 의미적 기능을 가진다.[18]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47)의 '-ㄴ/ㄹ 게 어디 있어'와 (48)의 '-ㄴ/ㄹ 게 어디 있어'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구성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ㄴ/ㄹ 게 어디 있어' 앞에 올 수 있는 서술어를 살펴보겠다. (49)는 '-ㄴ 게 어디 있어'의 예이고, (50)은 '-ㄹ 게 어디 있어'의 예이다.

(49) 가. 인사 두 번 하는 게 어디 있어?
나.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팬클럽 대표가 본인인 게 어딨어요.
(50) 가. 상추가 이렇게 그~ 저~ 저~ 저~ 국에 넣을 게 어디 있어요? 먹기도 바쁜데...
나. *사람 목숨보다 중요할 게 어디 있어요?
다. *팬클럽 대표가 본인일 게 어딨어요.

(49)와 (50)에서 볼 수 있듯이 '-ㄴ 게 어디 있어'의 경우 서술어에는 제약이 없으나 '-ㄹ 게 어디 있어'의 경우 동사만 선행할 수 있다. 형용사나 계사는 일반적으로 항구

18) '-ㄴ/ㄹ 게 어디 있어'의 의미적 기능은 후술할 것이다.

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비현실을 뜻하는 '-ㄹ'과 결합하기 어렵다. 단, (51)처럼 감정 형용사가 올 때는 '-ㄹ 게 어디 있어'도 허용된다.

(51) 가. 죄송할 게 어딨어?
나. 싫을 게 어딨어!

(51)에서 볼 수 있듯이 '죄송하다'나 '싫다'와 같은 감정 형용사 뒤에 '-ㄹ 게 어디 있어'를 쓸 수 있다. 감정 형용사는 사람의 일시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 '-ㄹ 게 어디 있어'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ㄴ/ㄹ 게 어디 있어'와 결합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아래 (52)를 살펴보겠다.

(52) 가. 난정이 너! 아무리 언니라고 해도 동생 휴대폰 함부로 {만지는, *만진} 게 어디 있어?!!
나. 난정이 너! 아무리 언니라고 해도 동생 휴대폰 함부로 {*만지던, *만졌던} 게 어디 있어?!!
다. 크게 수천장씩 수만장씩 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십장 가지구 {망할, *망했을} 게 어디 있어..

(5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것'이 선행하는 관형사절 안에 문장 성분이 되지 않을 때 '-ㄴ 게 어디 있어' 앞에 선어말어미 '-느-'는 올 수 있으나 선어말어미 '-더-'나 복합형태인 '-었더-'는 올 수 없다. 특히 '것'에 선행하는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 진술한 내용은 이미 발생한 일이라도 '-ㄴ'이 올 때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느-'와 같이 출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것'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는 일반적으로 비과거여야 함을 할 수 있다.[19]

19) '-ㄴ 게 어디 있어'의 '것'이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킬 때 '-느-' 없이 '-ㄴ'만 사용될 수 있다. 아래 예를 보자.

다음으로 '-ㄴ/ㄹ 게 어디 있어'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아래 예를 보자.

(53) 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 아니 차관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못 알아들을 게 어디 있어?
라. 상추가 이렇게 그~ 저~ 저~ 저~ 국에 넣을 게 어디 있어요? 먹기도 바쁜데...

'-ㄴ/ㄹ 게 어디 있어' 구문은 부정의 기능을 가진다. 이때 전체 문장은 그런 것/일이 없다는 뜻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진다. (53가)는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정도의 뜻이고, (53나)는 '차관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정도의 뜻이다. (53다)와 (53라)도 마찬가지다. 이때 (53나)와 (53라)처럼 '것' 앞에 오는 내용이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 화자의 의식 속에 이들은 모두 발생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일반적으로 과거의 의미가 들어간 '-ㄴ'이 쓰일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ㄴ/ㄹ 게 어디 있어'는 부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 이 구성으로 표현된 화자의 감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54) 가. 형식: 형 여기 일 못해요. 아시잖습니까.
신용석: 못하는 게 어딨어?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거지.
나. 부록: 와... 어머님은 어쩌면 그렇게 뭐든지 다 잘 하세요?
혜옥: 언니가 못하는 게 어딨어~

(55) 가. 난정이 너! 아무리 언니라고 해도 동생 휴대폰 함부로 만지는 게 어디 있어?!!
나. 아니 차관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상추가 이렇게 그~ 저~ 저~ 저~ 국에 넣을 게 어디 있어요? 먹기도 바쁜데...
라. 크게 수천장씩 수만장씩 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십장 가지구 망

예: 가. 공장장님도 아시다시피 남은 게 어딨어요.
나. 닭 껍질로 만든 게 어딨어요.

할 게 어디 있어..

(54)의 경우, (54가)와 (54나)는 모두 '못하는 게 어디 있어'라는 말인데 문맥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달리 나타난다. (54가)의 경우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반면, (54나)의 경우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표현한다. 즉 이때 문맥에 따라 '-ㄴ/ㄹ 게 어디 있어'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55)의 경우, (55가)와 (55나)처럼 해당 사건이 이미 발생한 사건일 때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불만' 태도도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20] 반면에 (55다)와 (55라)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로, 이때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② -ㄴ 게 어디야

'-ㄴ 게 어디야'의 '것'은 '-ㄴ/ㄹ 게 어디 있어'의 '것'과 달리 문장 성분이 비어 있는 관형사절이 선행할 수 없고, 문장 성분이 모두 갖춰져 있는 관형사절만 올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6) 가. 그래도 비행기 타기 전에 말한 게 어디야.
나. 이거라도 해 오는 게 어디야.

(5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때 '것'은 관형사절의 서술어인 '말하다'나 '오다'의 논항이 될 수 없다.

먼저 '~게 어디야' 앞에 선행할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와 선어말어미부터 살펴보자.

---

20)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아래와 같은 예에서는 '-ㄴ 게 어디 있어'가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아닌 긍정적인 태도를 표현한다.

예: P1: 서로 연락도 하고 호주 올 때 둘이서 막 밥 먹고 뭐~ 커피 먹으러 가거나 얘 얘기도 하고 대화 나눠주고 어머니 뉴질랜드 가면 똑같이 하고 이게 예전에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같이 살지도 못 하지만 그래도 화해하는 게 어딨어요.

(57) 가. 그래도 비행기 타기 전에 말한 게 어디야.
나. 이거라도 해 오는 게 어디야.
다. *이거라도 해 {오던, 왔던} 게 어디야.
라. 내일 안 {온, *올} 게 어디야.

(5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게 어디야'는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ㄴ'과의 결합만 가능하고 '-ㄹ'과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ㄴ' 앞에 선어말어미 '-느-'는 올 수 있으나 '-더-'나 '-었더-'는 올 수 없다.[21] 특히 (57나)처럼 이미 발생한 일인데도 '것' 앞에 비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는'이 사용된다.[22] 이때 '-는'을 쓰는 것은 화자가 이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보다 이 사건 자체를 강조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57라)처럼 미래 시간을 뜻하는 시간 부사 '내일'이 있더라도 '~게 어디야' 앞에 비현실을 뜻하는 '-ㄹ'이 아닌 '-ㄴ'이 쓰인다. Dixon(2012: 22)에서는 '현실'은 이미 발생한 것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확실히 발생할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때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 현실을 뜻하는 '-ㄴ'이 쓰인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ㄴ 게 어디야'의 서술어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아래 예를 보자.

(58) 가. 새 옷은 못 입혀도 이거라도 얻은 게 어디야.
나. 첫 번째로 작지 않은 게 어디야.
다. *그래도 나만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인 게 어디야.
라. 그래도 나만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가 어디야.

(5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ㄴ 게 어디야' 앞에 동사와 형용사는 올 수 있지만, 계사

21) 말뭉치에서 '-ㄴ 거 어디야' 앞에 '-더-'가 출현하는 예는 아래의 예 하나만 발견되었다. 이때는 '영자가 없다'라는 사건이 과거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를 쓴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 영자가 없었던 게 어디야. 영자는 모르게 하구 지나가자구.

22) 비과거시제 표시의 관형사형 '-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문숙영(2009)을 참고할 수 있다.

‘이다’는 올 수 없다. (58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디야’ 앞에 명사를 쓰고자 하면 문장의 주어처럼 쓰면 된다.

마지막으로 아래 (59)를 통해 ‘-ㄴ 게 어디야’의 의미 기능을 검토해 보겠다.

(59) 가. 팀장: 나가자! 내가 술 한 잔 사 줄 테니 먹구 가서 푹자! 그래야 내일부터 힘내서 반품 받으러 다니지! 그거 완전 노가다야! 매일같이 박스 지구.
창수: 팀장님! 진짜 왜 이러세요! 지금 불난 집에 휘발유 부어요?!
팀장: 그래두 이 불황에 안 짤린 게 어디야?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다녀!
나. 미희: (호텔 위엄에 휘둥그레) 언니가 차암 인맥이 넓어. 이런 데까지!
찬희: 우리 셋을 다 받아주까?
희주: 셋중 하나라도 걸리는 게 어디야! 얼른 가자.
다. 호남: 난 또 도시락이라고 해서 직접 만들어 온 줄 알았네.
강주: 참 나. 사다 주는 게 어디야? 하루종일 실험실에 있는다고 해서 불쌍해서 사다 줬더니, 먹지 마.

(5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ㄴ 게 어디야’는 ‘-ㄴ/ㄹ 게 어디 있어’와 달리 주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표현한다. 또한 이는 ‘화자/청자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미 충분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만하다’는 의미도 표현한다. (59가)는 ‘반품을 받으러 다니는 건 힘든 일이지만, 짤리는 것보다 좋은 거야’ 정도의 의미이고, (59나)는 ‘셋을 다 받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한 명이라도 받아주면 이미 충분히 좋은 일이다’ 정도의 의미이다. 그리고 (59다)도 마찬가지로 ‘직접 만든 도시락이 아니지만 사다 주는 도시락이 있는 것이 감사할 만한 일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 때문에 ‘-ㄴ 게 어디야’는 ‘양보’의 의미가 드러난 접속부사 ‘그래도’나 조사 ‘-라도’와 같이 자주 사용된다.

③ -ㄹ 게 뭐야

‘어디’ 이외에 의문사 ‘뭐’가 포함된 구문 중에 ‘의문’의 발화수반력을 가지지 않는 구문도 존재한다. 아래 예를 보자.

(60) 가. 정말이지. 못 갈 게 뭐야.
나. 하필 여기서 만날 게 뭐야.

(60)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장들에 '뭐'라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질문의 뜻이 없고 화자의 대답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게 뭐야' 앞에는 관형사형 어미 '-ㄹ'만 올 수 있다.[23][24] 특히 (60나)의 경우,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한 말인데 앞에 현실을 뜻하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아닌 비현실을 뜻하는 '-ㄹ'이 쓰인다.

또한 '-ㄹ 게 뭐야'가 부정의 기능을 가질 때도 있고, 가지지 않을 때도 있다. 아래 예를 보자.

(61) 가. 아무 일없어. 왜 자꾸 별일없냐 그러는 거니 잠자는 동안 별일 있을 게 뭐야 응?
나. 정말이지. 못 갈 게 뭐야.
다. 왜 피곤해. (비웃으며) 계획한 대루 착착 잘 진행되구 있는데 피곤할 게 뭐야.
라. 안 괜찮을 게 뭐야?

---

23) '~게 뭐야'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ㄴ'도 올 수 있는데, 이때는 '의문'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 아래 예를 보자.

예: 가. 묻고 싶은 게 뭐야?
나. 두 달 전하고 달라진 게 뭐야?

(가)의 경우, 화자가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묻는 것이고,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한다. (나)의 경우, 화자가 '두 달 전하고 달라진 게 없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화자가 '단언' 행위를 하는 것인지 '질문' 행위를 하는 것인지는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4) '-ㄹ 게 뭐야'는 질문할 때도 쓰인다. 아래 예를 보자.

예: 가. 급히 의논할 게 뭐야?
나. 도대체 그런 짓해서 니가 좋을 게 뭐야!!

(가)는 '의논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나)는 '이런 짓을 해서 뭐가 좋은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고는 '의문' 행위의 해석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나)처럼 이러한 중의성 해석을 가지는 예를 제외하기로 한다.

(62) 가. 형, 참 운이 없네. 하필 애기씨 없을 때 전화할 게 뭐야?
나. 그렇게 먹을 게 뭐야. 포장해 달라면 되지.

(61)의 경우, '-ㄹ 게 뭐야'는 '부정'의 기능을 가지고,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것' 구성으로 표현된 내용과 반대라는 것이다. 이때의 '-ㄹ 게 뭐야'는 일반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의 뜻이 나타난다. 예컨대 (61가)는 '잠자는 동안 별일이 있을 리가 없다' 정도의 뜻이고, (61나)는 '못 갈 리가 없다' 정도의 뜻이다. 그리고 (61가)와 (61다)는 화자의 '불만'이란 태도도 동반되나 (61나)와 (61라)는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62)의 '-ㄹ 게 뭐야'는 부정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고, 단순히 화자의 '원망'이나 '불만'의 태도를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이때 '것' 구성으로 표현된 사건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고, 부사 '하필'과 자주 사용된다.

또한 '부정'의 기능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ㄹ 게 뭐야' 앞에 결합할 수 있는 서술어가 다르다. 아래 예를 보자.

(63) 가. 정말이지. 못 갈 게 뭐야.
나. 왜 피곤해. (비웃으며) 계획한 대루 착착 잘 진행되구 있는데 피곤할 게 뭐야.
다. *안돼 지금부터, 똑같은 아이들끼리 청소검사일 게 뭐야. 들어들 와!
라. 안돼 지금부터, 똑같은 아이들끼리 청소검사가 뭐야. 들어들 와!
(64) 가. 하필 거기서 마주칠 게 뭐야.
나. 하필 이런 날 추울 게 뭐야.
다. 하필 민주 고 기지배 아들이랑 같은 반일 게 뭐야.

(63)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게 뭐야'가 '부정'의 기능을 나타낼 때 동사나 형용사가 모두 선행할 수 있으나 계사 '이다'와는 결합하기 어렵다. '뭐야' 앞에 명사가 올 경우 해당 명사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고 '이다'가 쓰이지 않는다. 반면에 (64)를 통해 '부정'의 기능을 가지지 않은 '-ㄹ 게 뭐야'는 서술어에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4. '-ㄹ 것 없다'

서술어 뒤에 결합하는 '-ㄹ 것 없다'가 있는데, 이때 '것'은 '없다'의 주어로 볼 수 없다. 아래 예를 보자.

(65) 가. 하나도 겁날 {것, 거, *것이} 없어.
나. 따라올 {것, 거, *것이} 없어. 금방 올 테니까.

(6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ㄹ 것 없다'의 '것'은 '거'로 대치될 수 있는데, '것' 뒤에 주격 조사 '이'가 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의 '것'은 선행하는 관형사절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을 지시하지 않는다. 이럴 때 쓰이는 '-ㄹ 것 없다'는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65가)는 '하나도 겁날 필요가 없다'의 뜻이고, (65나)는 '따라올 필요가 없다'의 뜻이다.

또한 '-ㄹ 것 없다'의 '없다'는 '있다'로 대치되기 어렵다. 아래 (6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6) 가. 그러니까 부담 가질 것 {없어, *있어}.
나. 논문 쓸 것 {없어, *있어}.

그런데 우형식(1995: 21)에 따르면 의문문에 '있다'를 쓰는 경우에 반어적으로 '없다'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예를 보자.

(67) 가. 일부러 흠잡을 거 있어?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
나. 부동산 갈 거 뭐 있어. 우리집 구경하면 되지.

(67)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이 문장들은 가부를 물어보는 판정의문문이 아니고 화자의 단언 행위를 표현하는 수사의문문이다. (67가)는 '일부러 흠잡을 것 없다'의 의미이

고, (67나)는 '부동산 갈 거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있다'가 쓰이지만 여전히 '-ㄹ 것 없다'의 의미를 표현한다.

나아가 '-ㄹ 것 없다'는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와 달리 의문문에 쓸 수 없다. 아래 예를 살펴보겠다.

(68) 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나?
(69) 가.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나?

(68)과 (69)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 없다'는 평서문에만 쓸 수 있으나,[25] '-ㄹ 필요가 없다'는 평서문과 의문문에 모두 쓸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것'은 '필요'를 대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ㄹ 것 없다'는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단, 아래 (70)과 같이 확인의문문에는 '-ㄹ 것 없다'가 사용될 수 있다.

(70) 가. 쓸데없이 이 애 저 애 보느라 <u>시간 낭비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u>?
나. 우리 사이에 <u>괜히 가식적으루 말할 거 없잖아</u>?

(70가)는 '시간 낭비할 거 없다'의 뜻이고, (70나)는 '우리 사이에 괜히 가식적으로 말할 거 없다'의 뜻이다. '-ㄹ 것 없다'는 의문문에 쓰이지만 '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ㄹ 것 없다'의 '없-' 뒤에 부사형 어미 '-이'를 붙여 '-ㄹ 것 없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 예를 보자.

(71) 가. <u>말 길게 할 거 없이</u> 한번 둘러보는 게 낫지 않겠냐?
나. 그럼 <u>신혼여행 따로 갈 거 없이</u> 그냥 유학길로 가는 거예요?

---

25)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나?'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나?'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나?'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지?'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확실히 어색하다.

다. 월수금 화목토 나눌 거 없이..그냥 한달내내 니가 만나라.

(71)에서 볼 수 있듯이 '-ㄹ 것 없이'는 부사처럼 쓰이고, '무엇을 할 필요 없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71가)는 '말 길게 할 필요 없고 한번 둘러보는 게 낫지 않겠냐' 정도의 의미이고, (71나)와 (71다)는 각각 '신혼여행 따로 갈 필요 없고'와 '월수금, 화목토 나눌 필요 없고'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5.5. 어휘화된 '것' 구성

'것' 구성 중의 일부는 이미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것' 구성의 여러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절에서 다룰 대상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겠다.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것'이나 '게'가 포함된 관용구를 추출하여,[26] 이 중에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지만 실제 용례와 사전 기술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선정하여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게'가 포함된 구성은 총 7개가 추출되고, '것'이 포함된 구성은 26개가 추출된다.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이나 형식이 비슷한 것을 제외하면 '것'이나 '게'가 포함된 구성은 총 23개가 있다. 또한 대명사나 추측 표현 '-ㄹ 것 같다' 등에 출현한 '것'은 단어의 일부이거나 이미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진 것이므로 이 절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래 <표 14>는 남은 관용구를 제시한 것이다.

<표 14> 어휘화된 '것' 구성의 후보

	관용구	예문
[1]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국세청 있단 형님한테 하나만 부탁 좀 하자.
[2]	부르는 게 값(이다)	합의 안 해주면 부르는 게 값이지 임마.
[3]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이 참에 진짜 세영이랑 상엽이랑 사귀게

26) 『표준국어대사전』에 '걸'이 포함된 관용구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해볼까?
[4]	'알 게 뭐야'류[27]	어디서 어떤 정볼 얻어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 내가 알 게 뭐야!
[5]	거칠 것이 없다	거칠 것 없이 707호실을 향해 간다.
[6]	그도 그럴 것이	무겸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7]	'너 나 할 것 없이'류[28]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항상 큰 일을 당한 뒤 뒷북만 쳐왔다.
[8]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배고플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표준』)
[9]	없는 것이 없다	생각해 보면 몇 평되지도 않던 옹색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이 없었다.
[10]	올 것이 오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2], [8], [9], [10]의 관용구는 한 문장처럼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휘화된 '것' 구성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4]의 '알 게 뭐야'와 [5]의 '거칠 것이 없다'는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데 사전에 제시된 뜻풀이로 이들의 용례를 해석할 수 있다.[29] 이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어휘처럼 볼 수 있어도 본고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고, 실제 용례가 사전 뜻풀이와 다른 면이 있는 [1], [3], [6], [7]의 관용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30]

① '아닌 게 아니라'

박진호(2019가)에서 기대 논리의 시각에서 '아닌 게 아니라'를 살펴본 이후로,[31] 이

27) '알 게 뭐야'류에는 '알 게 뭐야' 외에 '알 게 뭐예요'와 '알 게 뭡니까'도 포함된다.
28) '너 나 할 것 없이'류에는 '누구 할 것 없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2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알 게 뭐야'와 '거칠 것이 없다'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 알 게 뭐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거칠 것이 없다: (1) 일이 순조로워서 막힘이 없다.
> (2) 사람을 대함에 있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30) 실제 용례와 사전 뜻풀이의 다른 점은 각 항목을 검토할 때 밝힐 것이다.

후인(2022), 후박문·박진호(2022)에서도 ‘아닌 게 아니라’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이때의 ‘아닌 게 아니라’는 일반적인 ‘관형사절 + 것이/게 + 아니라’로 볼 수 없고, 전체가 하나의 부사처럼 쓰인다.[32)33)] 먼저 아래 예를 통해 ‘아닌 게 아니라’를 하나의 굳어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72) 가. 교육부가 중징계하라고 지시 또는 요청했다는 것은 대학을 믿지 못해서인 게 틀림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것이 아니라} 부정사건이 터져나온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죄송스럽다고 정식으로 사과한 대학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나. 해외 나들이, 좋죠.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것이 아니라} 한번 일해보고 싶은 곳이었죠.

(73) 가. 교육부가 중징계하라고 지시 또는 요청했다는 것은 대학을 믿지 못해서인 게 틀림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고} 부정사건이 터져나온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죄송스럽다고 정식으로 사과한 대학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나. 해외 나들이, 좋죠.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고} 한번 일해보고

---

31) 박진호(2019가: 4)에서는 자연논리에서 예상이나 기대(expectation)에 부합하거나 어긋나는 구체적인 사태 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기대논리(expectation)’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사태나 사실이 화자의 기대에 부합하거나 어긋난다는 것을 표시하는 언어 표현에 대해 기술하였다.

32)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된 ‘아닌 게 아니라’의 예문은 총 809개가 있는데, ‘무엇이 아닌 게 아니라’와 같은 ‘아니다’가 앞에 오는 ‘무엇’을 부정하는 역할을 하는 예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주어 뒤에 오는 ‘아닌 게 아니라’는 화자의 기대와 부합함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 예를 보자.

예: 가. 보통이 아닌 게 아니라, 프로야.
나.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게 아니라 ‘필요한’ 일입니다.
다. 영도씨는 아닌 게 아니라 여자를 다시 보고 싶었다.
라. 클로즈업되는 신랑의 얼굴이 아닌 게 아니라 탤런트처럼 준수했다.

예문 (가)와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게’ 앞에 오는 ‘아니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반면, 예문 (다)와 (라)의 ‘아니다’가 그렇지 않다. 또한 (가)와 (나)에서의 ‘아닌 게 아니라’가 삭제되면 문장이 비문이 되는데, (다)와 (라)에서의 ‘아닌 게 아니라’가 생략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와 (라)의 ‘아닌 게 아니라’는 이미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 되고, 부사처럼 쓰인다고 할 수 있다.

33) 왕문용·민형식(1993: 191)에서는 ‘아닌게 아니라’는 일종의 시살법 양태부사로 보았다.

싶은 곳이었죠.

(7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닌 게 아니라’를 ‘아닌 것이 아니라’로 대치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일반적으로 ‘게’는 ‘것이’의 축약형으로 보는 것인데, 이때 ‘아닌 게 아니라’의 ‘게’를 ‘것+이’로 복원할 수 없다.[34] 또한 (72가)의 경우 ‘아닌 게’의 ‘아니다’ 앞에 아무 명사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아니다’는 선행 명사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72나)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앞에 대명사 ‘저’가 오는데, 여기서 ‘제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전체는 주어의 기대와 부합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나아가 ‘~게 아니라’와 비슷한 표현은 ‘~게 아니고’가 있는데, (7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아니라’를 ‘아니고’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이때 ‘아닌 게 아니라’는 이미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닌 게 아니라’의 출현 환경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인(2022: 109-110)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를 일종의 문장 접속 형식으로 간주하였다. 이 구성은 문두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문중에도 나올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4) 가. 이젠 새해라고 하기가 무색할 만큼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주변에도 새해라는 기분이 별로 안 느껴진다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던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부터 이제 달라지는 크고 작은 변화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아~ 새해구나 더 실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인 2022: 110)

나. 깜짝 놀라 방 쪽을 쳐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집 안에 온통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75) 가. 평생을 유학의 그늘 밑에서 살아온 양반 선비나 유생들이라면 아닌 게 아니

34) 모두 문어 말뭉치에서 검색된 ‘아닌 것이 아니라’의 예는 2개밖에 없고, 그중에서 ‘아닌 게 아니라’와 비슷한 용례는 아래와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뿐이다. ‘아닌 것이 아니라’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닌 게 아니라’가 하나의 구성으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게’로 형태가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예: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업 씨와 저 두 사람 사이를 과연 어떠한 색채로 관찰하시었는지요(어폐를 아무쪼록 관대히 보아 주십시오)? 아닌 것이 아니라 저는 업 씨를 마음으로 사랑하였습니다. 또 업 씨도 저를 좀더 무겁게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의병 항쟁에 나서서 기어코 죽는 날까지 싸워야 마땅하다.

나. 잠시의 여유도 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나이따위 의식할 겨를조차 없었다.

(76) 가. 그의 차와 나란히 주차되어있던 자동차는 아닌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바짝 붙어있었다.

나. 우리의 생활의 꽃밭에는 아닌 게 아니라 의상의 날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74)~(76)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닌 게 아니라'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과 절 사이, 혹은 한 문장 안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 이후인(2022: 110)에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나타난 '아닌 게 아니라'의 담화 기능은 '강화'라고 하였고,[35] 맥락 패턴은 '[예상/기대 Y]-[실현 X]'라고 하였다.[36] (74가)는 이러한 패턴에 부합하지만 (74나)와 같은 경우, 앞에 예상이나 기대를 기술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75)와 (76)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행절의 내용이나 '아닌 게 아니라' 앞에 오는 부분에는 화자의 기대나 예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앞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닌 게 아니라'는 발화 중간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발화의 시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예를 보자.

(77) 가. 한걸: 이번에 모두 애썼다. 진서방도 애썼고.
정한: 아닙니다.
기자: 아닌 게 아니라 진서방 아니었으면 당신 일 당할 뻔했어요.

나. 미경 : 세영이 정도면 저희 큰 며느리로 언제든 환영이죠.
창숙: 그치? 세영아, 우리 상엽이 어떻게 생각하냐?
세영: 에? (당황당황해서) 저..들어가서 과외 준비할게요.
미경: 농담 한 번 한 거 갖구 당황하긴..애는 애죠?

35) 이후인(2022: 54)에 따르면 '강화'라는 담화 기능은 선행 명제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청자가 선행 명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36) 박진호(2019가), 후박문·박진호(2022)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의 맥락 패턴을 이보다 더 세분화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후술될 것이다.

주현: 아닌 게 아니라, 이 참에 진짜 세영이랑 상엽이랑 사귀게 해볼까?

(77)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아닌 게 아니라'는 발화의 맨 앞에 나타나고, 선행 문맥에 화자의 기대도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아닌 게 아니라' 뒤에 오는 내용은 현실이 아닌 화자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아닌 게 아니라'의 의미적 기능을 보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닌 게 아니라'의 뜻풀이가 '어떤 사실이 정말 그러하다는 말'로 등재되어 있다. 박진호(2019가), 후박문·박진호(2022) 등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아닌 게 아니라'는 현실이 화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후박문·박진호(2022: 70-8)에 따르면 '아닌 게 아니라'의 논리 패턴은 크게 '양태 - 아닌 게 아니라 - 실현'과 '실현 - 아닌 게 아니라 - 양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양태 - 아닌 게 아니라 - 실현'은 또다시 '인식 양태와 그 실현'과 '평가 양태와 그 실현'으로 나눌 수 있다.[37] 아래 예를 통해 살펴보자.

(78) 가. 다만 한 가지, 낯빛이 발갛고 눈동자가 게슴츠레한 것이 꼭 술 취한 사람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입을 열자 술 냄새가 확 풍겼고, 혀까지 살짝 꼬여 있었다.

37) 후박문·박진호(2022: 70-8)에서는 각 유형의 논리 패턴을 상세히 다루었다.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와 같다.

가. 양태 - 아닌 게 아니라 - 실현
(가). 인식 양태와 그 실현:
① 예고 - 실현
② 예상/기대 - 실현
③ 일반적인 명제/추측/통념 - 그에 부합하는 더 구체적인 사실/사례
④ 명제 - 그 명제의 단순한 재확인/재진술
⑤ 사실 - 그와 유사한 다른 사실
⑥ 구체적인 사실 - 그에 부합되는 더 일반적인 명제
⑦ 구체적인 사실 - 이를 요약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
⑧ 추측/통념 - 추측/통념을 뒷받침하는 사실
⑨ 의혹/소문 - 실현
(나). 평가 양태와 그 실현
① 우려 - 실현
② 바람 - 실현
나. 실현 - 아닌 게 아니라 -양태: 실현 - 예상/기대

나. 학교 교문에서부터 괜스레 주변을 살피며 걸어갔다. 혹여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싶어서. 아닌 게 아니라, 몇몇은 힐끔거리며 지나가는 것도 같다.
다. 오오 새로 작품을 내셨다니 반갑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 내신 작품 읽고 넘 재밌어서 차기작이 궁금했거든요. (후박문·박진호 2022: 76)

(78가)와 (78나)는 각각 '아닌 게 아니라' 앞에 화자의 추측이나 우려가 나타나고, 뒤에 이러한 추측이나 우려와 부합하는 사실이 나타나는 예이다. (78다)는 '아닌 게 아니라' 앞에 현실이 나타나고, 뒤에 화자의 기대가 나타나는 예이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화자의 기대나 예상, 현실 상황을 모두 나타내는 것들이다. 그러나 일부 문맥에서는 화자의 기대와 예상이 드러나지 않고, 현실 혹은 화자의 생각만 표현된다.

(79) 가. 깜짝 놀라 방 쪽을 쳐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집 안에 온통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나. 옷을 입고 비춰 본 거울 속 내 모습은 아닌 게 아니라 새초롬하게 변해 있었다.

(80) 가. 미경 : 세영이 정도면 저희 큰 며느리로 언제든 환영이죠.
창숙: 그치? 세영아, 우리 상엽이 어떻게 생각하냐?
세영: 에? (당황당황해서) 저..들어가서 과외 준비할게요.
미경: 농담 한 번 한 거 갖구 당황하긴.. 애는 애죠?
주현: 아닌 게 아니라, 이 참에 진짜 세영이랑 상엽이랑 사귀게 해 볼까?
나. 경수: 그래? 부잣집 사모님들은 몸살로도 입원하는구나? 우린 돈 아까워서 약 사다 먹고 땀만 내는데!
풍자: 으이구! 차장 사모님 됐으면 그 돈타령 좀 그만해!
경수: (자랑하듯)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변 차장님 이번 중국 계약 건 잘하면 특별 보너스 탈지도 몰라!

(79)는 어떤 상황에 대해 묘사할 때 쓰는 '아닌 게 아니라'이다. 이때 앞에 오는 문맥에서 화자의 어떤 예상이나 기대, 혹은 우려 등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전히 화자의 기대나 예상을 표현할 수 있다. 예컨대 (79가)의 경우 주

인공이 방 쪽을 쳐다보기 전에 상황에 대해 예상한 바가 있는데, 방을 쳐다보았을 때 펼쳐진 상황이 그 예상에 부합한다는 것을 '아닌 게 아니라'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79나)도 마찬가지로 거울을 봤을 때 이미 '내 모습이 새초롬하게 변했다'는 것을 예상하고, '아닌 게 아니라'를 통해 현실이 내 예상과 같다는 것을 표시한다.

한편 (80)의 경우, '아닌 게 아니라' 뒤에 어떤 현실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닌 화자의 생각이 표현된다. 이는 '어떤 사실이 정말 그러하다는 말'이라는 사전의 뜻풀이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 이러한 생각과 부합하는 현실을 나타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는 (78다)와는 다르다. 이때 '아닌 게 아니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화자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마침 떠올라서 상대방에게 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다. 이럴 때 쓰이는 '아닌 게 아니라'는 청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고, 혼잣말로는 쓰일 수 없다. 만약에 (79)에 쓰이는 '아닌 게 아니라', 즉 현실이 화자의 기대나 예상과 부합하는 것을 표현하는 '아닌 게 아니라'는 화자의 주관성을 드러낸다고 하면 (80)에 쓰인 '아닌 게 아니라'는 상호주관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8]

② '그도 그럴 것이'

'그도 그럴 것이'는 '아닌 게 아니라'처럼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39] 주경희(1992: 43 각주 12), 민경모(2008: 244)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지

---

38) 후박문·박진호(2022: 75)에서는 "하나의 담화 내에서 우려/의혹과 실현이 서로 다른 화자에 의해 상호적용적/상호주관적으로 발화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호주관성은 '우려/의혹과 실현'과 같은 맥락 패턴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맥락 패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9) 최윤지(2019: 321-2)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가 형태적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변이형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최윤지(2019: 322)에서 제시한 '그도 그럴 것이'의 변이형은 아래와 같다.

예: 최윤지(2019: 322)에서 제시한 '그도 그럴 것이'의 변이형
그것도 그럴 것이, 그도 그런 게, 그도 그럴 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도 그럴 듯한 게, 그럴 만한 게, 그럴 것이 …

그러나 이 변이형들은 '그도 그럴 것이'에 비해 출현 빈도가 매우 낮다. 21세기 세종 말뭉치(문어)와 모두의 말뭉치(문어)에서 빈도가 매우 낮은 '그럴 것이'를 제외한, '그도 그럴 것이'와 이의 변이형들의 출현 빈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지시사 ‘그’나 ‘그러-/그렇-’을 검토하면서 ‘그도 그럴 것이’를 하나의 관용어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윤지(2019)에서는 (준)분열문 및 기대논리의 관점에서 이 표현이 쓰이는 문장의 통사적 구조와 맥락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최윤지(2019: 328-334)에서는 아래 (81)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고, ‘그도 그럴 것이’를 분열문이나 준분열문 구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81) 가. 철수가 저녁을 안 먹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점심 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나. 철수가 저녁을 안 먹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점심 때 너무 많이 먹었다.
(이상 최윤지 2019: 331)

최윤지(2019: 331-2)에 따르면 이때 (81가)는 정규적 분열문이고, (81나)는 준분열문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것’은 부가어가 비어 있는 열린 명제에서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분열문 구성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인 환경에서 ‘그도 그럴 것이’ 구성을 (준)분열문 구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존재한다. 아래 예를 보자.

(82) 가. 그녀 주위에 있던 각 지휘관들은 놀란 얼굴로 군단장을 살펴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케시어스 군단장이 검을 뽑을 때에는 대전 한가운데에서 전세를 뒤집을 목적인 것인데, 느닷없이 검을 뽑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놀

	21세기 세종 말뭉치(문어)	모두의 말뭉치(문어)	총
그도 그럴 것이	151	1931	2082
그것도 그걸 것이	8	39	47
그도 그런 게	0	0	0
그도 그럴 게	1	4	5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0	1	1
그도 그럴 듯한 게	0	0	0
그걸 만한 게	0	9	9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도 그럴 것이’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인 ‘그것도 그걸 것이’의 빈도는 ‘그도 그럴 것이’에 비해 2.5%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도 그럴 것이’는 변이형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들을 검토하지 않겠다.

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그리고 그들 중 열에 아홉은 나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종종 실없이 킥킥거리며 웃어대니 시선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윤지(2019)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도 그럴 것이'는 역행적 인과 관계를 표시한다. (82)에서 '그도 그럴 것이' 뒤에 오는 내용이 선행하는 문장을 묘사하는 상황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이때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인 문장 뒤에 '-기 때문이다'를 붙이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 해당 문장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이 이유로 인한 결과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인 문장이 이유를 표현하는 부사어가 분열되는 (준)분열문이라면 선행 문장에서 제시한 결과가 없어야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본고는 '그도 그럴 것이' 구성이 (준)분열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일부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인 문장을 분열문이나 준분열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82)와 같은 문장을 고려하면 '그도 그럴 것이'는 이미 (준)분열문의 구성에 벗어나 독립된 부사어처럼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의 '것'을 따로 분리하여 분열문 구성의 '것'으로 보지 않고, '그도 그럴 것이' 전체를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본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그도 그럴 것이'의 뜻풀이가 '어떤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는 말'로 제시되어 있다. 최윤지(2019)에서도 '그도 그럴 것이'가 역행적 인과 관계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도 그럴 것이'는 역행적 인과 관계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는 아래 (83)처럼 역행적 인과 관계를 표시할 때도 있지만, (84)처럼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다. 아래 예를 보자.

(83) 가. 사법 시험은 줄 없고 빽 없는 서민의 자녀도 오로지 성적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기회의 공정과 성공 신화를 상징하는 제도였었죠. 그도 그럴 것이 권력자나 사회 지도층 자녀도 시험에 붙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나. 무겸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84) 가. P2: 그래서 그리스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핫했던 // 그런 뮤지션들이 두 분이 항상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참고로 그리스 하면 머리나 패션 스타일이 천구백오십 년대 // 그런 오십 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 그도 그럴 것이 그 그리스라는 그 뜻이 // 네. 나라 그리스가 아니라 천구백오십 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유행을 했던 패션의 명칭입니다.

나. P1: 부모에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력은 물론이고 취업에도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자조가 청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고요. 그것을 좀 입증해주는 사건들이 최근에 터지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고소득 부모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스펙을 쌓고 있는 동안에 저소득층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시간을 할애하느라 양질에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 그만큼 줄어드는 어~ 뭐랄까요. 정말 취업에 양극화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8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도 그럴 것이' 뒤에 오는 내용은 선행하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이러한 부연 설명은 선행하는 내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인 문장에서는 '-기 때문이다'나 '-(으)니(까)'를 비롯한 원인을 의미하는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반면 (84) 예문의 '그도 그럴 것이'는 역행적 인과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84가)의 경우, '그도 그럴 것이' 뒤에 오는 내용은 선행 문맥에 나오는 '그리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84나)의 경우,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인 문장은 앞에 언급하였던 '그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럴 때 '그도 그럴 것이'는 부연 설명을 붙이기 위한 연결 장치라고 할 수 있고, (준)분열문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그도 그럴 것이'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최윤지(2019: 337-40)에서는 아래 (85)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고,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인 문장은 화자의 시각과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때의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인 문장은 화자가 선행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즉 '그러할 만하다'는 의미가 수반되어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85) 가. 나는 오늘 밤에는 야식을 못 먹는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내일 아침에 건강 검진을 받기 때문이다.
나. 철수는 오늘 밤에는 야식을 못 먹는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내일 아침에 건강 검진을 받기 때문이다.

(86) 가. 나는 세종이 단독으로 한글을 창제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집현전 학자들의 참여가 컸더라면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나. 김 교수는 세종이 단독으로 한글을 창제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집현전 학자들의 참여가 컸더라면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상 최윤지 2019: 339-40)

(85가)와 (86가)는 화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진술하는 예이다. 최윤지(2019: 339-40)에서는 화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그것이 그러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때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이는 것이 어색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선행 문장의 주어가 3인칭일 때는 화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85나)와 (86나)는 정상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아래와 같은 예가 발견되었다. (87)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87) 가. P1: 저는 춘천에 있는 성수고등학교 이십구 회 졸업생입니다. "아 그게 벌써 삼십 년이 훌쩍 흘렀네요. 고등학교 삼 학년 오 반에 올라와 처음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솔직히 조금 실망했던 기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퇴임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던 그 선생님은 무려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이력의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게다가 그 선생님 겉에서 보면 마치 미술 선생님인 것처럼 화가들이나 쓴다는 일명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셨어요.

나. P1: 솔직히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사랑이 지나치다 과하다는 말을 농담처럼 입에 달고 살았던 저와 여동생은 그래서 더 유별난 사랑이 그리운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신지 벌써 십삼 년째 빈자리의 햇수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 준다는 걸 느끼며 살고 있으니까요.

(87가)의 '그도 그럴 것이' 뒤에는 화자가 처음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왜 실망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87나)에서는 화자와 여동생이 왜 유별난 사랑을 그리워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87)의 '그도 그럴 것이'도 역시 '그러할 만하다'로 해석된다. 이때 (87)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는 상황임에도 '그도 그럴 것이'와 함께 쓰였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화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87)은 화자가 과거 자신의 생각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그도 그럴 것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도 그럴 것이'의 사용역이다. 최윤지(2019: 327-8)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도 그럴 것이'는 구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주로 주관성을 가진 문어 텍스트에 쓰인다. 다른 구어의 말뭉치를 확인한 결과, '그도 그럴 것이'는 독백이든 대화든 상관없이 모두 쓰일 수 있다.[40] 또한 이는 주로 인터뷰와 같은 공적 대화에 쓰이고, 드라마와 같은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는 구어에서도 주로 주관성을 가진 문맥에 쓰인다.

③ '다른 게 아니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른 게 아니라'는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등재되어 있고, 의미는 '다른 까닭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의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형이 아닌 관형사 '다른'이다.[41] 그러나 실제적으로 쓰이는 부사어 '다른 게 아니라'

40) 모두의 말뭉치(구어)를 검색한 결과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인 예문은 총 107개가 발견되었다.

41) 형용사 '다르다' 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다른'이 형성되고 아래와 같은 예문에도 '다른 게 아니라'는 형태가 출현한다. 그러나 이때의 '다른'은 '같지 않다'는 뜻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가. 인정이 많아 남을 돕는 일과 자기를 위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는 사전에서 제시한 용법보다 다양하다. 아래 예를 보자.

(88) 가. 엄마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웃음이다.
나. 그 해킹 프로그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감청을 하는 특히 휴대폰 감청을 하는 해긴 해킹 프로그램이에요.
다. 제가 의심 가는 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한 회사에서 어떻게 차량을 두 대씩이나 도난을 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89) 가. 안장이 실전에서 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개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트윈 피어싱 캐논 때문이었다.
나. 우리가 여기로 찾아온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인민들한테서 량식을 좀 구할가 해서 왔습니다.
다. 그런데 경찰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게다가 이후에 범행 전에 한 보름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 같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휴대전화를 어떤 뭐 살해 방법이라든가 증거 인멸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한 기록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90) 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한 시간 뒤 내 아파트로 와 주었으면 좋겠소. 아주 중요한 용건이오.
나. 어, 이형사. 외근중이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국세청 있단 형님한테 하나만 부탁 좀 하자.

(88)에서 ‘다른 게 아니라’는 명사나 명사구 앞에 오고, 이때의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을 가리킨다. ‘다른 게 아니라’는 주로 ‘무엇은 다른 게 아니라 ~이다’의 구문에 나타나고 초점부사 ‘바로’와 대치할 수 있다.

한편 (89)에서의 ‘다른 게 아니라’는 ‘다른 까닭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전에 등재된 의미로 해석된다. 이럴 때 ‘다른 게 아니라’를 (88가)처럼 ‘무엇은 다른 게 아니라 ~이다’ 구문에 쓰면 ‘바로’와 대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구문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89나)와 (89다)처럼 ‘다른 게 아니라’를 ‘바로’로 대치하기 어렵다. 후총(2017: 33)에서 언급하였듯이 초점 부사인 ‘바로’는 일반적으로 체언만 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표정만 다른 게 아니라 발걸음도 가벼워 보인다.

특히 (89나)나 (89다)에서의 '다른 게 아니라'는 이미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다. 이때의 '다른 게 아니라'는 '다른 원인/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원인/이유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후행하는 원인/이유가 유일한 원인/이유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90)의 경우, 이때의 '다른 게 아니라'는 주로 요청 화행을 가진 문맥에 쓰인다. 화자가 청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게 아니라'가 쓰이면 요청 행위의 강도를 조금 완화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다름이 아니라'나 '딴 게 아니라'는 '다른 게 아니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다름이 아니라'와 '딴 게 아니라'의 사용 양상이 '다른 게 아니라'와 같은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91) 가. 그 틀림없는 장사란 다름이 아니라 색시 장사였다
나. 제가 베이직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페셜 클래스로 가는 길을 함께 가고자 함입니다.
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내일 시간이 괜찮으신지....괜찮으시다면 내일 잠간 뵐까 해서요.

(92) 가. 지금 골머리 싸매고 생각해내야 할 건 그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사하게 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나. 정치에서 손을 잡는 건 딴 게 아니라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다. 아 예. 강 형사님. 저 성호 형 밑에 있는 짱구라고 합니다. 성호 형이 뭐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요. 딴 게 아니라, 그 박정금이라는 사람, 연락처 좀 알아오라고 하시던데요.

(91)은 '다름이 아니라'의 예이고, (92)는 '딴 게 아니라'의 예이다. (91)과 (9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름이 아니라'나 '딴 게 아니라'는 '다른 게 아니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까닭이 있는 게 아니라'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무엇은 다른 게 아니라 ~이다' 구문이나 요청 화행을 가진 문맥에서도 쓰일 수 있다.

④ ‘N-할 것 없이’

『표준국어대사전』은 ‘할 것 없이’를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포함한 관용구 몇 가지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사전에서 제시한 ‘할 것 없이’가 포함된 관용구는 아래 <표 15>와 같이 정리된다.

<표 1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할 것 없이’가 포함된 관용구

	표제어	뜻풀이
[1]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2]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3]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날짜를 가리거나 따질 것 없이.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할 것 없이’는 ‘무엇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할 것 없이’는 <표 16>에서 제시한 관용구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쓰인다. 아래 예를 보자.

(93) 가. 5세기 이전에 모랫바람에 묻힌 실크로드 왕국 누란(樓蘭)은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소설의 소재로 빈도 높게 선호되었던 환상의 도시다.
나. 여기 나타난, 이 시를 쓴 아이의 심정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때 농촌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나타내었다.

(94) 가. 중.고 시절엔 백운대, 북한산, 관악산, 치악산 할 것 없이 서울 근교에 널려 있는 모든 산이 뒷동산처럼 그의 발아래 있었다.
나.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수준 높은 대중예술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화인, 영화제작자, 공연장 경영자,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상황임을 모두 인식하여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95) 가. 원시림 안은 수목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어디나 할 것 없이 습기로 질척거렸으며, 발 언저리에는 썩은 나뭇잎이 두텁게 쌓여 있어 밟을 때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물이 질퍽거렸다.
나. 민자당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요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해 나갈 것이다.

(93)~(95)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할 것 없이'의 출현 환경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93)의 경우에는 '할 것 없이' 앞에 주로 의미가 반대되는 어휘들이 오고 (94)의 경우에는 '할 것 없이' 앞에 주로 한 부류에 속한 개체들이 온다. 다시 말해 전자는 집합의 범위를 제시하는 반면, 후자는 집합을 구성하는 개체를 제시한다. 또한 (95)에서는 '할 것 없이' 앞에 의문사가 오는데, 이때의 의문사는 부정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이때의 '할 것 없이'는 모두 '무엇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의미의 합성성 원리에 따라 '할 것 없이'의 의미를 도출할 수 없다. 그리고 '할 것 없이'의 이러한 사용 양상을 보면 '할 것 없이' 자체를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할 것 없이'는 구어에서 '할 거 없이'로 쓸 수 있지만, 문어에서든 구어에서든 '할 것 없이'의 '것' 뒤에 조사가 올 수는 없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6) 가. 손님 종업원 {할 거 없이, 할 것 없이} 모두들 아정을 보고 있다.
나. 애 어른 {할 거 없이, 할 것 없이} 온통 다이어트 다이어트!

(97) 가. *손님 종업원 {할 것이 없이, 할 게 없이} 모두들 아정을 보고 있다.
나. *애 어른 {할 것이 없이, 할 게 없이} 온통 다이어트 다이어트!

(96)과 (97)에서 볼 수 있듯이 '할 것 없이'는 '할 거 없이'로 쓸 수 있는데, '할 것이 없이'나 '할 게 없이'로 바꿀 수 없다. '할 것 없이'의 '것'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올 수 없다는 것은 '할 것 없이'가 이미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졌다는 것의 방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때 '할 것 없이'가 '할 거 없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구어에서 '것'이 '거'로 실현되는 것은 매우 현상이다.

6.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어에서 ‘것’의 용법을 크게 절 구성에 쓰이는 ‘것’,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 ‘것’의 용법을 논의하는 데 미리 규명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본 후에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이 가지는 여러 특징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것’의 다른 용법을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2.1.에서는 ‘대용어’나 ‘접어’, 혹은 ‘기능명사’ 등의 술어가 ‘것’의 용법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었고 본고에서는 이러한 술어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존명사’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의존명사의 명사성까지 고려하여 아직 명사성이 남아 있는 ‘것’을 의존명사 ‘것’이라 칭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2.2.에서는 문어나 구어에 나타나는 ‘거’, ‘게’, ‘걸’ 등 ‘것’의 실현형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출현 환경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경우에는 ‘것’이 이 실현형들과 자유롭게 대치될 수 있으나 ‘아닌 게 아니라’를 비롯한 일부 굳어진 표현의 경우에는 서로 대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2.3.에서는 한국어 사전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것’의 용법과 분류를 검토한 후,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고, 이 특징들을 토대로 본고에서 다루는 ‘것’ 용법을 추출하고 분류하였다.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은 명사, 속격 조사 ‘의’, 관형사,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후행하는 조사나 서술어에 제약이 없으며, 사물 등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명사를 대용하는 기능도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것’ 용법을 분류할 때 먼저 선행하는 수식어가 주로 관형사절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절 구성에 따라 쓰이는 ‘것’의 용법을 추출하였고, 그중에서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 명사절의 ‘것’, 분열문 구성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후행하는 조사나 서술어까지 고정된다는 기준을 통해 절 구성에 쓰이는 ‘것’과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형성된 ‘것’ 구성을 구별하였고, 어미적 기능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는

‘것’ 구성을 어미 및 어미 상당의 ‘것’ 구성과 구문화 및 어휘화된 ‘것’ 구성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것’ 구성이 출현하는 위치와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의 ‘것’ 구성, 연결어미 상당의 ‘것’ 구성, 그리고 선어말어미 상당의 ‘것’ 구성으로 다시 나누었고, 후자는 ‘것’ 구성에서 ‘것’에 선행하는 서술어가 완전히 고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문화된 ‘것’ 구성과 어휘화된 ‘것’ 구성으로 다시 나누었다.

제3장에서는 각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기능을 살펴보고 각 절 구성에 쓰이는 ‘것’의 위상을 밝히었다. 3.1.에서는 먼저 ‘명사 보절’의 개념을 살펴보고, 본고에서의 ‘명사 보절’을 ‘핵어 명사 앞에 오는 관형사절이 핵어 명사의 의미를 보충하고, 핵어 명사가 관형사절에서 아무 문장 성분이 되지 않는 절’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명사 보절 뒤에 쓰이는 보절 명사로서의 ‘것’은 후행하는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것’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에 제약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후행하는 조사나 서술어에 제약이 없다는 것과 지시사 ‘그’나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명사 보절의 ‘것’은 아직 명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어휘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단, ‘것’이 가리킬 수 있는 명사가 존재하나, ‘것’ 명사 보절은 사태 자체를 더 강조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보절 명사는 그 명사를 가진 어휘적인 의미를 더 강조한다고 보았다.

3.2.에서는 먼저 한국어에 내핵관계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논의와 반대하는 논의를 살펴보았고, 내핵관계절의 정의와 Dixon(2010)에서 제시한 전형적인 관계절 구성의 특징과 비교하여 한국어에 내핵관계절을 인정할 만한 예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핵어 명사와 ‘것’이 완전히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내핵관계절로 볼 뿐 아니라 핵어 명사가 지시하는 범주에 있는 어느 개체와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것과 상위 개념의 범위에서 핵어 명사와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것도 내핵관계절로 분류하였다.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먼저 ‘것’이 관형사형 어미의 수식을 받을 때 관형사형 어미에 제약이 없음을 밝혔고, ‘것’ 뒤에 속격 조사 ‘의’가 올 수 없고, 계사 ‘이다’의 보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핵관계절 구성의 ‘것’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지시사 ‘그’나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없으나 사물을 가리킬 때는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내핵관계절의 ‘것’은 관형사절에 나오는 핵어 명사와 공지시 관계를 이루므로 ‘것’의 어휘적 기능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때의

‘것’은 내핵관계절이 주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빈자리를 채워주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3.3.에서는 먼저 한국어에서 명사절을 만드는 문법 요소인 ‘-음’이나 ‘-기’의 자리에 ‘-ㄴ/ㄹ 것’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 ‘-ㄴ/ㄹ 것’이 쓰인 명사절은 주로 명제를 표시한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명사절에 쓰이는 ‘것’도 명사 보절의 수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서술어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 ‘-ㄴ’이나 ‘-ㄹ’을 선택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서술어의 사실성은 ‘-ㄴ 것’과 ‘-다는 것’의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리 유용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것’ 뒤에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올 수 있다는 사실과 용언으로 절 논항을 취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계사만 올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명사절에 쓰인 ‘것’은 지시사 ‘그’와 결합할 수 없고 복수 표지와도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사성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명사절의 ‘것’은 의미가 추상화되어 일반적인 보절 명사와 대치되지 못하는 때도 존재하고 ‘-ㄴ/ㄹ 것’이 독립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것’은 보절 명사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 ‘-ㄴ/ㄹ’과 결합하여 이미 하나의 문법적 요소로 굳어진 것으로 보았고, 논항 자리뿐 아니라 부가어 자리에 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절자보다는 명사화소라는 술어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3.4.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에서 언급해 온 여러 ‘것’이 포함된 분열문 구성을 살펴보았고, 본고에서 ‘관형사형 어미 + 것은/이 ~이다’라는 형식만 분열문 구성으로 본다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분열문 구성의 ‘것’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ㄴ’ 이외에 ‘-ㄹ’도 쓰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분열문 구성의 ‘것’ 뒤에 올 수 있는 조사는 주로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은’이고, ‘것’ 뒤에 올 수 있는 서술어는 계사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열문 구성의 ‘것’은 지시사 ‘그’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복수 표지 ‘-들’과의 결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휘적 기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분열문 구성의 ‘것’은 분열문을 구성하는 데 분열된 성분인 ‘x’를 대신하여 쓰이고, 비분열된 성분으로 구성된 관형사절이 ‘이다’의 주어가 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준분열문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일부 선행 연구에서 절연결 기능을 한다고 본 ‘-ㄴ 것이’를 준분열문 체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하였고, 이때의 '것'은 분열문 구성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어미로 쓰이는 '것' 구성과 어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 구성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4.1.에서는 종결어미로 쓰인 '것' 구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ㄹ게'는 화자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약속'과 '의도'의 두 가지 구체적인 의미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2인칭이 올 때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ㄴ걸'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기능을 하고 문맥에 따라 '반박'이나 '놀라움' 등 여러 문맥적 의미가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어도 되다' 등 일부 특정한 표현과 같이 출현하는 '-는걸'은 '후회'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ㄹ걸'은 '추측'과 '후회'라는 의미를 가지며, 각각 인식 양태와 감정 양태에 속한다는 것과 함께 이들 간에 존재하는 여러 통사적인 차이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ㄹ 것'은 뒤에 복원할 수 있는 서술어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명령하다'와 같은 서술어로 복원할 수 있어도 인칭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는 점을 통해 이를 일종의 탈종속화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ㄹ 것' 앞에는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나 계사도 올 수 있으며, '-ㄹ 것'이 당위를 표현하거나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므로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4.2.에서는 연결어미처럼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구성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결어미적 쓰임을 가진 '-ㄴ 것이'는 '화자의 추론 근거'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추론'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이때 '추론의 근거'는 화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내용이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또한 '-ㄴ/ㄹ 것을'은 '-은데'처럼 앞에 오는 내용이 후행하는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배경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그중에서 '-ㄴ 것을'은 '배경 설명'과 '대립 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나 '-ㄹ 것을'은 '대립 관계'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다는 것이/것을'이 연결하는 선·후행절은 각각 '의도한 사건'과 '의도와 어긋난 사건'을 표현하는데, '-다는 것을'의 경우 의도를 가지는 사람과 그 의도와 어긋난 사건을 행하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ㄹ 것을'을 '-다는 것이/것을'로 대체하면 선행절 내용이 주어가 한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것이

라는 의미도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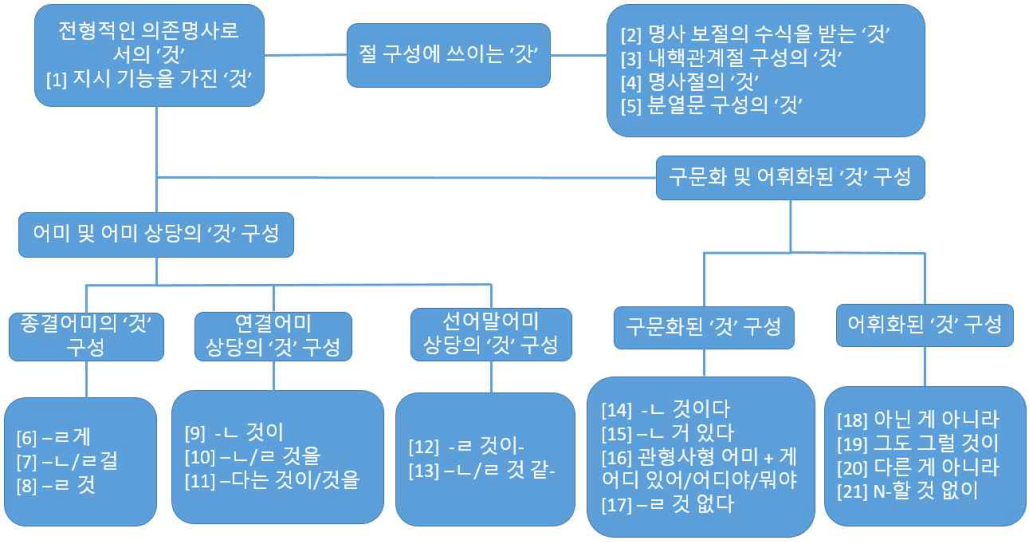
4.3.에서는 선어말어미 상당 구성으로 본 '-ㄹ 것이-'와 '-ㄴ/ㄹ 것 같-'을 살펴보았다. 먼저 '추측', '의도', 그리고 '예정'의 의미를 가진 '-ㄹ 것이-'는 '추측'이나 '의도'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낼 때 행위 주체가 1인칭이어야 하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통해 이를 화·청자 지향적 양태 표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일반적인 지식을 개입하지 않으면 시각과 같은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정보로 추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ㄴ/ㄹ 것 같-'의 앞에 '-다는'이라는 형태도 올 수 있는 것을 언급하였고, '추측'의 의미를 가진 '-ㄹ 것이-'에 비해 '-ㄹ 것 같-'이 나타내는 화자의 확신 정도는 낮기 때문에 거절 화행이나 제안·요청 화행에서 화자의 의지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는 '-ㄹ 것 같-'이 더 선호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제5장에서는 어미적 기능이 없지만 다른 특정한 의미 기능이 나타나는 '것' 구성을 살펴보았다. 5.1.에서는 '-ㄴ 것이다'를 살펴보았는데 '-ㄴ 것이다'는 일종의 응집성 장치로서 기본적으로 담화 의존성을 보이고 선행하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한편, 구어에 쓰이는 '-ㄴ 것이다'는 담화 의존성을 보이지만,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도 존재하며, 이때의 '-ㄴ 것이다'를 의미 탈색 현상을 겪는 예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때 '-ㄴ 것이다'가 명제 논항을 요구하는 서술어가 존재하는 환경에 쓰이거나 화자의 판단을 표현할 때 이는 명제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하나, 명제 내용이 필요하지 않은 문맥에 쓰일 때는 생략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5.2.에서는 '-ㄴ 거 있다'는 종결어미 '-지'와만 결합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나 어떤 상태 자체를 말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논의하였다. '-ㄴ 거 있다' 구문에서는 화자가 청자가 자신(화자)이 말하는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종결어미로 '-지'가 쓰이는데, 이는 청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청자의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았다. 5.3.에서는 '-ㄴ/ㄹ 게 어디 있어', '-ㄴ 게 어디야', '-ㄹ 게 뭐야' 등 일련의 의문사가 포함된 구문을 논의하였는데, '-ㄴ/ㄹ 게 어디 있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만 '-ㄴ 게 어디야'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ㄹ 게 뭐야'는 앞에 오는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것인데 비현실을 의미하는 관형사형 어미 '-ㄹ'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

고, 이 구문 전체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화자의 '원망'이나 '불만'의 태도를 표현한다는 것을 밝혔다. 5.4.에서는 '-ㄹ 것 없다'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며, 평서문에만 쓰일 수 있다는 점과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5.5.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등 거의 어휘화된 '것' 구성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는 현실이 화자의 기대나 예상에 부합함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화자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마침 떠올라서 상대방에게 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 이때 '아닌 게 아니라' 뒤에 오는 내용이 현실이 아닌 화자의 생각임을 언급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는 일반적으로 앞에 오는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붙일 때 사용되고, 역행적 인과관계를 표시하는 기능뿐 아니라 선행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부연 설명을 연결해 주는 기능도 가진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가 쓰인 문장은 '그러할 만하다'는 의미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평가의 대상으로 화자가 올 수 없지만, 화자가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생각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밝혔다. '다른 게 아니라'는 '무엇은 다른 게 아니라 ~이다' 구문에 나타날 때 초점 부사 '바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며, '원인/이유'를 제시하는 문장 앞에 쓰일 때는 이 원인/이유가 유일한 원인/이유임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청 화행과 같이 쓰일 때는 상대방에 대한 소극적인 체면 위협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N-할 것 없이' 앞에는 의미가 반대되는 어휘들이나 한 부류에 속하는 개체들, 혹은 부정칭 대명사로 쓰인 의문사가 올 수 있음을 밝혔고, '무엇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다음 <그림 1>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여러 구성에 쓰이는 '것'의 용법을 제시한다.



<그림 1> 여러 구성에 쓰이는 '것'의 용법

이상으로 본고에서 검토한 여러 구성에 쓰이는 '것'의 용법을 정리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풀지 못한 문제도 남아 있다. 첫째, 본고에서는 주로 공시적인 측면에서 '것'의 여러 용법을 살펴보았는데, 통시적인 논의를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전형적인 의존명사로서의 '것'부터 거의 문법적 의미만 가지는 문법 요소인 '것'으로 변화는 과정을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언어 유형론의 관점이나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것'의 용법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예컨대 중국어의 '的'은 한국어의 '것'과 많은 비슷한 용법을 가지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조언어학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Ⅰ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고려대 한국어대사전』, https://dic.daum.net/index.do/2022. 09. 02.

국립국어연구원,『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2. 09. 02.

백봉자(2006),『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하우.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dic/2022. 09. 02.

Ⅱ 논저류

강범모(1983), 한국어 보문명사 구문의 의미 특성,『어학연구』1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3-73.

강소영(2004),『명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 한국문화사.

강현화(2008), '-을걸'의 특성과 후회표현의 양상,『이중언어학』38, 이중언어학회, 43-68.

개맹(2019), 한국어 구어의 '-ㄴ/는 것이다' 구문의 표현 기능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소력(2018), 한국어 '것'과 중국어 '的'구문 대조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소력(2021), 한·중 초점 구문 대조 연구 -분열문과 제시문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성환(2003),『국어 명령문에 대한 연구』, 역락.

고성환(2012), 명령문 서술어의 제약,『통합인문학연구』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87-110.

고영근(1970), 現代國語의 準自立形式에 對한 硏究 -形式名詞를 中心으로-,『어학연구』6(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7-55.

고재필(2017),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창운(1991), ‘-겠-’과 ‘-ㄹ 것이-’의 용법,『겨레어문학』15,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595-614.
구분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한국어 문법 총론Ⅰ』, 집문당.
권영은(2008), 한국어교육에서의 후회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은(2020가), 구어체 종결어미 ‘-을걸’의 양태 의미 연구,『한국어 의미학』67, 한국어의미학회, 165-202.
권영은(2020나), ‘-을걸’의 의미와 기능 연구,『한국어 의미학』70, 한국어의미학회, 301-338.
권재일(1984), 현대국어의 약속문 어미 연구,『우리말 글』2, 우리말글학회, 41-56.
김광희(2011), 대용 표현,『국어학』60, 국어학회, 360-388.
김건희(2021), 국어 명사화와 명사화된 절에 대한 일고찰,『국어학』97, 국어학회, 147-176.
김병건(2015), {-는걸}과 {-을걸}의 양태 의미 연구,『한글』309, 한글학회, 65-94.
김상기(1994), ‘관형사형어미+것이다’ 구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민(2021), 한국어 인식양태의 범주 연구 -증거양태 및 내면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석진(2020), 한국어 분열문의 정보구조와 문장구조,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영(2011), 형용사·동사 양용 용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혜(2019), 한국어의 우언적 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혜(2021가), ‘-ㄴ/ㄹ 것 같다’ 구문에 쓰인 ‘같다’에 대한 연구,『한민족어문학』91, 한민족어문학회, 9-34.
김선혜(2021나), 한국어의 접어 범주 정립을 위한 시론,『한글』82(3), 한글학회, 781-807.
김선효(2004), 인용구문 ‘-다고 하는’과 ‘-다는’의 특성,『어학연구』40(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61-176.
김양진(2008), 접어와 기능어 -형태론적 단위와 통사론적 단위-,『한국어학』38, 한국어학회, 1-31.
김연경(2022), 구어체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을/은/는걸'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2000), 쪼갠문의 기능과 통사,『어문학』69, 한국어문학회, 65-90.
김용하(2013),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에 대한 소고,『현대문법연구』75, 현대문법학회, 83-99.
김은숙(2005), '것'의 축약표현에 관한 시고 -신문사설에서의 사용실태를 중심으로-,『평태대학교 논문집』19, 평택대학교, 185-196.
김은숙(2006), '것'의 축약표현에 관한 연구 (1) -90년대 이후 주요 일간지에서의 사용현황 비교를 중심으로-,『평태대학교 논문집』20, 평택대학교, 97-113.
김정민(2012), 한일 문말형식의 증거성과 의외성 기능 -'것이다'와 'のだ'를 중심으로-,『인문연구』6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7-48.
김종복·강우순·안지영(2008가), 말뭉치에 나타난 '것'구문의 유형 및 특징,『언어과학연구』45, 언어과학회, 141-163.
김종복·이승한·김경민(2008나),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것' 구문의 문법적 특징,『인지과학』19(3), 한국인지과학회, 257-281.
김종복·김태호(2009), '것' 보문절의 문법적 특징 -말뭉치 조사를 바탕으로-,『언어과학연구』48, 언어과학회, 181-199.
김지은(2002), 관형절의 한 유형에 대한 연구,『애산학보』27, 애산학회, 157-185.
김진웅(2002), 국어 보문명사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섭(2011),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 구성,『국어학』62, 국어학회, 47-72.
김창섭(2012), '같다'의 의미와 기본 구문,『진단학보』116, 진단학회, 217-259.
김천학(2020), 보절의 사실성에 대한 고찰,『한국어학』86, 한국어학회, 179-204.
김태호·김종복(2010), 한국어 '것' 구문의 명령용법,『현대문법연구』59, 현대문법학회, 25-37.
김해연(2011), 국어 담화에서의 '-는 것 같다'의 화용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기능,『언

어와 언어학』 52,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5-51.
김흥수(1993), 명사화 관련 '것' 구조에 대한 의미 기능적 접근,『언문학 논총』 1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93-108.
남가영(2009), 문법지식의 응용화 방향 -신문텍스트에 나타난 '-(다)는 것이다' 구문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형태론』 11(2), 형태론, 313-334.
남기심(1973),『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남기심(1991), 불완전명사 '것'의 쓰임,『국어의 이해와 인식』(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 기념논문집), 한국문화사, 71-88.
남기심(2001),『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남기심 외(2019),『새로 쓴 표준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남길임(2004),『현대 국어 '이다'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남길임(2006), 말뭉치 기반 국어 분열문 연구,『형태론』 8(2), 형태론, 339-360.
다카치 토모나리(2016), '-(으)ㄹ 것이-'와 '-ㄹ 터이-'에 대한 일고찰,『언어와 정보사회』 27,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87-118.
도재학(2019). 반사실성의 개념과 특성, 단일절에서의 언어화에 대하여,『형태론』 21(2), 형태론, 182-209.
류현미(1989), 현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명정희(2014), 양태 의존명사 구문의 융합형 연구 -'터'와 '것'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명정희(2021), 한국어 양태 구문의 의미 해석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목정수(2003),『한국어 문법론』, 월인.
무량문(2016), 의문사 비의문 용법에 대한 한·중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병열(2007), 한국어의 보문 구성 양태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숙영(2009),『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문숙영(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계절의 몇 문제,『개신어문연구』 35, 개신어문학회, 31-68.

문숙영(2015), 한국어 탈종속화의 한 종류,『한국어학』69, 한국어학회, 1-39.
문숙영(2017),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것' 명사절,『국어학』84, 국어학회, 33-88.
민경모(2008), 한국어 지시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재기(1991), 한국어 관계절에 관한 연구,『인문과학논총』23,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9-78.
민현식(1999),『국어 문법 연구』, 역락.
박금자(1987), 국어의 명령표현 연구,『관악어문연구』1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5-91.
박나리(2012), '-는 것이다' 구문 연구 -문법기능과 담화기능 그리고 화자의 담화전략의 상관성을 중심으로-,『국어학』65, 국어학회, 251-279.
박명관(2019), 한국어 명세화 의사분열 구문 -'것'-분열절의 허사적 성격-,『언어와 정보 사회』38,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5-64.
박미은(2016), 지시 화행에 사용되는 "-(으)실게요" 연구 -서비스 제공 상황을 중심으로-,『한국어 의미학』51, 한국어의미학회, 137-154.
박민희(2019), 의존명사를 포함한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숙어-연어 통사 분석 자료 구축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현(2009), 추측 표현 '것 같다'의 완곡 기능 연구 -구어 전사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영(2001), '-은 것이다' 구성의 텍스트 분석,『한국 텍스트과학의 제과제』, 역락, 135-158.
박소영(2014), 한국어 분열문의 통사구조와 생략이론,『언어학』68,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5-57.
박소영·김석진(2019), '-기는' 그리고 '-것은' 분열문과 한국어의 외곽구조,『생성문법연구』29(2), 한국생성문법학회, 235-258.
박숙영(2006), 의지 표현들의 의지 정도성 비교 -'-겠어요', '-(으)ㄹ거예요', '-(으)ㄹ래요', '-(으)ㄹ게요'를 중심으로-,『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1-42.

박재남(2013), 구어에서 해라체 서술형 종결어미 ‘-다’의 의미적 특징,『한국어와 문화』13,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171-200.
박재연(1998), 현대 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2003), 국어 양태의 주어 지향성과 화·청자 지향성,『국어학』41, 국어학회, 249-275.
박재연(2006),『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박재연(2013), 한국어 의도 관련 어미의 환유적 의미 확장,『국어학』68, 국어학회, 253-288.
박재연(2018), ‘-겠-’과 ‘-을 것이-’의 비대립 환경과 대립 환경,『국어학』85, 국어학회, 113-149.
박재연(2019), 한국어 어미의 의미 기능과 문법 범주,『한국어 어미의 의미』, 집문당. 211-237.
박재희(2018), 국어 문법 단위와 접어 설정에 관해서,『코기토』8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19-244.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호(2011가), 시제, 상, 양태,『국어학』60, 국어학회, 289-322.
박진호(2011나), 韓國語에서 證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 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언어와 정보사회』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박진호(2013), 日本語の「ノダ」文と韓国語の「-은 것이다」構文をめぐって, 日本东京大学 KOREA COLLOQUIUM 발표 논문.
박진호(2019가), ‘아닌 게 아니라’와 ‘아니나 다를까’에 대하여 -기대논리에 대한 언어학적 탐색 시론-, 한국어통사론연구회 발표 논문.
박진호(2019나),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의 의미 연구,『한국어 의미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1243-1280.
박진호(2020), 의미의 일반화와 특수화,『중국조선어문』229,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6-33.
박진희(2011), 국어 절 접속의 의미관계 유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철우(2008), 국어 분열문의 통사구조,『한말연구』22, 한말연구학회, 77-96.
박형진(2016),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형진(2019), 한국어의 일명 내핵관계절 구성의 통사와 의미,『반교어문연구』52, 반교어문학회, 87-118.
방성원(2001), 국어 보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주채(2017), 교체의 개념과 조건,『국어학』81, 국어학회, 295-324.
서반석(2021), '결과'의 내면화와 의미 층위의 관계 연구 -접속 부사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 서'와 '-ㄴ 것이다' 구문을 중심으로-,『언어와 정보 사회』43,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09-137.
서정목(1993), 한국어의 구절 구조와 엑스-바 이론,『언어』18(2), 한국언어학회, 395-435.
서정수(1978), 'ㄹ 것'에 관하여 -'겠'과의 대비를 중심으로-『국어학』6, 국어학회, 85-110.
손욱(2022), 한국어 '-ㄴ 것이다' 구문과 중국어 '是……的' 구문의 대조 연구,『이중언어학』86, 이중언어학회, 145-170.
손춘섭(1992),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춘섭(1997), 의존명사 '것'에 대한 고찰,『한국언어문학』38, 한국언어문학회, 47-62.
손혜옥(2016),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대헌(2015),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은데'의 의미와 담화 기능 연구,『국제어문』66, 국제어문학회, 167-191.
송영주(1985), 현대국어의 불완전명사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재목(2016), 의외성(mirative)에 대하여 -독립된 문법범주 설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언어』41(4), 한국언어학회, 593-617.
송철의(1993), 준말에 대한 형태 음운론적 고찰,『동양학』2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5-49.
시정곤·김건희(2009), 의존명사 구문의 양태적 고찰,『한국어학』44, 한국어학회, 177-212.

신선경(1993), ‘것이다’ 구문에 관하여,『국어학』23, 국어학회, 119-158.
신지연(2008), 국어 대명사의 품사론,『한국어학』38, 한국어학회, 33-56.
안명철(1989), ‘것’ 명사구와 ‘고’ 보문에 대하여,『외국어교육연구』4, 대구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65-78.
안명철(1990), 국어의 융합 현상,『국어국문학』103, 국어국문학회, 102-137.
안명철(1999), 보문의 개념과 체계,『국어학』33, 국어학회, 337-365.
안정아(2003), ‘것’, ‘터’, ‘모양’의 양태 의미 연구,『어문논집』47, 민족어문학회, 105-128.
안주호(2002), 종결어미 ‘-ㄹ게’의 통사적·의미적 정보,『새국어교육』63, 한국국어교육학회, 101-119.
안주호(2016), 한국어 해라체 종결어미 ‘-다, -ㄴ다’의 구어 사용 양상 연구,『한국언어문학』96, 한국언어문학회, 7-31.
안주호(2017), 종결어미 {-(으)실게요}의 기능과 형성과정,『담화와 인지』24(1), 담화·인지언어학회, 47-67.
안효경(1999), 현대 국어 의존명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효경(2001),『현대 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역락.
양인석(1976), 한국어 양상의 화용론(Ⅰ) -제안문과 명령문-,『언어』1(1), 한국언어학회, 121-141.
양명희(1998),『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태학사.
양태영(2005), ‘것이다’ 구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재훈(2012),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관계절 연구,『국어학』63, 국어학회, 413-459.
연재훈·박종원(2021), 보문절, 내핵관계절,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의 통사의미론,『언어학』90, 한국언어학회, 129-154.
염재일(2014), 소위 강조구문과 “것”의 의미,『언어와 정보』18(2), 한국언어정보학회, 103-122.
오규환(2018), 의존 명사 ‘것/거’의 조사 결합형과 관련한 몇 문제,『국어학』87, 국어학회, 185-210.

오승은(2018가), 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 -추측과 의도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승은(2018나), '-겠-'과 은유적 관계에서 본 '-을게'의 미래성과 양태적 의미,『국어학』85, 국어학회, 181-210.
왕문용·민현식(1993),『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우형식(1987가), 국어의 관형절과 핵심명사,『원우론집』15(1), 연세대학교 대학원, 143-189.
우형식(1987나), 명사화소 '-(으)ㅁ, -기'의 분포와 의미기능,『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1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19-160.
우형식(1995), 의존명사 '것, 바, 줄'의 분포와 의미기능,『한어문교육』3,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5-38.
위혜경(2015), 분열문의 의미와 초점 후치사의 수의성,『언학연구』5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771-792.
위혜경(2016), 것-분열문 주어의 상위언어적 의미,『언어와 정보』20(1), 한국언어정보학회, 111-125.
유영영(2016), 한국어 명사와 부사의 중복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현경(2018가), 한국어 명사절의 범위에 대한 연구,『한글』79(1), 37-66.
유현경(2018나), 보어를 요구하는 용언의 범위와 유형 -표준국어대사전 용언 목록을 중심으로-,『한국사전학』31, 한국사전학회, 117-146.
유현경(2019), 보어의 문장성분론,『형태론』21(2), 형태론, 108-134.
윤석민(2000),『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윤용선(1989), 名詞句 補文의 補文字選擇制約에 대한 硏究 -依存名詞를 中心으로-,『국어국문학』101, 국어국문학회, 281-303.
윤은경(2006), 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 -종결어미 '-(으)ㄹ래, -(으)ㄹ게'를 대상으로-,『언어와 문화』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41-68.
윤이운(2019), '-ㄴ/ㄹ 것' 구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평현(2005),『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이금희(2013), 종결어미 ‘-(으)ㄴ걸’, ‘-는걸’과 ‘-(으)ㄹ걸’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 특성, 『한국어 의미학』 42, 한국어의미학회, 111-139.
이민(2012), 구어체 종결어미 ‘-을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웅(2004), 미지의 한자어 의존명사에 대하여, 『형태론』 6(2), 형태론, 251-276.
이선웅(2014), 한국어 명사류어의 명사성 검증, 『어문연구』 4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62.
이소영(2022), ‘-을걸’의 의미와 문법 지위에 대한 단상, 『형태론』 24(1), 형태론, 150-181.
이순욱(2017), 한국어 양보의 표현 방책과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아총(201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것’ 양태 구문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제(2013), 한국어 기능명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윤복(2019), 한국어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진·노지니(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연구 -‘추측’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3-209.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태학사.
이은섭(2015), 의존 명사 ‘것’으로부터 도출된 몇몇 형식에 대한 고찰, 『비교문화연구』 4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45-273.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정민(1975), 언어행위에 있어서의 양상구조, 『현대국어문법』, 계명대학출판부, 301-309.
이정택(2012), 우리말의 보어 설정, 『한말연구』 31, 한말연구학회, 173-193.
이정훈(2020), 내핵 관계절 구성과 분열문의 ‘것’의 통사론, 『한글』 81(1), 한글학회, 45-81.
이정희(2005), 현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통사적 제약과 기능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행(1986), 不完全名詞에 대한 硏究 -構文上에서 他形態와 共起關係를 중심으로-,

『國語學新硏究(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 탈출판사, 305-320.
이준희(2021), '-다는 것을/것이' 구문의 연결어미적 양상과 기능,『한국어학』92, 한국어학회, 155-197.
이지수(2016), 한국어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영(2017), '-은걸'과 '-을걸'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일고찰,『한국어 의미학』57, 한국어의미학회, 21-48.
이지은(2020),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 및 유사 구성 연구,『국어학』95, 국어학회, 167-210.
이지은(2021),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 및 부사절로의 의미 확장 연구,『어학연구』57(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51-85.
이진호(2014),『국어 음운론 강의』(개정판), 삼경문화사.
이필영(1998가), 명사절과 관형사절,『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491-516.
이필영(1998나), 국어의 인지 표현에 관한 연구 -관형구성의 불확실성 표현을 중심으로-,『한국어 교육』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9-198.
이필영(2012), 추정과 비추정의 '-겠-'의 의미,『어문연구』73, 어문연구학회, 109-126.
이한규(2001), '-것 같-'의 화용 의미,『텍스트언어학』1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69-291.
이현희(2012), 개화기 한국어의 일면 -낙선재본 번역소설 ≪홍루몽≫을 중심으로-,『관악어문연구』3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81-99.
이홍식(1990), 현대국어 관형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홍식(1999), 명사구 보문,『국어학』33, 국어학회, 367-398.
이후인(2022), 한국어 접속 현상에 대한 담화 해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규홍(1986), 국어 분열문에 관한 연구,『어문학』48, 한국어문학회, 155-175.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한국어 의미학』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임동훈(2011가),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국어학』37, 국어학회, 323-359.
임동훈(2011나), 체계적인, 너무나 체계적인 -박재연(2006)을 중심으로-,『형태론』13(1), 형태론, 107-123.
임채훈(2009), 事件 好否 評價 樣態性 表現 硏究 -意味 體系 設定 및 表現 項目 提示를 中心으로-,『어문연구』3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5-81.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 특성에 대하여,『국어학』2, 국어학회, 83-104.
임효진(2017), 해라체 종결어미 {-다}의 담화 맥락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미라(2009), '-은/는 것이다' 구성의 표현 문형 설정과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한국어 교육』2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9-253.
장채린(2017), 한국어 의지·이도 표현들의 의미 비교 -'-겠-', '-을 것이-', '-을게(요)', '-을래(요)'를 중심으로-,『한국어 의미학』56, 한국어의미학회, 1-34.
전혜영(2005), 구어 담화에 나타나는 '-ㄴ 것이'의 화용 의미,『국어학』46, 국어학회, 255-276.
전휘(2022), 문법화론에 기반한 현대 한국어 융합형 종결어미 형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경미(2016), 한국어 추론 증거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경재(2008), 불완전계열의 변화 방향 고찰,『형태론』10(1), 형태론, 19-38.
정상철(2016), <~ㄴ 것이다>의 텍스트 기능과 의미,『텍스트언어학』4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45-267.
정연주(2019), '-을게(요)'의 기능 확장,『한국어 의미학』64, 한국어의미학회, 107-129.
정원돈(2017), 접어의 형성,『언어학 연구』43, 한국중원언어학회, 83-99.
정주리(1994), 국어 보문 동사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주리(2004),『동사, 구문, 그리고 의미』, 국학자료원.
정주리(2006), '-음', '-기'의 의미와 제약,『한국어학』30, 한국어학회, 291-318.
정혜선(2013), 국어 인식 양태 형식의 역사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혜선(2017), 종결어미 ‘-ㄴ걸’, ‘-ㄹ걸’의 형성에 대하여,『언어와 정보 사회』32,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41-265.
정호완(1983), 불완전명사 ‘것’에 대한 고찰,『우리말글』1, 우리말글학회, 49-72.
정효문(2013), 한국어 종결어미 ‘-던걸, -(으)ㄴ/는걸, -(으)ㄹ걸’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희정(2001),『한국어 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조민영(201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현문형 ‘-는 것이다’의 담화기능 연구 -문법화를 통해 획득한 양태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수근(2014), 한국어 내핵 관계절의 용인성에 대한 연구,『언어학』22(2), 대한언어학회 183-198.
조수근(2016), 구어 말뭉치 분석을 통한 한국어 내핵관계절 연구,『언어정보』23,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77-94.
조용준(2016), 한국어의 의외성 범주의 실현과 그 양상,『한말연구』40, 한말연구학회, 251-278.
조윤행(2021), 한국어 표현문형 ‘-은/는 것이다’ 담화기능 -사적 대화를 중심으로-,『언어사실과 관점』5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81-309.
조인정(2011), 표현 문형 ‘-은/는 것이다’의 담화 기능,『한국어 교육』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29-349.
주경희(1992), 국어 대명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상대(1996), 의존명사 ‘것’의 음운현상,『한국어학』3, 한국어학회, 481-499.
주시경(1910),『國語文法.全』, 박문서관.
진관초(2018),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 ‘-다’의 의미 기능에 대한 기술 문제,『어문논총』32,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81-124.
진염평(2013), 의존명사 ‘것’의 이형태 ‘거/걸’의 정립을 위한 시론,『어문연구』4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5-79.
채숙희(2013),『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태학사.
채유영(2015), 현대국어 명사형 어미 ‘-음’과 ‘-기’의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희락(2007), 접어와 한국어 품사 분류: 품사 재정립 및 띄어쓰기 재고,『언어』 32(4), 한국언어학회, 803-826.
최규일(1993),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새국어교육』50(1), 한국국어교육학회, 63-127.
최기용(2011), 한국어 균열 구문의 '것' -빈 NP 체우기로서의 '것'-,『생성문법연구』, 한국생성문법학회, 21-47.
최대희(2012), '것' 구조의 문법화,『겨레어문학』48, 겨레어문학회, 401-430.
최동주(2009), 종결어미 '-ㄹ걸'의 기능과 문법적 특성,『국어학』54, 국어학회, 225-250.
최윤지(2008), 한국어 분열문의 의미 연구 -정보 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지(2016가),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윤지(2016나), 구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어떤 통사구성에 대하여: 준분열문,『국어학』79, 국어학회, 187-237.
최윤지(2017), 관형사절이 단언을 나타내는 열린 분열문에 대하여,『언어사실과 관점』4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99-134.
최윤지(2019), 접속부사어 '그도 그럴 것이'의 통사와 의미 -(준)분열문과 기대논리-,『국어학』92, 국어학회, 319-348.
최종원(2018), 특수한 '-은/는 것이', '-을 것을' 구성의 통시적 양상 -한글 간찰 자료를 중심으로-,『국어학논집』제8집, 역락, 125-149.
최종원(2022), 구문적 숙어의 유형과 형성,『한국어학』95, 한국어학회, 143-178.
최현배(1937/1975),『우리말본』, 정음사.
탕이잉(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지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으)ㄹ게'와 '-(으)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운하(2019), '-것 같다' 구문의 의미와 형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길(1991),『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한길(2004),『현대 우리말의 마침씨끝 연구』, 역락.

한명주(2008), 형식명사 구성의 ‘추측’ 표현 연구,『한성어문학』2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49-174.
한지수(2022), 한국어 의존명사의 범주성과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진희·홍성심(2013), 한국어 ‘-것’의 통사범주와 범주 자질,『언어연구』29(2), 한국현대언어학회, 345-361.
허경행(2010),『한국어 복합종결어미』, 박문사.
허인정(2013), 현대국어 의존명사 ‘것’에 관한 연구, -형태적 변화와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호은정(2008), 의존명사의 범주 연구 -개념적 특성을 통한 범주 변별을 중심으로-,『어문연구』3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1-157.
홍사만(2006), 국어 의존명사 {것}의 사적 연구,『어문론총』44, 한국문학언어학회, 101-144.
홍용철(2015), “것” 분열 구문의 초점 요소에 대한 기저 생성 분석,『생성문법연구』25(1), 한국생성문법학회, 159-180.
홍재성(2001), 한국어의 명사 Ⅰ,『새국어생활』11(2), 국립국어연구원, 129-144.
홍종선(1985), 국어 체언화의 개념과 범주,『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17-137.
황병순(2004), 한정 명사절과 비한정 명사절,『배달말』34, 배달말학회, 5-25.
황지영(2019), 한국어 [추측] 표현의 공손성 실현 연구 -의존명사 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후박문·박진호(2022), 기대와 추론의 언어적 표현 양상,『한국어의미학』77, 한국어의미학회, 57-101.
후총(2017), 부사 ‘바로’의 통사 및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drews, Avery D.(2007), Relative clauses, In Spopen, T (ed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ume Ⅱ: Complex Constructions* (2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e, H-R.(2020), *Korean Morphosyntax: Focusing on Clitics and Their Roles in Syntax*. Routledge.

Choi, Y.-S.(2014),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in Korean: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3): 133-154.

Chung, C. & Kim, J.-B.(2003), Differences between externally and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 In Jong-Bok Kim and Stephen Wechsler (eds.), The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PSG, 43-65.

Chung, D.-H.(1996), On the Structure of the So-called Head Internal Relative Construction. *Proceedings of the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11: 393-402.

Chung, D.-H.(1999), A Complement Analysis of the Head Internal Relative Clauses, *Language and Information* 3(2): 1-12.

Culy, C.(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Ph.D. thesis, Stanford University.

de Cuba, C.(2017), Noun Complement Clauses as referential modifiers,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2(1): 1-46.

Dixon, R. M. W.(2006), Complement Clauses and Complementation Strategi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R. M. W. Dixon and Alexandra Y. Aikhenvald (eds.), *Complemen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48.

Dixon, R. M. W.(2010), *Basic Linguistic Theory, vol Ⅱ(Grammatical Topics)*, Oxford University Press.

Dixon, R. M. W.(2012), *Basic Linguistic Theory, vol Ⅲ(Further Grammatical Topics)*, Oxford University Press.

Genetti, C.(2011), Nominalization in Tibeto-Burman languages of the Himalayan area: A typological perspective, In Foong Ha Yap, Karen

Grunow-Hårsta and Janick Wrona (eds.), *Nominalization in Asian Languages: Diachronic and typological perspectiv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63-193.

Gerner(2012), The Typology of Nominalization, *Language and Linguistics* 13(4): 803-844.

Grice, H. P.(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Academic Press, 41-58.

Hartmann, K. & Veenstra, T.(2013), Introduction, *Cleft Structur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Jhang, S.-E.(1994), *Headed Nominalizations in Korean: Relative Clauses, Clefts, and Comparatives*, Ph.D. thesis, Simon Fraser University.

Jo, M.-J.(2003), The Correlation Between Syntactic Nominalization and the Internally Headed Rel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3(4): 533-564.

Kang, B.(2006), Some Peculiarites of Korean kes Cleft Constructions, *Studia Linguistica* 60(3): 251-281.

Kim, J.-B., Bender, E. & Bond, F.(2013), Parsing cleft constructions in Korean: An HPSG approach, *Linguistic Research* 30(3): 517-537.

Kim, J.-B. & Sells, P(2007), Some Remarks on Korean Nominalizer kes and Information Structure,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7(4): 479-494.

Kim, J.-B. & Sells, P(2013), Interactions between (Pseudo-) Cleft and Copular Constructions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30(1): 93-139.

Kim, M.-J.(2004), *Event-Structure and the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 in Korean and Japanese*.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Kim, M.-J.(2007), Formal linking in Internally Headed Relatives, *Nat Lang*

Semantics 15: 279-315.

Kim, M-J.(2009), E-type Anaphora and Three Types of Kes-construction in Korean, *Natural Language & Language Research* 27: 345-377.

Kim, S-S. & Sells, P.(2017), Noun-modifying constructions in Korean, In Yoshiko Matsumoto, Bernard Comrie and Peter Sells (eds.), *Noun-Modifying Clause Constructions in Languages of Eurasia*, John Benjamins, 59-89.

Kim, Y.-B.(1996),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11: 403-413.

Kim, Y.-B.(2002), Relevancy i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Lingua* 112: 541-559.

Kiparsky. P. & Kiparsky. C.(1970), Fact, In Manfred Bierwisch and Karl Erich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Mouton, 143-173.

Krawmoh, Wanida(2018), 한국어 명령문과 청유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mbrecht, K.(2001),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left constructions, *Linguistics* 39(3): 463-516.

Lee, J.-E.(2021), Korean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Encoding Strategy and Semantic Relevance,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41(1): 1-32.

Lee, J.-R.(2006), *The Korean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 Its Morphological,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Arizona.

Noonan, M.(2007), Complementation, In Spopen, T (ed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ume Ⅱ: Complex Constru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52-150.

Palmer, F.(2001),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yne, T. E.(2010), Noun Complements vs. Post-Nominal Modifiers, [Internet] Available from: <http://pages.uoregon.edu/tpayne/UEG/UEG-additionalreading-ch9-nouncomplements.pdf>. [Accessed: May 2022]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e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s.

Searle, J. R.(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ng, S.-H.(2021), Different Types of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A Corpus-based Analysis, *Studies in Linguistics* 60: 89-114.

Song, J.-J.(1991), Korea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Conspiracy and pragmatics,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11: 195-220.

Song, J.-J.(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Routledge.

Spencer, A. & A. R. Luís.(2012), *Cli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weets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inert, R. & Miller, J.(1996), Cleft constructions in spoken language, *Journal of Pragmatics* 25: 173-206.

Yap, F.-H., Grunow-Hårsta, K. & Wrona, J.(2011), Introduction: Nominalization strategies in Asian Languages, In Foong Ha Yap, Karen Grunow-Hårsta and Janick Wrona (eds.), *Nominalization in Asian Languages: Diachronic and typological perspectiv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57.

Yeom, J.-I.(2020), Kes-copular construction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5(4): 941-976.

Yoon, H.-J.(2005), An Expletive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5(3): 385-396.

Yoon, H.-J.(2006), A multi-player in Korean: Kes, A paper presented at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held at University of Guadalajara, Mexico.

Yoon, H.-J.(2012), Different Types of Kes Constructions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2(3): 557-577.

山嶋義直(2007),『ノダの意味·機能：關聯性理論の觀點から』, くろしお出版.

原口庄輔·中村捷(1992),『チョムスキー理論辭典』, 研究社. [강명윤 역(1998),『촘스키 언어학 사전』, 한신문화사.]

<中文摘要>

韩国语‘것’相关结构的研究

孙煜(Sun Yu)
国语国文系 国语专业
国立首尔大学

‘것’是韩国语中使用频率最高的单词。本文最大程度网罗了包含‘것’的相关结构，以一定的标准将其分类，并对各个结构中使用的‘것’或该结构整体的语法语义特征进行描写。

本文的第二章主要对‘것’的分布和用法进行了考察。首先，在说明‘것’的多种用法前，本章明确了术语使用问题。本文不会采用替代词(substitute)、语缀(clitic)、功能名词等术语，并且考虑到其依存名词的名词特性，本文仅将仍然保留着名词特性的‘것’称为依存名词。其次，本章整理了‘것’在书面语和口语中出现的实际形态，并考察了它们与‘것’使用环境的异同。在一般情况下‘거’、‘게’、‘걸’等这些实际形态与‘것’的使用环境并无二致，仅在如‘아닌 게 아니라’的一部分惯用表达中，只能使用特定的形态。此外，本章考察了作为典型依存名词的‘것’的语法和语义特征，在此基础上增加条件，引出‘것’的其他用法并进行分类。根据‘것’所结合的前后要素的特点及‘것’相关结构的语法语义功能，本文将‘것’的用法大体分为在小句结构中使用的‘것’、作为词尾或准词尾使用的‘것’相关结构和构式化或词汇化的‘것’相关结构。

本文的第三章针对在小句结构中使用的‘것’的语法特征和语义功能进行了考察，并讨论了在名词补足语小句、核心内嵌（internally headed）关系小句、名词性小句和分裂句结构中‘것’的地位。当‘것’出现在名词补足语小句后作为补语句名词使用时，一般情况下可以找到与其对应的一般补语句名词，此时的‘것’具有词汇功能。在核心内嵌关系小句结构中使用的‘것’与核心内嵌关系小句中的核心名词形成共指关系，因此也具有词汇功能。为了使核心内嵌关系小句在句子中充当句子成分，‘것’还具有补足空位的语法功能。名词性小句中的‘것’语义大幅虚化，名词特性基本丧失，此时的‘것’与前面的冠形词词尾

‘-ㄴ/ㄹ’相结合形成了一个相当于名词化标记‘-음’或‘-기’的语法要素，一般出现在需要命题的位置上。分裂句结构中的‘것’一般只能与一些具有概括义的名词相互替换，但很难替换成具有具体语义的名词。此外其名词特性已经基本丧失，因此不具有词汇功能。此时的‘것’一般用于代替被分裂的成分‘x’，并具有使除被分裂成分外的其他成分所构成的小句能够成为‘이다’的主语的功能。

本文的第四章探讨了作为词尾或准词尾使用的‘것’相关结构的句法特征与语义特征。根据在句中出现的位置和承担的语法功能，本文将作为词尾或准词尾使用的‘것’相关结构分为作为终结词尾使用的‘것’相关结构、作为准连接词尾使用的‘것’相关结构和作为准先语末词尾使用的‘것’相关结构。在作为终结词尾使用的‘것’相关结构中，本章主要探讨了‘-ㄹ게’、‘-ㄴ/ㄹ걸’、‘-ㄹ 것’的特征，并指出了 ‘-ㄹ 것’属于去从属化现象的原因。在作为准连接词尾使用的‘것’相关结构中，本章考察了‘-ㄴ 것이’、‘-ㄴ/ㄹ 것을’、‘-다는 것이/것을’的特点，指出它们都无法在句子中充当主语或者宾语，并且它们连接的前后内容间存在特定的语义关系。在作为准先语末词尾使用的‘것’相关结构中，本章探讨了‘-ㄹ 것이-’和‘-ㄴ/ㄹ 것 같-’这两个结构，并考察了表推测语义的‘-ㄹ 것이-’和‘-ㄹ 것 같-’的语用差异。

本文的第五章对构式化的‘것’相关结构及词汇化的‘것’相关结构进行了探讨。本章首先对‘-ㄴ 것이다’、‘-ㄴ 거 있지’、‘冠形词词尾 + 게 어디 있어/어디야/뭐야’、‘-ㄹ 것 없다’等构式进行讨论。它们目前还很难看做是一个词尾或准词尾，但是它们具有一定特定的语义功能。本章其次对‘아닌 게 아니라’、‘그도 그럴 것이’、‘다른 게 아니라’、‘N-할 것 없이’等结构进行了考察。这些惯用表达已经词汇化，基本可以作为一个词汇进行使用。

本文的第六章对整篇论文的内容进行了总结并提到了本文尚未探讨到的一些内容。

关键词：‘것’相关结构、依存名词、名词补充语小句、核心内嵌关系小句、名词化小句、分裂句、词尾、准词尾、构式化结构、词汇化结构

学号：2019-39370